

건축사

2000 **04** vol. 372

칼럼 「99건축문화의 해」를 뒤돌아 보며

작품리뷰 과천뿔골감나무집

작품노트 건축시는 죄가 없다

테마기획 지역건축탐방 ⑩ : 복원(하)



A · R · C · H · I · T · E · C · T · S · G · A · L · L · E · R · Y

대한건축사협회전시장 대관안내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평(198m²)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5만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건축과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대관문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 지점)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124만원

Tomato 2000
AutoCAD LT 포함

“2D AutoCAD를

AutoCAD LT 2000

더 이상 적산/견적 프로그램은 고가일 이유가 없으며, 이제는 대한민국 건축인 모두가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2D설계 → AutoCAD LT2000
건축설계 → 라인아크 토마토 98/2000
AutoCAD와 똑같이 설계하십시오!

백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말한 AutoCAD LT

“AutoCAD는 제가 같이 일했던 대부분의 기사와 계약자들이 선호했던 설계소프트웨어입니다. 2D 및 제도용으로 AutoCAD LT는 광범위한 건축 설계노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선택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 James Larson
교장 및 일등건축가
Larson Architects

AutoCAD LT2000 소프트웨어는 100% AutoCAD 2000도면과 호환되기 때문에 AutoCAD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도면파일을 교환할 경우 가시적 동일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AutoCAD 릴리즈 14 및 13과도 호환되므로 이전 버전에서 작업했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AutoCAD LT2000 주요기능

1. AutoCAD Design Center

원도우 탐색기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도면의 블록, 해치 및 여러가지 속성을 작업도면에 쉽게 복사 할 수 있다.

2. 극좌표 추적 기능으로 제도 효율성 향상

3. 선 가중치 및 다중 배치의 지원으로 다양한 출력효과 창출

4. 명령 Undo/Redo 무제한적 실행

5. 다중도면 설계환경

다중도면을 동시편집 및 도면간의 데이터 교환가능

6.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의한 서브메뉴 감지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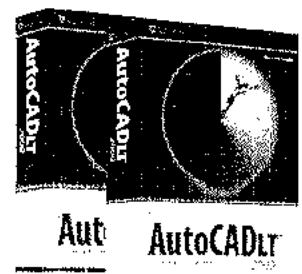
7. AutoCAD2000과의 완벽한 호환

8. AutoCAD2000의 2D설계기능 모두 수용

9. 편리한 인터넷 접근을 위한 웹도구 지원

WWW.AECKKOREA.COM

정보화 사업의 유능한 파트너, 충실한 동반자로서
AECKKOREA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전문 웹사이트로
각각의 사업분야에 전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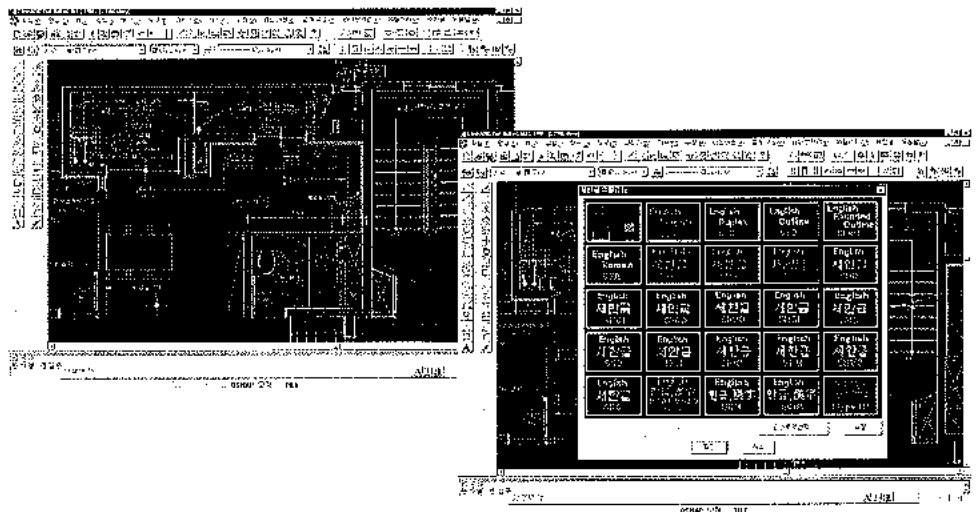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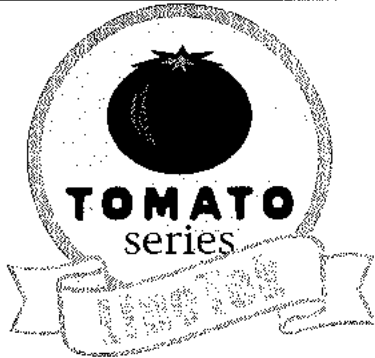


저렴하게 구입하십시오!!!

Millennium시대 개막 2D CAD에는?

LineARC Tomato 98/2000

These programs will be at the top in the 2D CAD world for the future



2D CAD의 확실한 왕좌 -
자체 기능의 99% +알파의 기능을 발휘 -
진정 건축설계의 필수품입니다.

라인아크 토마토98/2000 주요기능

■도면제도 환경설정

- 도면의 Scale size를 한번의 선택으로 자동설정
- 레이어 자동설정
- 치수환경 설정 관리자를 이용한
순쉬운 치수환경 변수 설정

■건축도면 요소 작성

- 벽 및 창호의 종류를 라이브러리화하여 자동입력
- 다양한 벽체 수정기능
- 자동치수 기입, M/C설계에 의한 치수기입
- 치수 기호 자동 변경기능

■구조도면 작성

- 보,기둥,계단,슬라브, 파일기초,옹벽기초등
각종 일람표 자동 작성
- 구조마크 자동 입력기능
- 구조마크의 형태 및 크기 사용자화
- 표준규격에 의한 철골 라이브러리 제공

■구적도 작성

- 지적도 면적 계산 및 자동 변경
- 구적도 및 면적 산출표 자동 작성
- 면적 단위 자동 환산

■심볼 라이브러리

- 건축 도면 작성시 필요한 심볼 라이브러리 제공
(엄선된 1100여개의 블록)
- 심볼을 종류와 Size별로 평면, 정면도 제공
- 편리한 심볼 라이브러리 관리도구 제공

DAO (주)다우데이타시스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13층
Tel : (02)3468-0500 Fax : (02)3468-0547
<http://www.daoudata.co.kr>

라인아크 토마토 98/2000 특징

■순수 C++/ARX 프로그램입니다.

■실행속도 15배이상 빨라졌습니다.

결국 진정한 C++/ARX 프로그램만이 LT위에서
구동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위한 모든 내용을

Programing 했습니다.(AutoCAD용 라인아크와 동일)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Win95/Win98/Win NT/WinNT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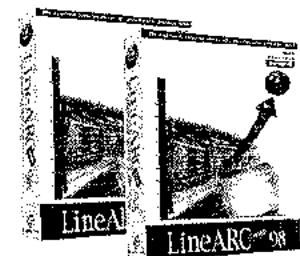
■PULL DOWN MENU에서 명령어를

실행 가능합니다.(Win95/Win98/Win NT/WinNT2000)

■명령어 입력 대화상자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찾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인아크 Utility)

■가장 어려운 기하해석을 C/C++로 코딩했습니다.

■Vector폰트와 타 한글의 Convert기능을 제공합니다. (세한글 폰트 사용)



21세기 건축·기계설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
(주)라인테크시스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천지빌딩
TEL : (02)569-1814 FAX : (02)569-1817
<http://www.linetek.co.kr> , <http://www.aeckorea.com>

POWER PLAN 의 더블데이트!

동시에 두개의 CAD와 만난다!

AUTOCAD 2000, R14는 당연하고, 2000년부터는
Intelli CAD 2000과 한 꾸러미에 !!

건축사 사무소
3교 1제 시대 !!
바꿔! 바꿔!

..... **POWER PLAN 2000이란?**

DOPS PRO + DOPS DESIGN + DOPS 3D (CAD지원프로그램)!

회사별 DB접속!

개략건축기능이 추가!

저가형 CAD 'Intelli CAD' engine이 내장!

CAD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UTOCAD와 호환되므로 사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1992년 출시 후 계속 발전되어 안전성이 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기능을 향상, 추가합니다!

IMF는 3교 1제로 풀어가야 하는시대!

성능!! 업무능력!! 경쟁력!!은 대폭올리고 ---가격부담!!은 낮춘다!

바로 **POWER PLAN 2000**입니다!!

지금 **POWER PLAN**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同居同樂업체

자산정보: 02-711-3350

CMS: 042-545-2641

0431-372-1024

안컴 : 0343-397-8377

0591-762-0958

(주)엘콘시스템 (el-con system) 02-585-8880으로 연락하십시오.

(주)엘콘시스템은 199년 (주)소라정보로 시작, 건축설계, 건축, 공점관리의

통합솔루션을 지향하여 CAD지원.

SOFTWARE개발 및 WEB SITE건설사업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벤처기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21-2 서초타운빌딩 3층 #137-073

Tel:02-585-8880, Fax:02-585-9066, E-mail:webmaster@el-con.co.kr

WWW.el-con.co.kr : POWER PLAN에 관한 기술관련자료, 제품평가, After service.



(주)엘콘시스템 • 엘콘기술연구소
ELCON SYSTEM CO., LTD. ELCON TECHNICAL LABORATORY

137-073: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21-2 서초타운빌딩 3층
TEL : (02)585-8880(代) FAX : (02)585-9066
HTTP : www.el-con.co.kr

强
安

"유리에 방탄조끼를 입힌다?"

"기존 유리를 벽보다 강한 유리로 만들어 드립니다"
하니타 디펜스 -도난 침입방지 필름

방범 창틀 대신 사용하는 건물 및 주택 유리창의 유리면 내부에 부착하는
방범 · 침입방지 기능을 가진 투명한 필름입니다.

창문을 통한 도둑 · 강도 등 어떠한 외부침입도
완벽하게 차단하는 - "하니타 디펜스"



디펜스 시공 전



디펜스 시공 후

필름이라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제규격인증 획득!



국제유리필름협회



독일표준규격



미국 표준규격



영국 표준규격



국제표준화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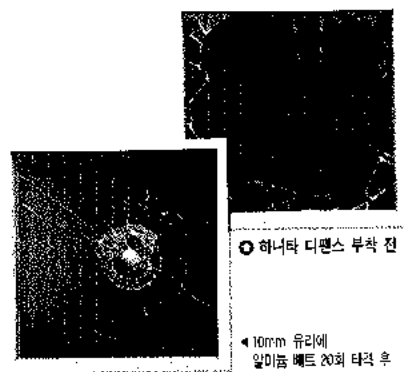
국제건축용 Film
생산지 연합회



이스라엘 표준규격



미국재료 시험협회



○ 하니타 디펜스 부착 전

○ 하니타 디펜스 부착 후

유리창을 통한 도둑 · 강도의 무단침입 원천봉쇄 및 조형미 유지
도난 및 테러방지 감옥 아닌 감옥인 방범철창 · 셔터 불필요.
미려한 외관을 조성합니다.

○ 이웃의 화재, 가스폭발 및 태풍으로부터 보호

파괴 · 폭발 · 내부의 화재나 위급상황시 밖으로의 탈출이 용이합니다.

○ 유해 자외선 99% 까지 차단

기미 · 주근깨 · 피부병 발생저지, 고급의류 및 커튼, 쇼파 등
탈색 변색 방지합니다.

○ 셔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품 홍보효과 극대화

아전에도 전시 ·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 에너지 비용의 절감 및 유리파손으로 인한 인명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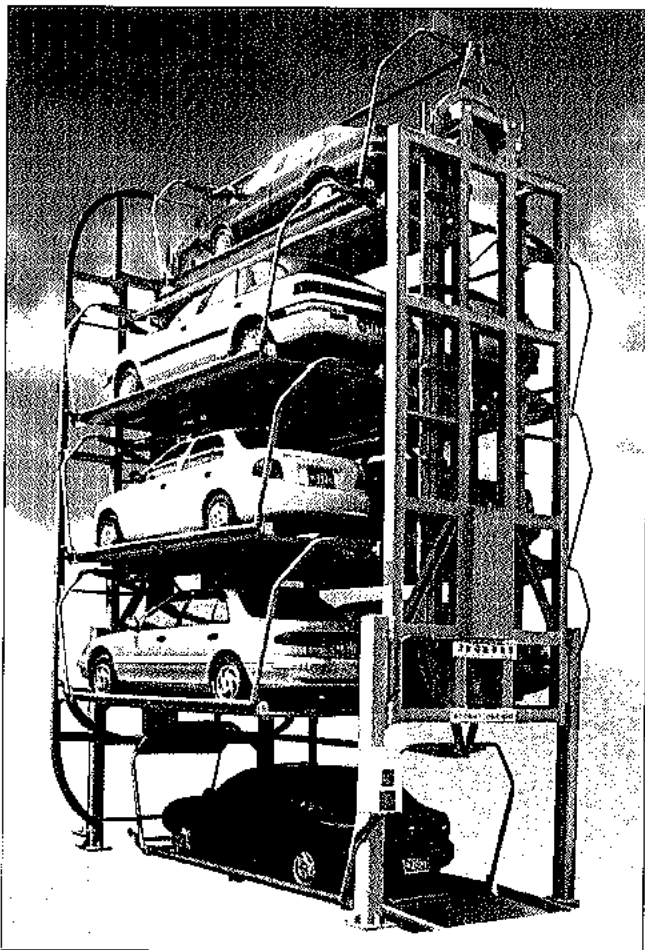
열차단 효과로 단열 및 보온효과 30~70% 절감 및
실내 · 외 유리파손시 파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 Color Defense 선택시 외부시선 차단으로 사생활 보호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미려한 외관을 조성합니다.

適者生存의 無限競爭時代
"자신 있습니다"

스카이파크 미니로타리식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더 이상의 고품질은 사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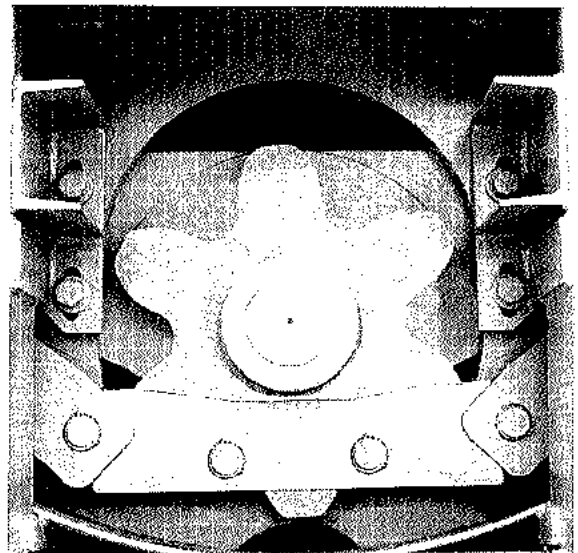
더 이하의 저가격은 덤핑이다!!

더 이하의 주차기 폭은 불가능하다!!

세계최소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이렇게 다릅니다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직결구동의 新메커니즘



사양

모 델 명	수용 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 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5990	6830
SKY PARK-6	6대	4570	5990	7720
SKY PARK-7	7대	4570	5990	8600
SKY PARK-8	8대	4570	5990	9380
SKY PARK-9	9대	4570	59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59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59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5990	13060

※뉴그랜저급 수용가능 ※컨테이너를 내장형도 개발중

※지매품 Pk를 피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따라서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수출상담 및 전국대리점 모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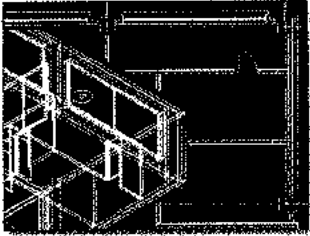
21세기 신주차개념의 주차기 전문회사
창공駐車産業
since 1989 CHANG GONG INDUSTRY

주소:대구광역시 동구 검시동 756-271번지
ADD:#756-271, Gum Sa Dong, Dong Gu, Tae Gu, Korea
TEL:(053)956-8838(代) FAX:(053)984-1998 E-mail:cgp21@chollian.net
H·P:011-507-8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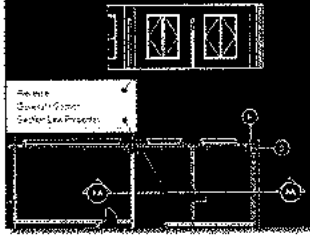
건축설계를 위한 최적화된 도구

TRY FOR SATISF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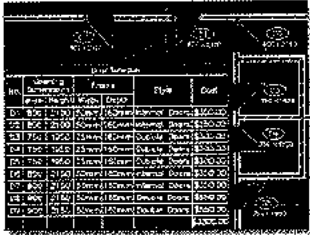
평면도, 단면도, 3D 모델링



단면도와 평면도



2D, 3D 모델링 (1) 건축 설계의 2D와 3D 모델링



3D, 4D 모델링, 3D 모델링, 3D 모델링



Autodesk
Autocad Archi Builder 3.04

기존 AutoCAD는 도면작성외에 건축설계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건축설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무자화, 사용자 정의에 의한 CAD 환경구축, 단순화, 지능화에 초점을 맞추어 Drafting 뿐만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Design으로서의 유용함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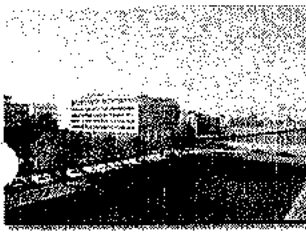
3차원 모델 디자인과 컴퓨팅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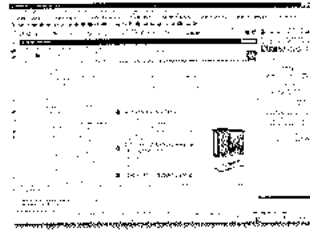
DWG 파일과 Li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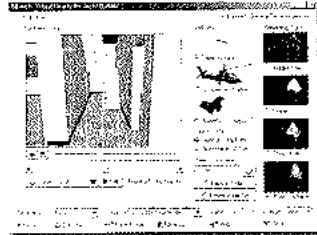
Camera M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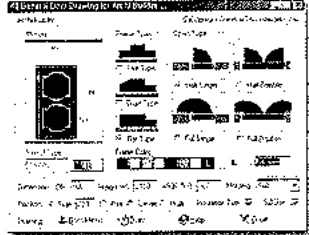
Asset Brow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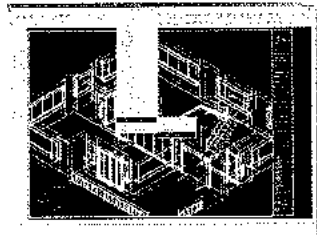
Autodesk
3D Studio VIZ Releas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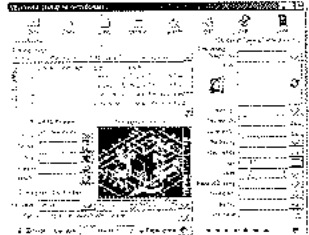
3D 모델링 (2) 건축 설계의 3D 모델링



3D 모델링 (3) 건축 설계의 3D 모델링



3D 모델링 (4) 건축 설계의 3D 모델링



3D 모델링 (5) 건축 설계의 3D 모델링

건축가, 제품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아티스트, 디자인 엔지니어들의 강력한 창조적인 디자인과 프리젠테이션 활용에 실시간적 비주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념 디자인을 그들이 생각한 시간에 맞추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해내고 발전 시키도록 도와준다.

(주)캐드컴시스템은 1986년 창사이래 꾸준히 AEC 부문에서 일해 온 회사입니다. 새로운 천년 부터 (美)Autodesk AEC Master Reseller로써 ADT, 3DStudio VIZ 및 3rd Party 관련 프로그램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제품정보 제공과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보다 신속하게 고객과 호흡을 함께하는 (주)캐드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CAD/CG/LAN 전문공급 및 전문교육회사
(주)캐드컴시스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8065호
TEL: 02)3465-1048(대) FAX: 02)3465-1950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776-34 덕원빌딩 2,4,5층
TEL: 053)652-1897(대) FAX: 053)625-5485

가톨릭대학교 CAD/CG/컴퓨터 그래픽 센터
Autodesk Master Reseller
J.V.R. KOREA CG PROJECT 877,333-1000
CG SYSTEM 2000
autodesk Master Reseller A/E/C
J.888 COMPUTER Autodesk Master Reseller
CAD/CG/WEB 전문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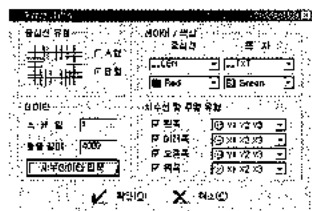
6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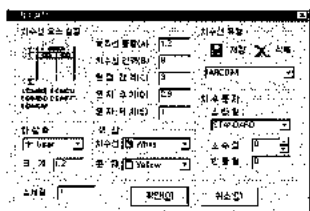
IntelliCAD/IntelliARC

건축설계지원 소프트웨어 인텔리아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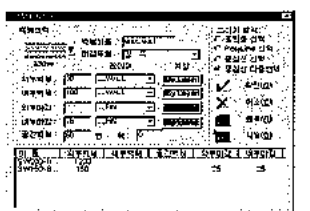
건축설계지원 소프트웨어 IntelliARC의 Upgrade 기능 안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많은 건축설계지원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다이나웨어 홈페이지 <http://www.iarc.co.kr>에서 지금 다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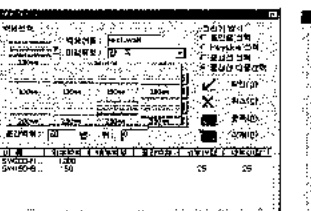
▲개선된 중심선 그리기



▲개선된 치수선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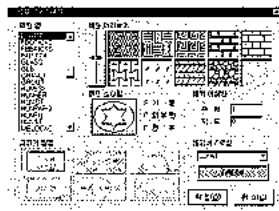
▲다중 벽체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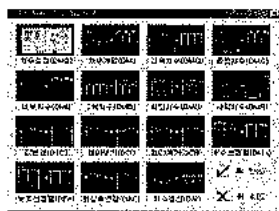
▲개선된 백체선택/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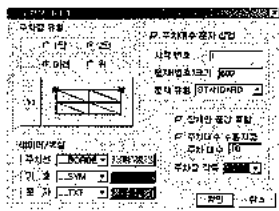
▲개선된 벽체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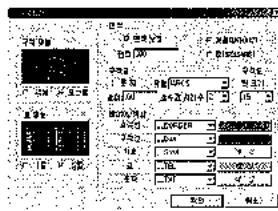
▲인텔리아크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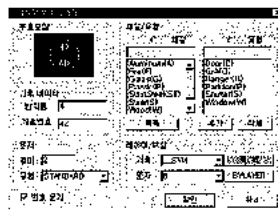
▲치수기입도구



개선된 주차장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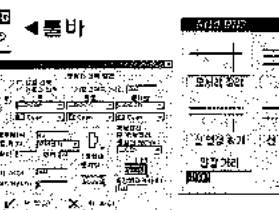
▲개선된 구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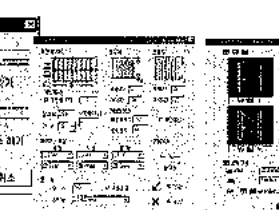
▲창/문 심플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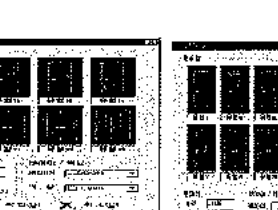
▲창문 그리기



▲문 그리기



중심선 편집기▲



▲계단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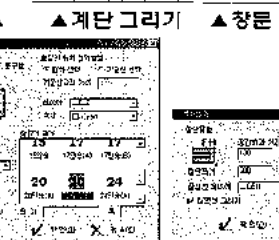
▲창문 그리기 대화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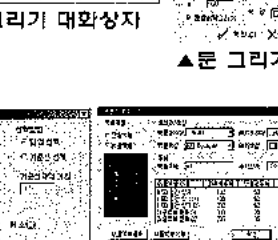
▲기둥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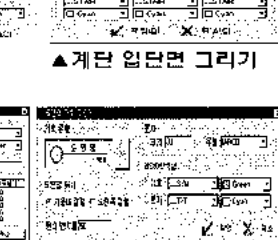
▲지반/잠석 그리기



▲승강기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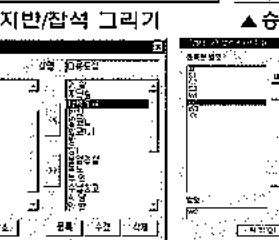
▲벽체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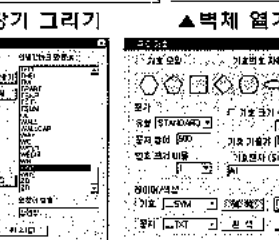
▲단면 벽체 벽돌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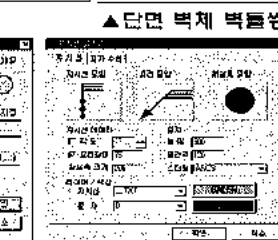
▲도면명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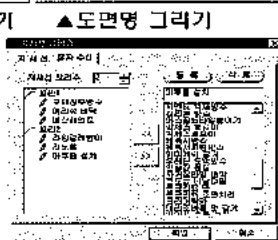
▲실내 면적 그리기



▲실내명 등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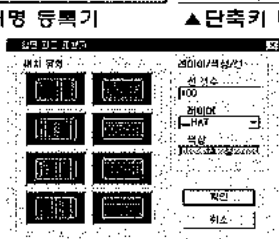
▲단축키 대화상자



▲구조 기호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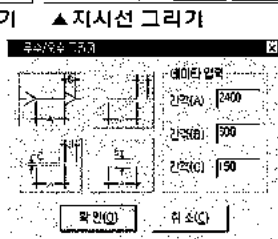
▲지시선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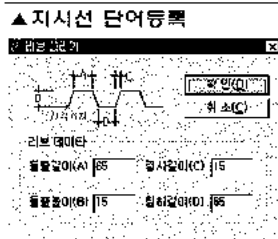
▲지시선 단어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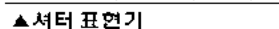
▲단면재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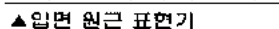
▲우수/우수 동선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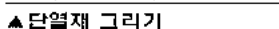
▲리브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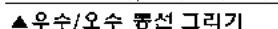
▲서터 표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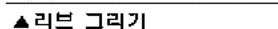
▲입면 원근 표현기



▲단면재 그리기



▲우수/우수 동선 그리기



▲리브 그리기

IntelliARC개발사

다이나웨어 씨지

<http://www.iarc.co.kr>

TEL:02-2214-0586 FAX:02-2244-0386

총판

지이테크리아

<http://www.ica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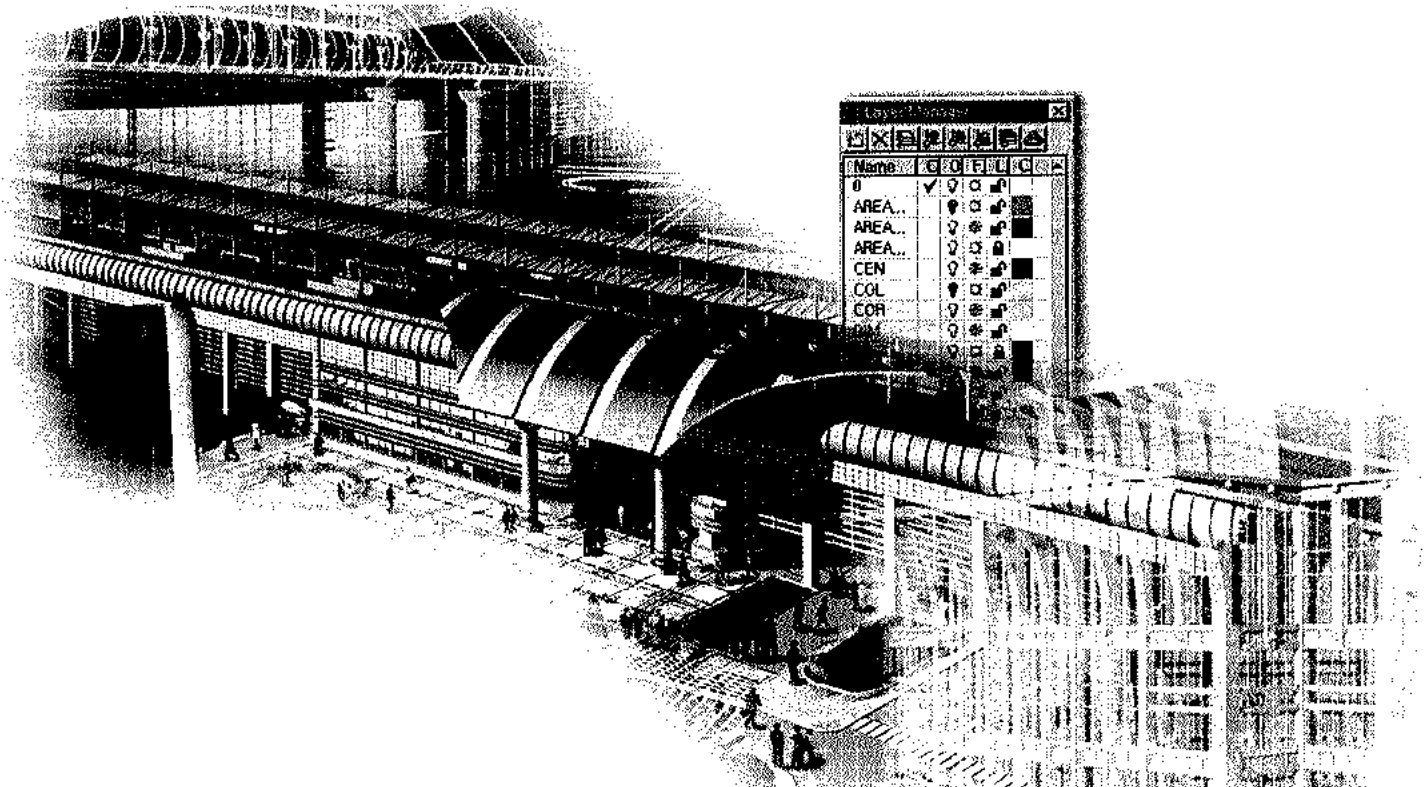
TEL:02-323-0286

FAX:02-322-0488

IntelliARC는 제3회 CAD/CAM학회 공모전에서 2000년도 2월 동상 수상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다이나웨어 홈페이지에서 무상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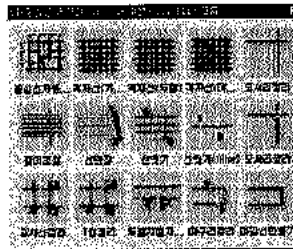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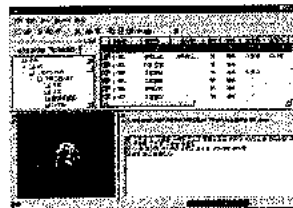
CADPOWER 21

RELEASE 9.0



21세기의 건축설계 "CADPOWER"가 책임집니다.

건축인의 관심과
사용자의 요구를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10년동안 개발한
CADPOWER는
건축인 모두의 것입니다.



CADPOWER 21은 오랜 경력의 건축설계전문가 집단과 최고의 프로그래머 그룹이 만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실무자 중심의 개발환경과 사용자 정의에 의한 CAD 환경구축으로 설계업무에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CADPOWER 21의 특징

- 건축 실무자 중심 개발
- 작업의 효율성
- 명령어의 통합
- 단순화
- 타프로그램 사용자들을 위한 배려
- 새로운 모습(새기능)

CADPOWER 21의 새로운 기능

- 계획설계 지원(Object ARX Base)
- 명령어의 단순화와 통합화
벽, 문, 창, Dimension, Layer
- 사용자 Menu 구성
명령어 그룹별 관리, 사용자 정의 가능
- 동적인 수정과 일괄처리에 의한 마감재 작성
마감재 DB구축, 사용자 정의에 의한 마감표 정의, 여러 개의 도면을 선택, 일괄적인 수정 가능
- MC설계 지원
'공동건축물 MC설계 지침'에 따른 MC설계 지원
- 도면관리 지원
설계작업 정보를 도면과 통합적으로 관리, DB구축
- 타프로그램 사용자들을 위한 기능
Text Convert 기능(사용자 정의 폰트로 변경)
Layer Control
Onekey(타프로그램과 호환)
- 기존 CADPOWER 기능 강화(DRS, CC, MMD, WAL...)
- TEXT편집 기능, Arc(벽, 면적)지원
- Autocad R14 이상에서만 지원

 (주) 건 캐 드
GAUN CAD CO., LTD.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27-6 갑목빌딩 4F
Tel: 584-6480 Fax: 587-1803
http://www.ait.co.kr e-mail: info@gauncad.ait.co.kr

정확성
장려 경험과 용해
(주)건캐드
본래주시면 CADPOWER 21
에 대한 데모CD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대공간 강구조나 투명건축을 계획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 철골을 긴장한 SEMALLOY® 고장력 인장봉이 있습니다!!!!

■ 주요 생산품 및 제품명

- 강구조건축, 교량의 긴장 및 내진용 고장력 인장봉 세트
(H.TENSION TIE BAR SET FOR STEEL STRUCTURE)
: SEMALLOY® 460, 835
- 유리구조용 스테인레스 인장봉, 케이블 세트
(STAINLESS PARTS TENSION BAR, TENSION CABLE SET FOR GLASS STRUCTURE) : SEMALLOY® STS
- 프리스트레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스트텐션용 고장력인장봉 세트
(H.TENSION BAR SETS FOR P.P.C POST TENSION)
: SEMALLOY® P.C BAR

■ 생산제품규격

Grade	Diameter	Length	Remark
SEMALLOY® 460 SEMALLOY® 835	25 ϕ ~ 120 ϕ	12m	H.T BAR
SEMALLOY® STS	12 ϕ ~ 60 ϕ	8m	STS BAR
SEMALLOY® P.C	25 ϕ ~ 75 ϕ	8m	P.P.C BAR

• Coupler 사용으로 길이의 연장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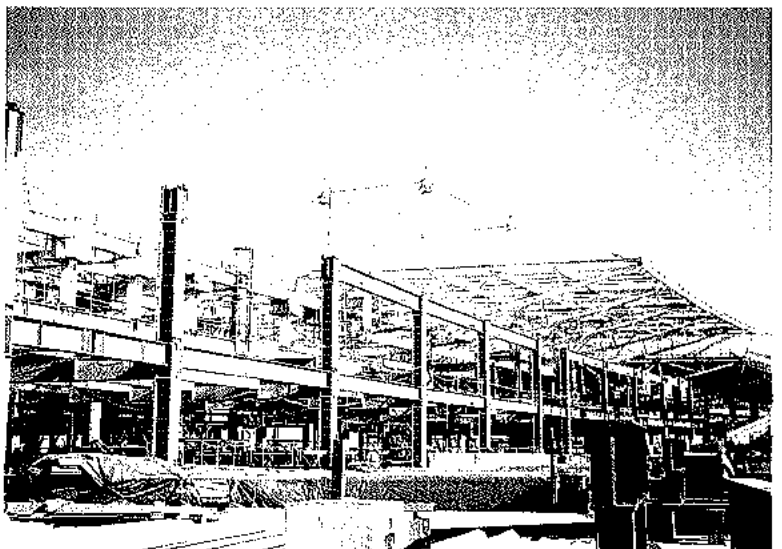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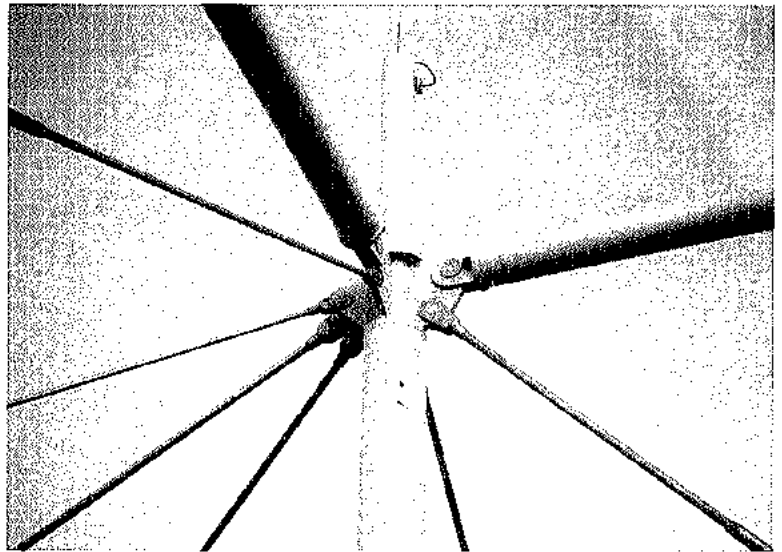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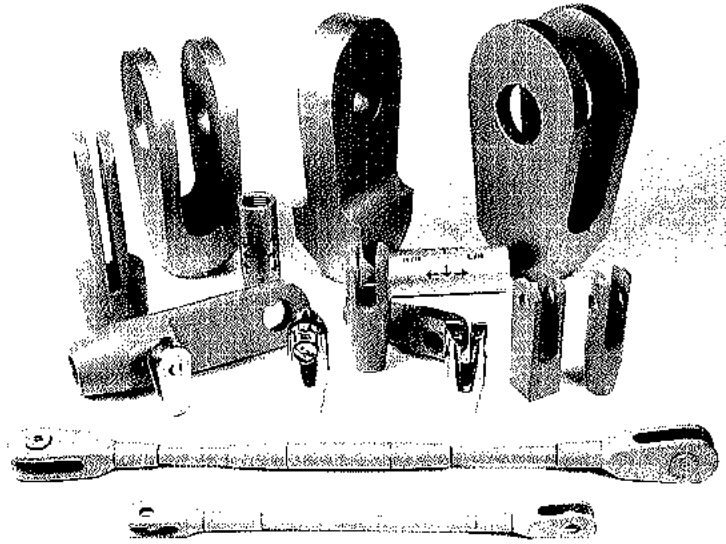
■ 제품의 기계적 특성

Properties Grade	Min Yield Stress (N/mm ²)	Ultimate Tensile Stress (N/mm ²)	Min elongation (%)
SEMALLOY® 460	460	610	20
SEMALLOY® 835	835	980	20
SEMALLOY® STS	205	515	30
SEMALLOY® H.T STS	690	860	12
SEMALLOY® P.C BAR	930	1080	5

• P.C Bar는 사양 별도협의 요망

■ 공 사 실 적

현 장 명	원 청 시 공 자	사 용 규 격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한진, 삼성, 대우	M24~M100
대림대학 체육관	(주) 삼호	M56~M64
메리야트 호텔	삼성중공업(주)	M56~M64
반포천 복개 고가도로	센트럴 건설(주)	M36~M140
서울대 생활체육관	POSCO개발	M36~M64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현대산업개발(주)	ϕ 56
고속전철 천안역사	한라건설(주)	ϕ 24~ ϕ 32



SEMALLOY®
세일단조

경 남 양 산 시 웅 상 읍 평 산 리 1108-75

TEL : (0523)387-7070 FAX : (0523)387-7074 E-mail : seil7070@choilian.net

5월 25일 2시 건축사회관에서 ArchiCAD 6.5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지붕을 5초안에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ArchiCAD에서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ArchiCAD로 시도해 보셨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ArchiCAD는 건축 디자인과 프리젠테이션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되어온 프로그램입니다.

클릭, 클릭, ... 지붕이 바뀝니다.



ArchiCAD® — 건축의 세계 언어

Doalltech
Solution Provider www.doalltech.co.kr
(주)두올테크 137-0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5-3 우성빌딩 400호
TEL : +82-2-563-8955-6 FAX : +82-2-563-8937

GRAPHISOFT

건축물 방재(防災)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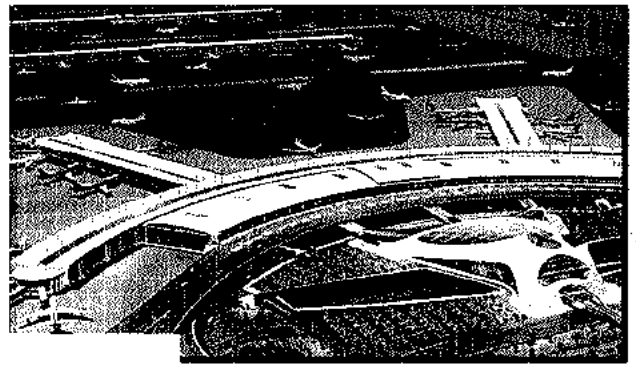
한국방재엔지니어링

기술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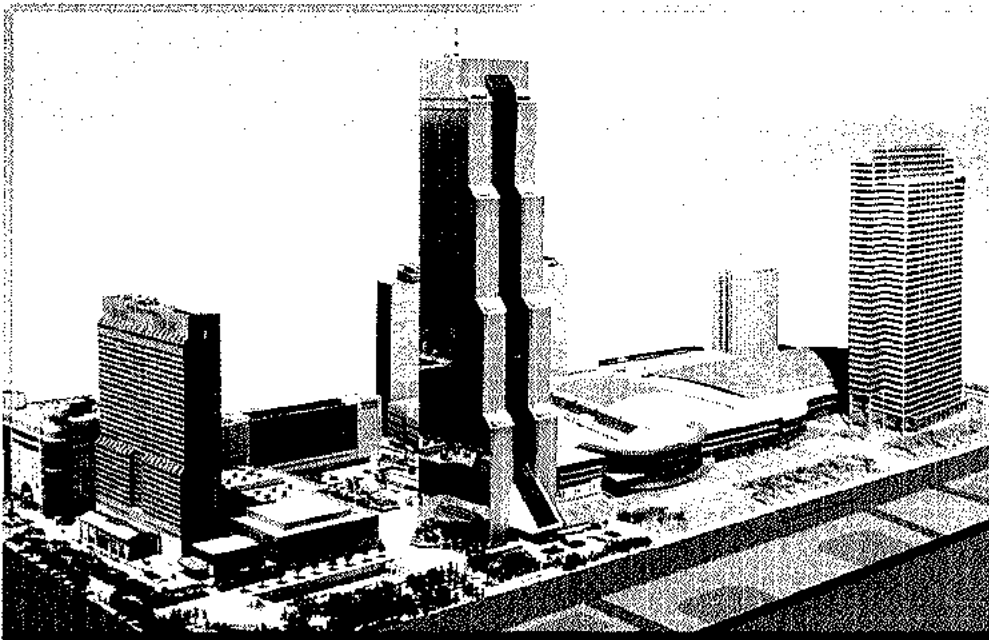
- ▶ 미국 RJA (Rolf Jensen & Associates, Inc.)
- ▶ 일본 防災 Service Center

응역분야

- ▶ 방재계획 및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 ▶ 방재분야 안전진단
- ▶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유지관리(점검)·공사
- ▶ 전력시설물의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



인천국제공항



ASEM 및 한국무역센터

방재계획 주요실적

- ▶ 포항종합제철 POSCO센터
- ▶ 대우전자 사옥
- ▶ 대우 수영만 타워 (102층)
- ▶ 부산 제2롯데월드 (107층)
- ▶ ASEM 및 무역센터
- ▶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
-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 ▶ 고속철도 천안역사
- ▶ 도곡동 타워 팰리스 I, II (89층)
- ▶ 현대 목동 시티월드 (73층)



<http://www.kfp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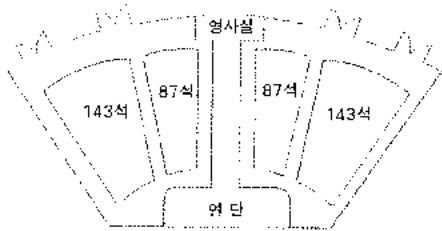
(주)한국방재엔지니어링

Korea Fire Protection Engineering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18-4 한방빌딩
TEL : 579 - 4111 FAX : 579 - 9045 / 9046
E-mail: kfpe@kfpe.co.kr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대관 안내

대강당



대강당(460석)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세미나/강연회/교육/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좌석수)
- 부속설비 : 녹음/음악/영사실/무대/무대영사막/흑판/OHP/VPM/SP

1. 사용료

(단위: 원, VAT별도)

구분	좌석수	사 용 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요금(시간당)
대강당	460석	330,000	66,000

※ 사용기간 : 하절기(3월~10월)/09:00~18:00,
동절기(11월~2월)/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

(연 30일 또는 연 10회 이상)의 경우 상기금액의 30%할인

※ 야간 및 토요일 오후, 공휴일의 경우 상기금액의 20%를 할증

※ 예식행사 : 9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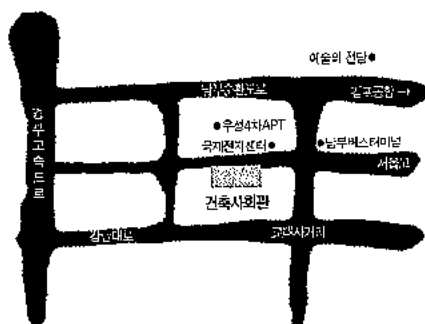
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900cm×(세로)90cm

약도



대관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TEX : 581 - 5711~4

FAX : 586 - 8823

차례 2000 04 372호



과천빛골감나무집(이상연 작)



발행인: 이의구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위원장: 장양순
위원: 김정희, 조현군, 최동규
편집·취재: 정호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kjo@kira.or.kr hsjoung@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안쇄인: 유상태/천풍전산인쇄
광고: (주)이두컴 (02)566-3984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You Sang-Tae (Cheon Poong Printing Co.)

칼럼	「99건축문화의 해」를 뒤돌아보며	김한근	18
작품리뷰 / 과천빛골감나무집		이상연	20
	대담: 열린과 채움의 공간	이상해	27
	비평: 상골에 담은 동시적시각	이공희	33
회원작품	샬트르 성바오로 유치원	손명문	36
	빛살아린이집	김좌동·이웅현	40
	인항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김경택	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년	48
	구로동 현대 파크빌	부대진·김무현	50
	일산 백석주유소	김우영+이경훈	54
	이여재	홍기택	56
	데이콤 사옥	이성관	60
작품노트	건축사는 죄(罪)가 없다	문철수	64
기고	대학원 중심의 4+2년제를 주장하는 이유	이상현	68
	철골 '건물'인가? '건축'인가	함인선	72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⑩: 북한(하)		편집디렉터/이왕기	75
	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서우석	76
	북한의 건설현황에 대하여	장인숙	82
	금강산에서의 건설경험	김나영	87
	좌담: 북한의 건축과 도시, 통일을 위한 준비		92
건축마당	건축만평		103
	협회소식		104
	건축계소식		108
	현상설계		113
	전시		116
	통계(2000년도 2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120
	회원현황		122

Column

Looking Back on the Year of Architecture	Kim Han-Geum	18
Review / Kwachon Persimmon Tree House	Lee Sang-Yeon	20
interview Spaces Open and Filled	Lee Sang-Hae	27
critique The Simultaneous Sense of Time Captured in the Picture Frame	Lee Gong-Hee	33

Works

St. Paul Kindergarten	Son Myung-Moon	36
Bitsal Children's House	Kim Jwa-Dong & Lee Ung-Hun	40
Multi Purpose Gymnasium of Inhang High School	Kim Kyung-Taik	44
Extention Korea Rural Economics Institute	Kim Byung-Nyun	48
Hyundai Parkville	Bou Dae-jin & Kim Moo-Hyun	50
Isan Baeksuk Gas Station	Kim Woo-Young & Lee Gyeong-Hoon	54
Eyoejae	Hong Ki-Taik	56
Dacom Building	Lee Sung-Kwan	60

Design Note

The Architect is Innocent	Moon Cheol-Soo	64
---------------------------	----------------	----

Feature

Reasons Behind the Reformation of University Education	Lee Sang-Heon	68
Steel Structure 'Building' or 'Architecture'?	Ham In-Sun	72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16 : North Korea	Lee Wang-Gee	75
Evaluation on Housings and its Policies of North Korea	Suh Woo-Seok	76
The Current Situation of North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Jang In-Sook	82
An Experience at the Kumgang Construction Site	Kim Na-Young	87
conversation The Architecture and City of North Korea: In Preparation of Unification		92

Architects' Plaza

Cartoon	103
KIRA News	104
Archi-net	108
Competition	113
Exhibition	116
Statistics	120
Members	122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 6840 · 강북구건축사회/003-31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관악구건축사회/86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 5244 · 구로구건축사회/654-5828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8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3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 2142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2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송암구건축사회/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990-812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금천구건축사회/859-16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63-6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1)247 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983-8902 · 평택건축사회/(02)66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046)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5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087~8 · 서울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안산건축사회/(0345)480-91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43)440-2696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657-67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 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3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531 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8163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550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3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643-3586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351-155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68
금주지역건축사회/(0416)354 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3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8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6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6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852-8793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 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신지역건축사회/(053)812-6727 · 경주지역건축사회/(053)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68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6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9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357)634-5590 · 영천지역건축사회/(0563)334-8256 · 울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32)244-3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0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35-1223 · 시천지역건축사회/(0592)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23)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01)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99건축문화의 해」를 뒤돌아보며

Looking Back on the Year of Architecture

김한근 / 전 한국건축가협회장

by Kim Han-Geun

‘건축문화의 해’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이때에 우리 건축인들의 활동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고 정부와 사회가 새롭게 관심을 갖도록 일깨워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건축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문화의 바탕이라고 했다. 예술과 과학기술을 함께 결합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훌륭한 환경과 공간적 형태를 만들어가는 예술적 가치의 중요성보다는 건축이 건설기술의 한 분야로 이해되고, 오랜동안 교육과 제도 모두 건설기술분야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건축물의 건설과정에서의 행정적 부조리나 부실공사 등으로 부정적 모습들만 비쳐져 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고 하겠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건축의 지난 한세기를 돌아보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건축계에는 일찍이 없었던 일로 무엇보다도 우리 건축계가 합심 협력해서 이를 수 있었던 것이 무척 다행스럽고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주요사업들중 밀레니엄 조형물 건립사업은 정부의 새천년위원회의 사업으로 넘겨져 현상설계를 거쳐 현재 설계가 진행중이며, 삼암동 월드컵경기장 전면부지에 세워질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건축문화자료관(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건축문화의 해 본사업과는 구분하여 건축계 자체 사업으로 준비키로 하였다. 한국건축 100년전은 우리나라의 개항기에서 서양건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적 시기에 맞추어 정리하고 건축자산정리사업은 역사적 의미있는 장소까지도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 것은 참으로 큰 성과라고 하겠다. 건축과 패션과 만화와의 만남, 내가 가꾼 우리마을 Contest, TV 기획 Program, 중고등학교를 방문한 특강 등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한 건축문화운동의 예라고 하겠다. 또한 건축사회가 주관했던 ARCASIA Forum, UNESCO 한국위원회와 함께 주최한 동서양문화비교 국제세미나, 건축문화 EXPO 등 대형행사와 한국의 21C대형건축전, 정보·문화·건축을 주제로 한 ICAS 21심포지움, 건축장인의 꿈과 꿈 특별전과 같은 후원 및 공동추진행사를 비롯한 관련 국내외 단체들의 행사들은 건축문화의 해 사업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사업기본계획은 98년 초기에 사업신청을 하면서부터 준비를 해왔고, 사업이 확정되면서 준비위원들이 헌신적으로 열의를 갖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계획의 기본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행사 시기가 99년 하반기에 집중되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초기 전반기에는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별로 활동이 없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하였으므로 독촉을 받기도 하고 비판의 소리도 있었다. 뜻하지 않던 이런저런 일들도 겹쳐져서 언론들의 태도도 또한 냉담했고 우

리가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였음에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반에 접어들어 계획된 행사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차츰 분위기도 호전되고 행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사실 우리의 사업과 같이 년중 계속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행사들이 적당한 시간차를 두고 발표가 되도록 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했다. 사업진행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홍보전략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도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 것과 이러한 사업의 성패는 홍보에 달려있다고 할만큼 중요한 것임을 새삼 알게 되었다. 99건축의 해 기간동안 전문지 등 신문·방송이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 다른 어느해 보다도 건축에 관한 기획물과 연재물들도 많이 계속해서 취급해 주었고,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전체사업예산은 진흥기금 10억원, 조직위원회 자체 모금하는 후원금 약 8억원을 합하여 약 18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별도 예산사업 20억원을 합하여 약 40억원 규모로 계획 추진되었다. (건축3단체와 기타 관련 기관·단체 등에 '문화의 해'를 위한 특별행사들을 모두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체 후원금의 모금활동은 전체 사업수행기간동안 마지막시기까지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이일은 사업자체를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이 필요했다. IMF로 인한 모든 기업들이 위축되어 있었고, 별도행사의 모금과 증폭되는 등 여건이 예상외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조직위원장 이하 재정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의 참여를 얻었고, 무엇보다 우리 건축인을 자신들의 기대이상의 참여와 협조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모금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일부 사업이 예산상에 차질이 있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전체적으로 예산에 부족 없이 집행할 수 있었음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초기에는 후원금 모금 지연으로 규모를 확정할 수 없어 사업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제때, 제대로 예산을 지급하지 못한 미안한 맘을 금치 못하며 또 진흥원 지원금은 본 계획 사업에만 사용토록 되어있고, 후원금 모금에 여유가 없었기에 지역추진위원회에 재정적 도움을 주지 못했음이 못내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된다.

'99건축문화의 해' 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우리건축계가 함께 해오고 있는 모처럼의 기회라고 생각되어 건축문화센터 건립추진이라든가 건축계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일 등을 추진해보려는 생각도 있었으나 시작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건축계는 오래전부터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왔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와 노력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사업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건축계가 하나가 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도 했으나, 조직위원회가 주도하려 한다는 엉뚱한 오해로 무산됐고, 애써서 산파역을 하려던 일에 주도했던 분과 모두가 실망했고 현실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되었다. 3단체로 나누어져있는 현실이 어색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나 사회여건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런대로 3단체가 서로의 역할을 잘 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드시 모든 기존단체를 해체하여 하나로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단체로 됐다고 하더라도 직능과 일정회원의 권익과 관련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축사협회와 같이 건축사사무소를 업으로 개업한 회원단체로서의 직능과 회원의 권익에 관하여는 다른 회원들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다루어야 할 일들도 있을 것이다.)

우선은 큰 테두리 안에서 대외적으로 하나가 되고 각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부터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설계경기문제, 국제문제, WTO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 등 공동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함께 하면서 점차적으로 필요한대로 조정,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어렵게 생각되는 일도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계가 하나로 되게 하는 일은 현실적인 바탕위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다소 무모하게 시작도 했지만 대가 없이 마무리 된 것은 전임·후임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행사위원들과 후원해 주신 건축인 여러분 모두의 공로라고 하겠다. 사실 건축문화의 해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하겠다. 이를 계기로 건축계가 하나가 되어 해야 할 많은 일들과 여러 현안들을 큰 테두리에서 멀리 내다보며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야 하겠다. WTO와 관련한 건축사 제도의 개선, 교육제도의 문제 등등 시급한 현안들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새해들어 건축학회와 건축가협회가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되었다. 앞으로 3단체가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가고 건축 문화의 해를 이어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한다. 폐막식에서 선언문을 통하여 99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듯이 건축문화의 해가 계속되길 바란다.

과천뒷골감나무집

작품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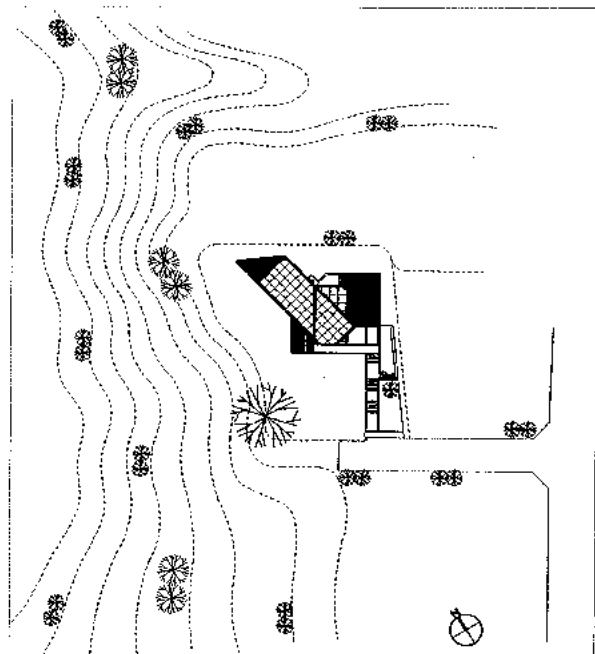
review

Kwachon Persimmon Tree House

이상연 / (주)가람이상연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ang-Yeon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16-3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대지면적	495.20㎡
건축면적	103.80㎡
연면적	214.17㎡
건폐율	20.96%
용적률	43.25%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외부 마감	노출콘크리트
구조	정통기
전기·기계	맥엔지니어링
시공	박흥재
설계담당	오경환, 이봉식, 남병권



배치도

실공간과 빈공간

과천 뒷골 감나무집은 과천 선바위전철역에서 우면산쪽으로 도로로 5분거리에 있다. 우면산 자락 가장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이곳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며, 주변은 산으로 에워싸여 있다. 집터는 진입도로 보다 2미터 정도 높게 위치하고 키가 높은 감나무가 한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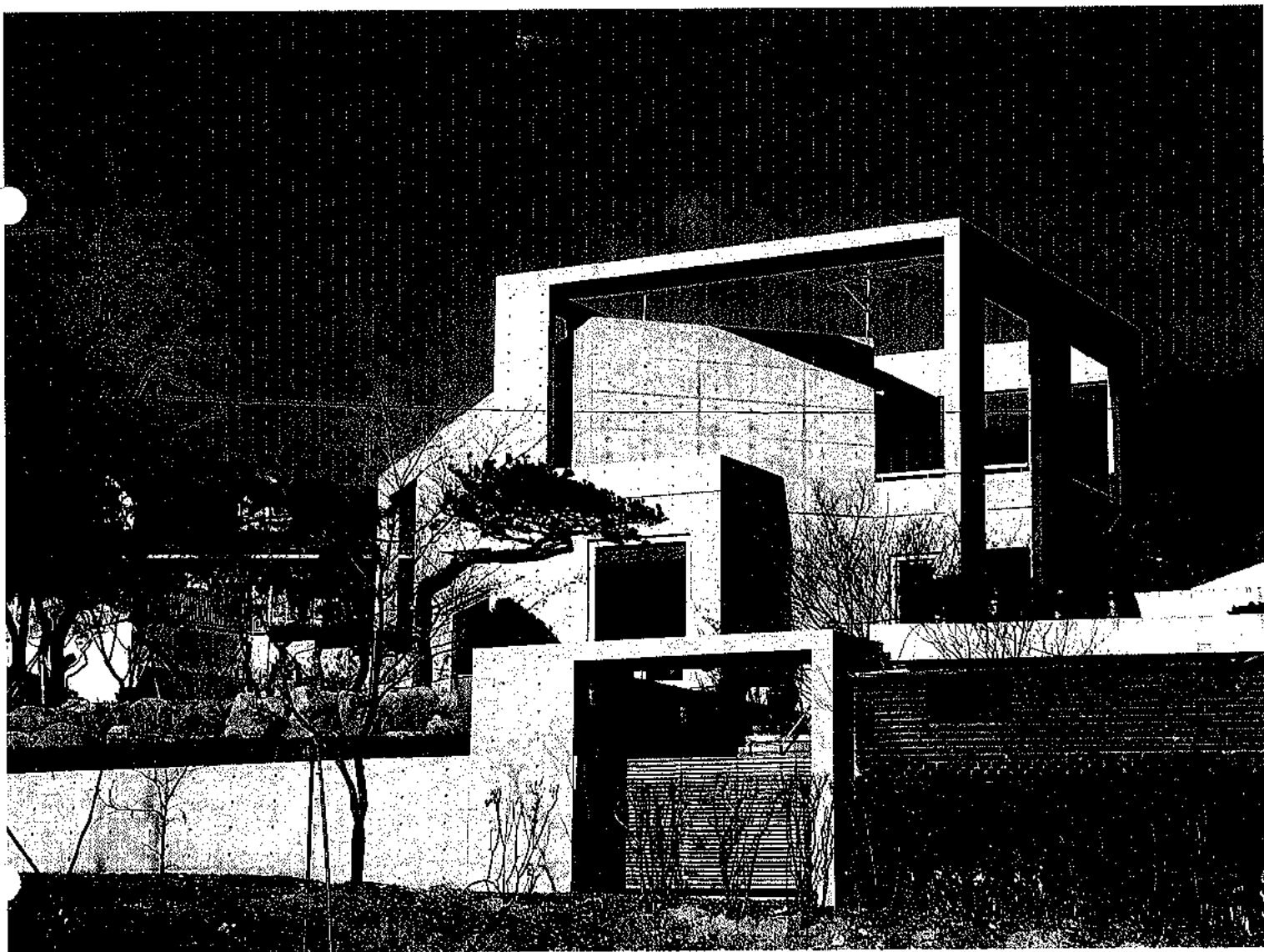
이 집에는 50대 후반에 접어든 부부와 대학에 다니는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 집주인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 온 터라 주변환경에 대한 이해가 깊다. 집터 남쪽에 대지가 있어 이곳에 언젠가 집이 들어서서 시야를 가릴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이런 조건들을 해결하면서 건축제한은 많지만 주변환경이 좋은 그린벨트안에 자리잡은 집터의 장점을 살리는 접근이 필요했다.

따라서 자연과 어우러지며 함께 호흡하는 환경친화적인 설계가 이루어졌다. 진입공간에는 지형의 고저차가 2.4미터정도 된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

형의 일부를 개방(cutting)하여 「열린공간」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우선 기존의 우물을 도로높이에 맞추어 두레박우물로 만들었고, 단풍나무를 옮겨 심고, 주차장을 만들고, 대문은 낮고 투명하게 하여 「열린공간」인 조그만 정원을 조성하였다. 이 정원과 지하층이 바로 연결이 됨으로써 지하 거실과 아늑방도 햇빛이 드는 밝은 공간이 된다. 대문과 현관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빨간 단풍나무와 우물정원, 그리고 주차공간이 있어 열린 앞마당 역할을 한다.

입구에서 보이는 건축물형태는 「빈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정육면체와 「실공간」을 가진 「직육면체」가 자연스럽게 엮여져 있는 모습을 구성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의 기능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열린(open)과 채움(solid)의 개념은 서로 상충된다. 그러나 그 각각이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어 오히려 다양하고 풍부한 형태감을 갖는다.

「가입면」으로 에워싸인 이 「빈공간」은 지하공간의 실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원충적인 공간감을 갖게



하며, 여윌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관에 들어서면 뒤뜰을 마주보게 되는데, 이 곳에는 대나무 숲과 장독대가 있어 정겨운 느낌을 준다.

뒤뜰은 1층 주방에 부수되는 작업공간이기도 하지만 장독대와 대나무숲, 그리고 텃마루 등이 어우러져 전통적인 공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층엔 거실과 식당 및 주방이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한 원통형 구조물을 경계로 하여 각기 다른 시야(view)와 경관을 갖도록 했다. 거실에서는 서쪽의 정원과 울창한 숲을 볼 수 있게 하고, 주방에서는 남쪽의 마을과 길과 숲을 볼 수 있게 했다. 거실과 식당이 갖는 조망의 방향으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입방체가 자연스럽게 엮여지는 형태로 개념을 설정했다.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한 원통형 구조물은 화장실이다.

2층으로 가는 계단에서는 뒤뜰을 보면서 오르내리게 했고, 2층 복도는 1층 거실상부와 오픈되어 있어 개방감을 갖게 했다. 2층은 부부만의 공간으로 구성됐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지하층에 꾸몄다. 2층 안방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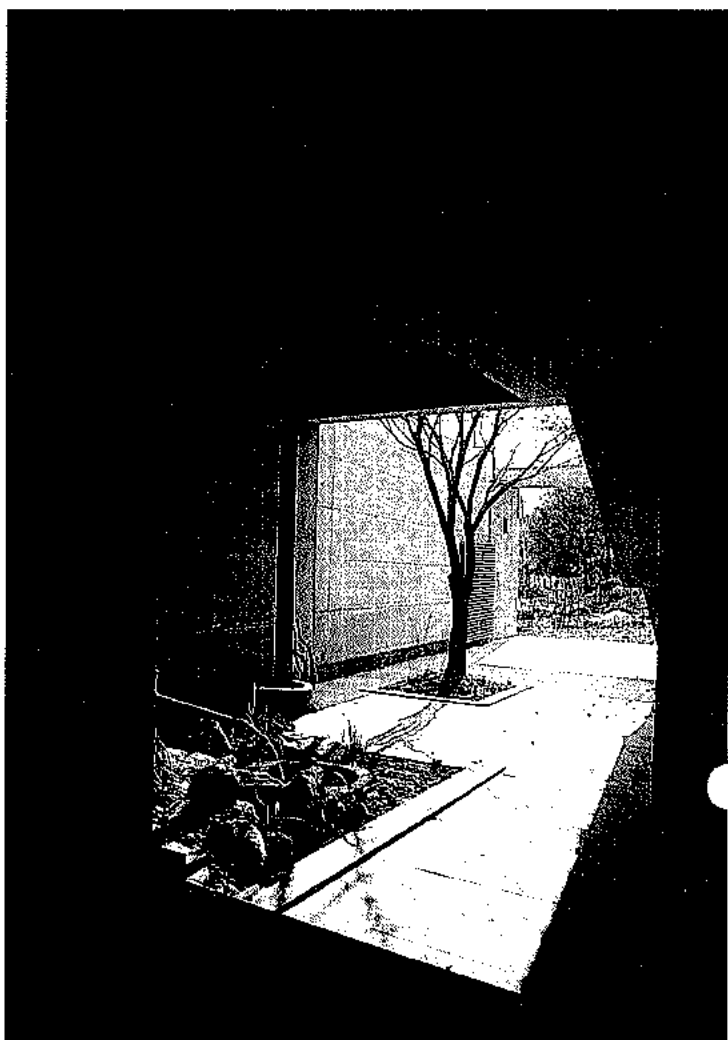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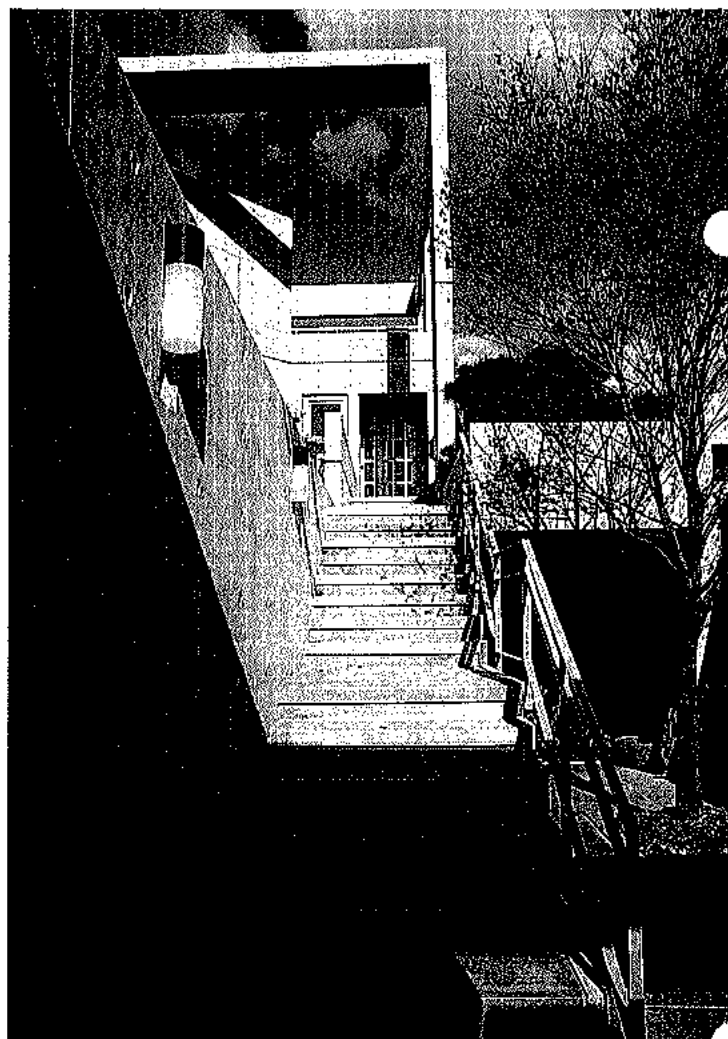
는 누(樓)마루(open terrace)가 있어 마당의 역할을 하게 했다. 온돌방과 마루공간이 서로 조화롭게 대응하면서 한 건물 속에 공존하는 것이 한국건축이 갖는 특징이다. 벽으로 둘러싸인 방공간이 폐쇄적(solid)인 반면, 마루는 사방으로 트여있어 개방적인(open) 공간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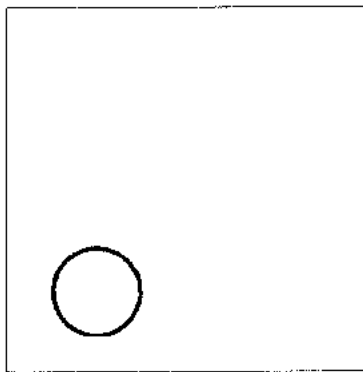
또한 한국의 서원건축에서 누(樓)의 위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한다. 이 주택의 누마루에서도 가장 뛰어난 경관을 볼 수 있다. 가입면으로 에워싸인 이 공간은 개방적이면서도 독립되어 아늑한 느낌을 주는 여윌공간이다. 또 마을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건축주 부부는 이 공간을 가장 좋아한다. 기왕에 있던 커다란 감나무(circle)와 기다랗게 이어지는 진입공간(bar), 거실(rectangular), 식당 및 안방, 지하공간(square) 등 순수한 단위형태가 자연스럽게 구성되어져 절대주의(suprematism)의 말레비치 회화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글: 이상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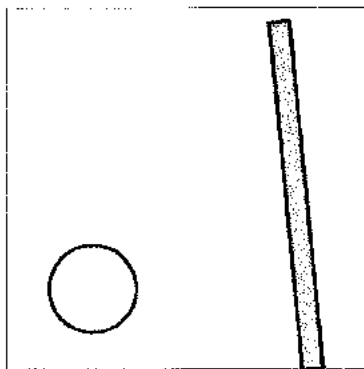
Solid Space and Empty Space

Kwachon Persimmon Tree House is at a five-minute walking distance towards Mt. Woomyun from subway station Sunbawee. The neighboring area is mostly preserved as Greenbelt Area, and is surrounded by mountains. The house itself sits 2 meters higher from the entering point of the site,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a large persimmon tree. The client was a family of a husband and a wife, both in their 50s, and their two college-attending sons. They have lived in this area for quite a while, so their understanding of the site's conditions had depth. They knew that an empty area south to this site was a potential site for another house, which will unfortunately block the vista of this house. Though the area was preserved of natural aspects, it did not mean that it was free of architectural restrictions, and an environmental-friendliness became a crucial criteria for the design. The difference of height in the contour of the entrance area reached 2.4 meters, which could be partially cut to create an 'open space.' A well, a transplanted maple, a parking space, and a low and transparent gate together created a small court, and its direct connection to the underground floor enabled that space, used as the basement living room and son's room, to enjoy the bright sunlight. The overall form of the house perceived from a distance is that of a natural mixture between regular cube, which created the empty space, and linear cube, one that built the solid space. Each had respective function and forms - which, together with the contrasting concept between the open and the solid, enriched the quality of the overall form. This empty space at once symbolizes the solid existence of the basement area and presents a zone of buffering. Entering the house, one gets the view of the rear courtyard, supplied with traditional housing elements such as bamboos, soy jar terrace, and wooden deck. On the first floor, the living room, dining room and kitchen all command different views from the frame of the concrete cylinder(which functions as the restroom). The courtyard of the west and the forest is visible from the living room, while from the kitchen one can see the village of the south and its street and bushes. These two orientations guide the fluid interlocking between the cubic volumes. A walk up the stairs - the space for the parents - provides us with a view of the rear court, while the hallway of the second floor looks down on the living room space of the first. An open terrace linked to the second story's master bedroom serves as a floating court. The combination of ondol(traditional heating system) room and wooden decks in a single building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 while room spaces confined by the walls are solid, the decks are open to all directions. In traditional confucianist academies, the raised decks were always placed in a spot with the most beautiful view. This is also true of this house, where the inclosed space is open but independently cozy, and performs the role of a watchtower over the neighboring village. This space is actually the client's favorite room. As a whole, the circle from the persimmon tree, the bar from the long approaching road, the rectangle from the living room, the squares of the kitchen, bedroom and basement space, together compose a play of simple shapes that remind us of Malevich's Suprematist pain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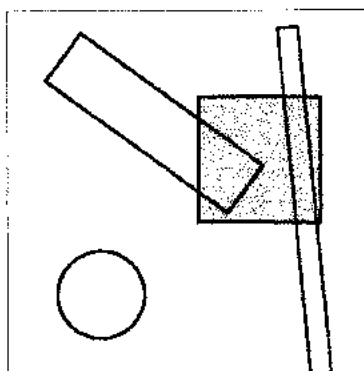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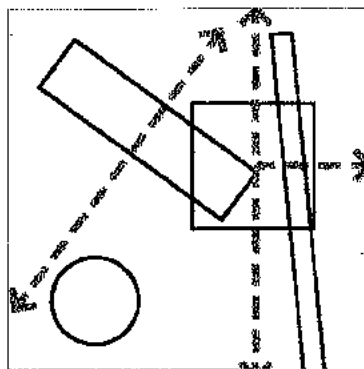
Exis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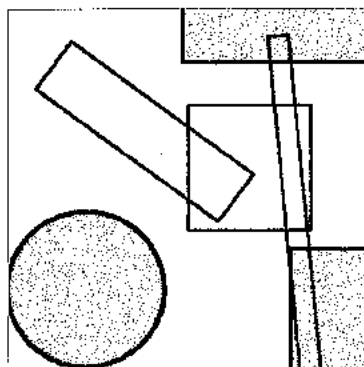
Access



Programming



View



Out Door Space



Location 416-3 Kwachon-dong, Kwachon-si, Kyunggi Province

Area Classification Natural Green Area, Development-Restriction Area,
Military Security Area

Site Area 495.20m²

Building Area 103.80m²

Total Floor Area 214.17m²

Building Coverage Ratio 20.96%

Gross Floor Ratio 43.25%

Stories 2 Stories, 1 Basement Floor

Exterior Finishings Expos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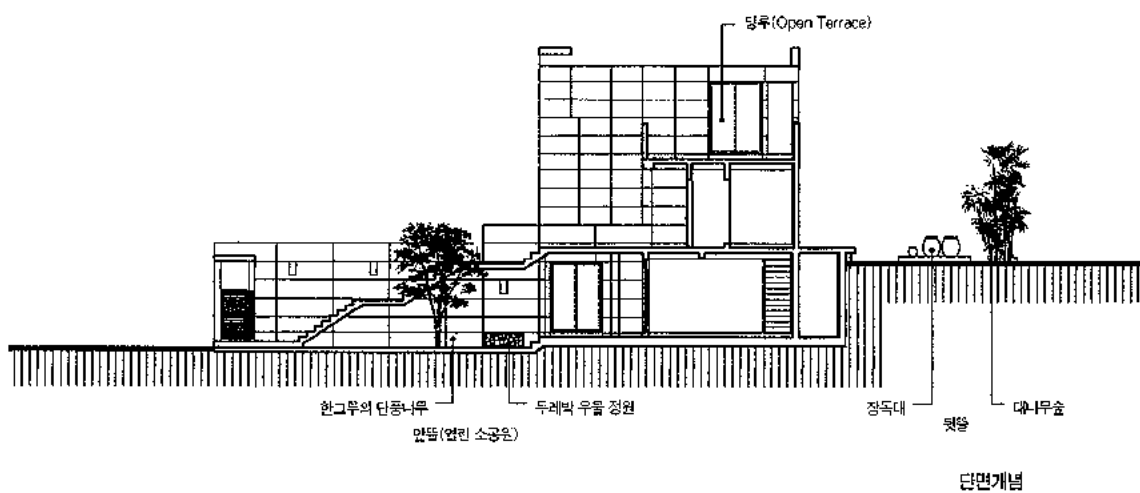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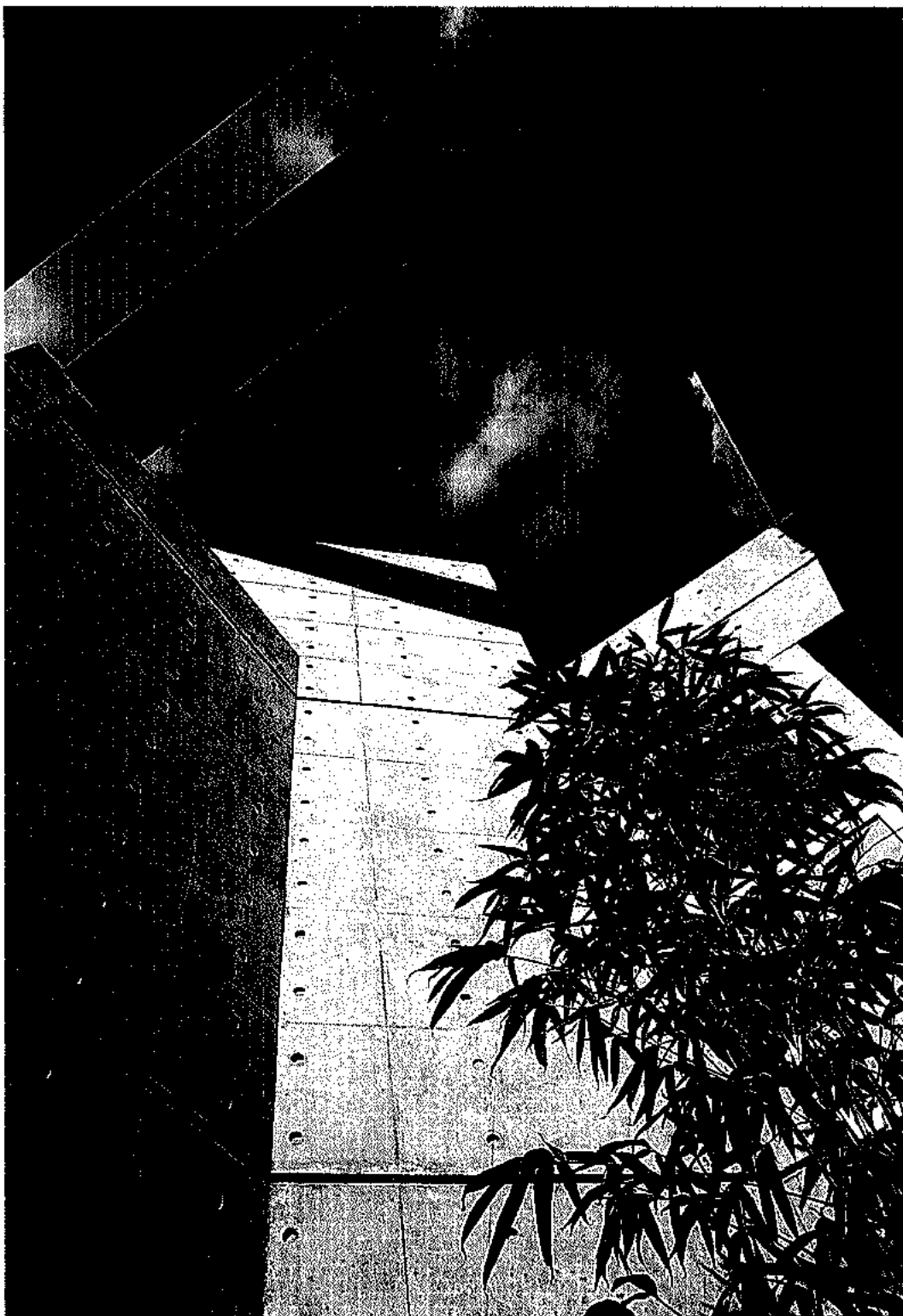
Structural Design Chung Hong-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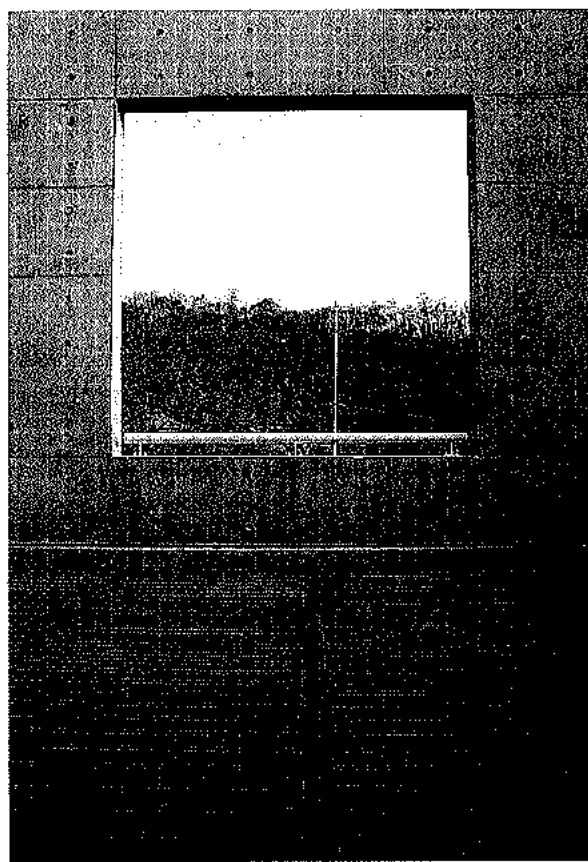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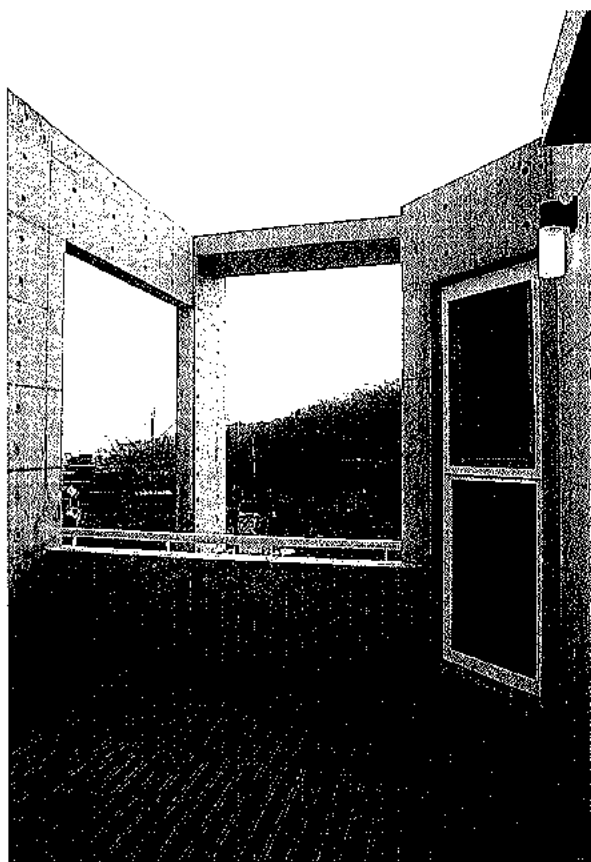
Mechanical & Electrical Systems Mac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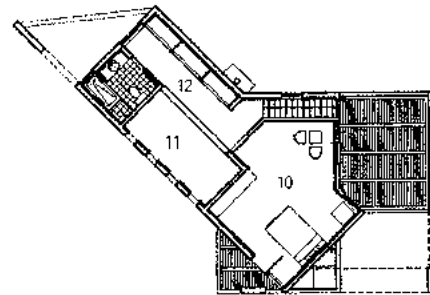
Construction Park Hong-jae

Project Designers Oh Kyung-hwan, Lee Bong-shik, Nam Byung-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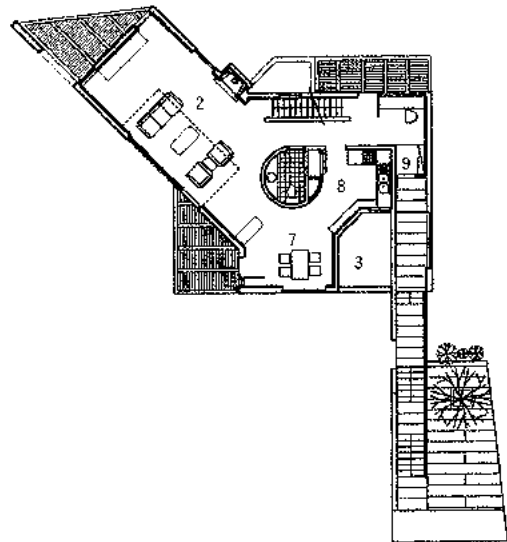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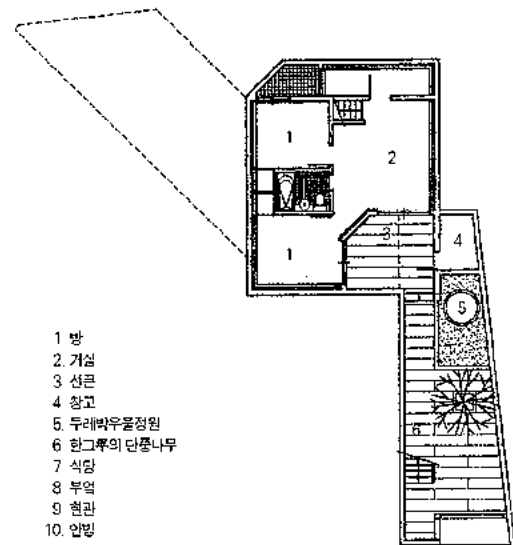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1 방
- 2 거실
- 3 선반
- 4 창고
- 5 두레박우물정원
- 6 한그루의 단풍나무
- 7 식당
- 8 부엌
- 9 현관
- 10 연방
- 11. Open
- 12. D.R.

지하층 평면도

열림과 채움의 공간

Spaces Open and Filled

건축사 / 이상연(가람이상연 건축사사무소)

대담자 / 이상해(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일시 / 2000년 3월 30일 18시

장소 / 와인스킨(신사동 소재)

이상해 __ 주택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하하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이상연 __ 우리의 문화가, 건축문화도 마찬가지로 경제발전 때문에 조적이 큰 것, 규모가 큰 것, 부유한 것 등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꾸로 작은 단위의 것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주택이지만 제일 대표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해 __ 사실 역량있는 건축가들이라면 자기 건축에 대한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주택인데,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경향으로 봐서 역량있는 건축가들이 주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결국은 큰 프로젝트나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리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측면에서 본다면, 주택설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건축가들에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즉, 건축가들이 건축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주택이고, 주택이야말로 그 건축물에서 직접 생활하는 사람이 건축주라는 점입니다. 다른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주와 실제 사용자가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건축가들이 사용자에게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건축주와 대화연결이 원활치 못 한데 비해, 주택은 건축주와 사용자가 같기 때문에 실생활 자체를 이해 하고,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가의 건축적인 생각을 설계도면으로 나타내니까 주택을 통해서 실제로 건축가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반 사회에서 주거문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가 중요하고, 거기에 건축가의 역할이 있는데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그 역할을 수행할 기회가 사회적으로 적었고, 또한 그 역할



대담광경 (왼쪽: 이상해, 가운데: 이상연, 오른쪽: 이공희)

수행을 못한 것이 현재 우리 건축계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파주 화계당 주택을 보면, 뒷동산이 있고, 앞마당이 있으면서 집이 묘하게 자연과 어우러져 결국 주변이 집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과 과천 뒷골 감나무집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연 __ 파주 화계당을 설계할 때 공사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들어설 대지에 가보니까 170여평 정도됐고, 파주가 낮은 구릉지로 이어진 산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묘한 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낮은 구릉지가 보이고, 뒤에는 높지않은 숲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 대한 해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5년전에 소쇄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개울과 담과 대청마루가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좋은 실례를 보았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자연우위의 건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의 품안으로 들어가는 등 자연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은 자연하고 호흡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때 화계당을 할 때는 뒤에 숲을 보고 앉아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숲은 옛날 중상층에 나오는 화계화단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화계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벤치에 앉아서 숲을 보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주변경관과 자연이 어떤 교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__ 자연이라는 생각이 집 자체를 땅에 앉힐 때도 물론 자연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사는 사람의 처지에서 집안에서 봤을 때도 자연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건축가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나름대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보면, 화계당도 그렇고 과천뒷골감나무집도 내부에서 보면 주변 자연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형식이 중요하고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뒷골감나무집의 부분 부분과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주변상황이 설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상연 건축주를 만나고 대지에 갔을 때는 지금 지어진 집 터에 옛날에 지은 국민주택규모 단층가옥이 있었어요. 그 땅은 2.4미터가 높았고, 지형은 그대로인데, 입구가 사실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대로 사이트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느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 주변의 환경이 집이 자리매김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주택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형을 극복하는 문제하고, 거실의 향, 침의 향, 우면산자락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등을 고민했습니다. 건축주는 앞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우물은 없애자는 얘기도 했는데, 제가 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물이 2.5미터 상단에 있는데 입구쪽으로 팔라서 낮게해서 두레박우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원래 우물레벨로 낮춘것입니다. 그것을 정원의 한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건축주는 앞에 대지가 있어서 앞으로 건물이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거실의 향을 서남쪽의 숲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옥의 마당역할을 부여해서 대문에서 진입하는 정원, 또 올라가서 거실하고 생활하는 마당,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2층에서는 누각같은 옥외공간으로 구분했습니다. 또 진행하면서 뒷마당의 공간을 부엌에 딸린 서비스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앞마당의 공간과는 성격이 달라야 되고, 다른 공간하고는 달라서 장독이 놓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열면 커다란



파주 화계당

창을 통해 뒷마당의 장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해 대부분의 경우에 건축가들이 어느 터에 집을 앉히게 되면 땅이 건물과 만나게 되는데, 결국 어느 한층에서만 집에 들어가는 방식이라는 묘한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중요한 것은 매층마다 마당을 가지고 있고,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층마다 자연과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어가면서도 지하층인데 지하층이 아닌 것 같은 오히려 밖에 있고, 1층은 나름대로 자연과 만나는 원지반으로써의 만남이 있고, 2층은 하늘에 떠있는 공중에 만든 인공적인 하나의 지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자연과 만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상연 제가 과천뒷골감나무집을 설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자연관이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건물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의 기능, 식당의 기능, 현관의 기능, 방의 기능, 옥외공간의 기능 등 이런 공간들이 모두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체가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 개체들이 어떤 하나의 단일생각으로 하모니나 통일성을 위해서 응집되는 것보다는 개체가 살아나는 집, 각각의 단위 개체가 제 나름대로 순수한(pure) 형태나 용도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을 하고있는 것이 우리의 자연관하고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해 특히 1층부분에서 외부지면과의 만나는 부분에 건물이 있어서 사방팔방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나가면서 옛날의 뒷마루같은 테라스가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대문을 통해 들어오면 계단을 따라 한 개 층을 올라가서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의도적이 아닌 공간의 흐름을 타고 대문에서 현관까지 자연과 접하면서 진입할 수 있는 것 또한 좋은 것 같습니다. 재료자체도 노출콘크리트로 어떻게 보면 집 자체는 기하학적인 형태인데,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진입 부분만큼은 화장실부분에서 등그렇게 재료를 끝을 내버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문에서부터 올라올 때 사실은 2층 테라스부분의 프레임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물자체는 전체높이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프레임부분은 조금 더 낮았더라면 그것은 사실 외부공간에서 상관이 없거든요. 낮으면 훨씬 더 사람입장에서 보면 스케일이 다운되니까 좀 더 친근감이 있지 않

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연___지하실이 스퀘어(square)로 되어 있어요. 지하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레벨이 왜 올라갔느냐 하면 2층의 데크 레벨을 살릴려고 그랬습니다. 누각 같은 데크에서 외부 보면 너무 오픈되어 있으면 그 맛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그 곳에서 느끼는 광경이 가벽으로 인해서 훨씬 더 공간감이 살아났어요. 그것은 스케일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앉아서 휴식하는 사람입장에서 가벽을 설정했습니다.

이상해___사실 과천 뒷골감나무집에서 가장 자연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 공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밖을 볼 때 자연의 중심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방을 내다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상연___건축주가 그 공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안방에서 나와서 옥외테라스가 방만한 게 있는데, 그 공간이 오픈이 안되어 있고, 가벽이 있으니까 휴식하기에도 너무 편안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우연산 산자락이 다 보입니다. 우리나라 고건축에서 제일 경치좋은 곳에 누각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넉넉한 그런 공간이 저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옥외테라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서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공간 개념이 나오기가 힘들죠. 나름대로 건축물을 답사하고, 무언가를 느끼고, 또 자연에 대해 어떠한 해석이 중요한가를 깨달았을 때 그런 공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해___건축주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2층공간을 공유하게 되어있어요. 혹시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나 설계하시면서 생각은 없었습니까?



일산주택

이상연___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부만을 위한 공간이 오히려 더 필요하는 것을 기존 건물에서 느꼈습니다. 기존건물은 단층주택인데 다락방을 만들어서 부부방이 있었어요. 그 다락방의 조그만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애뜻한 중년 부부애를 느꼈고, 그래서 오히려 부부공간을 더 많이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해___1층 거실에서 보면, 애들 방은 지하실로 내려가고 부부방은 윗층으로 올라가는, 벽을 끼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건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관에서 보면, 앞이 틈어서 뒷마당의 장독대가 보입니다. 그것이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묘하게 영겨있거든요.

이상연___개인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밖을 내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단이라는 것이 아파트의 계단이나, 근린생활시설에서의 답답한 계단이 아니라 제 주택을 보면 모두 밖을 보면서 또는 오픈공간을 끼고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생활의 흐름이기 때문에 즐거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계단은 유일하게 움직이면서 느끼는 곳인데, 움직일 때는 뒤의 정원을 보고 오르내릴 수도 있고, 2층의 부부공간과 아래층의 애들공간이 교차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러면서 거실존에서 같이 화합하고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공희___제가 이 집에서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자연에 대해 건축가가 대처한 두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주위의 방만한 자연을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평면적으로는 뒷마루와 테라스라는 전이공간을 두어 주변환경과의 접촉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주변자연을 각각의 스크린을 통해 체득되도록 한점입니다. 이 스크린을 헛벽(Picture Frame)을 건축적 수단을 이용하여 건축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헛벽은 이 주택이 자연속의 집이 기하학적인 형상이면 곤란하다는 상식(?)을 역설적으로 접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헛벽을 통해서 주변 자연을 장면, 장면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 속도까지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헛벽이외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문에서 현관까지 긴 경로의 해결 방법입니다. 곧은 접근이 재미없을 수도 있었지만, 의도된 단풍나무 한그루와 기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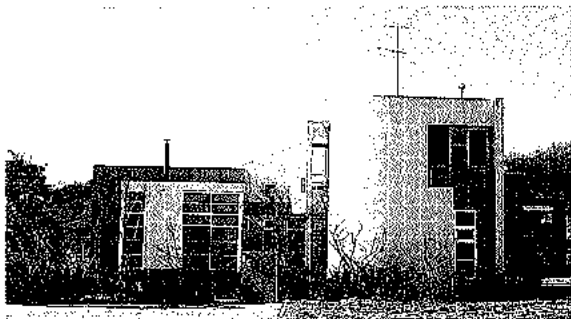
물의 보존이라는 장치를 통해 재미를 살려내어 걸어질 수도 있는 접근의 시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상연___주차공간이 현관에 있다는 것이 딱딱해요. 아무 의미없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러던 중에 단풍나무와 우물이 어울리는 것을 알고 제안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단풍나무 가지가 스치는 기분하고, 가지만 있어도 좋은 게 또 단풍나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주차공간을 정원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공희___이 집에서는 장면, 장면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면을 설정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번째 장면을 대문 2.4미터의 높이를 해결하는 담장의 프레임으로 보았고, 들어가면서 현관위에 있는 것이 두번째 프레임이고, 또 현관에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주택으로 있는 프레임이 2개 있는데, 하나는 한층이고 또 하나는 두 개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뒷마루쪽에서 보는 것, 마루에서 보는 것 등 6개의 픽처 프레임으로 이 작품을 보았습니다.

이상해___대부분 1층을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설계할 때 도로면이 집 앞하는 자리보다 낮을 경우에 억지로 사람을 1층으로 끌어올려서 올라갈 때 즐거운 마음이 없어지는데, 여기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지루하지 않게 드라이(Dry)하게 처리된 부분은 이 집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봅니다.

이상연___짧지만 집속에 길이 하나 있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에 길이 있음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드나들 때 거실까지 가는 길이라는 연출에 있어서 대지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꼬



일산주택

불교불한 것보다는 직선을 선택했고, 어떤 프레임 틀안으로 들어가는 직선공간에 나무도 심고, 우물도 만들어서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건축주도 현관에 나와서 대문까지 가는 공간이 좋다고 합니다.

이공희___선근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길게 느껴질 수 있었던 공간을 시각적으로 짧다고 의식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상해___이 집을 주변측면에서 볼 때 물론 대지가 도로에서 2.4미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로측에서는 한쪽면이 웅벽이 생깁니다. 웅벽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계가 되지만, 뒤쪽을 보면 산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집은 담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봐도 담장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상연___그 문제는 전적으로 제가 건축주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지형이 2.4미터로 높기 때문에 담장을 안세워도 프라이버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사는 사람이 밖을 내다보는 개방감이 있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은 높아지고 했는데 그것도 낮추자고 했어요. 콘크리트 레벨에 나무로 된 대문을 맞추어서 오픈성이 있어야 이 집이 즐거울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어요. 실제로 지어놓고 보니까 잘했구나 그래요. 현관을 들어설 때 그렇게 정답다고...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문화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고건축에는 담문화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와는 열린공간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담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1.5미터 이하의 나무를 심는 것은 괜찮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정원역할과 길 개념, 들어서서 뒷마당을 보는 느낌, 그리고 거실에서 숲을 보는 느낌, 식당에서 마을 어귀의 길을 보는 것, 그리고 뒷마루에 나와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 또 뒤에 보면 테크가 있는데, 이곳은 독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층에 올라가면 이 집에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안방과 함께 있는 뒷마루 공간 등을 설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주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2층의 뒷마루 공간과 1층 마당앞에 있는 테크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집에서 내가 산다면 무엇을 느낄 것인가, 또는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입니다.

이상해___2층에서 보면 거실상부와 연결되어 틈어져 있는 벽을 통해 밖의 광경이 건물안으로 들어오는데, 즉 들어오는 장면이 낮과 밤이나 계절마다 벽에 부딪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연___초승달이 떴을 때 초승달 불빛이 2층의 조그마한 창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더라는 말을 건축주가 합니다.

이공희___의외로 밀어만 틈여 있고 위에는 조그마한 창들이 있어 왜 그랬을까 궁금했습니다.

이상연___원래는 천창을 할려고 했습니다. 앞에 펼쳐진 자연이 너무 좋아서 2층에서의 느낌이 연속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창을 내서 밖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자는 것이었는데, 초승달 불빛이 들어와서 참 좋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공희___2층에서 2가지 의외성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자연과 호흡하면 자연이 인입되고 상호관입되도록 해주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을 막았더라구요. 연속극보다 장면이 바뀌는 것같은 의외를 느꼈고, 그다음에 보통 안방에서 쓰는 화장실은 안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도의 집을 보면 비맞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의외라고 느꼈습니다. 브릿지를 통해서 화장실을 가야되니까... 부부침실의 화장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프라이빗(Private)한데 공연부위를 가는 것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연___2층공간은 부부전용공간이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공간공간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바로 옷을 갈아 입을 수 있고, 화장실, 부부공간, 옷장을 하나의 단일공간 즉 한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실상부와 틈어져 있지만 완전히 독



임산주택

립된 하나의 공간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이 건축주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건축가를 굉장히 신뢰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부부만이 존재하는 공간을 1개층 전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이공희___많이 걷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걸으면서 복도 끝에 난 창문, 그 프레임을 통해 또 자연을 볼 수 있어서 프레임들을 상당히 많이 고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도시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속에 있어서 많이 걷게 해주고 걷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비주얼 타겟을 만들어주거나 옥외에 있으면 스크린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한정한다고 봅니다.

이상해___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한 경우에 많은 건축가들이 기하학적인 형태라고 할까, 도상적인 형식으로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과 대치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형상을 가지면서도 상당부분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형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실제로 주거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이 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공희___보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 집이 비록 작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2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연___처음에 대지에 갔을 때 건물을 어떻게 앉혀야 될까, 가령 건물의 파사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루어져야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건축주는 거실을 남서향으로 앉히기를 원하는데, 남서향으로 하면 옆으로 돌아서는 건물이 됩니다. 이 집이 과연 옆으로 돌아서도 될 집인가, 자연과 건축을 생각해 보면 파사드는 남향으로 비슷하게 앉는 것이 좋겠다, 건물의 자리매김이 참 좋은 것 같다고 이상해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파사드의 느낌을 남향으로 설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남서향으로 서있지 않다는 느낌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도 큐빅의 프레임을 넣었어요. 그 큐빅의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남향의 파사드를 갖게하는 요소가 됐어요. 그리고 남서향을 갖는 거실하고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리텐굴러(rectangular)로 해서 남서향을 보고, 또하나는 스퀘어로

해서 남향을 볼 수 있는 2가지 요소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하고 현관은 남쪽을 보게된 것입니다. 그 축과 남서향 축을 기하학적이면서 융합시키는 원리가 슈프리마티즘(suprematism)에서 정의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실은 실사용공간이고, 스퀘어는 사실 프레임에 의한 빈공간이에요. 스퀘어와 리텐굴러가 @매어져 있는 것은 성격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형태도 다릅니다. 그것이 독자적으로 서 있으면서 조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디자인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해 _____ 길이 남동북서축 길과 그 길과 수직으로 접해있는 막다른 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물자체를 설정하는 것을 보면 남동북서축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본래 대지의 길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45도축으로 안 들어 주므로써 자연스럽게 뒷마당이 생기는 그런 2개의 축이 집의 입방체와 연관돼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연 _____ 자연스럽게 뒷마당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은 남북방향으로 건물을 똑바로 놓는데, 이 집의 경우는 거실앞에 다른 집이 있고, 또 수려한 산세의 자연스런 유입을 꾀하기 위한 의도가 또한 축을 설정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이공희 _____ 한강변의 워커히호텔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강과 평행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스듬하게 배치하므로써 오히려 한강이 길게 보이는 이치와 같은 경우이군요.

이상해 _____ 그렇게 하므로써 훨씬 더 특이진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측면에서 재료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연 _____ 여태까지 주택에서 콘크리트를



일산주택

쓰는 것이 모험적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트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건축주께서 노출콘크리트건물이 어떠냐고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건물의 느낌과 재료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또 싫증나지 않는 특징 등으로 좋아한다고 하니까 건축주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죠. 그동안 노출콘크리트를 주택에 사용해 보는 것, 또 사용의 성공여부에 있어서 확신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호응해주는 예는 없었어요. 내외부에 노출콘크리트는 우리나라 기후환경에서는 힘들다고 보고, 외부에서는 노출되고 내부에서는 단열재와 집선보드를 사용하고, 색깔은 콘크리트와 이질적이지 않게 하는 방법 등으로 겉로나 난방에 전혀 문제없이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상해 _____ 이 집에서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나요?

이상연 _____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집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노출콘크리트도 우리나라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묘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상해 _____ 앞으로 이런 주택을 설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상연 _____ 이런 환경이 주어진 주택은 참 힘들습니다.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내 군사보호구역이고 자연과 접해 있는 대지에서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이 집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정서에 맞고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작품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건축가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에 있을 당시 김수근선생도 가장 애착을 갖고 현장에 직접 다닌 것이 주택이었습니다. 작가는 자기가 직접 핸드링한 것이 평가되고, 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현재 건축계의 가치관부재가 아쉽습니다. 말하자면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사실 소외되어 있는 현상. 그리고 집단이나 규모에 가치를 두고 문화의 본질적인 가치는 등한시 하는 것이 과연 건축가의 자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상골(像骨)에 담은 동시적 시감(同詩的 時感)

The Simultaneous Sense of Time Captured in the Picture Frame

이공희 / 원도시건축실장, 국민대건축학과겸임교수
by Lee Gong-Hee

상골(像骨)

PICTURE FRAME(이하像骨)은 건축이 주변 컨텍스트나 조망, 건축의 보여짐 등과 교류하고자 할 때 차용되어 건축을 풍요롭게 하곤 한다. 상골은 하나의 레이어로 작용하여 방만한 주변을 정연한 경관으로 교류하기도 하고, 때론 건축의 표피가 되기도 하여 그 표현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상골이 건축의 내부로 관입 되어질 때면 공간 까지도 그 흐름을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어휘로 작용하기도 하여 동적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한편 건축몸체에서 분리되어 근경으로 상골이 사용될라치면 건축을 또 하나의

The Picture Frame

A picture frame is often adopted in architecture as a device to create a correspondence to the surrounding context or landscape. It is sometimes a form of layer that formulates a pattern out of the chaotic scenery; at others it becomes the skin of the building which is also the decisive expressive element. When the picture frame penetrates into the interior of a building, it accompanies the expansion or folding of space and creates a dynamic spatial flow. On the other hand, when it departs from the main body of the building and functions as its framing device from a distance, it provides us with that alternative point of view.

The persimmon tree house, designed by Lee Sang-yeon, attracts our intention not by its careful layout in relation of its site condition nor by the distribution of rooms in accordance with the shape of the land, which it indeed has, but by its use of picture frames. It is because the frame has some other function than of a formal concern - it corresponds to the context with which the architecture will develop in the future.

The first picture frame is found in the layer of the main gate, which incorporates the land's difference of height and



관점을 갖게 하는 힘을 갖기도 한다. 이상연의 건축인 땃골 감나무집은 이 건축이 갖고있는 대지해석에 따른 주변건축의 예상을 고려하는 배치계획, 대지형상을 해석한 공간조직의 배분 등 보다도 상골에 관심있게 되는 것은 배분된 공간을 상골을 통해서 하나의 조형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 이것을 통해 건축이 앞으로 전개될 컨텍스트까지도 교류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대지의 고저차와 건축의 경계를 담장없이 해결한 대문레이어가 첫 번째 상골이라면 이 건축의 어프로치 내내 그 시점을 잡고자하는 망루를 감싸 안은 상골은 그 두 번째이다.

the need for a boundary into itself without the obvious use of fence or wall; the second is which encompasses the watchtower looking down on the approaching road. The picture frame on the right of a continuous sequence from the sunken court to the entrance is the third one, which projects this building's border and relation to the neighboring house. The viewpoint leading to the living room hints at the closure of the northern terrace by the presence of the picture frames. The fourth frame, while narrow and high, borrows the traditional method of spatial composition in sequence, with the contrasting use of wooden terrace, a traditional element, and the acute angle, an example of western sensibility.

The point looking out to the mountain of the east, one from the spot we first encounter at the end of the stairway to the second floor, is the fifth frame that has the mountain as its viewing object. The picture frame with rectangular proportion transforms the outdoor deck into a semi-public space of nature. This frame also provides another scene at the edge of the stairway and the corner of the master bedroom - one picture frame constructs double scenery.

The sixth frame - the last one - directs the area

선관을 지나 현관에 이르는 시퀀스에 오른쪽 상공은 이 집이 이웃집과 어떠한 경계와 교류로 의식하는가를 보여주는 세 번째 상공이다. 거실로 이르는 시점은 북측 뒷마루의 설정이 상공로 닫혀져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좁지만 높게 만들어진 네 번째 상공은 뒷마루라는 전통적 소재에 여각이라는 서양적 감각을 중화하는 수단으로 전통적 공간 흐름기법을 차용하고 있음이라. 2층으로 이르는 계단의 끝에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시점의 향위도 동측산을 시각적 대상으로 교류하는 것은 다섯번째 상공이다. 직사각형의 비례로 연출되는 상공은 옥외 맥크를 반공간(Semi-Public)으로 품고 자연으로 전이를 시도한다. 이 상공은 계단실의 단부에서, 안방의 모서리에서 광경을 공유하여 하나의 상공이 두 개의 장면을 연출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상공은 안방테라스에서 서측자연과 남측동네를 바라다 볼 수 있는 망루의 영역을 설정해주는 상공이다. 이 상공은 자연을 향해서는 어느 것도 구속하지 않고 있어 그 수용을 무한대로 하고 있으며, 망루라한 방향으로 보여지는 아랫마을의 광경은 이 상공을 통해 하나의 장면으로 연출되고자 한다. 이 여섯 개의 상공은 컨텍스트의 교류와 보여짐과 볼의 수단이 되어주는 것 이외에도 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축을 연결시키고 종합시키는 기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안다. 이 건축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축이 있다. 남

of the watchtower, a space from the master bedroom's terrace which commands a fine view of the natural landscape of the west and the south's village. This one never forces any limits towards the nature, and is limitlessly open. The view of the village almost becomes a structured frame through this picture frame.

These six picture frames not only allude to the work's communication with the context and transform it into an object of seeing and to be seen, but also act as a device of linking the two axes applied in this project - one that runs parallel to the north-south axis but is actually set in correspondence to the approaching road, and another towards the west that secures the view of the court and the mountain against future constructions in the neighboring sites. The axes cross with the angle of 45 degrees, centering on the circular restroom that divides the spaces of the living room, kitchen and dining room.

The interlocking of the axes also functions as that of the volumes. The need for an architectural method that can incorporate the two volumes into a singular form is met by the superimposition of picture frames with planes of respective functions. A form that could be perceived as complex is thus ordered as a simplified image.

북에 평행하지만 남향을 위한축이 아닌 진입축에 충실한 축이 그 하나이고, 향후 들어서게 될 건축을 가능하여 마당과 전면 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한 서측으로 면한 축이 그 두 번째 축인데 두 축은 거실, 식당, 주방의 영역을 확보해주는 원형화장실을 중심으로 45도 각으로 만나고 있다. 두 개의 축의 결합은 용적의 결합이기도 하여 두 개의 용적이 하나의 조형이 되도록 보이게 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고 각기 기능에 따른 면들은 각기 갖는 상공등의 종합으로 하나의 조형으로 보여짐이라는 과제를 해결한다. 그러므로 해서 다른 두 축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조형의 문제를 간결한 이미지로 변환을 보는데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상공 속에 들어있는 순수한 용적들의 경계만을 보고자 하면 간결한 조형을 위한 주택건축임에 비하면 다양한 양상을 갖고있는 셈이 되고, 결국은 다양한 면들이 상공로 종합되어 전체조형이 정리되어 보여졌다면 건축가의 상공 차용전략은 이점을 만족하고 있다.

동시적시각(同時的 時感)

건축에서 연출하는 장면, 장면은 그 시퀀스에 도달하는 시점과 컨텍스트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시간 시점의 수가 진행속도에 따라 어떠한 오차를 갖는가에 따라 사용자의 시간적 감각(時感)은 달라

In fact, if we look into the boundaries of the volumes within the picture frame, it is certainly more that something that is expected from a house of simple form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iversity of forms have been arranged by the use of picture frames, and that the aim of the architect to present a wholeness among the diversity of forms has been successfully achieved.

Simultaneous Sense of Time

The sequences in architecture are perceiv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viewpoint that leads to that spot or the change of context. The sense of time that one feels is up to the variances of the time spot's numbers in relation to the proceeding speed. The ultimate transition to the digitalization of architectural representation from the age of perspectives now calls for a consideration on the movement of viewpoints. If a work of architecture intends to touch a certain sense of feeling from the viewer, it should primarily obtain a singular taste and avoid a confusing use of materiality.

This work is certainly effective in maintaining the singularity of the building's materiality, but this does not

질 수 있다. 투시도법으로 건축을 설명하던 시대로부터 건축표현의 디지털화로의 전환은 이러한 시점의 움직임까지도 고려하기를 기대한다. 어떤 건축이 하나의 감각으로 호소되기를 기대한다면 건축은 하나의 테이스티(tasty)를 갖기를 우선하여야 하고 다양함에 호소하기보다는 한가지 질감에 호소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뒷골감나무집 건축은 건축의 질감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성과를 보았지만 건축 안에서 밖을 보는 시점은 주변자연환경과의 교류를 위해 꽤 다양한 경우에 수를 갖게 의도되어 있다.

서향까지도 감수하면서 얻어진 마당으로 향하는 조망이 그러하고, 전술된 상골들의 산재들은 주변 컨텍스트를 건축으로 각기 흡입하고 있음이 그러하게 읽혀지는 이유이다. 이것은 또 다른 관점으로는 건축이 총체적으로 감지하고자 하는 시각이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의 시각으로 건축이 이해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장치들이나 기억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장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회유 동선마저도 허락할 수 없는 여건에 접근형식을 가질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 주택건축의 진입로는 그 규모에 비해 길다. 그렇기 때문에 회유할 수 있는 동선의 여유가 없다. 이 물리적 여건은 진입의 시퀀스를 동시적으로 묶는데 한계가 된다. 이로써 발생하는 시차를 줄이는 장치로 감나무 외에 단풍나무를 두어 시각적 목표물로 사용하고 의도된 우물정

원이 기억할만한 요소로 동원된다. 선긋된 마당도 이 시각의 차이를 줄이고자하는 장치의 하나로 해석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두 가지 축으로 흩어질 수도 있었던 조형을 상골이라는 장치로 조절하였다면 상골과 긴 진입로로 시각의 조절을 잃을 뻔한 원인을 시각적 목표물의 장치와 의도된 기억요소로 회복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직된 소재, 유동적 공간

노출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성형판재가 이 집의 내외에 쓰여진 주요한 소재이다. 이 소재에 덧붙였다면 도장류 정도이고, 공간의 연장이나 전이공간이 되도록 의도된 빗마루 등에 쓰여진 목재정도이고 보면 소재차용에 있어서는 절제되어진 의사를 읽을 수 있다. 이 절제된 의사는 소재가 갖는 경직성 때문에 잃게되는 주거건축이 요건이 되는 유연성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여진다. 두 축의 결절점이 되고 실내공간의 조형이 되는 1층 확장실부분은 그 형상이 원형임이 그 하나이고, 복도 종단부의 벽면에 원색으로 도색하여 유연한 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 또한 경직된 건축이 주거건축에서 갖는 한계를 감지하고 대처하고 있음을 안다. 더욱이 주거의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뒷골 감나무집에 단풍나무 한 그루와 우물정원을 제안한 건축가의 마음이 이 집의 최후 사용자의 몫이 되기를 기대한다.

confine the many viewpoints from the inside to the outside that create a harmonical association with the surrounding nature.

The window open to the court, defying the customary refrainment of facing west, the various picture frames all are proof of the house's communication with context. If a work of architecture is to be viewed as a whole, that is, to be comprehended with a single sense of time, it should consider its devices or the space that expands the memory of the viewer. It is more true in a case where even a luxury of playfulness is hardly permitted in its structure of circulation. The approaching road is exceeding in length for a housing. Hence it is a straight path, devoid of any artistic bendings. This physical condition closes the entrance sequence in simultaneity, and the resulting difference of time is diminished by the presence of a persimmon tree and maple, impressive visual targets, and the well - something too unusual for us to not remember. It will not be farfetched to view the sunken garden as a device with the same intention.

The overall form could have been scattered along the two axes, but was reorganized through the layers of picture frames; the loss of temporal sense due to the length of the approaching road could likewise be complemented by visual

targets and elements of remembrance.

Static Materials; Fluid Sp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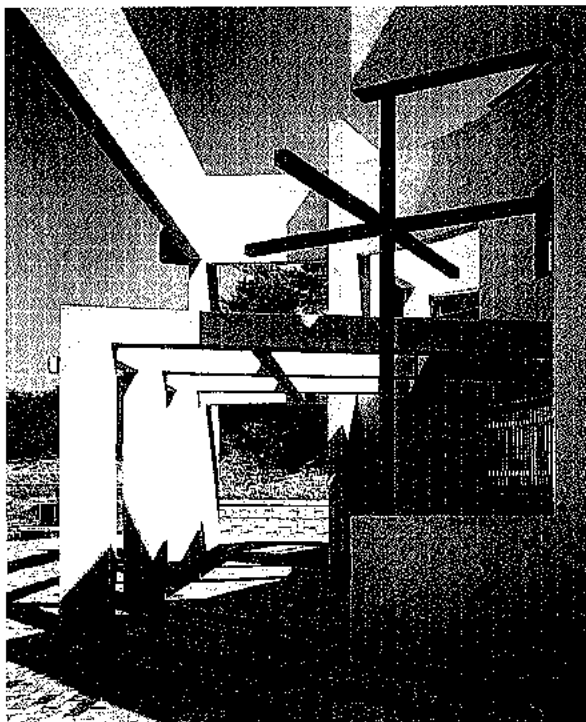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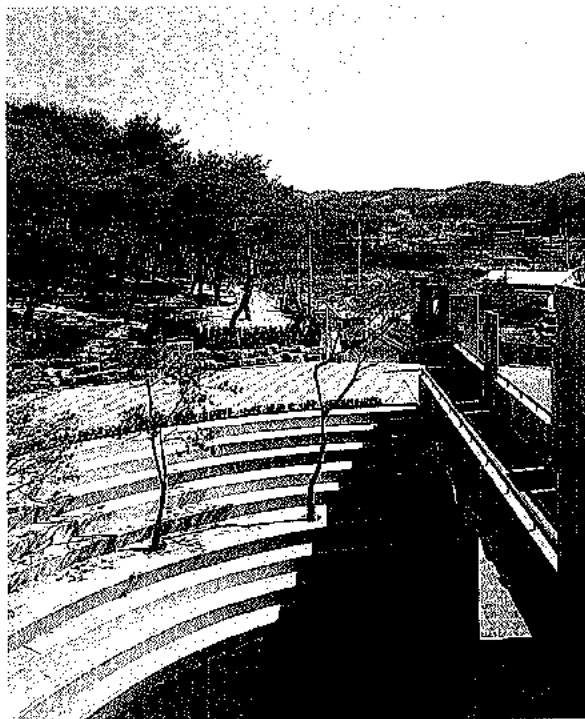
The main materials used in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is house are exposed concrete and concrete panels. With a few instances of using paint and wood in terraces, it could be said that it has indeed a modest approach to materiality. This modesty can be read as the architect's effort to overcome the static nature of the material and provide fluidity to the spaces. For one thing, the restroom, the crossing point of the axes and the center of interior composition, is contained in a cylindrical volume; for another, the wall at the end of the hallway is painted in a primary color so that the space can retain its fluid aspects. The house should never be closed as a static object. Above all the necessary infrastructures required of a house, the architect has added a beautiful maple and a court with a well. This will surely be a blessing for all the future users of this house, whoever they may 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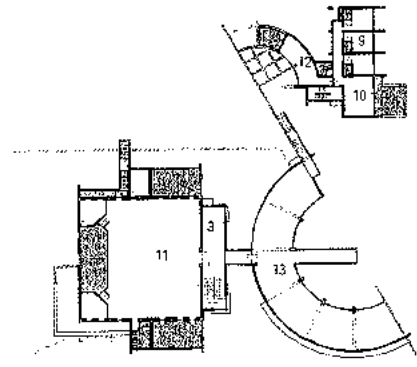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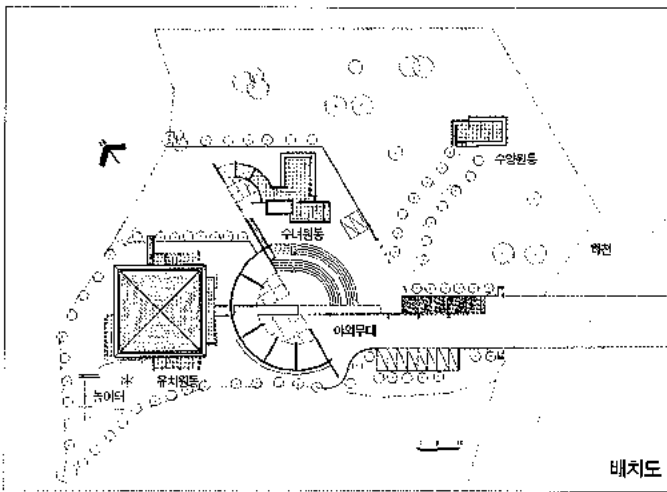
살트르 성바오로 유치원 St. Paul Kindergarten

손명문/건축사사무소 건·환
Designed by Son Myung-Moo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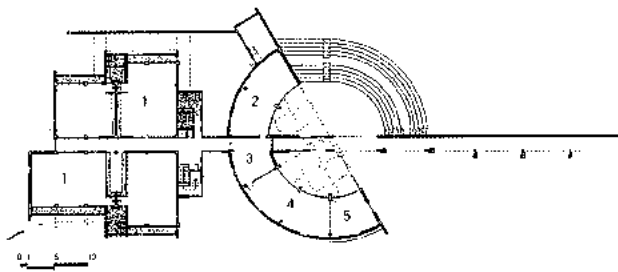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611-7
지역·지구	자연녹지 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 복지시설(유치원)
대지면적	8,518.00m ²
건축면적	1,193.71m ²
연면적	2,320.85m ²
건폐율	14.01%
용적률	27.2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유치원 : 지상 3층 수녀원 : 지상 2층 수양원 : 지상 1층
최고높이	16.50m
주요미감	외장 : 드라이버트 내장 : 수성페인트, 흙음판(섬유계)
설계담당	전영두, 김정우, 이창훈
건축주	제단법인 천주교 대구 성바오로 수녀회 유지재단이사장 이순금
사진	이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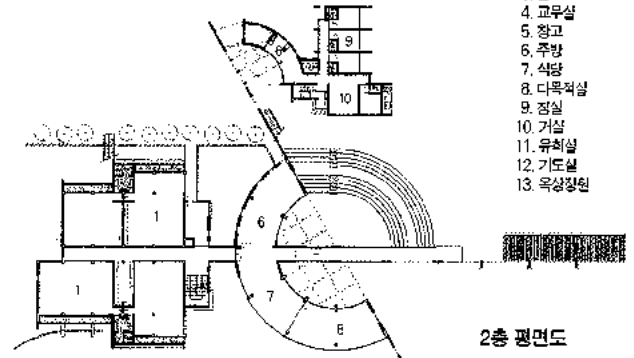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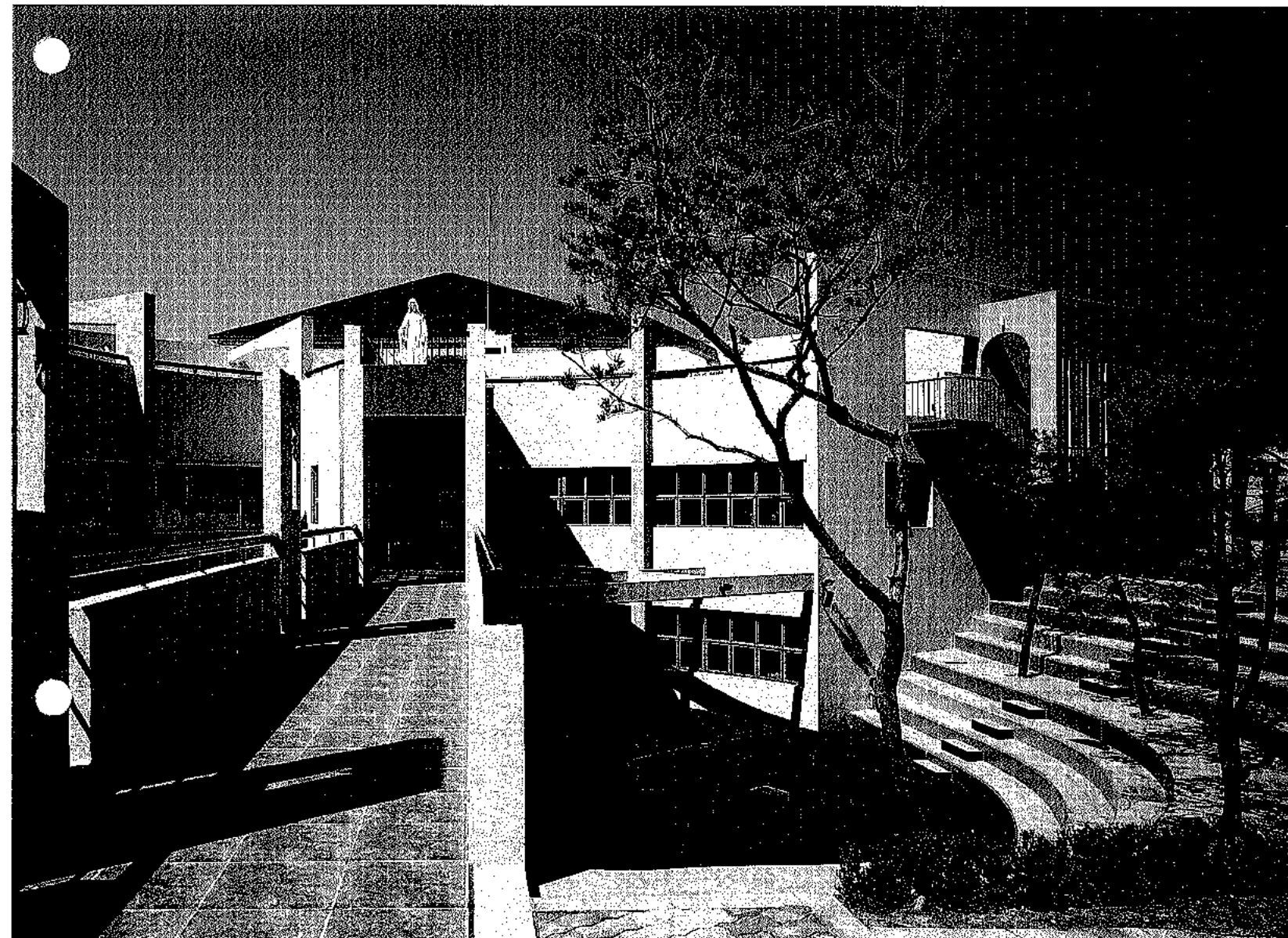
1. 교실
2. 응접/원장실
3. 복
4. 교무실
5. 창고
6. 주방
7. 식당
8. 다목적실
9. 정실
10. 거실
11. 유체실
12. 기도실
13.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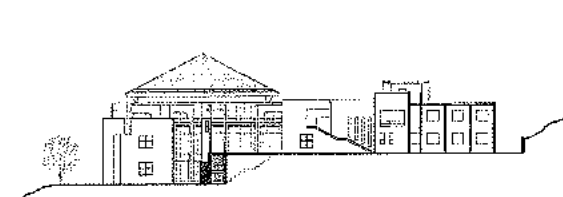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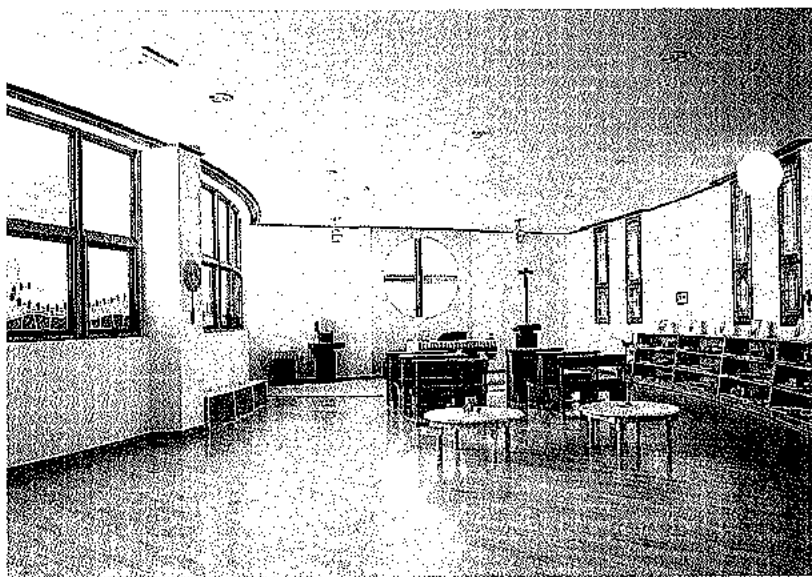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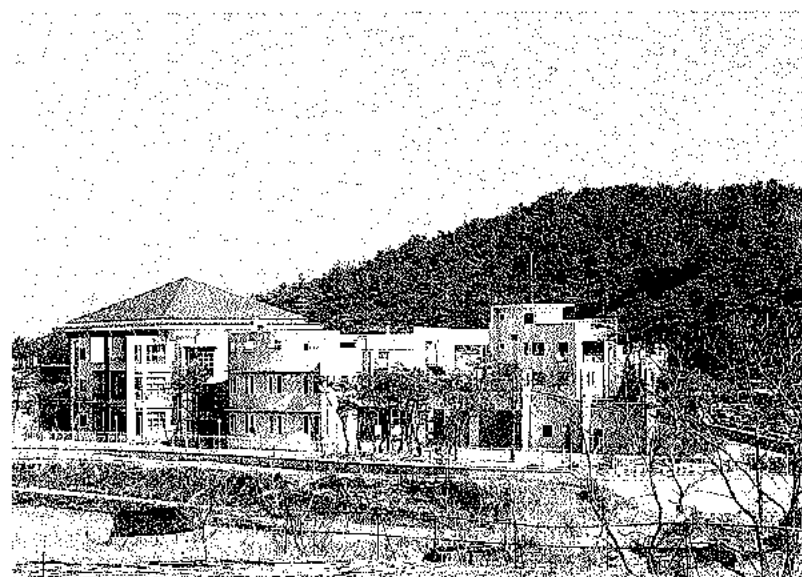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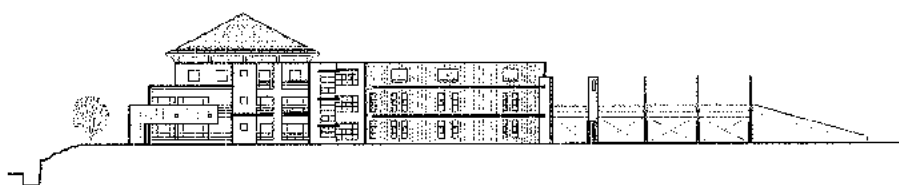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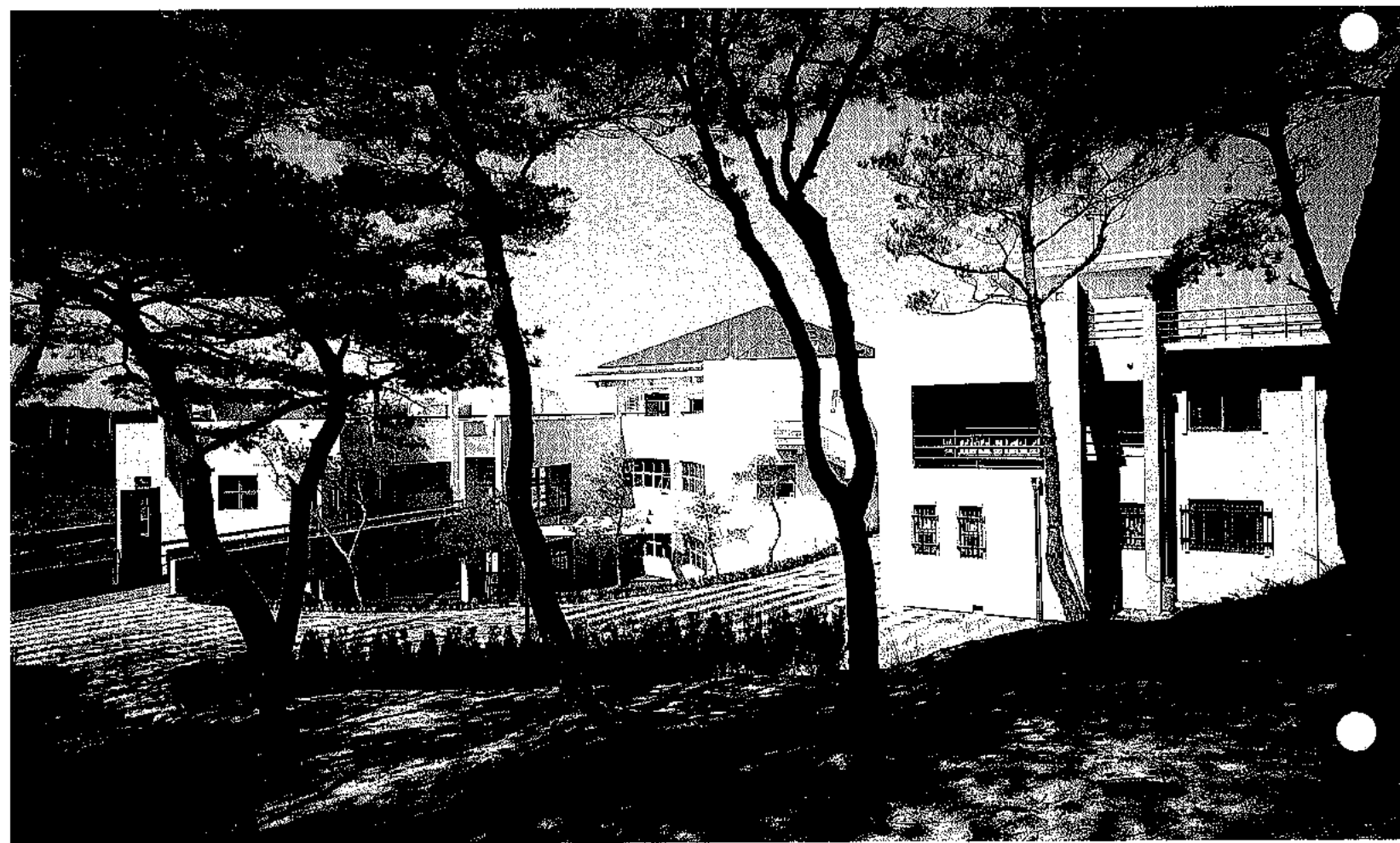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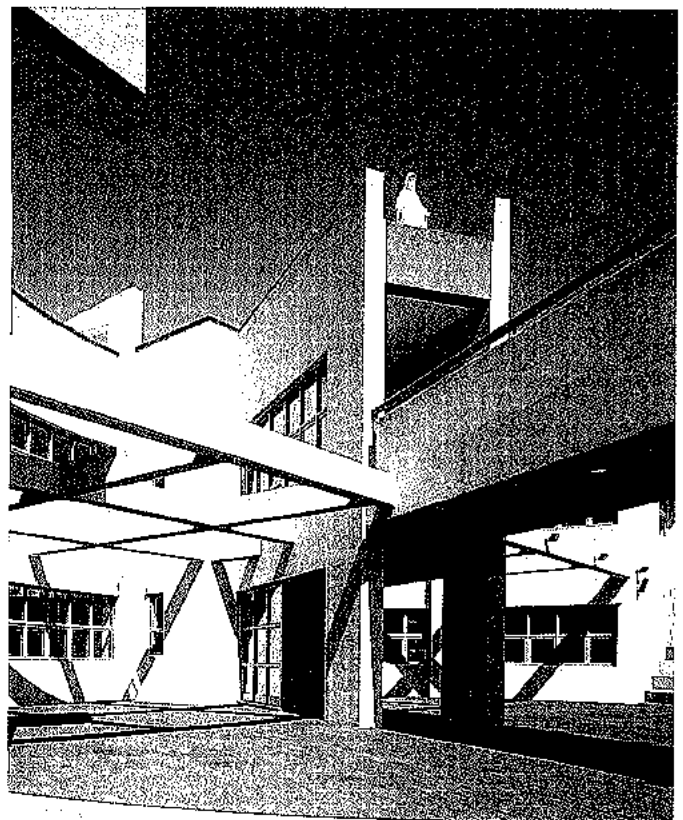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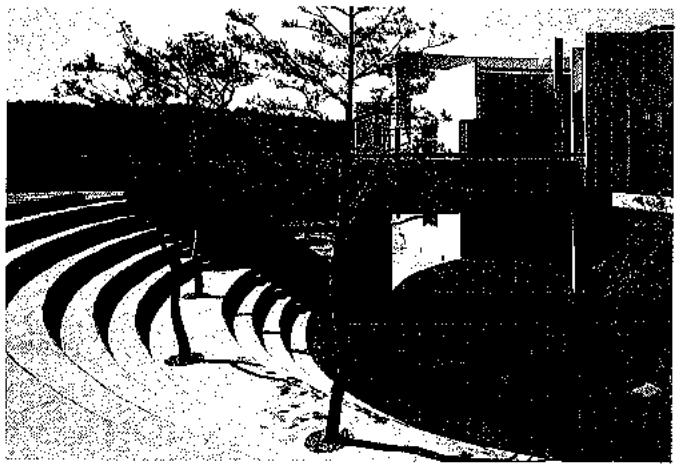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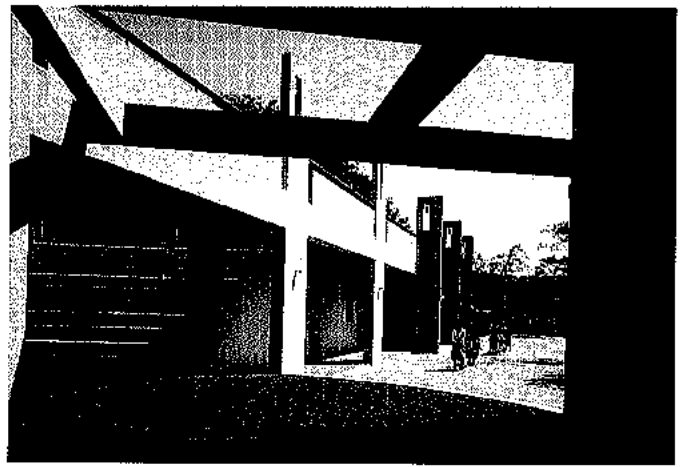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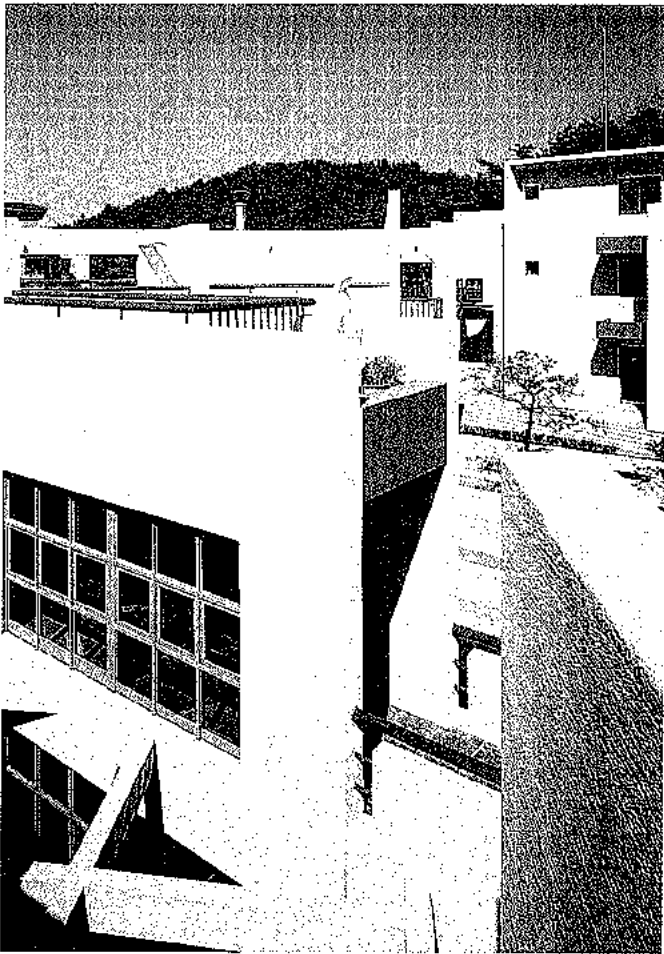


우측면도



정면도





빛살어린이집 Bitsal Children's House

김좌동 · 이웅헌 / 건축사사무소 아을건축
Designed by Kim Jwa-Dong & Lee Ung-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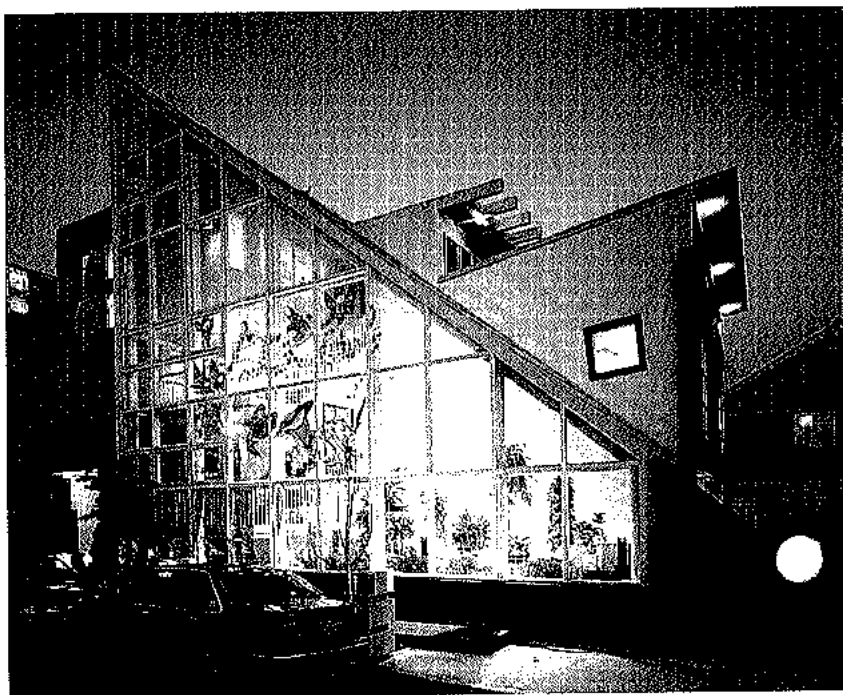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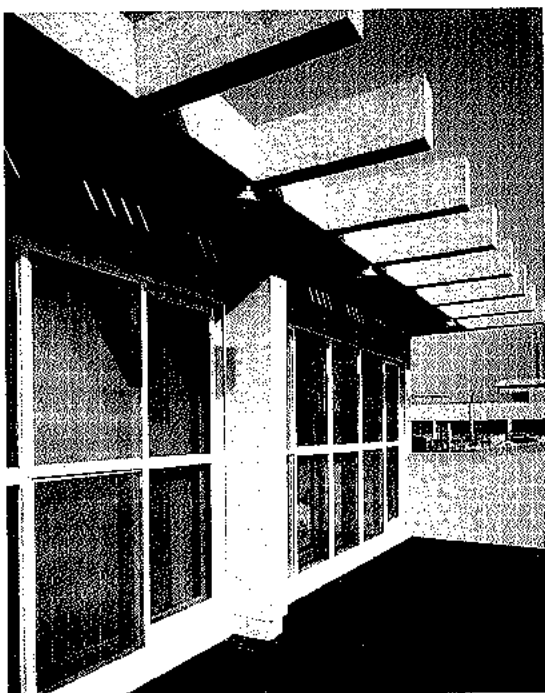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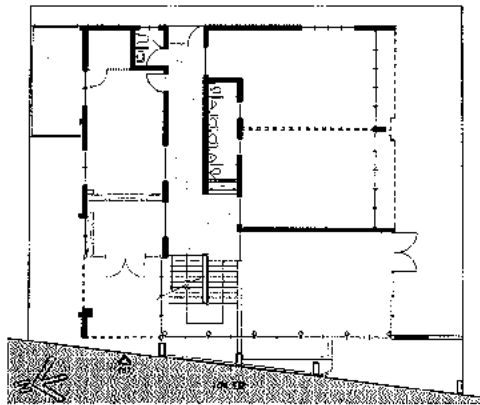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 강동구 천호2동 340-39, 45
지역지구	일반거주지역
대지면적	383.5m ²
건축면적	230.03m ²
연면적	588.15m ²
건폐율	59.98%
용적률	128.27%
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조
용도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외부 마감	드라이브트, 북충유리
설계담당	황인욱, 이인덕, 정광일
구조설계	(주)진흥구조기술사사무소
기계설비	우림설비기술사사무소
전기설비	(주)한양 티.이.씨
시공자	천풍공업건설주식회사

건설이 인지되기에는 불리한 장소와 대지의 협소함을 안고 시작된 프로젝트는 주변의 무표정하고 낙후된 가로 Context를 활기있고 밝은 장소로 전환시키고, 주변과 단절되지 않는 안과 밖에 훤히 보이며 반짝 빛나는 친근감 있고 표정이 있는 건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Concept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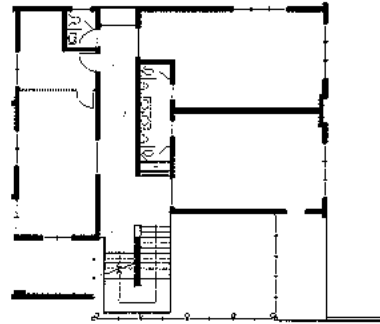
■ Space

어린이집의 필수조건인 옥외 놀이공간은 남측부분을 최대한 이격시켜 생긴 조그마한 공간에 형성하였고, 2층 지붕공간을 옥외 놀이공간으로 배려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배치하였다. 대지의 협소로 인하여 생략되어버린 완충공간과 부족한 옥외 놀이공간은 Green House를 도입함으로써 해결점을 찾았다. 전면 삼각별의 Green House는 건물의 인지성을 높일뿐 아니라 Level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게 해준다. 밝고 개방적인 이 공간은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 옥외 놀이공간의 부족한 부분과 단점을 극복시켜준다. 유아들의 생활공간인 보육실과 유희실을 남쪽으로 배치하였고, 북쪽으로는 사무실과 기타실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공간접근방식은 협소한 도심의 대지에 적용할 수 있는 타당한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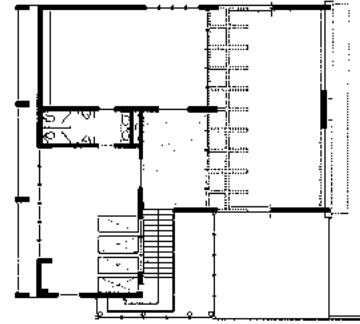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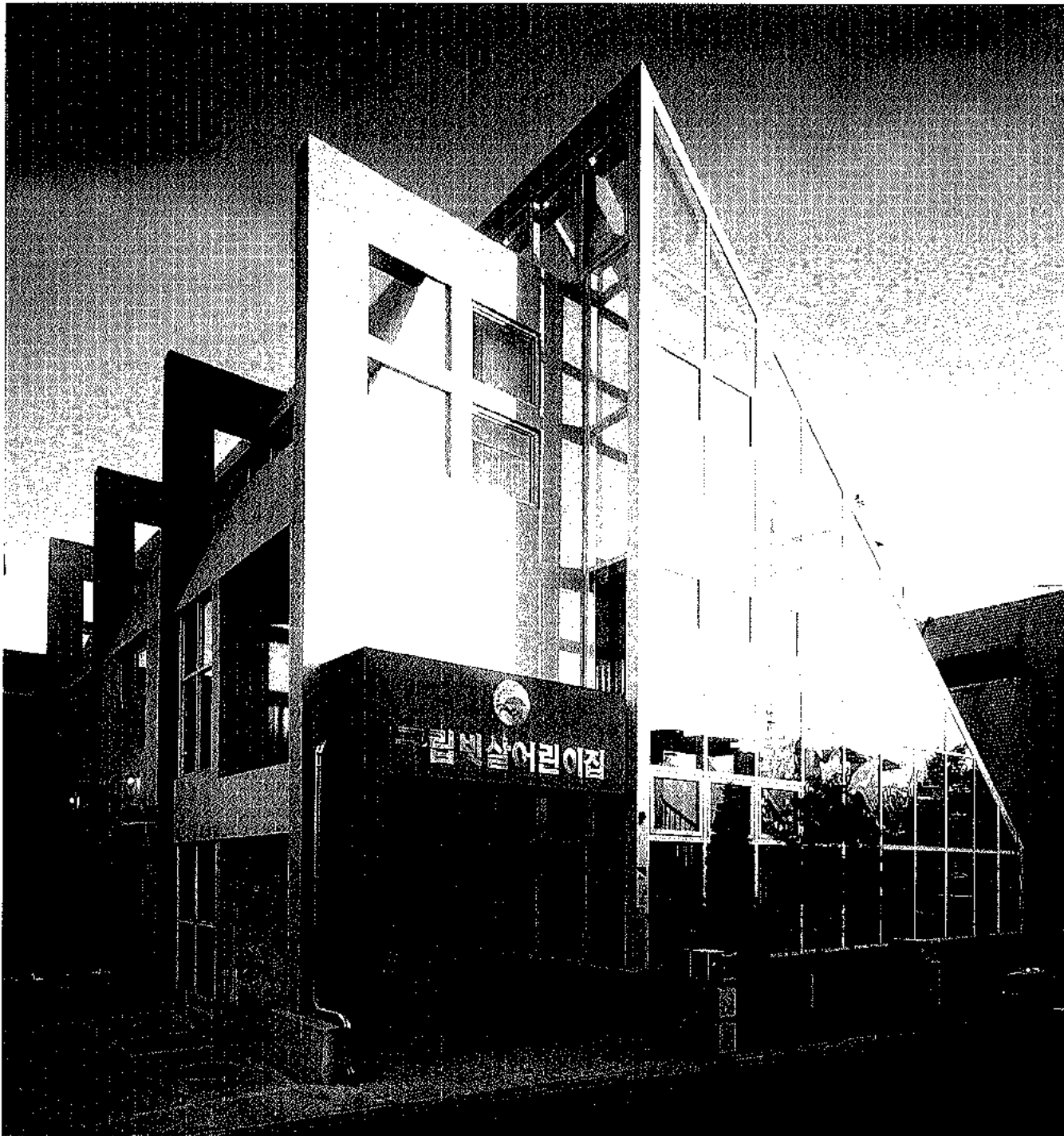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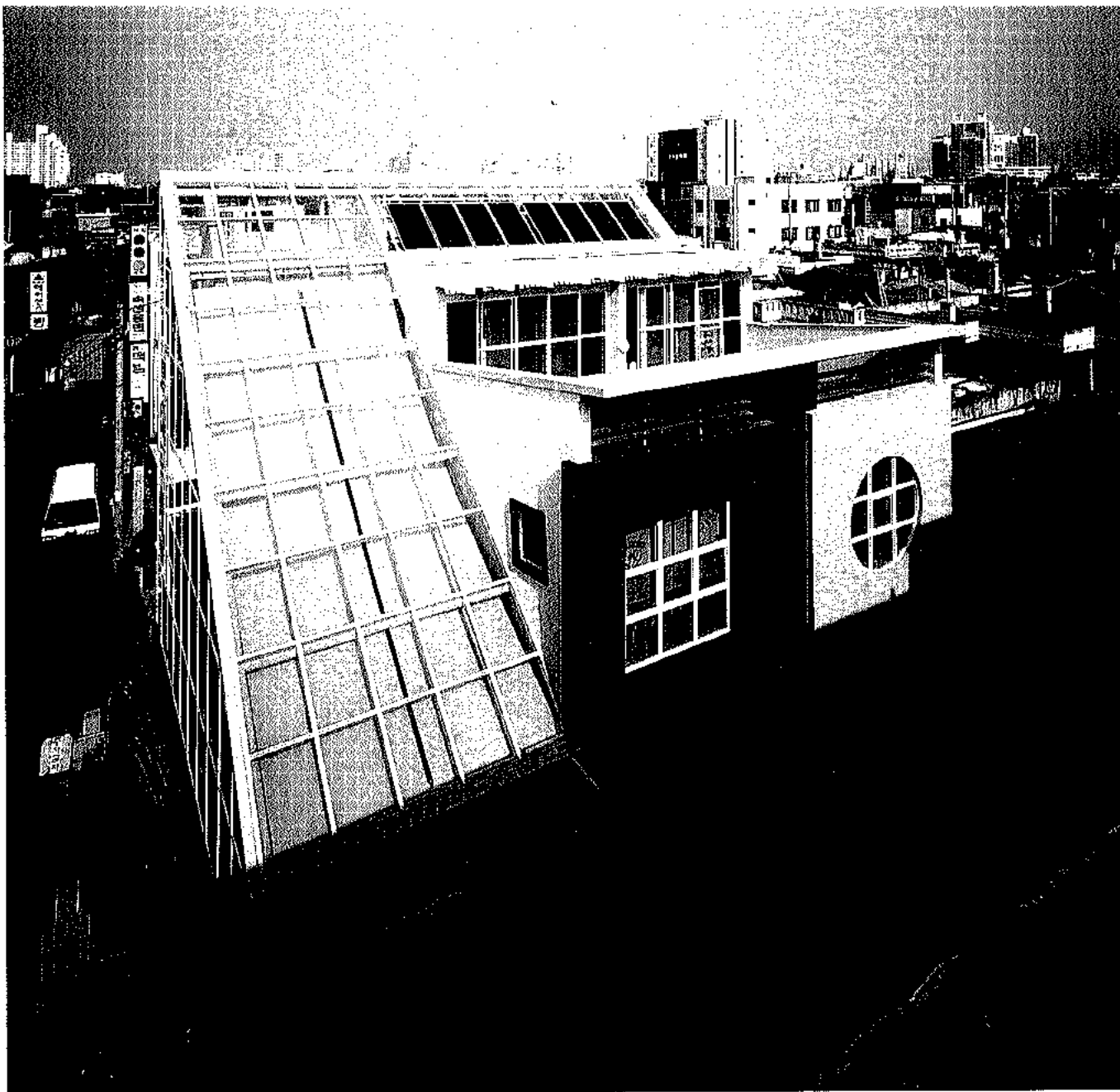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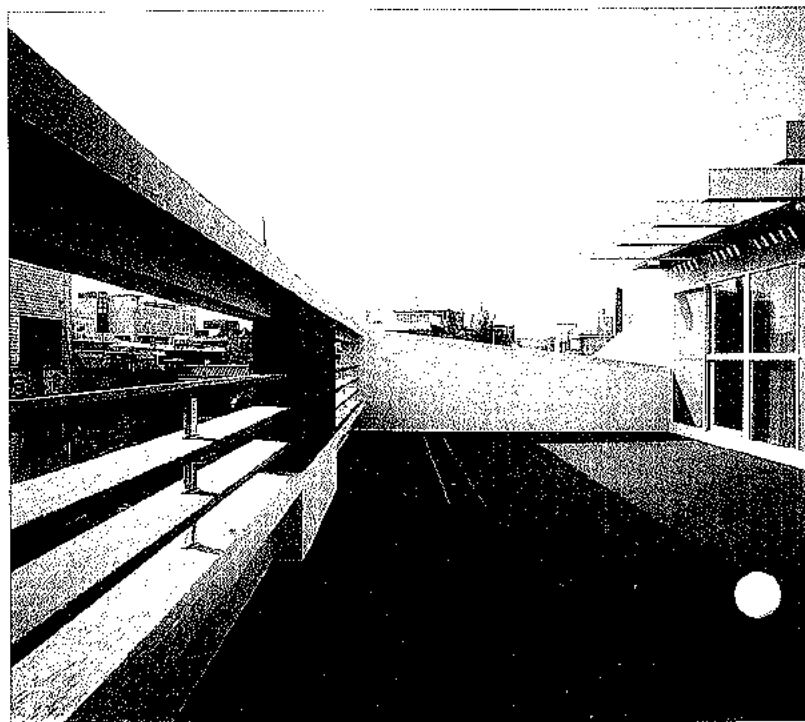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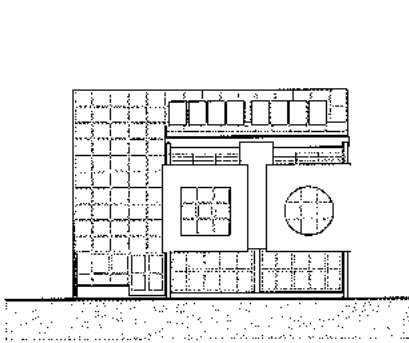
■ Mass

형태계획은 장소와 건물성격을 부각시키기위해 정면성을 강조하고 밝은색조를 도입함으로써 생동감과 신선함 부여에 초점을 맞췄다. Solid한 면에 형태의 기본인 정방형과 원형의 유리창으로 다양한 표정을 부여하고 빨강, 노랑, 파랑등의 강한 원색의 대비로 아이들로 하여금 색채 식별력을 키우며 즐겁고 유쾌한 상상의 날개를 펴도록 계획하였다. 북쪽 3층에 위치한 보육실에는 천창을 도입하여 아동들의 주거공간 내부에 밝은 햇빛을 끌어드려 자연에 대한 여유로움을 가지게 했다. 시각적·공간적으로 내·외 부의 이런 변화는 자연과 주변 Community에 대한 Image를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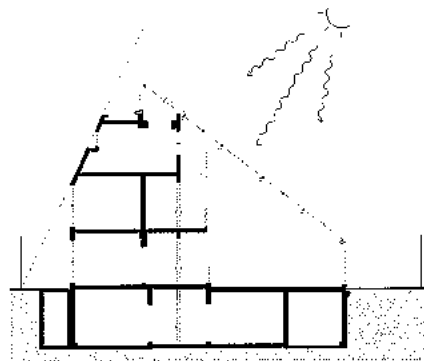
■ Energy Saving

Active Solar Energy System으로서 경사면에 집열관을 설치하여 열부하에 대비하였으며, Passive Solar Energy System으로서 일종의 Attached Sunspace개념으로써 전면부에 Green House를 도입하여, 여름철에는 Auto Sunscreen장치와 자동 창문 개폐장치로 직사광선의 차단과 과열을 조절하고, 겨울철에는 주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자연채광 및 열부하에 대응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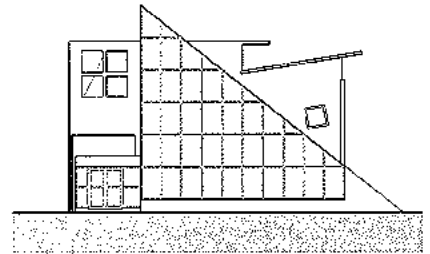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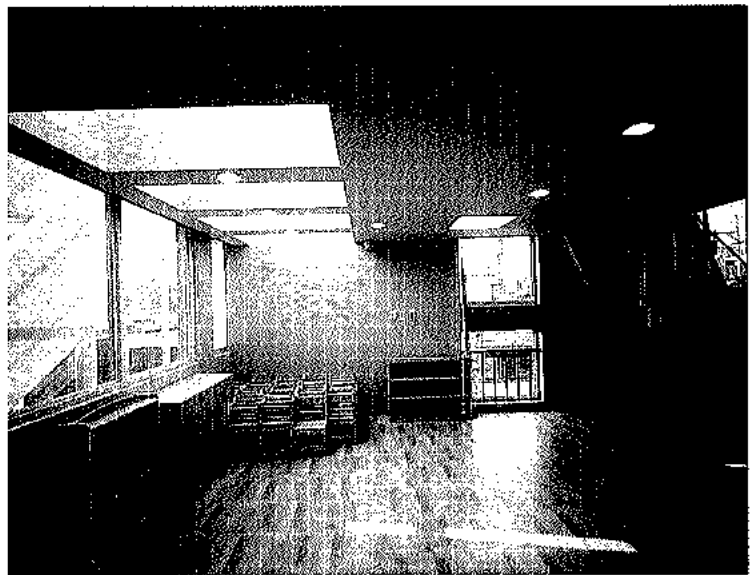
정면도



횡단면도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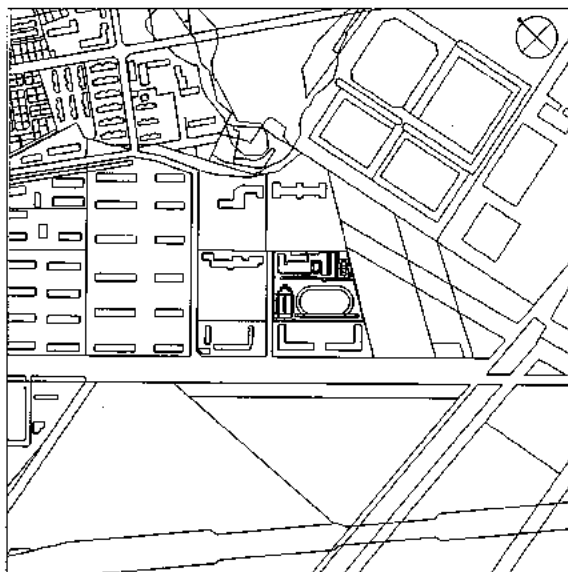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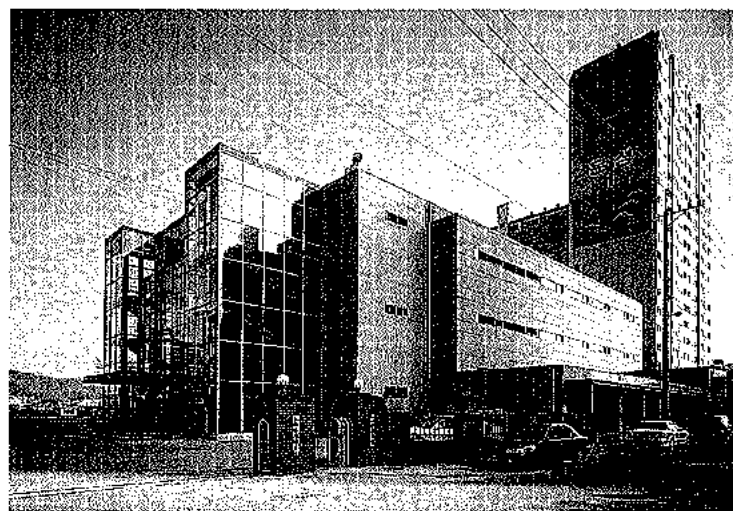


인향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Multi Purpose Gymnasium of Inhang High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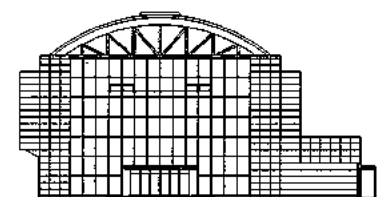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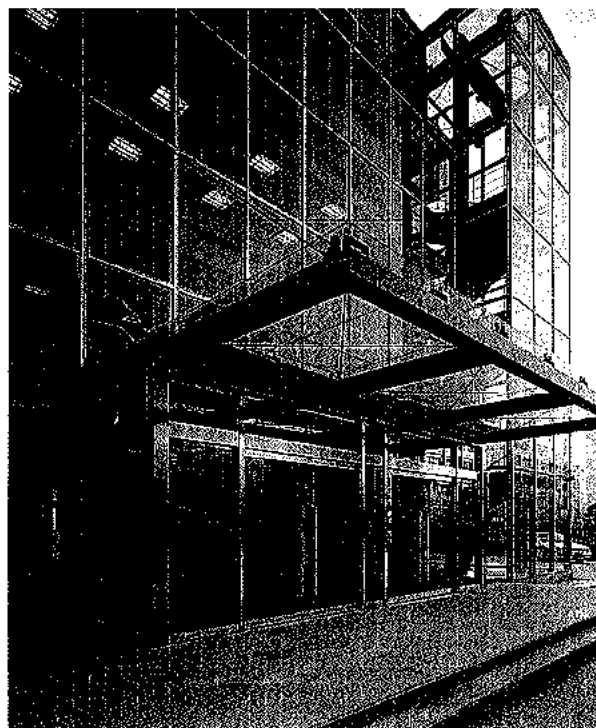
김경택 / 다인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Kyung-Taik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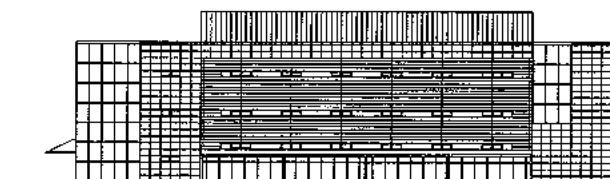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27-456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17,592㎡
건축면적	1,641.43㎡
연면적	3,358.75㎡
건폐율	기준 건물 포함 20.67%
용적률	기준 건물 포함 62.28%
규모	지상3층
구조	RC조+SRC조+철골조
주요내장재	텍스페널, 쓰노-러버, 아코텍 패널
주요외장재	THK30화강석물갈기, 폴리메탈페널, 오메가페널, THK24투명복층유리
설계기간	1998. 10 ~ 12
공사기간	1999. 1 ~ 2000. 3
사진	채수옥



배치도



정면도



우측면도

개방성과 공용성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들과 4개의 학교가 모여있다. 즉 지역 주민과 4개 학교 학생들이 같이 쓰게되는 체육관인 셈이다. 처음부터 이 체육관은 개방성과 공용성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다. 상업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 개방성을 띄는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체육관은 1층 다목적실 부분을 가로에 전면 개방하고 있다. 이 다목적실은 학부모들이 모임을 갖거나 학생들의 특별활동을 위한 장소로 쓰이게 될 것이다. 가로와 다목적실 사이의 유리로 덮여있는 철골 캐노피는 그 개방성을 상징하며 가로와 다목적실 사이의 중간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처음 체육관이 들어설 자리는 지금 위치의 반대쪽인 운동장 끝자리였으나 기존 학교 정문과 동선상 가깝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건물 한쪽을 가로에 완전히 열어놓게 된 것이다.

프로그램

학교의 현안인 학생식당과 다목적 체육관을 복합시켜 놓는 것이 프로그램의 시작이었다.

부수적으로 교사식당,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등이 뒤따랐다. 다목적실은 학교측과 의견이 분분했으나 어설프게 자리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뒤늦게 따라 붙은 실이 이 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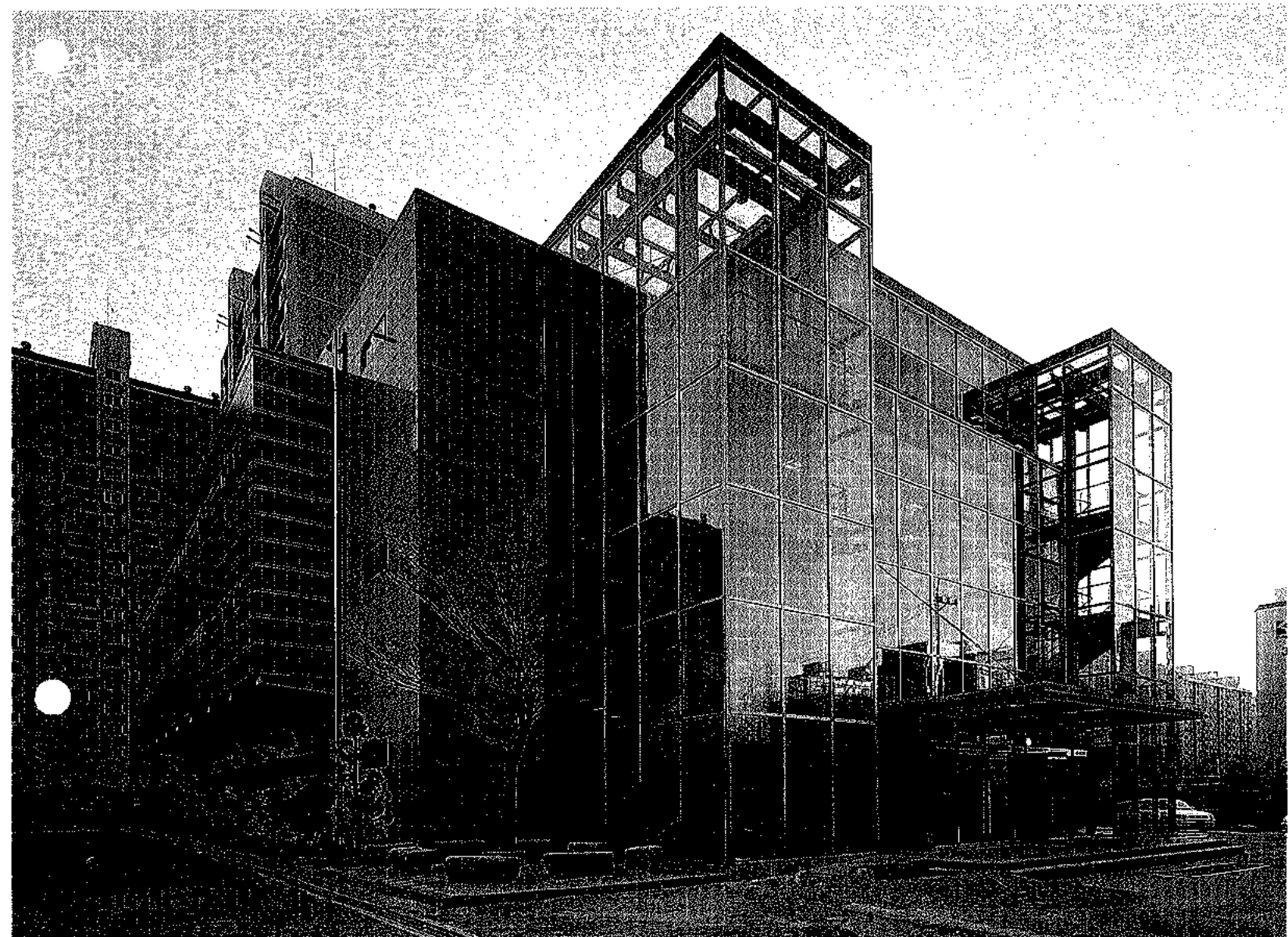
의 성격을 규정짓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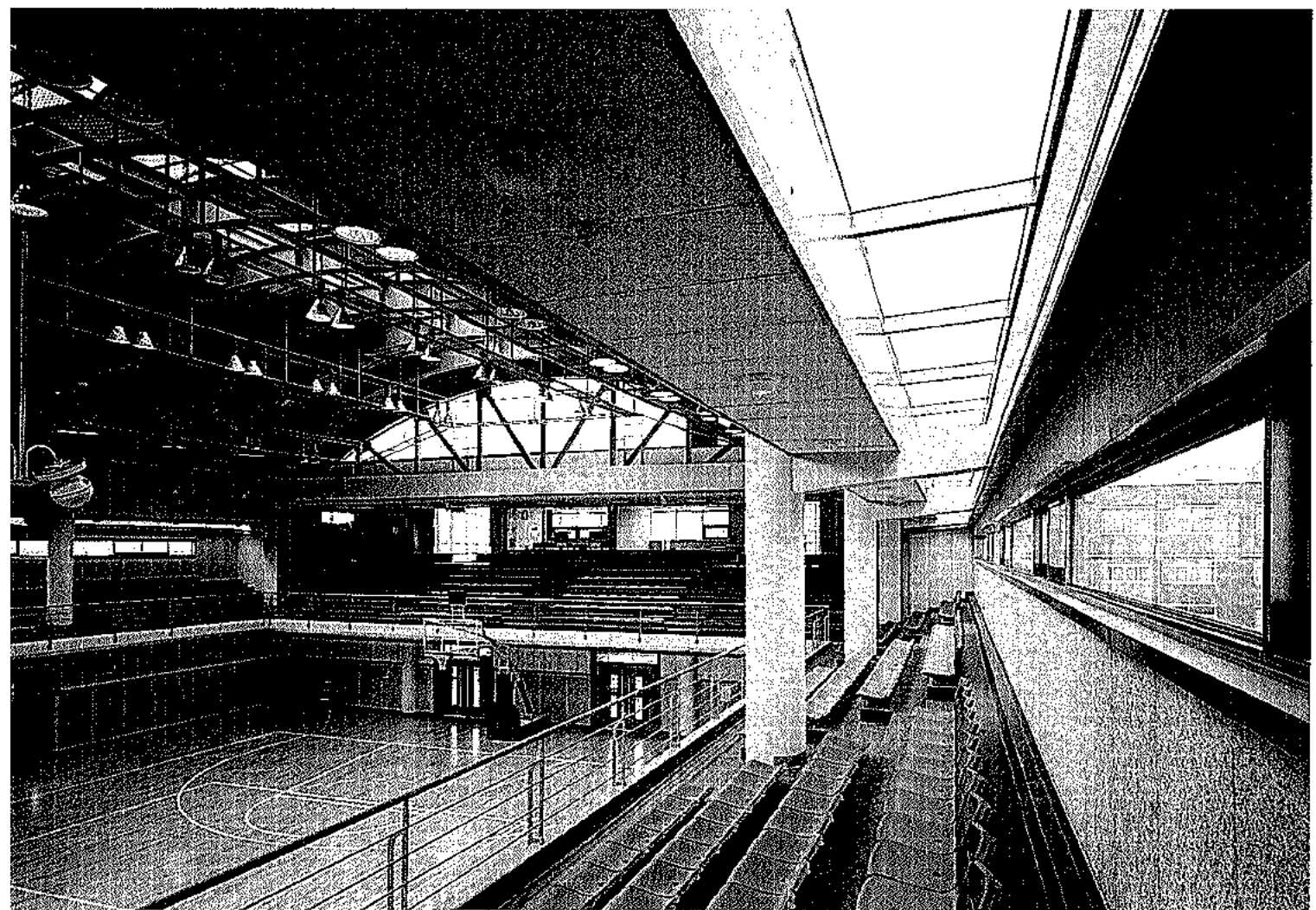
대비

정면 투명유리 커튼월은 기존 학교의 전형적인 적벽돌 건물과 강한 대비를 이루어낸다. 적벽돌의 어두움, 무거움, 폐쇄성, 불투명성에 비해 밝음, 가벼움, 개방성, 투명성 등을 그 어휘로 한다. 그 어휘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철골조 계단이 만들어졌고 이 쌍둥이 계단탑은 천장까지도 유리로 마감되어 그 투명함이 극대화된다. 캔틸레버로 돌출된 관람석 부분은 금속패널로 마감하여 역시 적벽돌과 강하게 대비된다. 가벼움이란 일관된 주제는 외장재인 화강석을 물갈기로 처리한데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강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정면과 측면은 아치형 지붕과 그 지붕을 떠 받들고 있는 사선형 트러스로 완화되고 있다.

공간

가로에 개방된 다목적실이 외부지향적이라면 현관을 들어서자 만나게되는 1,2층 오픈 공간은 내부 지향적이다. 식당을 이용하고 나오는 선생님과 학생들, 체육관을 이용하고 나오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밝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계단탑은 더 이상 단순한 수평이동장치가 아니다. 이 공간을 체험하는 장치이





며 3층까지 오르내리는 동안 빛과 주변 조망을 만끽하는 공간이다. 체육관 내부 역시 자연채광을 최대한 유입시켰다. 지붕 한 가운데로 내려쬰이는 자연광과 관람석 상부에도 햇빛이 들게하여 흐린날에도 내부 조명 없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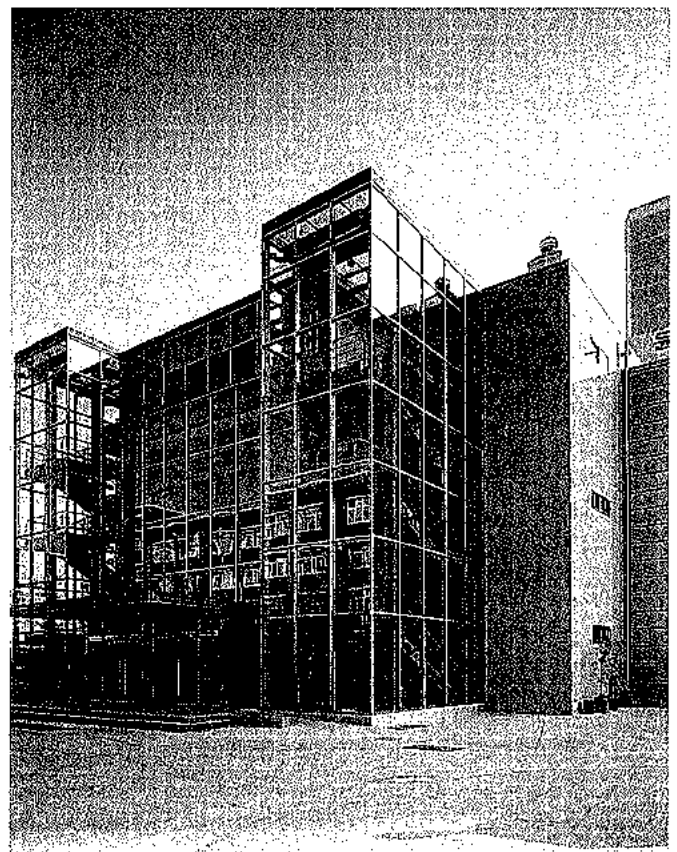
구조와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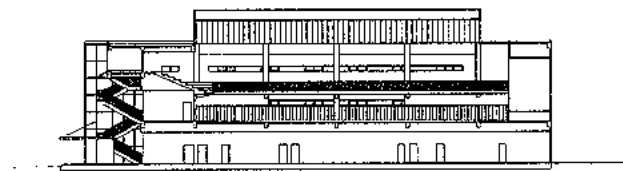
지붕의 아치형 트러스, 계단탑, 돌출된 캔틸레버 관람석은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체육관임을 상징하는 직설적 표현이다.

구조는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가 섞여있으며, 외장 재료는 화강석, 금속패널, 투명유리가 쓰여졌고, 내장재료는 고도의 흡음을 위해 쓰노러버, 텍럼판, 아코덱패널을 사용했다. 지붕재는 수축·팽창에 원활하게 적응하게 하기 위해 패널을 구조체에 고정시키지 않는 Sliding Bar System을 적용했다. 캔틸레버로 돌출된 부분의 외장재로 사용되고 있는 금속패널은 오염방지를 위해 코킹재가 필요없는 Dry Joint방식의 패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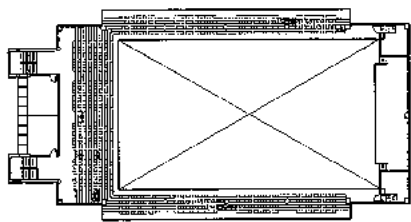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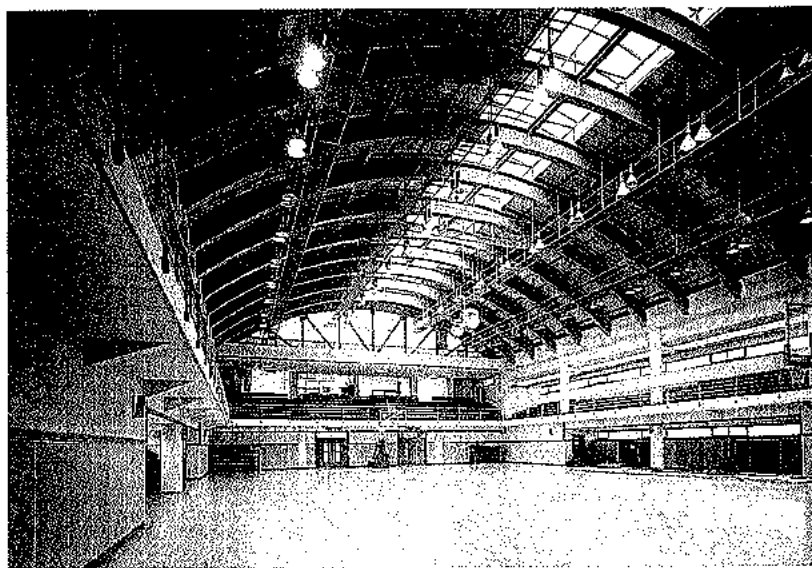
결언

학교와 아파트 군으로 이루어진, 다소 침체되어있는 이 지역에 놓여지는 이 체육관으로 인해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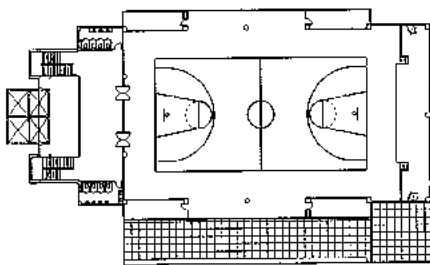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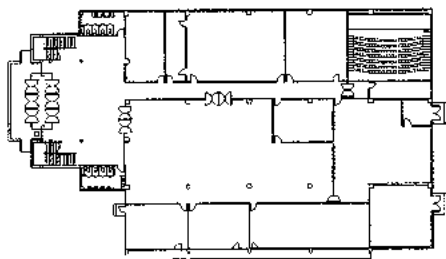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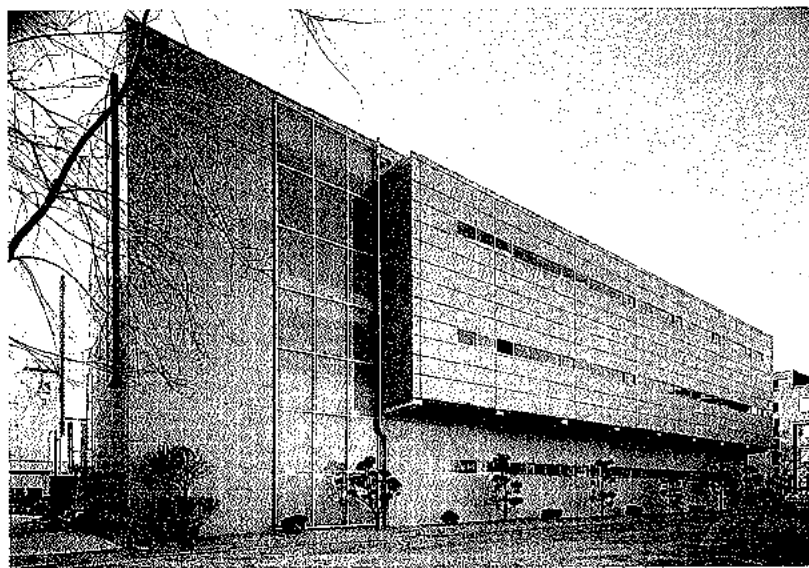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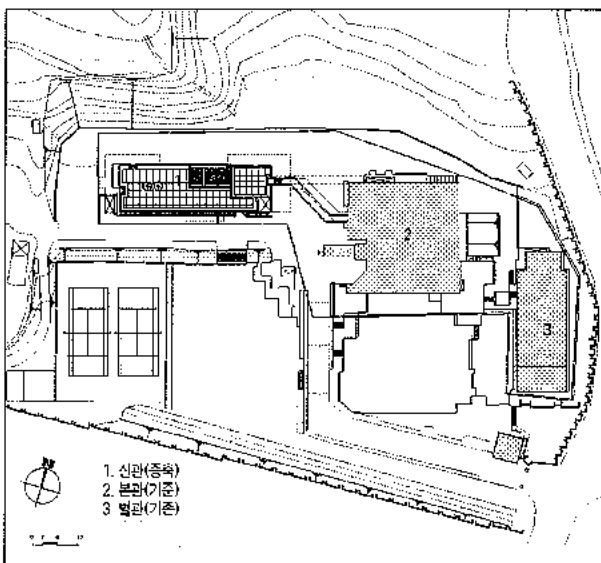
Extention Korea Rural Economics Institute

김병년 /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Byung-Nyu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09-140
지역·지구	일반주거
용도	연구시설 (도시계획시설)
대지면적	4,800m ²
건축면적	562.31m ²
건폐율	11.71%
연면적	2,911.74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용적률	51.05%
구조방식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	AL, 세라믹패널 + 24mm 복층유리
설계담당	현태현, 채영석, 박원석, 정대환, 최우성, 김민경, 배준석, 윤길호
사진	채수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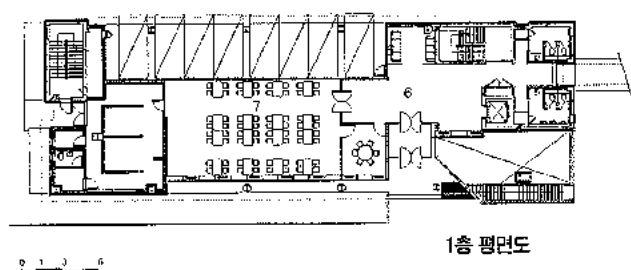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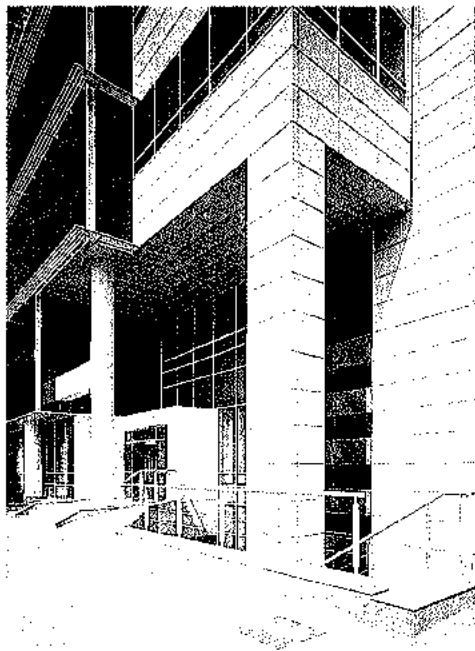
공공의 연구소가 군집해 있는 서울 홍능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0~70년대 건축된 고김수근선생의 작품으로 주변연구소 건축물과 일단의 그룹을 형성하여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계획초기 단계에서 기존건축물과 외형적 연속성에 대한 검토가 되었으나 연구원의 도약적인 첨단 이미지 구현이라는 요청에 의해 시대를 대변하는 미래지향적인 건축개념이 설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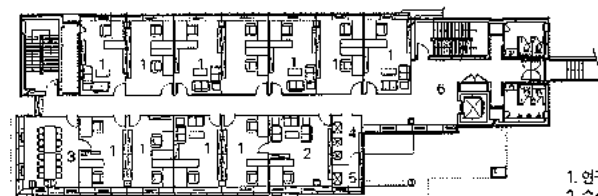
배치개념은 기존 건물과 동선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계획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배치, 대지의 전·후면의 녹지공간을 적극적으로 실내공간으로 인입시키며, 연속성을 고려하여 협소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을 감안 1층 후면부를 피로티로 구성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였으며, 주진입이 본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선과 연결한 피로티 구성으로 본관동과 차별된 진입공간을 계획하였다.

평면구성은 각층마다 점진, 회의실을 배치하여 연구원들의 리플래시한 공간을 확보하였고 연구형태, 기능, 수용시설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호환성, 유연성을 고려하였으며, 복도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연구공간을 배치, 양단코아로 계획하여 효율성 및 이동성을 고려하였다.

입면구성은 철과 유리커튼월을 이용, 투명하고 깨끗한 구성과 주·부공간의 재료변화를 꾀해 내부기능을 디자인 요소로 응용하였다. 계획모듈을 융통성, 확장성이 우수한 3m×3m 모듈, 구조모듈은 철골의 경제성 및 주차효율을 고려한 7.5m×12.6m채택하였으며, 기능이 상이한 식당과 연구실을 홀을 중심으로 동선과 기능을 수직적으로 명쾌하게 분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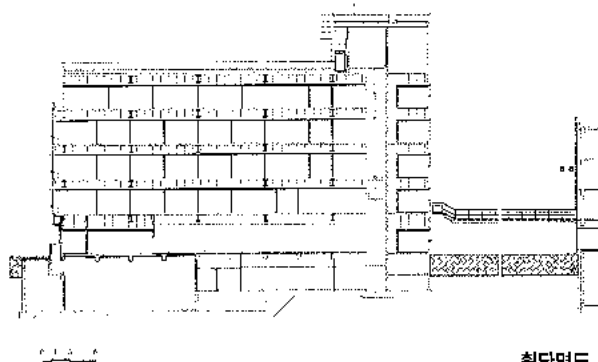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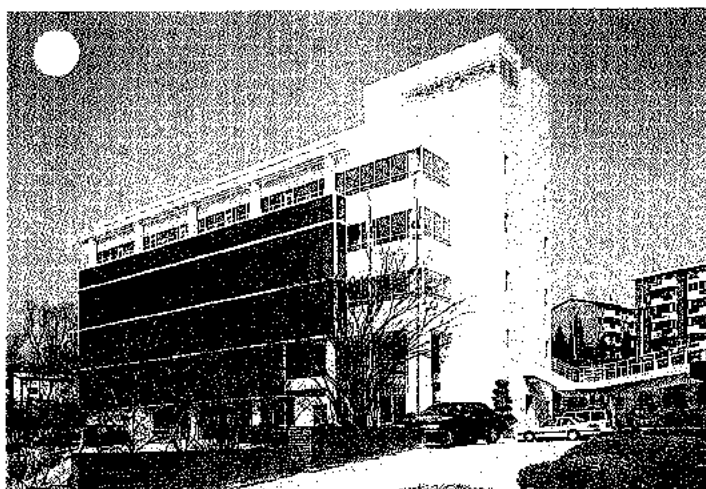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1. 연구실
- 2. 수석연구회의실
- 3. 소회의실
- 4. 공동장비실
- 5. 허브정보실
- 6. 층
- 7. 식당



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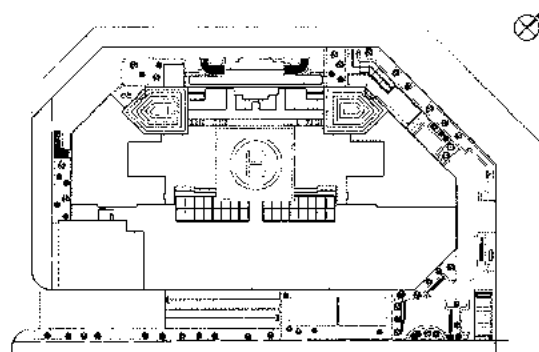


구로동 현대파크빌 Hyundai Parkvi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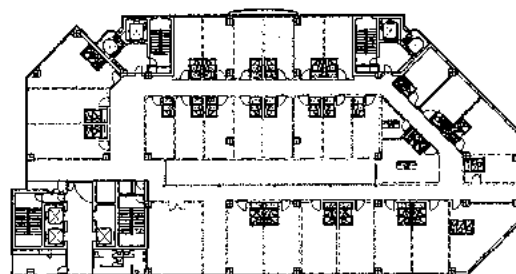
부대진 · 김무현 / (주)전아건축 · 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Bou Dae-Jin & Kim Moo-Hyu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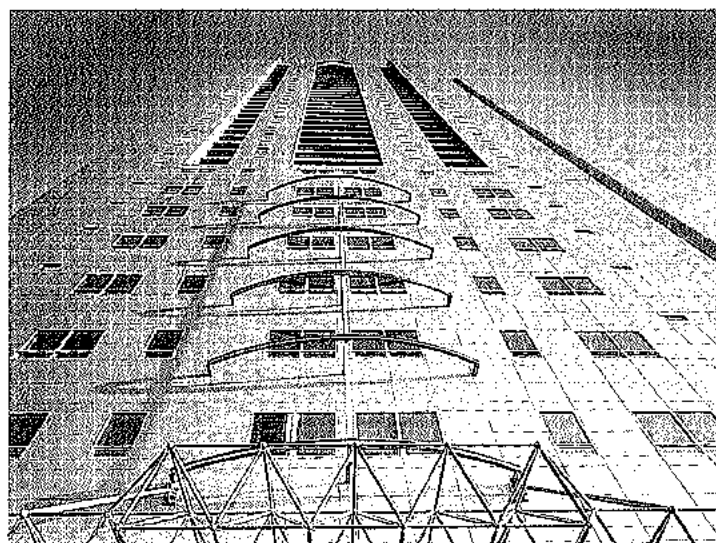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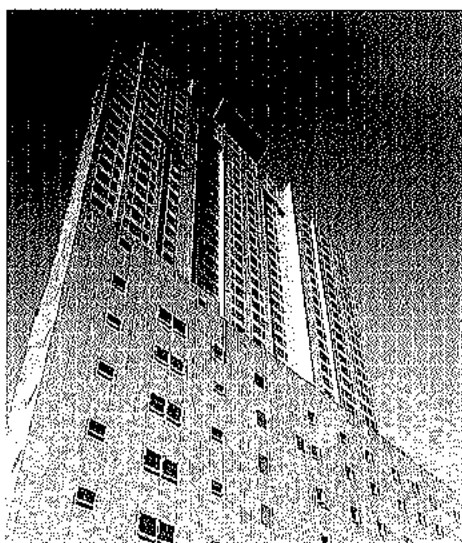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8번지의 2필지
지역 · 지구	일반 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용도	공공주택 + 판매, 근린시설
대지면적	2,924.10m ²
건축면적	1,676.49m ²
연면적	47,101.98m ²
조경면적	457.08m ²
공개공지	245.91m ²
건폐율	57.33%
용적률	1,078.45%
규모	지하 7층, 지상 36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알미늄 복합패널, 화강석 바너구이, THK18 파스텔 복층유리
기계설비	중앙공급식·판매, 근린시설 개별식 - 공동주택
설계담당	홍승훈, 윤보근, 이정호, 윤형식, 박해중, 전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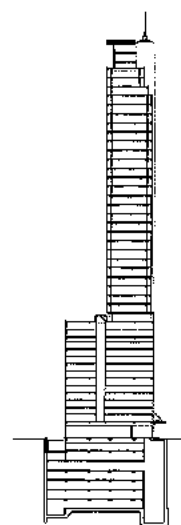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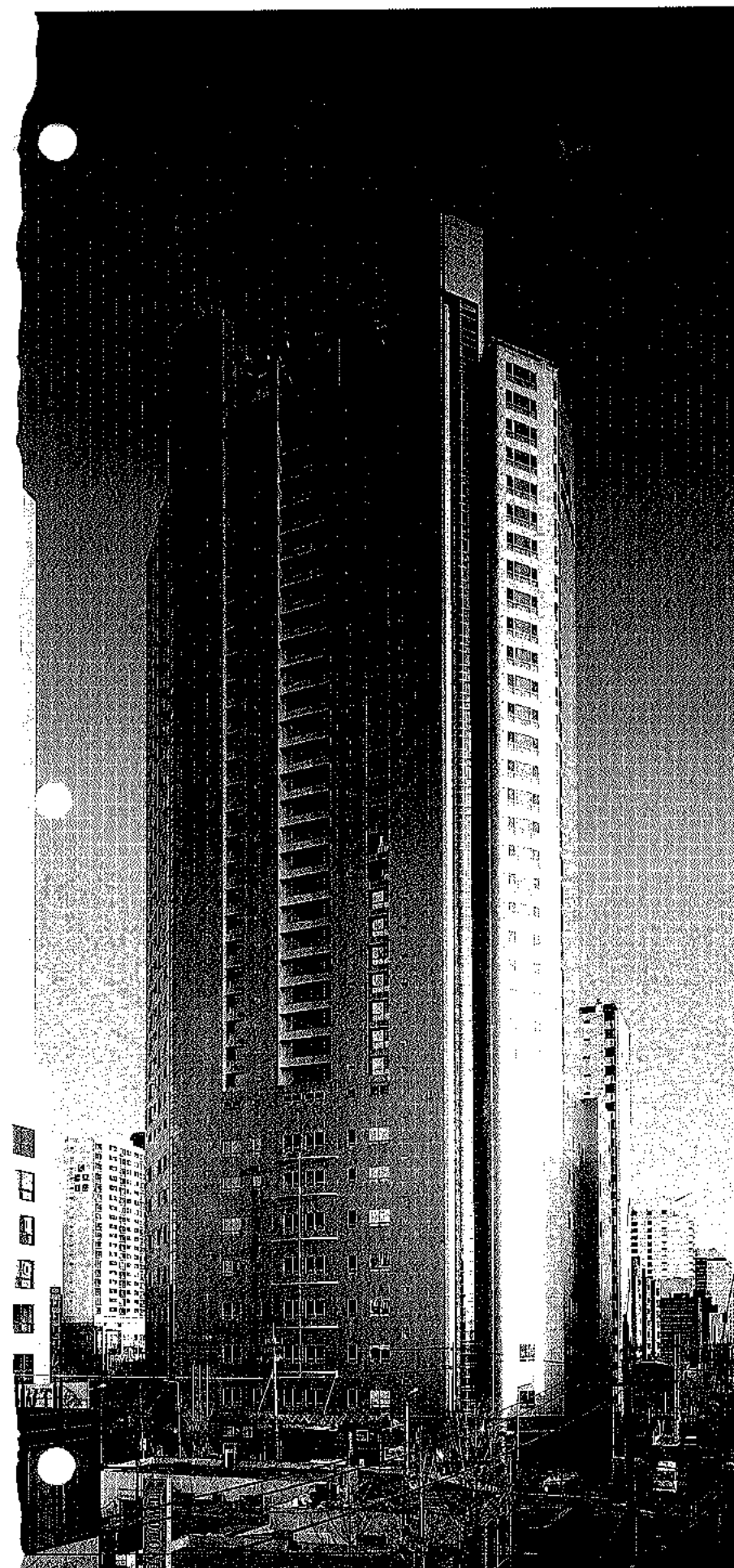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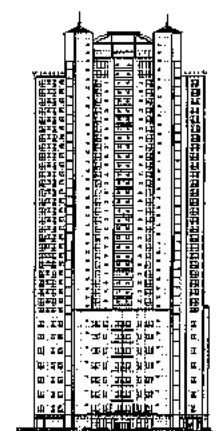


오피스텔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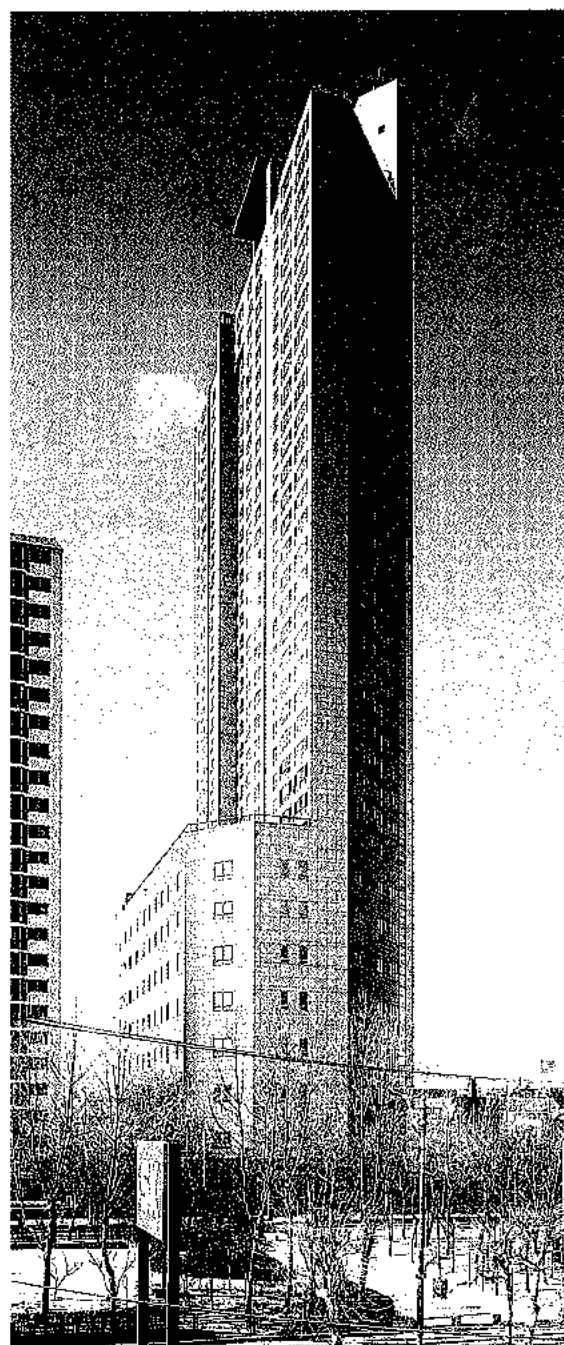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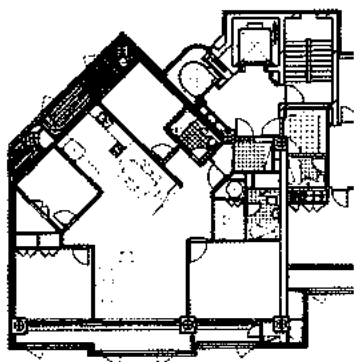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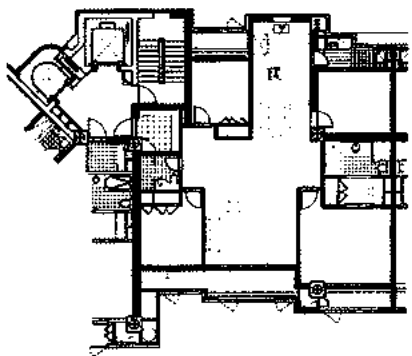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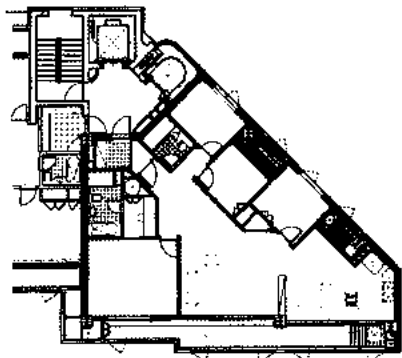




'A' Type - 69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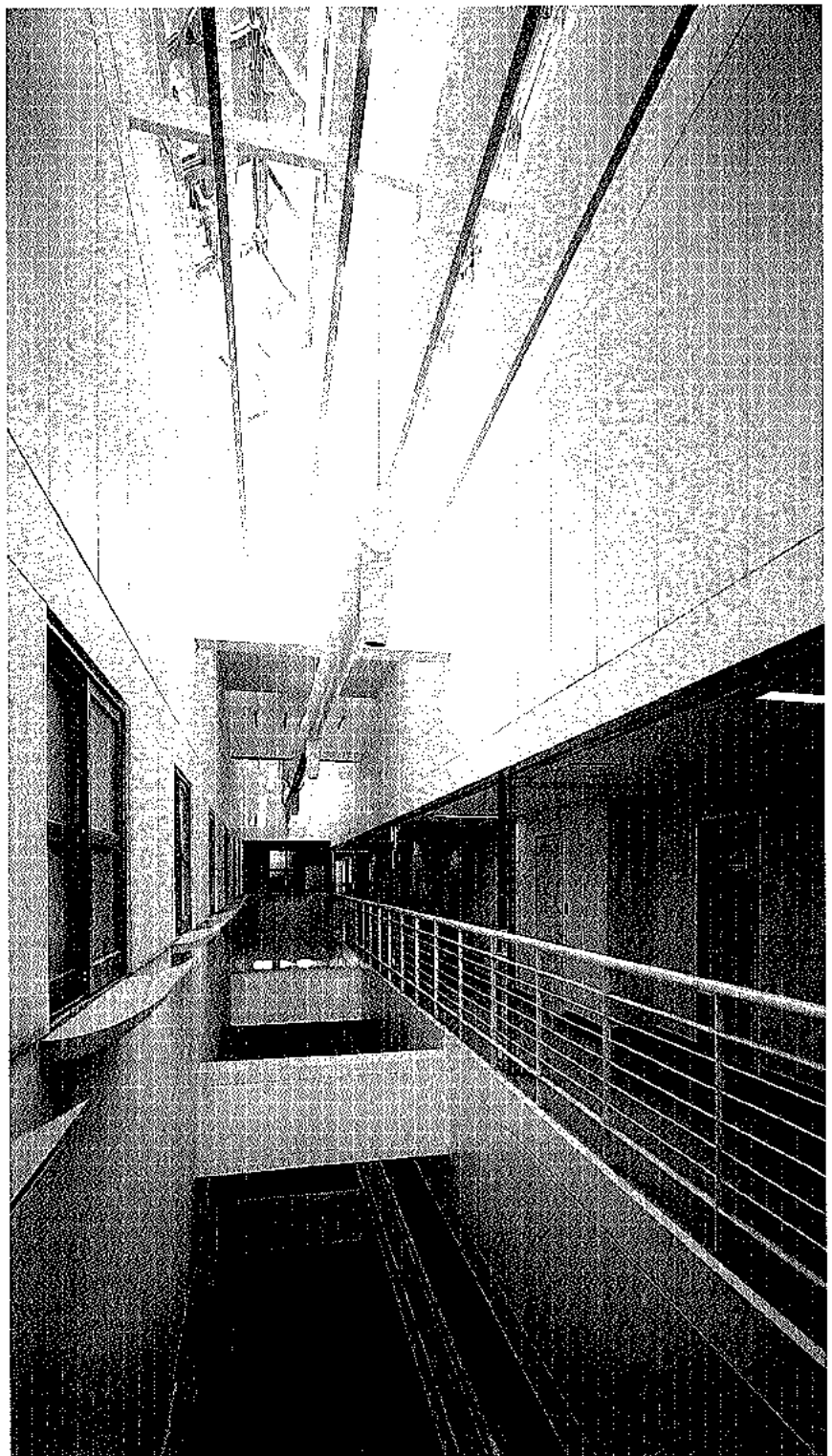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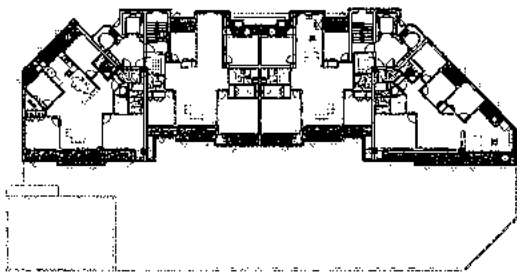
'B' Type - 69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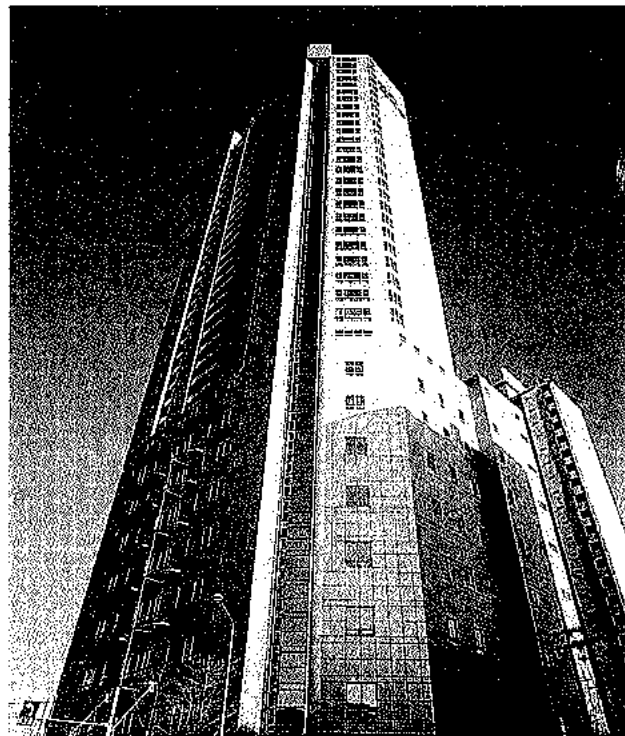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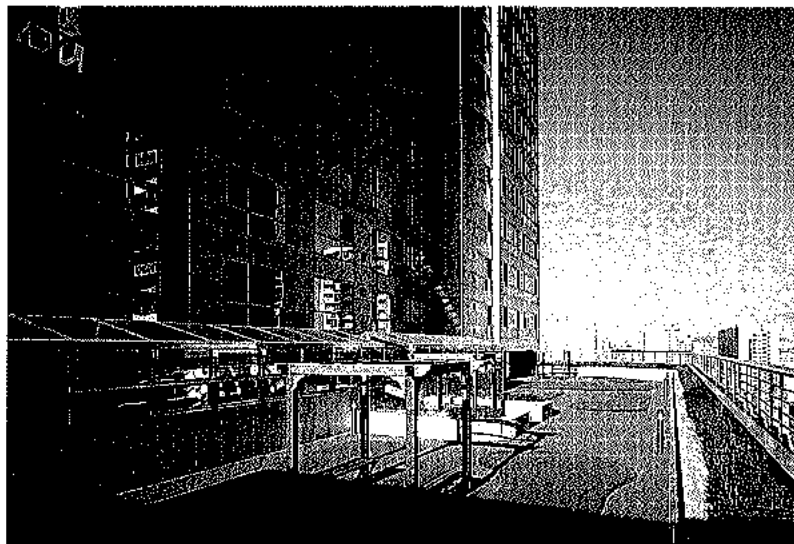
'C' Type - 62평형

단위세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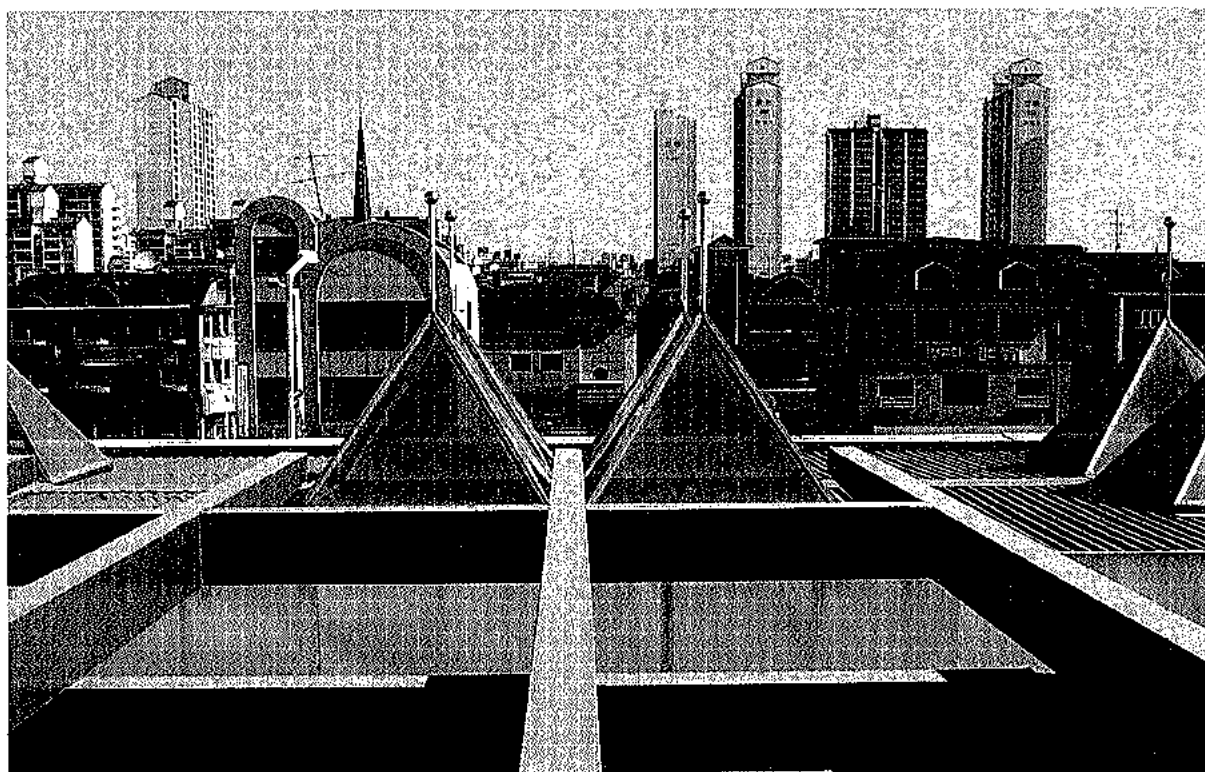


지상 APT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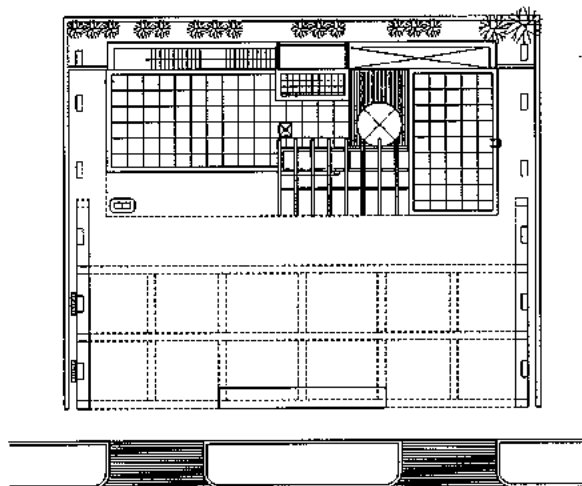
일산 백석주유소
Ilsan Baeksuk Gas Station

김우영 / (주) 김이종합건축 + 이경훈 / 단국대 교수
Designed by Kimm Woo-Young & Lee Gyeong-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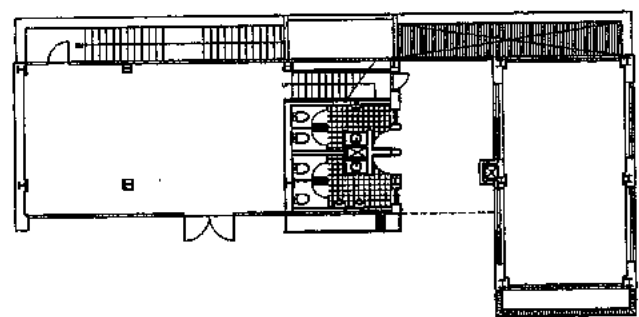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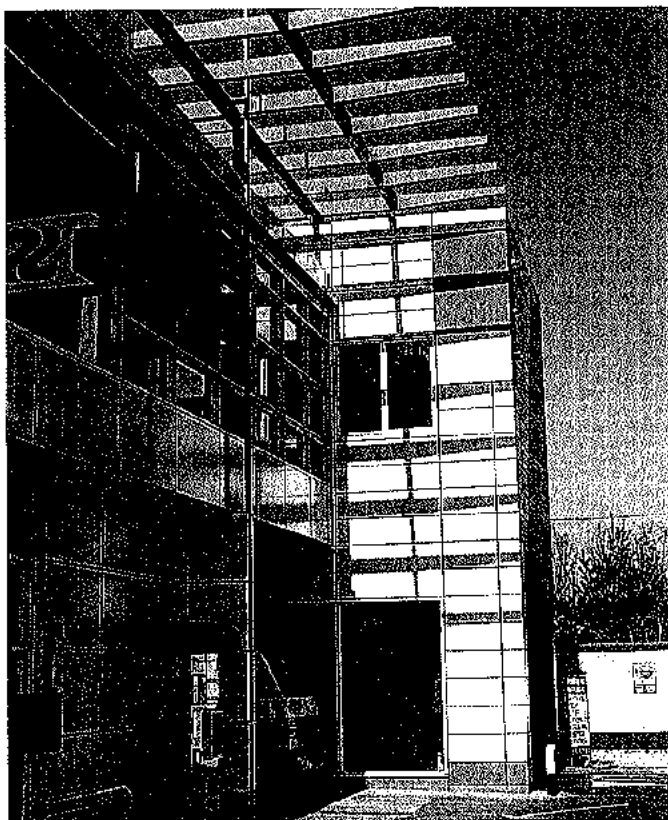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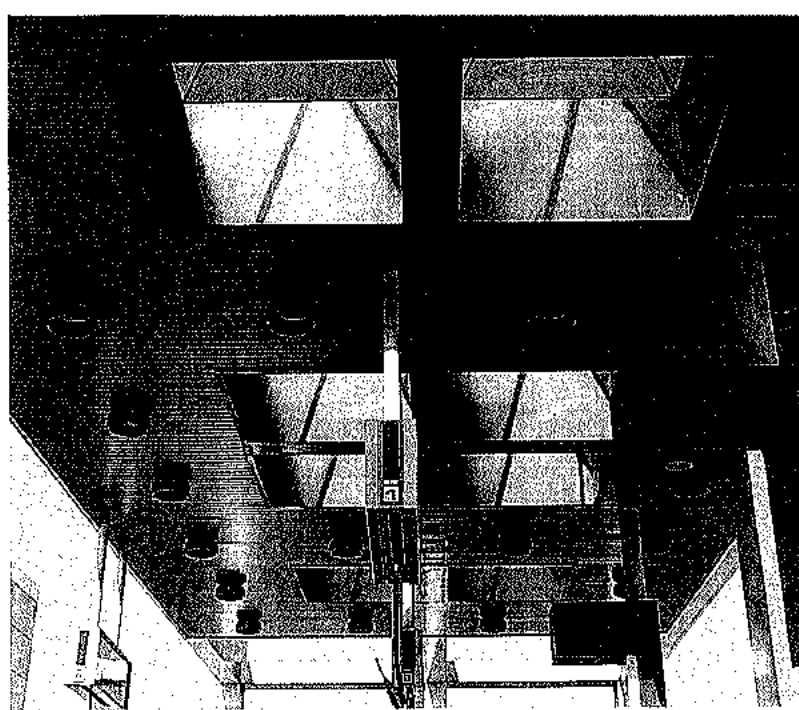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460번지
지역	주유소 용지
지구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785.9m ²
건축면적	153.54m ²
건폐율	19.54%
연면적	282.88m ²
용적률	35.99%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알루미늄 SHEET, 파스텔 복층유리
조경면적	50.67m ²
주차대수	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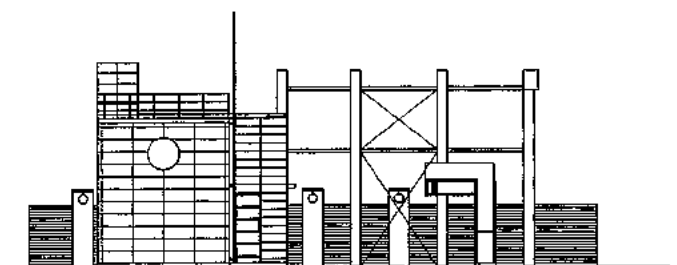


배치도

일산신도시 호수로 번에 위치한 이 주유소는 일산 집입 부에 위치한 기존 주유소들과 차별화하여 원활한 동선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랜드마크적 요소, 체계적 색채요소, 주유 공간과 사무 공간의 분리, 건물내의 중정형 전이공간 등의 도입으로 건물 전체가 사무 공간의 분리, 건물내의 중정형 전이공간 등의 도입으로 건물전체가 섬세하고도 경쾌한 공간 및 외관의 아이덴티티를 갖추도록 하였다. 다만 주유대 부분에 Wall Bracing을 도입하여 보다 경쾌한 이미지를 추구 하고자 하였으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사라진 점이 아쉽다. 도시 공간적으로는 주변 녹지 공간들의 컨텍스트속에서의 공간 흐름을 고려하여 주유소 전체를 개방적으로 계획하여 차량 및 사람들의 접근과 흐름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주변 블록들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를 예상하여 전체 건물을 동서간 선형으로 배치하여 장래 공간적 연결을 꾀하고자 하였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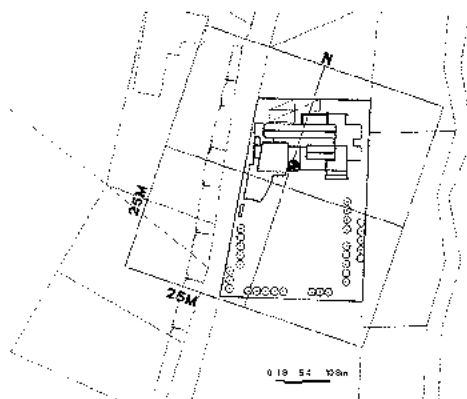
직측임면도

이여재 Eyeojae

홍기택/건축사사무소건축나라
Designed by Hong Ki-Taik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 75-109
지역·지구	준도시, 취락지구
대지면적	1,021m ²
건축면적	196.29m ²
연면적	260.03m ²
건폐율	19.23%
용적률	25.47%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상 2층
외벽 마감	적벽돌, 후동석, 외단열시스템, 노출콘크리트
설계기간	1999. 2. ~ 1999. 7.
공사기간	1999. 8. ~ 2000. 1.
사진	채수옥



배치도

도시에서 건축이 대지를 구획하고, 땅을 지배하는 한 사람들에게 도시는 떠나갈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땅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삶을 찾고자 함이다.

결국 이러한 의미는 집과 환경을 집합적 관계로 해석하게 하고 집과 집의 관계를, 마당과 집과의 관계에서 구분지어짐을 거부하며, 사는 모습을 자연 속에 담아두고 자연의 질서를 푸요롭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원한다.

그리고 평행하는 선들이 만들어내는 인위적 스케일과 패턴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자연적 굴곡과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 자연적 크기를 담아 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 두며, 이동에 따른 시간과 시선의 변화를 갖게 함으로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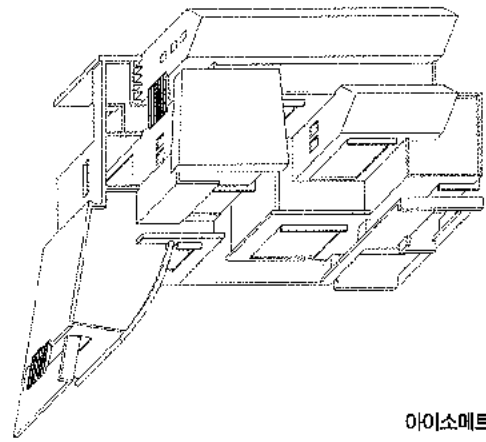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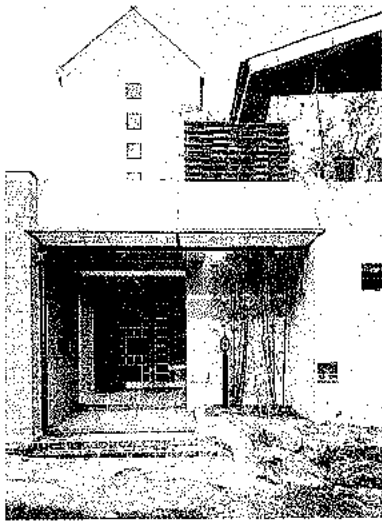


양한 공간의 체험을 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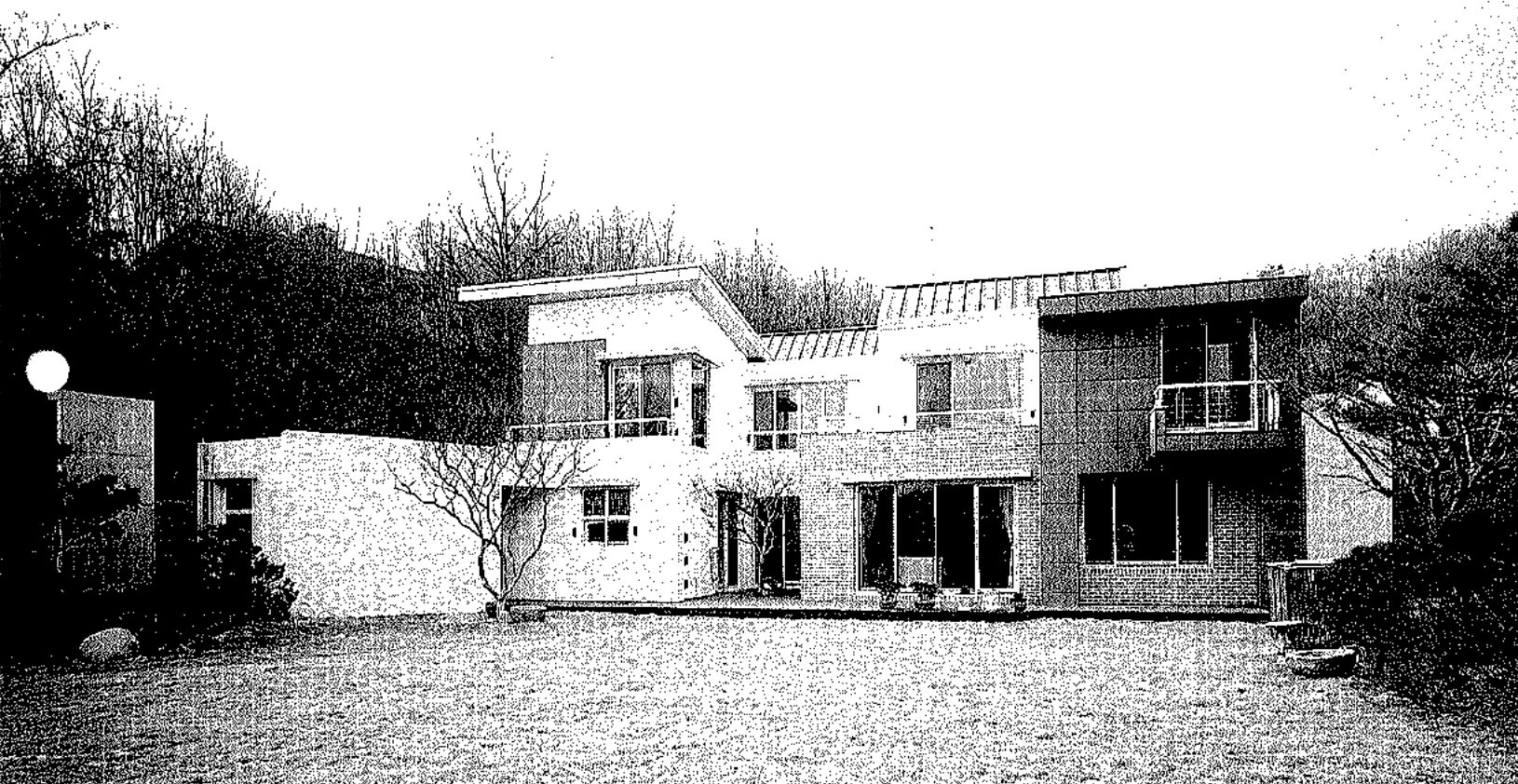
이 주택은 집 앞으로 넓은 저수지 트임과 좌우, 후면을 산자락이 휘감고 있어 천혜의 전원주택의 입지 조건을 갖춘 용인군 동백리 향린동산내에 자리잡고 있다.

1층에 거실, 주방 및 식당, 부부공간(안방, 침실, 드레스룸, 욕실), 2층에 자녀방2, 가족실, 간이주방정도의 단순한 프로그램을 갖는 집이다. 특징이라면 성악가인 부인과 딸을 위해 거실을 일부 확장하여 오픈된 연습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주부동선의 효율성을 위해 주방 및 식당, 유틸리티를 한 유니트로 집약하여 하나의 채로 나누고, 가족본위의 공간



아이소메트릭



을 수평적으로 분할하여 각 공간별 의미를 강화한다.

이를 이어주는 매개적인 공간은 나눔과 만남이라는 흐름 속에 삶의 풍요를 담게 되고, 공간적 의미의 강약을 부여하게 되며, 공간의 다양한 깊이와 함께 자연을 공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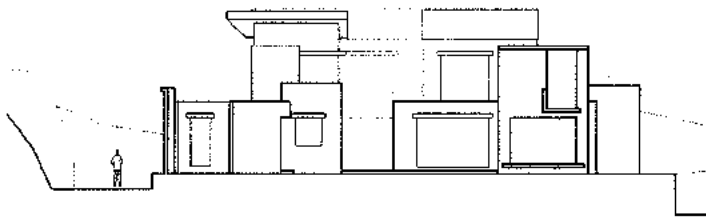
나눔을 통해 얻어지는 사이공간은 결국 이 집의 중심에 서서 외부이면서도 집으로 둘러싸여 내향적 구성을 갖게 되는데, 비어있는 이 공간은 인접한 식당과 거실, 나눔을 이어주는 복도에 시각적 풍요로움을 듬뿍 담아내게 된다.

그리고 길과 식당외벽과의 시각적 충돌, 거실외벽과 후면 주차장과 충돌하는 곳에는 실제 소유의 영역을 건축적으로 설정하되, 외부로 향해 열려 있으면서 내부생활보호를 위해 담장이 아닌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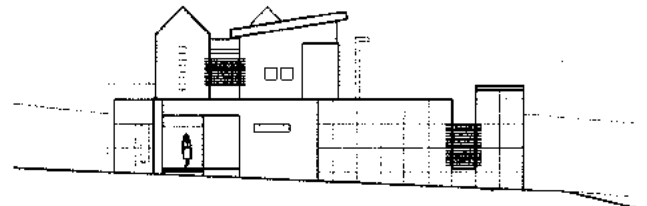
을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그 사이공간은 자연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크기의 내장이 되며, 사용의 의미보다는 보고 즐기는 자생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외부와 집안 내부와의 지속적이고 매력적인 체계적 문법을 구성하게 되며, 투명성과 불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고, 결국 이 주택의 외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표피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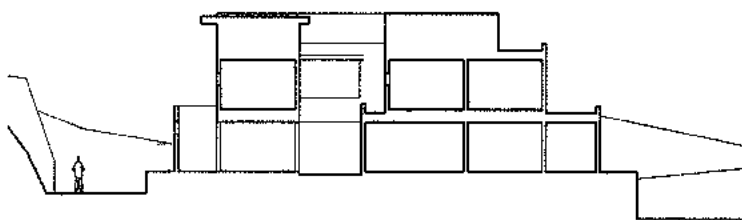
길이 이어주는 시선은 벽체의 각도로 이어지고, 지붕의 선도 하나의 각도로 이어지면서 길에 대응하는 시퀀스를 찾아간다. 스크린은 곧 땅에서 솟아 하늘과 마당으로 이어주는 벽체가 되며, 그 속에서 내·외부를 이어주는 사이공간이 자리잡게 되어 공간적·형태적 언어로 전환된다. (글:홍기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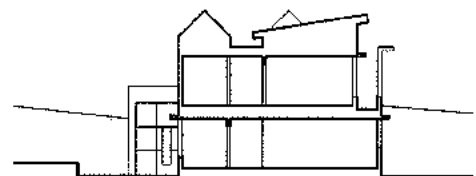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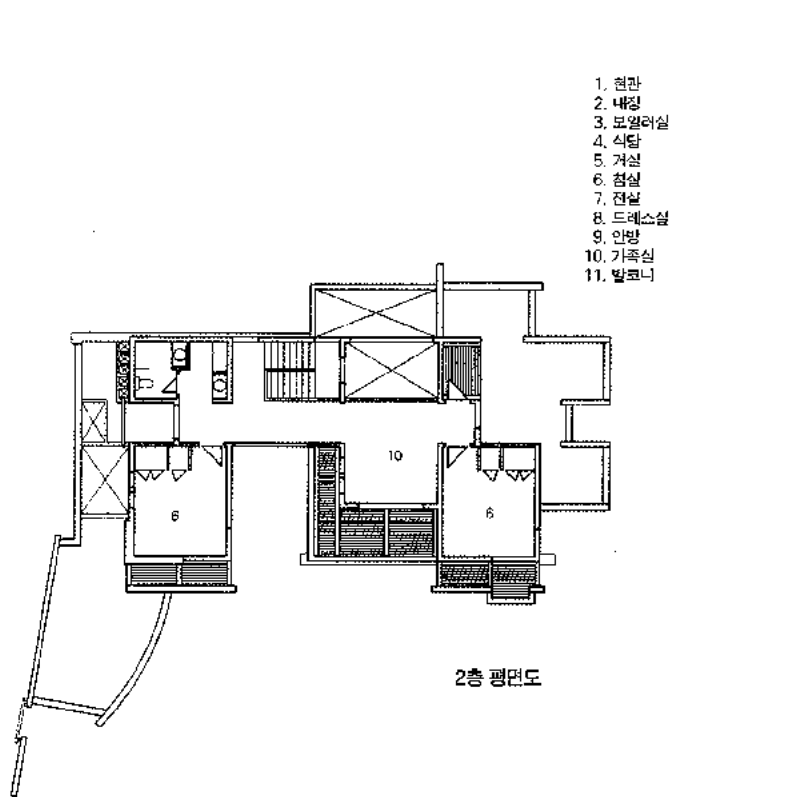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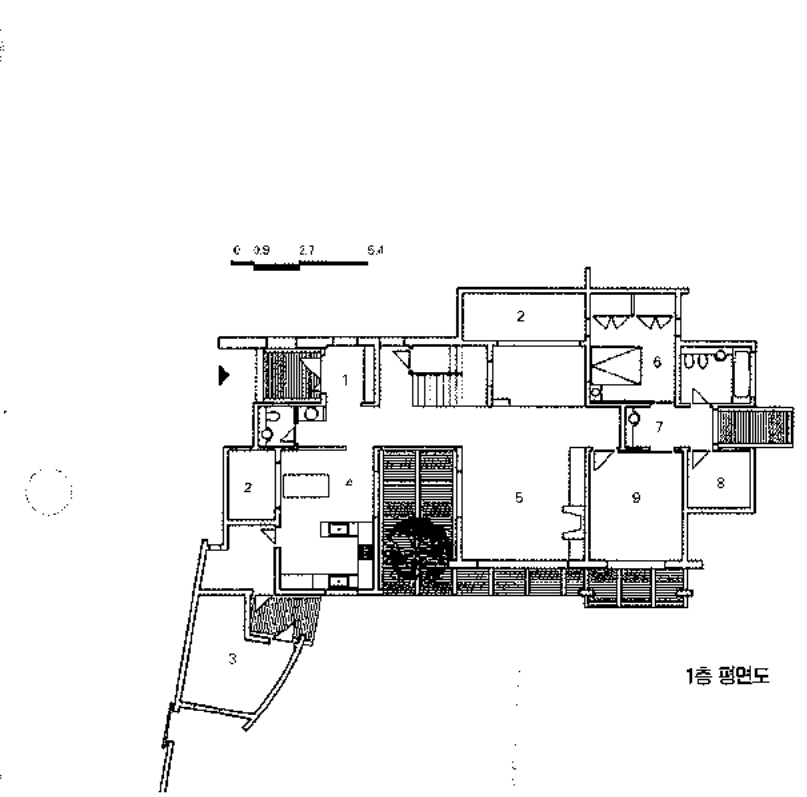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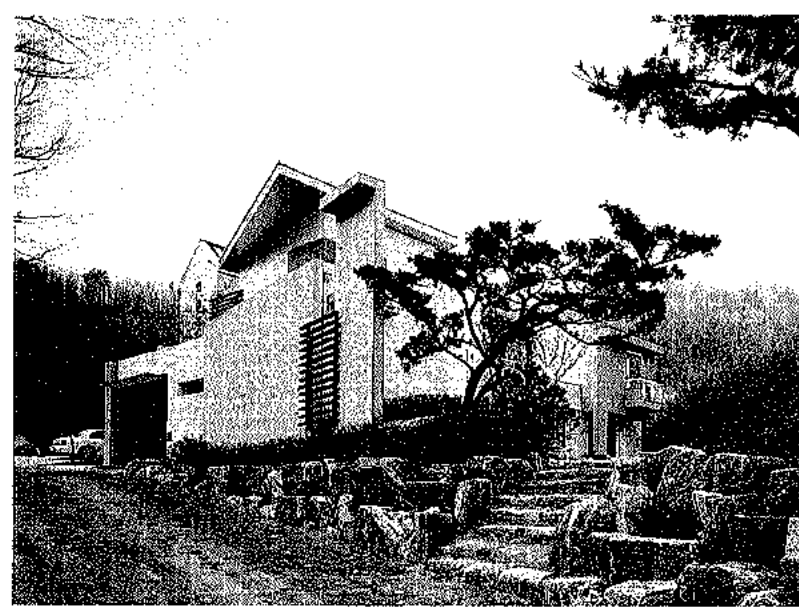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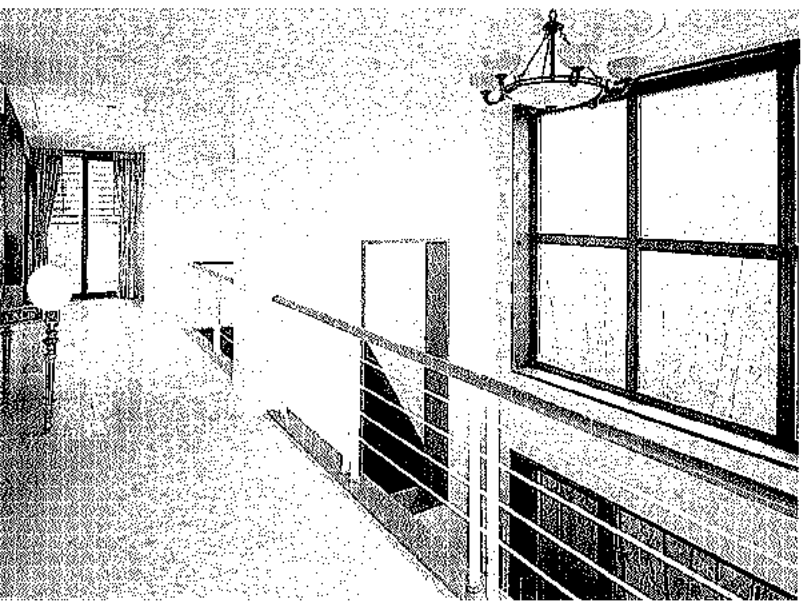
북측면도



동측면도



- 1. 현관
- 2. 내장
- 3. 모열러실
- 4. 식당
- 5. 거실
- 6. 침실
- 7. 잔실
- 8. 드레스실
- 9. 안방
- 10. 가족실
- 11.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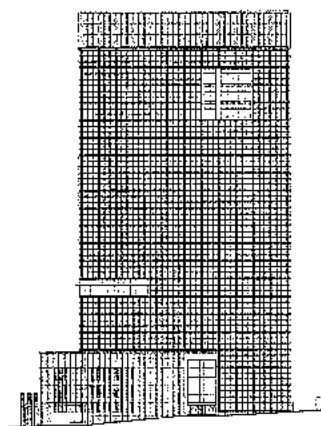


데이콤사옥 Dacom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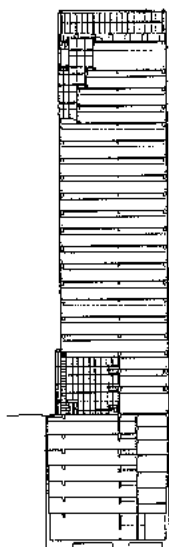
이성관 /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Designed by Lee Sung-Kwa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1종미관지구
대지면적	2,132.4㎡
건축면적	1,263.95㎡
연면적	34,460.75㎡
건폐율	59%
용적률	1,067.92%
규모	지하7층, 지상 20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P.C. 구조
내부마감	카펫타일+아크릴뿔칠형타일+T15암면흡음텍스
외부마감	T24재판사 복층유리, T3.0 AL Sheet
구조	한국구조
설비	제일설비
전기	영광전기
인테리어	신화
시공	(주)삼성물산
설계담당	정규백, 이재익, 박경웅, 김영삼, 한동석, 김영삼, 이용주, 차종현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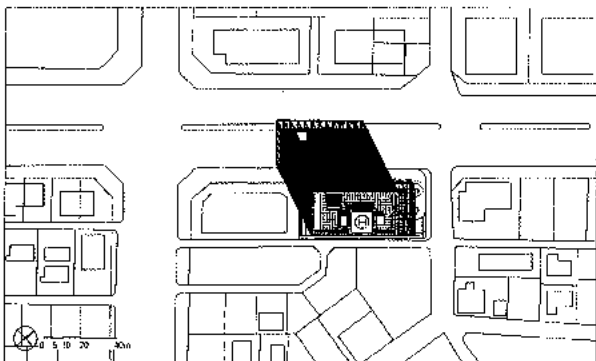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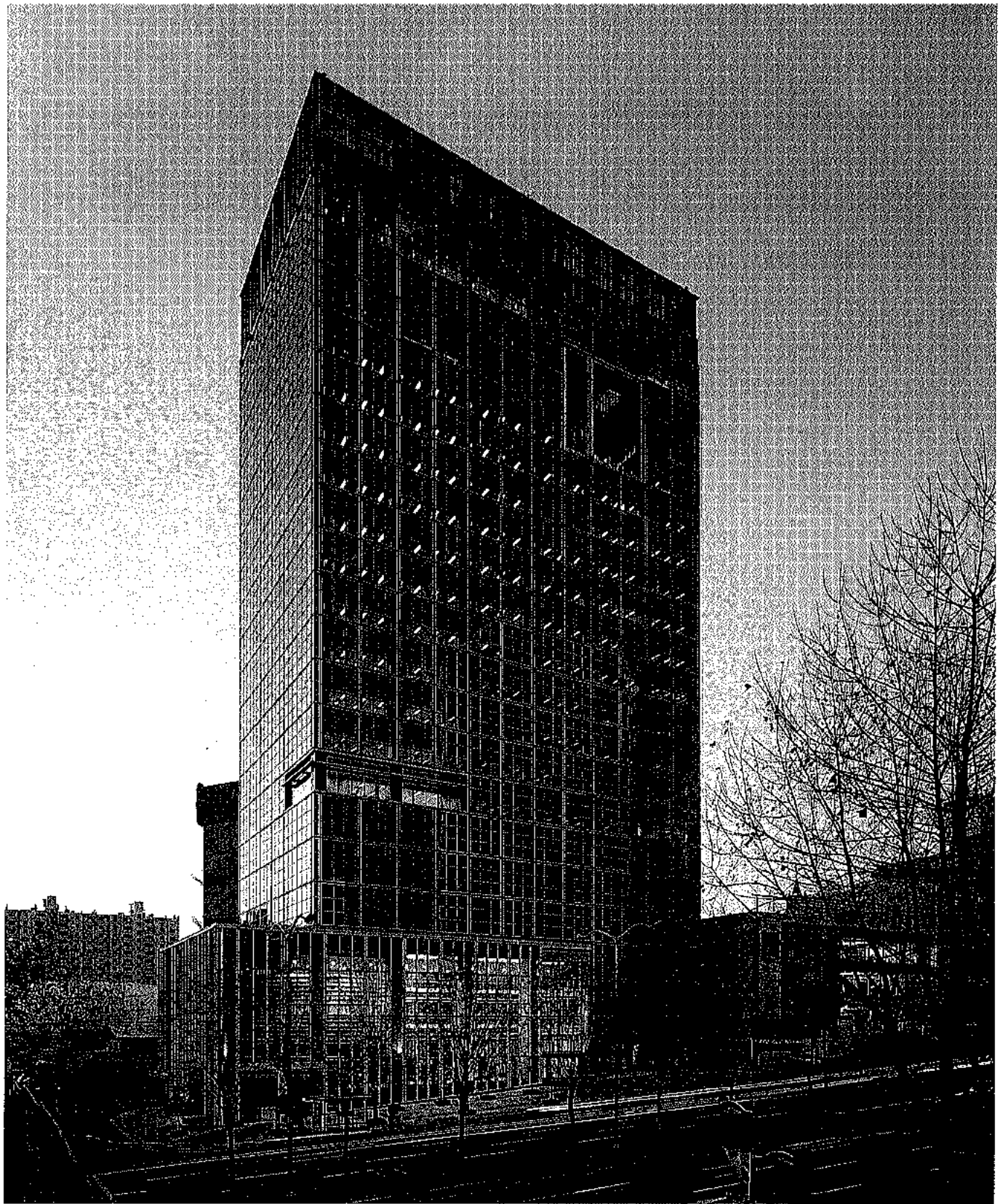


중단면도

불확정성 : 건물이 땅을 점유하는 기간은 사람이 그 건물을 점유하는 기간보다 길게 마련이다. 즉 한 건물의 수명 동안 주인은 여러번 바뀔 수 있다. 집은 첫번째 점유자(건축주)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어지고, 이 첫주인에 의해 일정기간 점유되다가 언젠가는 다음 주인(건물주)에 의해 점유되면서 그 건물은 생명력을 이어간다. 바꾸어 말하면, 지어질 당시의 프로그램은 그 집의 향후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때 프로그램에 의한 특수해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변화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럴 경우엔, 특수해로 누렸던 프리미엄은 그 만큼의 딜레마를 야기시키고 경우에 따라선 건물 수명 단축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음 점유자를 위한 보편성의 배려는 필수적인 덕목이 될 것이다. 특히 요즘같이 업계의 부침이 끊이지 않고 업종이나 용도의 변경이 빈번하고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변동 등이 잦을 때일수록 이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것이다. 현재 「데이콤빌딩」으로 공식 명명된 이 건물은 처음부터 데이콤사옥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게 아니다. 한 건설사의 개발 사업팀에서 임대 혹은 매각을 겨냥해 개발사업용으로 추진하던 건물이었다. 테헤란로라는 위치적 프리미엄 위에도 이정도 규모의 업무용 빌딩은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건 IMF이전인 그 당시 기준으로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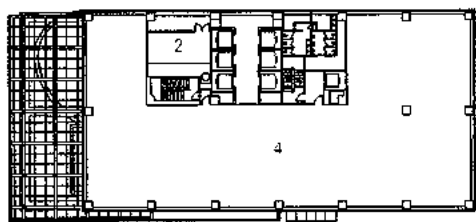
개발 사업의 일환이었던 만큼 가급적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바랬다. 또한 자사가 개발하는 건물은 가로상의 타 건물들과는 차별화되기도 원했다. 그것은 건축주측의 사업적 전략이기도 했으나 주변에 대한 어떤 문화적 우월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골조공사가 시작되던 어느 즈음 데이콤에서 이 건물전체를 인수하여 사옥으로 쓰게 된다. 그 몇달 후 IMF 사태가 터지고 그 여파로 데이콤에서는 이 건물을 다시 사옥으로 계속 쓸지 매각 할지로 고민을 거듭한 적도 있었다. 정보통신계통의 본사 건물로 그 구체적 프로그램이 확정됨에 따라 애초 설계로부터 조정된 부분은 3개층에 걸친 통신기기장비 설치와 옥탑부 안테나 설치에 따른 부분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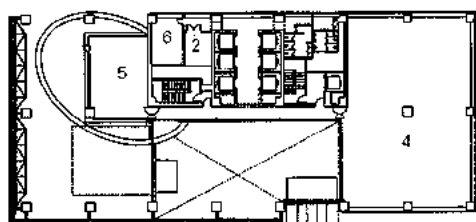
배치도

보강이 전부였다. 외관을 포함한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모두 그대로 수용되었다.

테헤란로 / 문맥 : 등서를 잇는 강남의 여러 광로들 중에서 그 「흐름」의 성격이나 상징성이 가장 강한 곳이 테헤란로이다. 이곳은 강남 업무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가치창출력 또한 커, 지가도 높고 건물도 높이 올라간다. 가로 경관적으로도 강남에서 가장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가진다. 가로 이미지상의 특징은 가로폭 50m 양측에 도열한 Massive한 건물군에 의한 연속성과 폐쇄성이다. 연속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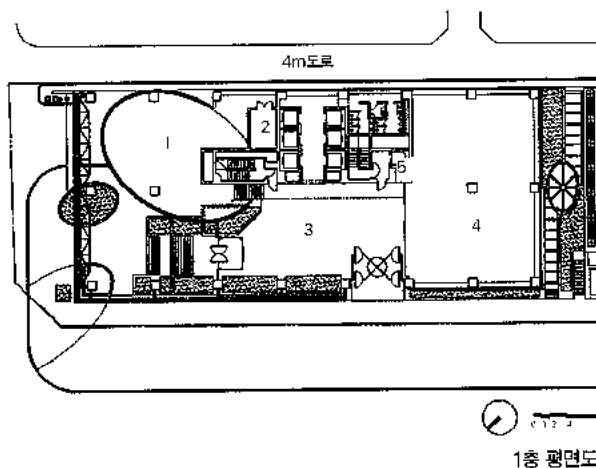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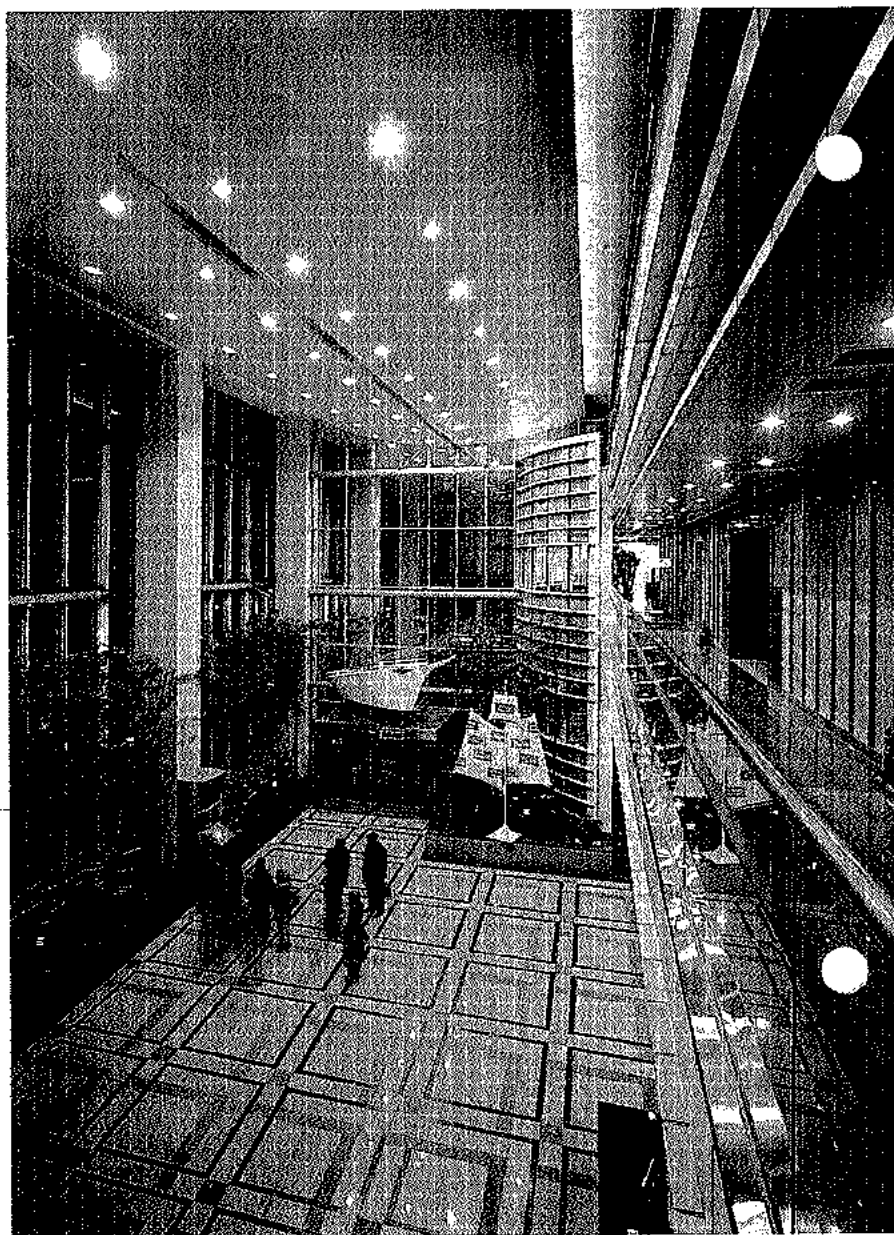


3층 평면도

- 1. 상담 및 연회실
- 2. 공조실
- 3. 로비
- 4. 임대사무실
- 5. 휴게실
- 6. 가짜재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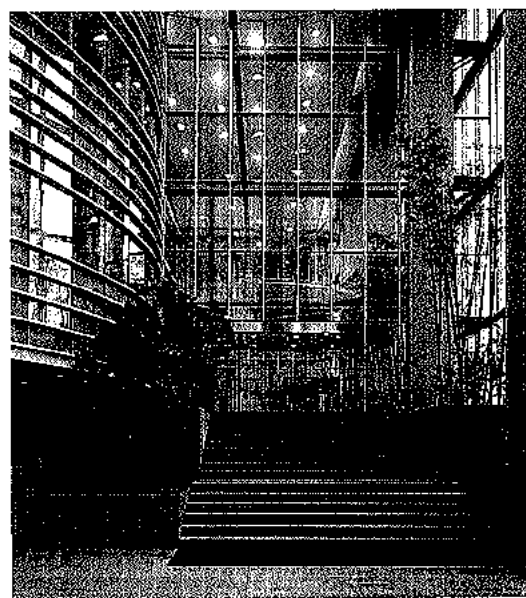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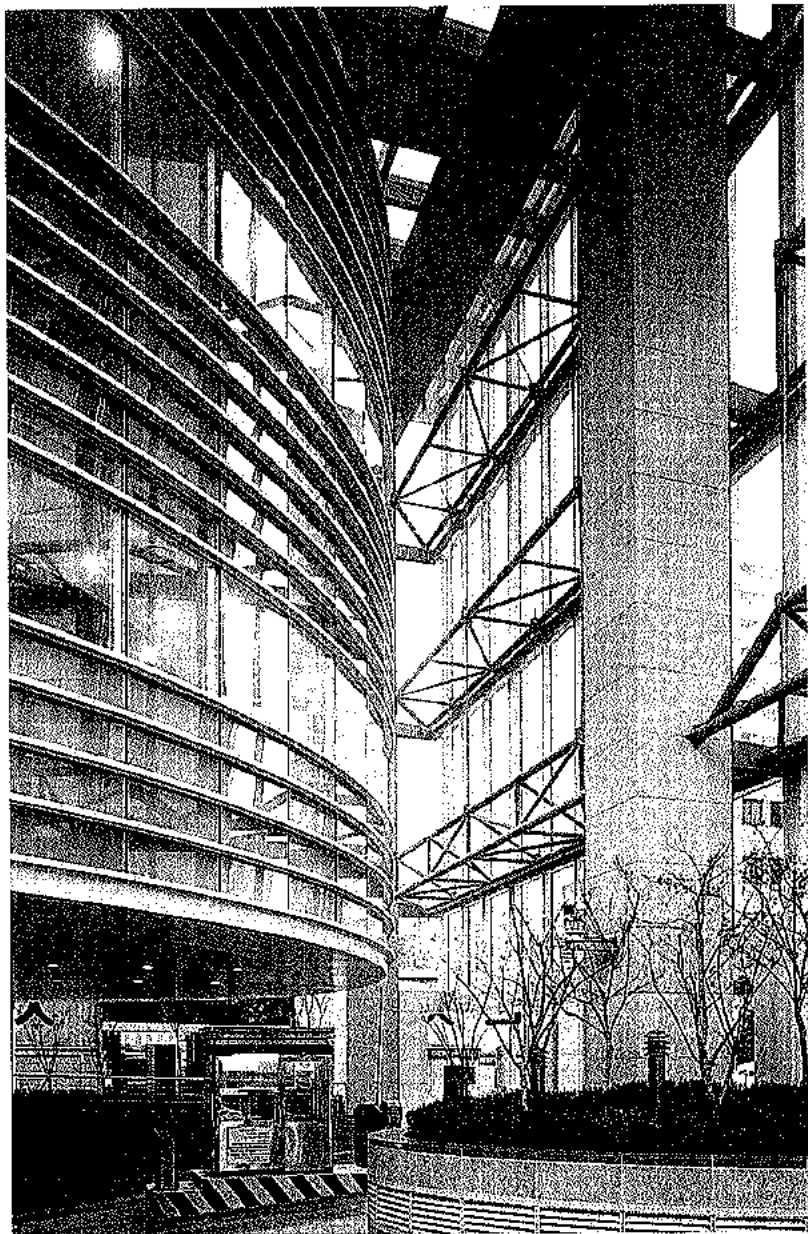


이루는 Unit들은 통합되지 못한 다양함으로 나타난다. 통상 서구의 가로가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데 반해 이곳은 불과 20여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허허벌판에 쫓기듯 세워졌다. 거기에는 시간의 다양함은 없고 오직 공간의 다양함 뿐이다. 그리고 소위 서구적 개념으로서의 문맥은 존재치 않는다. 눈치를 보아야할 선배가 옆에 없는 셈인 것이다. 실로 너무나 짧은 기간동안 이처럼 중요한 여분을 모두 소진시킨 데에는 건축가, 행정가, 건축주, 사용자 모두에 의한 합작의 결과이다. 이때 이곳에서 이루어진 더도 덜도 없는 우리들의 필연적인 자화상이다.

테헤란로에 지어질 건물은 천호동 외곽의 그것과는 다르기 마련이다. 이곳이 가지는 가치 창출력과 그에 따른 적정성의 투자비용결정은 사업성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은 이곳 가로에서 요구되는 적정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 그것은 바로 이 장소에서의 문맥을 따르는 일인 것이다. 또한 이 대지 위에 누가 어떤 용도의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쓸지를 추정해야 한다.

그 당시까지 결정된 사항은 이곳에 업무용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이외의 모든 조건들은 열려져 있었던 셈이었다. 향후 첨단 정보통신업무의 수행까지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속에서도 OA에 대한 배려도 하였다. 10cm의 Access Floor높이를 고려하여 층고를 결정하고 코어에서의 사프트면적도 미리 확보해 두었다. 또한 기준 층고는 4m이나 최상층에 층고를 6.9m로 하여 대공간을 위한 유보 용적을 두었다.

Public : 기존의 8필지를 합필하여 만든 이 사업부지는 테헤란로 선상의 다른 일반 소필지에 비해 노변으로 3~4배정도 길게 접하고 있다. 자연히 건물도 가로를 따라 판상으로 나타나고 남쪽을 많이 가린다. 따라서 3개층 높이의 퍼블릭 애트리움을 저층부에 삽입시킨후 보도와 연계시킴으로써 걸으면서 서로가 보이거나 건너편이 보이게 된다. 즉 건물에 의해 차단된 남쪽의 밝음은 저층부의 공허부를 통해 북측으로 관류된다.



또한 3개층 높이인 공공의 메이저 스페이스를 북향의 입면요 소로 끌어들이 내부의 활동과 그 공간을 가로상에 보여주고 또 공공의 접근이 시각적·심리적으로 쉽게 이루어 지도록 했다. 옥탑부의 투명한 프레임의 기벽은 건물의 기본 매스에 대한 완관 역할을 하며 야간경관에 활기를 주기 위함이다. 또한 건물본체 상부에서 남북과 상하를 관통하는 공허부(Void in The Sky)는 남면차단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며 판상형의 단조로움에 대한 도시적 레벨에서의 액센트로, '미래를 보는 창'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담는다. 창속의 눈동자는 테헤란로를 무심히 내려다 보는 2인의 원시인이다. 두사람이란 커뮤니케이션의 상징이며 첨단정보영역에서 원시인을 등장시킴으로써 미래지향성을 역설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 이 고공의 해학적인 공허부는 또한 어느 나른한 여름 낮시간 얼마동안 이곳을 지체하는 차량무리들에 잠시나마라도 어떤 여유로움이나 한가로움을 던져줄 것이다.

Gird / 조립식: 기준층평면은 1:2비율(6m:12m)의 장방형이며 기둥중심간 단변은 11.7m(3m)×2Span, 장변은 7.8m(2m)×6Span이다. 여기 사용된 평면 모듈은 3.9m×3.9m, 기준층 높이도 초기엔 3.9m였다. 따라서 큐빅 모듈이 3.9m×3.9m×3.9m이라는 특이한 조합을 이루었고 이 내부의 잠재력을 외관에 표출시키는 것을 입면의 주요 모티브로 했다. 시공과정에서의 공기단축을 위하여 적용된 공법으로는 휴막이공사에서의 조립식 Strut공법, 구조부분에서의 조립식 P.C 적층공법, UP-UP System의 적용, 그리고 외벽은 유닛화한 커텐일의 공장제작 현장조립공법 등이 있다. 특히 조립식 P.C적층공법, (C.S Beam×P.C Girder×P.C Column)은 고층건물로서는 국내최초이며 모듈화된 고층건물 일 경우는 매우 효율적인 것 같다. 조립식 Strut공법은 국내 첫 시도이며 UP-UP System또한 기존의 Top Down System보다 효율적이었다. 이러한 System을 적용하기 위해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엔지니어들의 참여와 협력이 있었다.

건축사는 죄(罪)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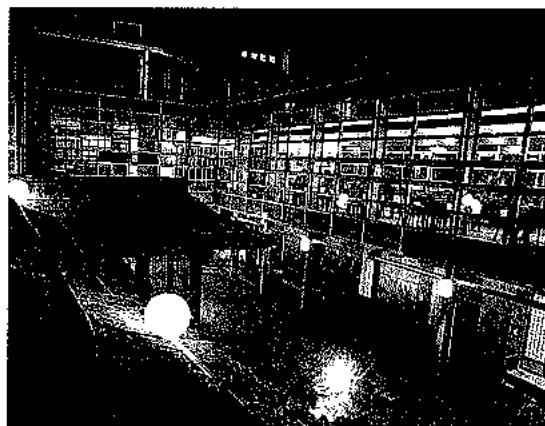
The Architect is Innocent

문철수 / 두양건축사사무소
by Moon Cheol-Soo

작년 초여름.... 그러니까 IMF 위기가 닥친 지 1년 반이 조금 넘어, 대부분의 우리 나라 건축가가 그러했듯이 나 역시 오랫동안의 어려움에 지쳐있었을 때였다. 아마 그때쯤이면 한참이나 멋진 일을 하리라 기대했던 초창기의 기대는 이미 날카로운 비수로 변하여 자존심을 다치고 있었고, 그 상황을 긍정하기 싫었던 내 마음은 무척 피로해 있었다. 그때 그 프로젝트를 만나게 된 것은 일종의 운명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집안끼리도 알고 지내는 건축주 분들의 것이라 무척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黃를 주고있던 오래된 日式 瓦家 식당을 개조하거나, 혹은 조립식 건물로 새로 지으려는 건축주의 의도는 지방도시의 경제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건축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결심했었고, 작품 활동을 위해 약간은 희생해 왔다고 여지껏 생각해 왔었는데 조립식 건물설계까지 손을 대야 한다니, 그것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것인지 짜증스러워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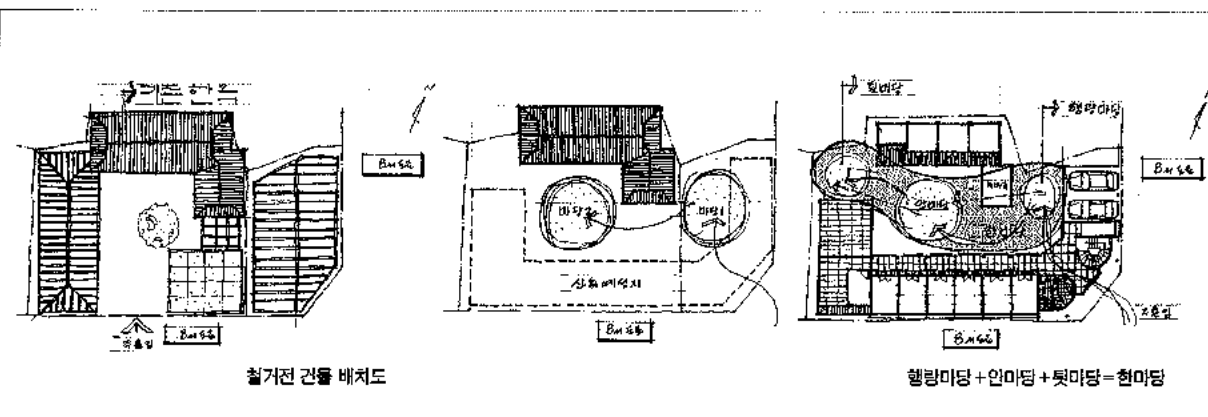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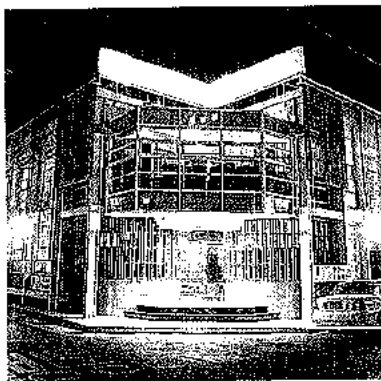
2층옥상에서 마당을 내려다볼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고등학교였던 연구실 트레이닝 과정...

개업 후의 밤낮을 잊은 시간들이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다. 또한 그토록 확신했던 건축에의 믿음은 쓴웃음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던 낯선 悲愴의 순간이었다.

결국 건축이 날 배신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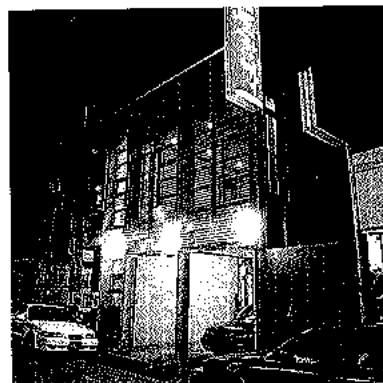




Overall View (야경)



남쪽 외벽



동쪽에 위치한 주차장 (야경)

오랜만에 제도판에 앉았다.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기존 도면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땅과 이 대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엇일까? 비록 넓고 초라하지만 기존에 있던 한옥(기와는日式이지만 지은 지 60년이 넘게 되었다고 하니 일종의 공동 품이 아닌가)의 숨겨진 가치가 있지 않을까? 또한 韓食堂으로 사용될 건물이니 옛날 한옥이 그랬듯이 기존의 마당을 살리면 멋진 공간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등등.

그러자 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오기가 꿈을 대기 시작했다. 개펄 속에서도 진주조개를 캘 수 있듯이, 이 조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공간을 찾아내면 보람있는 건축행위가 될 것 아닌가?

마음 속에 서서히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농부가 그랬듯이, 또한 동산가의 마음이 그렇듯이 그 결실의 보상보다도 그 과정의 행복감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건축가인 나도 제도판 앞에 앉아서 다시 깨닫고 있는 것이었다. 진주조개를 캐듯이 하나 하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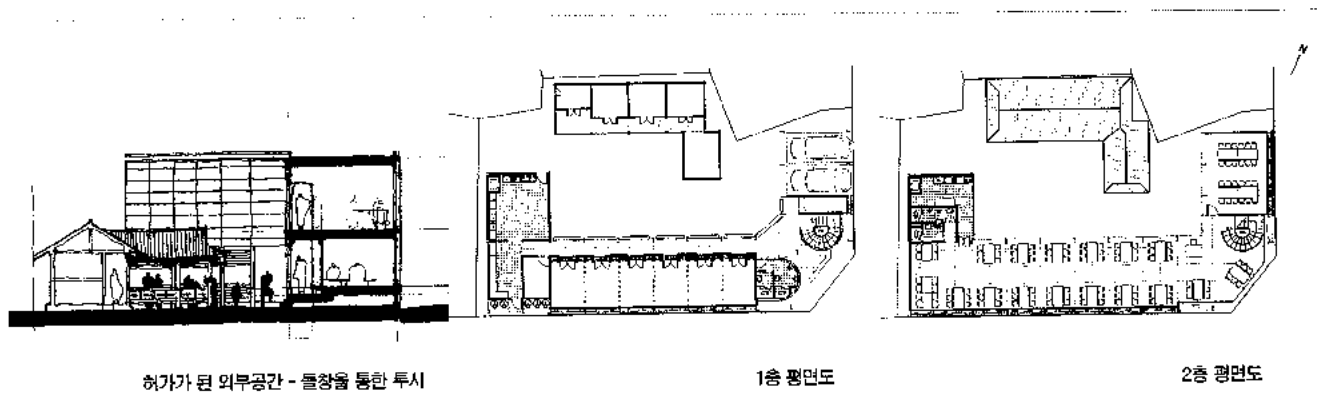
우선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모든 측면에서

한옥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한식당이 될 집 아닌가? 한식당이라면 없는 한옥도 비싼 돈 들여 지을 텐데 철거를 왜해? 그리고 마당! 마당이야말로 우리 건축의 핵심 공간이며, 거기서 모든 것을 다하지 않았던가?

한옥 보존과 함께 오히려 마당의 복원을 서둘러야겠다고 결심했다. 건축주에겐 철거 비용 절감과 신속 시 공사비 비교를 통해 한옥의 보수, 보존을 설득했다.

그 다음엔 신축건물, 이것이야말로 주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한옥과 마당을 둘러싸주는 배경으로써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어차피 새로 짓는 건물이란 어떤 모양으로 들어서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수용하여야 하는 기능은 어차피 포함할 수 밖에 없으니, 신·구 조화의 측면에서 기존의 것을 만지는 것보다 훨씬 쉽지는 않겠는가?

거기까지의 결론에 이르자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 일의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몇 번의 Meeting을 거치며 계획안은 다행스럽게도 모퉁이의 옆 대지까지 포함되게 되어 마당을 동쪽이나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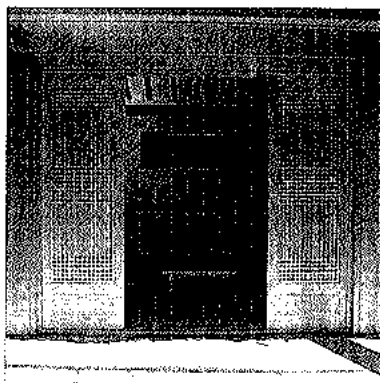
허가가 된 외부공간 - 통창을 통한 투시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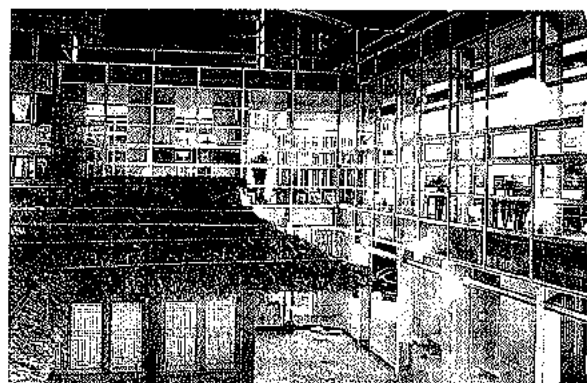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실내



누마루에서 바라본 실내모습



이층에서 마당을 내려다볼(야경)

게 되었다. 그것은 행랑 마당을 가진 안마당의 역할을 하게 되어 공간의 위계성과 품위를 한층 더 높여주는 구실을 해주었다.

또한 그 둘을 구분하는 기존 한옥의 아랫방 부분을 원래 온돌방에서 누마루로 탈바꿈 시켜서 날씨 좋은 날 문짝을 들어 올리면 마당 전체를 하나의 외부 공간으로 묶을 수 있는 가변성 있는 완충적 공간으로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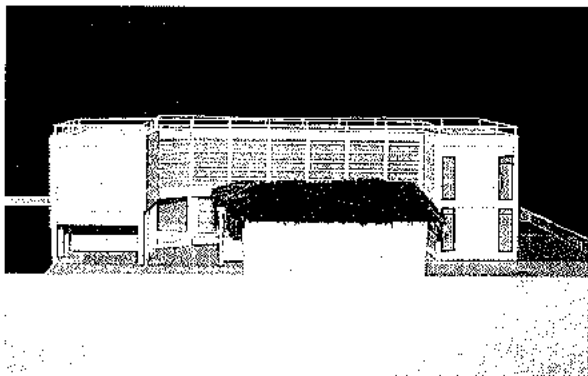
들어 올리는 문짝.... 얼마나 좋은 한옥의 문짝이던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 Project에 와서야 누마루 들창의 진수를 다시 느끼다니 그동안 나는 졸고 있었나 보다. 신축 건물은 건축주의 의도대로 조립식 건물에서 시작하여 점차 철골조로 유도시켜 나갔다. 철골조도 분명 조립식 건물 중의 하나이고,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철골이 사용되게 되는 것 아닌가. 건축주에게는 공기 단축과 때마침 터키, 대만 등지에 지진이 있어 재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변경 이유를 들러냈으나, 내심 양심의 가책과 공사비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건축주는 내내 호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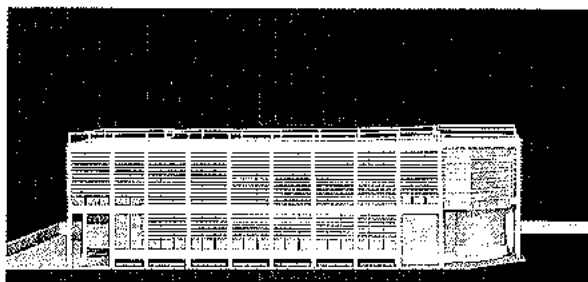
가져 주었고, 공사 규모 확대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꿈을 키워 나가는 듯했다. 이제는 공사비와工期 두 가지의 문제점만 남았다. 어찌됐던 조립식 건물과 비교하게 될 텐데, 나중에 얼마나 원망을 들을런지 조마조마 하였다.

6월말,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내심 걱정했듯이 한옥 보수공사부터 공기는 처음부터 늦어지고 공사비는 늘어만 갔다. 시공자들은 어렵고 안 해 본 작업에 짜증과 돈타령을 입에 달고 있었고, 두 달 예상 공기를 연말까지 끌고 간 덕분에 건축주로부터의 원망도 예상했던 대로 만만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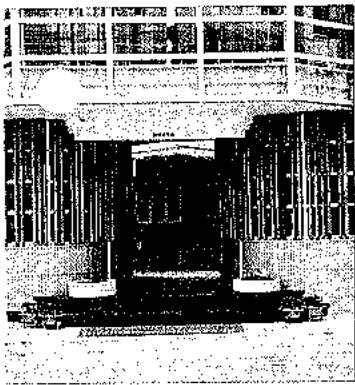
12월에 접어들어서는 어쩌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극도의 혼란상이 야기되었다. 연말이 다 돼서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공사현장을 지켜보고 나서야 사기꾼 같은 건축가를 만난 건축주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앞질러진 물이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에 달려가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프로젝트를 담당하 사무실 직원은 아예 현장기사 노릇을 겸하고 있었다. 어차피 누구하나는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야 할 상황인데, 결국은 쉬운 문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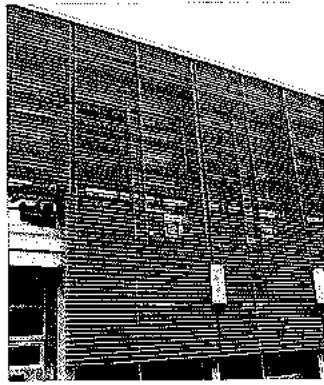
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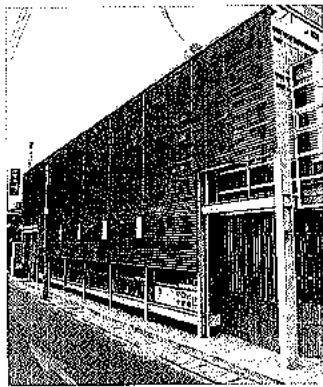
모형 2



주출입구 (ENT)



외벽 Detail



남동측 전경



옥상에서 바라본 마당 (야경)

어렵게 만든 설계자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애매한 사무실 직원만 죽자고 고생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들의 원망을 다 받아서 삭혀주는, 그야말로 어려운 처지였다. 그래도 현장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건축주가 직접 발주한 부분의 시공자는 전체 공정의 고려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되 뜯기 일췌였고, 원청자는 돈 안되고 어려운 일만 뒷감당하게 되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체인 식당인 덕분에 본사직원이 와서는 다 해놓은 주방공사를 뒤집어 놓으면, 감리하는 직원은 펄펄 뛰고, 나는 생고생하는 불쌍한 감리 녀석 야단치고, 건축주는 날 원망하고, 돈은 무한정 들어가는 그야말로 악몽과 같은 이수라장이 연출되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두 달 예정의 공사기간은 6개월이 넘게 걸렸고 공사비는 최초 예산의 4배 가까이 더 들어갔다.

상처받은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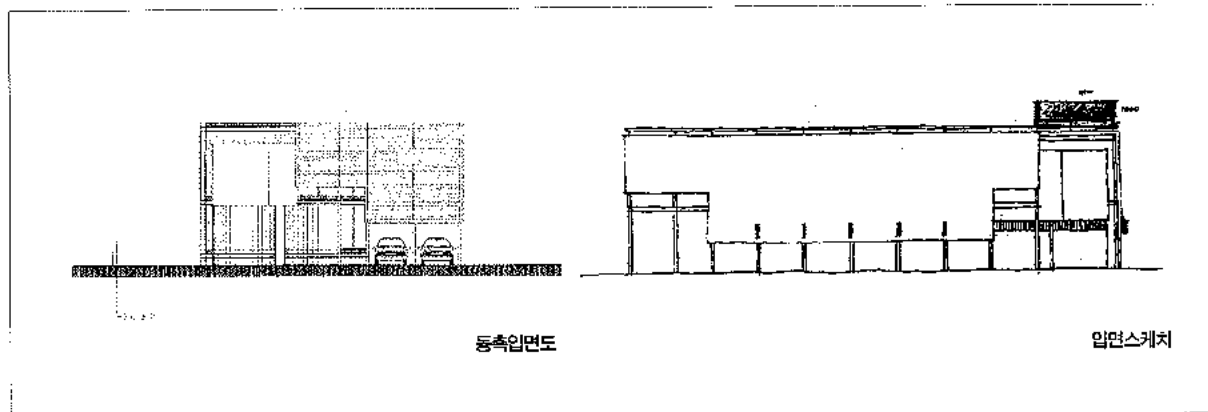
남들이 다 즐거워하던 작년 크리스마스날

이 건물은 Open하였다. 그 날 난 이상하리 만치 느낌이 없었다. 건축과를 갓 졸업하고,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 외 환성도 무덤덤 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이번 경우는 좀 심하긴 했지만 건축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런 과정 없이는 비슷한 것 나오기도 어려운 것이며, 건축가란 또한 원래 그런 직업이니까... 어느새 나는 그간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뻔뻔한 건축가의 본성을 되찾고 있었다.

결국 건축이 날 속인 것 같지는 않다. 내 탓이었을 뿐이지... 그리고, 또 한마디 변명을 덧붙이자면 건축가는 罪가 없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후기

이 지면을 빌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어쩌면 속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항상 건축가의 의도를 후원해 주었던 건축주 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올린다. 또한 이제는 사무실을 떠난 박재영君, 공·시·인 건설의 사장님과 현장 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학원 중심의 4+2년제를 주장하는 이유

Reasons Behind the Reformation of University Education

김광현 교수의 글(2월호)에 대한 해명

이상현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by Lee Sang-Heon

본지에서는 지난 2000년 1월호에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이란 주제로 기획특집을 마련, 교육관련 부문을 이상현(건국대 건축대학원)교수에게 집필 의뢰하여 '건축교육개혁방안 ; 학부 5년제 문제 있다'는 내용의 원고를 게재하였고, 이후 이교수의 글과 관련하여 김광현(서울대 건축학과)교수는 학부 5년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으며, 이교수의 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 '학부 5년제 문제 있다는 주장의 문제'의 글을 기고하여 본지 2월호에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상현교수는 '학부 5년제 문제 있다는 주장의 문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김광현교수의 글은 필자의 글에 대한 의도나 생각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필자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 대학원 중심의 4+2년제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글을 3월호에 게재코자 기고하였다. 그러나 지면관계상 3월호에 게재하지 못하고, 이번호의 「기고」지면을 통해 게재코자 하며, 아울러 지난 1. 2월호 본지를 통해 게재된 건축교육 관련내용에 대한 필자의 글과 본란의 글은 우리 협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편집자주)

필자의 글에 대한 김광현 교수님의 비판은 필자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제한된 지면에서 주장을 하다보면 표현의 섬세함이 떨어질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 광현 교수님의 글은 많은 부분 필자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필자의 전체적인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번 글에 대해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필자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를 느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먼저 김 교수님은 필자가 "마치 5년제 교육을 실시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쓴 표현에 대해 "5년제를 주장하는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근본적 문제의 소지를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필자의 주장은 건축교육의 개혁에서 형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고, 현재 형식의 문제를 논하면서 당연히 함께 거론되어야 할 교과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적한 것이다.

또 형식의 문제도 4+2년제와 5년제의 면밀한 비교검토보다는 UIA의 최소 5년 이상이라는 규정의 "5년"에 집착하여 전체적인 분위기가 5년제로 쉽게 편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물론 5년제를 주도하는 학교들은 나름대로의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다수의 학교는 피상적인 정보밖에 접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비가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필자의 글이 마치 5년제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용의 개혁에는 관심 없고 형식의 문제에만 집착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읽힐 소지가 있었다면 이것은 필자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학부 5년제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UIA의 권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소 5년 이상의 교육기간”이라는 형식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인증을 위한 교육내용의 문제이다. 필자는 지난번 글에서 형식의 문제만을 언급했다. 내용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용의 문제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증을 위한 건축교육 내용의 개혁에 대해서 필자는 몇몇 소장 교수들과 함께 지난 수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 개략적인 방향을 책으로 정리해 낸 바 있다. <한국 건축 교육의 미래>, 발언, 1999) 최소 5년 이상의 교육이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가능한 개혁의 방향은 5년 학부제와 6년제 대학원 중심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필자가 쓴 글의 주제는 이 두 가지 형식의 장단점과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어느 것이 한국적 현실에서, 또 국가 전체의 안목에서 합리적인 방향인가를 따져 보자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필자는 UIA의 권고사항인 “최소 5년 이상의 교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5년제와 4+2년제 중 어느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더 합리적인 제도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학부 5년제 만이 “국제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4+2년의 대학원 중심제와 학부 5년제는 선택의 문제이며, 4+2년제는 분명 우리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다. 4+2년제의 장점을 주장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학부 5년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교육개혁의 방향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4년제 학부의 개혁에 대한 문제

4+2년 대학원 중심의 건축전문교육의 장점을 주장하는 필자의 의견을 마치 개혁의 의의가 없어 현행 4년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듯이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필자는 지금의 4년제 교육내용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고 하지 않았다. 지금의 4년제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 다만 필자는 글의 주제를 5년제와 4+2년제의 형식 문제에 한정했고, 4년제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는 단순히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필자가 마치 4년제 교육내용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말한 것처럼 예단하고, 하지도 않은 주장에 대해 비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공정

하지 않다.

5년제는 4+2제이든 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5년제를 하더라도 내용을 개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또 대학원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현재의 학부 4년이 그대로 안주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부 5년제를 실시해야만 교육의 내용을 개혁할 수 있고, 대학원 중심제 하에서는 내용을 개혁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4+2년제 하에서도 4년제 학교가 좋은 대학원에 많은 학생을 진입시키려면 스스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4년제 학교는 자연스럽게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리될 것이며, 아니면 아예 설계가 아닌 건축공학전공으로 특화해야 할 것이다. 즉, 개혁의 주된 방향이 대학원 중심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4년제 교육의 내용의 개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의 과정이 교육개혁을 이루어 내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다.

쉽게 지방에 있는 그다지 조건이 풍족하지 못한 4년제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서울의 상위권 주요대학이 대학원 중심으로 가면 이들은 당장 5년제나 전문대학원을 만들 여력이 없다하더라도 설계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열심히 가르쳐서 상위권의 전문대학원에 진입시키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들은 가능하면 많은 학생을 진입시키기 위해 교육내용을 개혁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아예 공학전공으로 바꾸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학교는 향후 5년제나 전문대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개혁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여력이 있는 학교들이 학부 5년제로 울타리를 쳐 버리면 자체적으로 건축전문학위과정을 만들 수 없거나 건축공학으로 특화할 수 없는 학교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 이들 학교에게 당장 생사의 갈림을 강요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볼 때 공정성과 책임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4년 학부교육 목표의 불명확성

4+2년의 대학원 중심으로 가면 학부과정의 교육목표가 불분명해져서 학부 4년 과정은 건축교양과 정정도로 설계도 공학도 아닌 것이 되어 전문교육의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4+2제가 학부 5년제에 비해 학부과정의 교육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학부 5년제가 대학원 중심제보다 교육의 일관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언급했듯이 우리 나라의 적성에 따른 전문직능교육이 학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초중고 교육의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학부제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직능 교육체제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또 최근 전통적인 학문의 정체성과 경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과 학제간의 통합 및 새로운 영역의 발생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건축에서도 전통적인 건축가가 아닌 건축관련 새로운 전문직종이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건축가를 양성하는 설계중심의 교육을 폐쇄적인 학부 5년제로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다. (아마도 이런 문제가 극복된다면 AA 스쿨과 같이 규모가 크고 특화된 건축학교로의 독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4+2년제에서 학부과정의 상대적인 교육목표의 불분명함은 오히려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 밖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전의 글에서도 정리한 바 있다. 굳이 문제를 제기하자면 4+2년제 하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건축설계교육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가 인데 이것은 뒤에 서술하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4+2의 대학원 중심제는 여러 가지로 편리한 방식인 것이다.

4+2의 대학원 중심의 교육이 마치 학부는 아무 것이나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건축대학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년제 건축학과에서 충분한 설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학부와 대학원의 연결에 의해서 건축전문교육 4+2=6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 건축 설계교육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대학원 진입시 설계학점이수와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다.

건축공학교육의 전문화와 건축설계교육

4+2년의 설계전문교육체제와 건축공학교육의 전문화는 별개의 문제이다. 필자는 건축공학교육의 전문화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좋은 실은 이것 역시 국제화의 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설계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학교로서 공학으로의 특화가 가능한 학교는

그렇게 하면 된다. 또 학교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조건이 된다면 4년 학부 내에 전공을 분리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하여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다. 어쨌든 건축공학교육의 전문화와 설계전문교육을 대학원 중심으로 하는 것은 상치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설계전문교육을 대학원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건축공학의 전문화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설계전문교육을 학부에서 완성하느냐 대학원에서 완성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인증의 문제

설계전문 학위를 대학원 중심으로 하더라도 인증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인증의 대상은 전문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므로 4+2년제 하에서 학부4년은 인증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학부 4년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다. 우선 설계중심의 건축교육이어야만 대학원과의 연결이 가능한 것이며, 그 학부 프로그램의 질은 결국 대학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학원들은 학부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다른 평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하바드 건축대학원은 같은 학부 건축과 4년 과정이라도 버클리 졸업하면 2년 반의 석사과정에 진입이 가능한데 MIT 졸업생은 3년 반을 해야 한다. 설계스튜디오의 학점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MIT 졸업생은 다른 건축대학원의 2년 석사과정에는 진입할 수 있고 NCARB의 학점기준도 만족시킬 수 있어 전문학위를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또 인증은 교육의 내용을 보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교육의 양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교육의 양에 대한 기준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NCARB가 유일하네 여기서 요구하는 부분별 학점(160중 설계는 50)은 학부4년(약 140학점)과 대학원(약 60학점)의 전문과정을 합치면 충분하다. 물론 학부에서 설계학점을 충분히 이수하지 않으면 이 기준에 의해 대학원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수와 다수의 관계

건축설계의 수요를 생각할 때 현재 약 100개의 건축과 중에서 설계전문인력을 약 10~15%라고 본다면, 과정에서의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약 2~30개의 건축 설계전문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물

론 이것은 보다 정확한 수요의 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또 많은 학교들이 전문학위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재정적 부담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즉, 어차피 5년제는 전문대학원이든 건축설계의 전문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는 현실적으로 소수와 다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개혁의 방향은 소수와 다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학부 5년제가 대학원 중심제 보다 배타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 경우 4년제로 남은 학교는 건축공학으로 가든지 아니면 상위교육으로의 진입이 봉쇄되어 존립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대학원 중심이 되면 4년제 이후 소질있는 학생들이 적성을 검증 받은 후 대학원으로 흡수될 수 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다. 하지만 개혁의 방법은 선택의 문제이고,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이다. 필자는 어느 사회이든 변혁의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원형히 탈락되는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고, 또 그들이 새로이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는 융통성과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건축교육의 개혁도 2대 8의 사회의 또 다른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원 중심의 사다리꼴 구조

개혁의 방향을 강요할 수는 없다. 결국은 각 대학이 현실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고, 어차피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개혁이 아니라면 5년제, 4년제, 전문대학원이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위권의 주요대학들이 대학원 중심으로 가고, 중간권의 여력이 있는 학교들이 특성화된 5년제를 할 수 있다면 국가 전체로 보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체제가 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기존의 건축대학원이 있고 또 앞으로 건축대학원이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상위권의 여력이 있는 학교가 대학원 중심으로 가는 것이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왜냐하면 주요대학이 대학원 중심으로 가면 4년제 학부를 마치고 전문대학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4년제 학교간의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개혁과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 조건이 갖추어진 중위권의 학교에서 학부 5년제를 실시하면 전문학사를 마친 후 상위권 대학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기획의

다양성과 평준화라는 점에서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 체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대의 개혁의 방향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파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가 학부 5년제로 가면 서울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위권의 학교들이 사리를 깊이 따지기 전에 5년제를 쫓아갈 것임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거의 명백하다.

필자가 4+2년의 대학원 중심제의 장점을 주장하는 것은 필자가 속한 전문대학원의 입장과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필자는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상위권 학교들이 대학원 중심으로 가면 한정된 수요에서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므로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원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제안한 사다리꼴 구조가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다른 학교의 문제에 왜 알아 불가 하느냐고 한다면 할말은 없다. 하지만 UIA 대응 문제는 개별 학교들의 문제이기 전에 앞서 국가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나라 건축 교육 전체의 문제이다. 이 시대를 고민하는 젊은 건축학 교수의 한사람으로서 필자는 개별 학교의 입장보다는 우리 나라 건축교육 전체를 위해서 어떠한 개혁의 방향이 더 합리적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론화가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필자의 글이 끼칠 수 있는 누에 대해서는 마치 생각이 가지 못한 채 평소의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현 교수님을 비롯해서 5년제를 준비해온 다른 분들의 생각을 오도하는 것이 절대 필자의 의도가 아니었으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의 서투름이나 잘못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 또 이 글을 쓰며 필자 또한 범했을지 모를 오류에 대해 엄격한 지적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아무쪼록 필자의 글이 앞으로 한국건축 교육체제의 개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합리적 방향을 모색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필자의 입장에 대해 좀 더 해명할 수 있도록 사소한 글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를 표한다.

지역건축탐방 16 - 북한(하)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North Korea

55년 동안 분단상태로 공존해 오면서 '우리건축'은 서로 다른 2개의 독특한 지역건축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한쪽은 '자본주의 현대건축', 다른 한쪽은 '사회주의 현대건축'이다. 두 지역 모두 현대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대건축의 형식과 내용, 사고체계는 다르다. 건축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생활을 담는 것이라고 하지만 건축의 의미, 건축을 만들어 가는 사고체계, 건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두 지역이 전혀 다르다. 패션적이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워 보이고, 조금 무질서해 보이는 현대건축이 있는가 하면, 체제우월적이고, 웅장하고, 상징적이며, 도시기본구조에 맞춘 질서적이고, 조금은 비효율적인 면도 보이는 현대건축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데올로기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엄존하고 있는 곳이 한반도이다. 대립의 흔적은 건축에 깊이 박혀 그 흔적이 제거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건축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기세이다. 건축이 정치분야와 무관한 듯하지만 그래도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건축이 체제를 선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건축의 정치성이다. 건축의 정치성이 건축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나 북한의 건축은 모두 '우리의 건축'이다.

지역건축 탐방이 지금까지는 같은 문화환경에서 표현되었던 지역건축이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어지는 북한지역 건축은 반세기 이상을 서로 다른 문화환경에서 존재해 왔던 우리민족의 지역건축에 대한 이야기다. 언제까지나 북한을 대립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이질화되었지만 동질성 회복은 우리시대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건축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학계에서도 세계 각국의 건축을 탐색하면서 진작 다른 한쪽의 건축에 전혀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건축계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분단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건축에 대해 한번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 비록 낮은 감은 있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리고 건축적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이해하고 접근해 가기 위한 발판으로 지역건축탐방 「북한」을 기획하였다. 지역건축탐방 「북한」을 기획하면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건축가나 관련 인사가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도해 볼 빌미조차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평양도시설계사업소에서 구조방면의 설계원으로 활동하던 분이 참여하여 이를 통해 북한 건축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 기획이 비록 우리끼리의 담론에 그치고 말았지만 빠른 시일에 남북한 건축인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편집디렉터 / 이왕기 (목원대 교수)〉

〈상편〉 북한 현대건축의 변천 / 이왕기
북한의 도시계획과 그 전망 / 김현수
북한건축 답사기 / 김봉건
북한의 건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김병성

〈하편〉 북한의 주택실태와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 서우석 76
북한의 건설현황에 대하여 / 장안숙 82
금강산에서의 건설 경험 / 김나영 87
좌담 | 북한의 건축과 도시, 통일을 위한 준비 92

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n Housings and its Policies of North Korea

서우석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by Suh Woo-Seok

해방 후 북한지역에서도 신규주택건설 외에 추가집 개조사업을 시작으로 주거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전쟁 전 북한지역의 총 주택재고는 약 100만호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 약 60만호의 주택이 파괴되어 극심한 주택난에 직면하였으며, 휴전 직후부터 평양을 비롯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에 주력하였고 농촌주택건설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주택건설은 만성적인 자재부족, 생산시설의 낙후와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현재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북한의 주택수는 269~304만호로 알려지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주택실적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95년 현재 북한의 추정 기구수는 485만이며, 이에 근거한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55~63% 정도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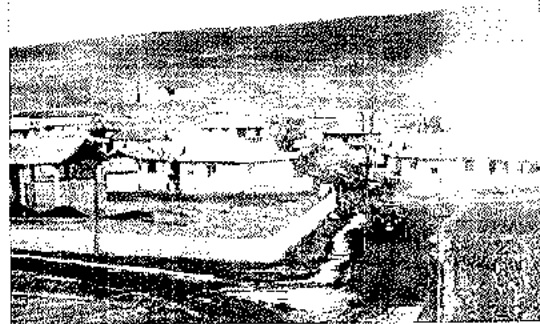
북한의 주거수준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국가의 독점적인 건설, 공급, 분배, 관리) 이외에도 북한만의 특징이 있는 바,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정도가 심하다는 관점이 될 것이다. 첫째, 평양 및 대도시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거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며, 동시에 지역별 주거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평양의 경우 총 주택의 85%가 영구주택이며, 직할시는 20~40%, 일반시와 산업지구는 임시주택이 90%를 차지하며, 농촌지역은 거의 100%가 전쟁전의 기존 구옥과 임시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간에도 현격한 수준차이가 존재하며, 평양시를 비롯한 도소재 지급 중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수세식화 되어 있으나 운수난 방화는 평양시의 고급간부들이 거주하는 일부지역에만 한한다. 대부분 찬물만 나오는데 이것이 최고급 수준이며, 나머지는 다 시간물이며, 60년대 식으로 퍼대기식 공동변소이다. 둘째, 입주자의 사회 계급적 신분에 따라 주택의 규모, 시설, 형태 등의 격차가 크며,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불만족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주거생활이 불편이 많지만 적당하게 살고 있으며, 각 가구가 똑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으로 비교의 대상이 없으므로 큰 불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주택은 영구주택과 임시주택으로 구분된다. 영구주택은 국가의 투자로 지어진 주택을 의미하며, 도시의 경우는 아파트, 농촌의 경우는 연립식 문화주택을 의미한다. 임시주택은 전쟁 전의 낡은 주택과 국가의 투자 없이 건설된 임시주택을 의미하며, 도시의



북한 함흥농장의 주택
북한은 협동농장화하면서 농촌의 분산된 주택을 집단지화하였다. 따라서 통일이 되어 농촌에 있는 고향집을 찾기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진은 제법 생산량이 나는 협동농장의 마을 모습이다. 일자로 길게 늘어선 주택이 하모니카 집이거나 땅집이며, 정비업을 실시하면서 벽과 담장에 칠패칠을 하여 정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전형적인 농촌마을 계획에 의거한 마을
맨 위에 있는 건물이 김일성 혁명사상실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건물이며 이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어 있는데, 좌측은 협동농장 사무소나 창고 등 공적인 기능을 하며, 우측은 주택가로 되어 있다.

경우는 방과 부엌이 각 1칸씩으로 3m×6m(총 18㎡, 방 4m×3m, 부엌 2m×3m)를 10가구 정도를 연속하여 건설하고 약간의 여유의 땅에 창고, 화장실, 수도 등의 공공시설이 건설된 것으로 일명 하모니카 주택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비슷한 유형인 땅집이 있다. 귀순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부엌 하나, 방 하나 있는 집으로 20m 정도로 길며, 문과 방이 있고, 복도는 없으며, 문 열면 방 보이고 문 열면 방 보이는 꼭 하모니카처럼 생긴 집이다. 반면 땅집은 하모니카 주택의 등을 맞대어 지은 집으로 외관상으로는 큰 집처럼 보이지만 몇 가구가 사는지 알기 위해서는 글썽수를 세어보면 알 수 있는 집'으로 19세기 초반 유럽의 백투백(back to back) 주택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농촌의 경우는 전쟁 전의 기존 구옥으로 흙벽돌 집에 시멘트 기와로 약간 개량하고 헛간 등은 추가로 되어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의 영구주택은 시기에 따라 평형이 확대되어 왔으며, 표준 평면 역시 단순성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왔으나 북한의 주택건설방식이 조립식 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기에 지어진 주택은 거의 같은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부구조 형식은 툇마루형, 외랑형(바깥복도형), 궁륭식(중간복도형), 석지아형(계단형, 홀형), 혼합형 등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내부구조의 특징은 거실이 없으며, 고급주택의 경우도 거실 대신 전실이라는 현관입구의 조그만 평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소련의 주택설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1920년대 구성주의자들의 공공주택의 개념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용도도 동거세대가 불편 없이 살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부엌은 폐쇄되어 있으며, 변기와 세면장은 분리하여 설

치되어 있고, 발코니는 아파트의 외관과 건축기술상의 한계로 인하여 최소로 제한되어 있다. 방의 크기는 주택에 따라 방이 1개인 경우 12~14㎡, 2개인 경우 12㎡와 9㎡, 3개인 경우 14㎡, 12㎡, 9㎡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주택은 방, 부엌, 변소, 창고, 베란다(아파트인 경우)로 구성되며, 특별한 경우에 전실이 추가되는 것으로 구성되고 있다.

주택의 구조재 및 마감재

북한의 주택분류는 크게 영구주택과 임시주택으로 구분되며, 영구주택은 다시 초고층주택, 고층주택, 다층주택, 저층주택, 단층주택 등 층수에 의하여 5개로 구분되며, 임시주택은 도시영세민을 위한 일명 하모니카 주택과 농촌의 기존 구옥으로 분류된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평양의 다층주택은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조이며 철골조는 거의 없다. 최근에는 에너지 난으로 벽돌의 생산이 어려운 데다 생산설비가 이미 마모되어 거의 수동식으로 생산하고 있어 벽돌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격(9cm×9cm×18cm)도 하나이고 그나마 일정치도 않다. 게다가 벽돌의 수송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벽돌은 아주 귀중한 건축재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근의 경우도 제품의 불량 및 공급부족으로 건설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이며, 시멘트의 경우도 가루시멘트는 대부분 수출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강제시멘트(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췌가루를 섞은 시멘트)를 사용하고 있다.

마감재의 측면에서는 북한의 주택자체가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건설되는 것이므로 즉, 주택이 상품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건설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와

건축적 기준에 의한 주택분류

구분		방식	비고
영구주택	초고층(16층이상)	중간복도식	승강기당 가구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임
	고층(8~15층)	중간복도식+계단식	계단당 3~4가구를 배치하여 공동면적을 축소하였으나 중간세대는 통풍이 안됨
	다층주택(4~7층)	외랑식(편복도식)이 기본	복도에 창이 없음
	저층주택(2~3층)	외랑식(편복도식)이 기본	복도에 창이 없음
	단층주택		극소수의 간부주택과 별장, 농촌 문화주택
	단층임시주택(도시)	건축면적 18㎡	설계원들은 단층 외랑식 아파트라 자조함
임시주택	기존 구옥(농촌)		전쟁전의 기존구옥을 말함

* 초고층과 고층주택은 승강기가 있으나 그 외의 주택은 승강기 없음

같은 마감재의 개념이 없으며, 마감재의 품질수준은 매우 저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의 유기화학공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마감재가 생산되고 있지도 못하다. 일례로 유리가 대부분 50cm×50cm 미만의 소형규격으로 생산되므로 유리창문이 작거나 2개 또는 3개로 나누어져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벽지를 생산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헛가투를 칠하였으며, 타일의 경우도 품질이 조잡하고 15cm×15cm 미만으로 불량품이 많다. 바닥재(모노륨의 일종)도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고급주택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스티로폼은 생산량이 극히 적으며, 유기화학공업 기반의 취약으로 화학제품의 생산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난방관의 부족으로 아파트의 경우 아랫목(30cm)과 윗목(75~90cm)을 구분하여 배관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부족하고 조잡한 건자재의 생산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건설에서 건설되는 건축자재는 해당지방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주거상황의 열악성을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난방방식, 취사연료,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전기시설 등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60년대 초반수준이라고 보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건설기술

북한의 주택건설 공법은 전후 주택량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대량의 주택건설 필요에 의하여 건설의 공업화가 요구되었으며, 김일성은 50년대 말 조립식주택이 건설의 공업화를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교시를 내린 후 최근까지 거의 모든 고층아파트 및 고층건물이 조립식공법에 의하여 건설되고 있다. 북한의 건축공법이 조립식공법 이외에 다른 공법이 소개되거나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건설의 용이

성과 세대당 자재(특히 철근과 시멘트) 소비량의 최소화, 거푸집으로 사용할 목재의 부족, 건설장비의 부족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건축공사가 전문기능공이 아닌 군인 등 동원인력에 의해 건설되기 때문에 일반방식에 의한 생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의 조립식공법은 50년대 소련의 PC공법을 수입해 온 것으로 공법에 대한 연구나 투자 없이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어 기술수준이 매우 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조립식주택의 완성도가 높았으나(두 방 주택) 이후 아파트 내부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부자재가 증가하였으나 국가투자의 감소로 부자재 생산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전체 공정의 50~60%정도만이 조립으로 되고 나머지는 땀질작이 되어 엄밀한 의미로 조립식 주택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립식 주택의 이음부위가 정밀하지 못하여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평양의 주택건설에는 조립식공법보다는 작키(jockey)공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거만족도 및 주거의식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주거불만족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북한의 에너지 난과 같은 경제난과 무관하지 않다. 즉, 최근에 들어 난방 및 취사연료의 질이 낮아지고 양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급배수시설의 미비와 급수량의 부족, 방수의 부족과 공간의 협소, 거주지역의 불편, 욕실 미비, 공동변소가 없고 시설의 낙후함, 잦은 정전 및 집수리의 불가능성 등이 주요 불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만족하지도 않지만 불만족하



무산 공업도시의 주택전경
공산도시인 무산은 강제로 이주된 노동력이 밀집된 주택군을 형성하고 있다. 아래의 철도를 중심으로 아래쪽이 초기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후기에 해당된다.



농촌문화주택의 건설
농촌지역에 건설되는 대표적인 문화주택이다. 그러나 벽의 단면을 보면 매우 거칠게 나타나고 있어 전문화된 기능공이 작업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 주거만족도가 그 사회의 주거규범과 주거상황을 비교한 결과로서 결정된다는 Morris와 Winter의 주거규범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에서는 주거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되어 있어서 주거불만족을 드러내놓기 보다는 그냥 참아버리며, 기존의 주거상황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규범적인 적응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거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주거이동이지만 북한의 경우 주거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더욱이 자신의 주거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주거이동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로서 직장 이동, 추방, 소개, 강제철거, 결혼이나 분가, 상하이동, 동거 살이 탈피 등의 사유로만 주거이동이 제한되는 강제적 이동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적극적인 차원의 주거개선을 시도하기란 어려우며, 소규모적인 주택 개·보수(노후부분의 수리, 상하수도의 설치, 울타리 만들기 등)를 통하여 주거불만을 줄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주거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가며 살아가고 있다.

북한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현재 북한은 절대적인 주택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어느 정도 사회주의 주택정책이 퇴색 되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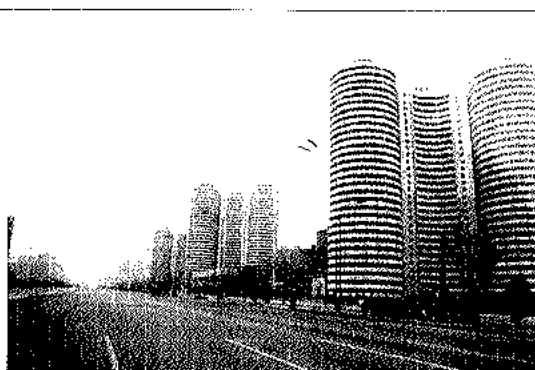
이념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 주택정책의 기초란 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공간 내지 삶의 방식의 재구축(the reconstruction of the way of life) 또는 사회적 응축기제로서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70년대 중반까지는 이러한 이념적인 노선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70년대 중반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웅장함, 화려함, 주택면적의 증대, 설계의 비반복성을 강조한 나머지 원형, 예각, 둔각 형태의 주택이 건설되는 것은 분명 사회주의 이념에서 이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주택이념은 사회주의적이라기보다는 교조주의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소유권의 차원에서, 북한은 살림집을 개인소유의 재화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며, 특수한 경우의 개인주택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지방의 경우 불법적인 자조주택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적인 주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주택부문의 변화를 초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는 70년대 이후 국가가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면서 제한적이거나 국가소유주택의 사유화 및 개인주택의 건설을 허용하거나 조합소유주택, 소유자점유주택, 기업소유주택 등 다양한 소유권의 주택유형이 등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국가가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유권 유형의 주택이 등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택상황을 제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50년대나 60년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통치스타일이 완벽한 사회주의적 주택정책을 고수



평양시 외곽의 주택 좌측에 있는 주택은 송림식 문화주택이며, 대다수가 하모니카 주택이다. 그러나 가운데 C 자형 주택은 해방이전의 주택양식으로 보이며, 북한에도 이러한 주택을 찾기란 쉽지 않다.



평양시 광복거리의 원돌호텔 고층아파트 대동강 서쪽에 신도시 형태로 건설된 주택단지로 면적은 분당의 1/4 수준이다. 그러나 이 지구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나 지나친 결베미의 추구로 공간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한다기보다는 독재주의적인 주민통제가 주민들의 주거욕구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의 주택계획 및 생산은 스탈린 치하의 소련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주택건설자금, 건자재, 토지이용 등 모든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는 중앙집중계획형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영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건설을 대행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건설의 사상무장화라는 전략을 통하여 전문인력이 아닌 인력을 동원하여 건설을 하는 등 봉건적인 일면도 가지고 있다.

주택의 분배과정은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단, 계급적 차원과 연계된 주택분배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심하기도 하지만, 이를 드러내놓고 시행한 나라는 북한 이외에는 없다. 또한 대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균질적이고 동일한 주택을 공급한 반면 북한의 주택은 시기별로, 계급별로 너무나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사회주의적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만일 통일 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행한 거주자 우선의 주택사유화를 실시한다면, 북한의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주택관리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주택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국영 혹은 공영주택관리회사가 이를 대행하고 있으나, 북한은 행정부에서 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기별로 북한의 주택정책을 평가하여 보면, 북한정권 수립 후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민간주택을 국유화하고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의 주택부문을 통제 강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북한 주택의 대부분을 파괴시키면서 주택부문의 기반을 상실시키는 시기이다.

1957년부터 1976년까지는 전후 복구기를 거쳐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주택소요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한 시기이지 중앙집권적 주택정책의 시기로 국가건설주택의 공급이 최 절정기에 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이후 1980년대 말까지는 기본적인 주택정책 이념이 퇴색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국가의 신규공급주택이 둔화되는 하강국면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1980년대 말 이후 1990년대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하여 신규주택 공급여력은 거의 없으며, 자조주택의 건설, 불법적인 주택거래 등 사회

주의 주택정책에 이탈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으로서 평양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통제가 이완되는 시기이다.

최근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주거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신규 삽입하였다. 이는 북한의 헌법이 사후 추인적인 성격을 가지는 특성상 이미 주거와 인구이동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주택정책은 사회주의 주택정책이라고 일컬을 수 있으나,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도 이론과 실재가 불일치했던 것처럼 북한도 상당부분 이론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이론과의 편차는 북한만의 역사적 및 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것이며, 특히 주체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와는 다른 북한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주택부문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고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신규주택공급, 주택 개·보수, 주택관련 SOC의 공급 등 주택과 관련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주택에 대한 귀순자들의 증언

구분	귀순자들의 증언
주택유형 및 주거규모	주택의 명칭 - 옛날집 : 한옥형태의 구옥 - 독집 : 당간부나 복송교포들이 거주하는 수준 높은 단독주택 - 아파트 : 시기변기(수세식화장실)에 온수가 공급되는 것부터 개별변소도 없고 급수가 안되는 것까지 수준차이가 심한 집 - 하모니카집 : 여러 기구가 다닥다닥 붙은 집 - 땅집 : 하모니카집 4-6세대를 등을 대어 두 줄로 붙인 집 아파트의 수준 - 평양시를 비롯한 도소재지급 중심에 있는 아파트형들은 수세식화 되어 있으나 온수난방화는 평양시 하나만 되어 있다. 대부분은 찬물만 나오는데 그게 최고급 수준이다. 나머지는 다 시간물이며 60년대식으로 폐내기식 공동변소이다. 난방용 연료는 심각하게 부족하다 하모니카집의 수준 - 부엌 하나 방 하나 있는 집으로 15-20m 정도로 길며, 문과 방이 있고, 복도는 없으며, 문을 열면 방이 보이는 꼭 하모니카처럼 생긴 집이다. 땅집의 수준 - 외관상으로는 콘크리트처럼 보이는데 몇 기구가 사는 집인지 알기 위해서는 골목의 수를 세어보면 된다. - 북한주택의 공간구성은 매우 단순하며, 방과 부엌만 있는 주택이 대다수이다. - 문을 들어가면 기미가 걸려있고 그 옆에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데 여기가 부엌도 되고 방도 된다. 방에 킁막이를 하면 옷방, 아랫방이 되는데 옷방에는 골목이 있다. - 어린애들이 부엌 기미에 빠질 수도 있어 부엌과 방을 막는 경우도 있으며, 새로 짓는 집은 사이를 막도록 설계하고 있다.
주택의 공간구성	아파트 - 아파트에는 25세대에 1개 정도의 폐내기식 공동변소가 있어 아침이면 대단히 번거롭다. - 아파트 앞에 두 줄로 집 홑수만큼 창고를 만들어 구멍탄을 넣고 겨울에는 김치를 묻고 하는데,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창고 안 또는 밖에 돼지우리들 만들어 돼지를 키우기 때문에 배설물로 지저분하다.
주거설비	북한에는 거실, 현관, 욕실, 화장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으며, 전실, 세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전실은 문 가까이에 있는 방으로 전실이 있으면 특별히 좋은 집이다. 아파트나 배란다는 외국어 명칭 그대로 사용한다. 아파트 부엌에 들어가면 틈을 때는 아궁이가 있는데 거기에 기미를 걸고, 그 옆에는 수도, 하수도가 있다. 시멘트로 단을 만들어 거기서 조리도 하고 식장(찬장)으로 활용한다. - 이밖에 부뚜막 높이로 마루를 놓고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다가 필요시에 마루를 찢고 불을 때는 방법으로 좁은 공간을 활용한다. - 시기변기가 있는 변소에는 수도꼭지가 있어 양동이에 물을 받아두었다가 그때그때 사용한다. (반수세식 인 듯함) - 집에 욕실이 없고 구역에 공동목욕탕이 하나 있다. 막탄을 태서 물을 데우는데 3시간 가기도 바빠서 그 시간쯤 되면 사람으로 터질 정도니까 웬만하면 집에서 물을 데워서 쓴다. 겨울동안은 그냥 지나다가 찬물에 들어가 목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한다. - 일반적으로 난방은 석탄이나 나무를 태다. 갈탄도 많이 태는데 군용탄(구멍탄)은 도시와 아파트에서는 태도 어느 지방에서는 구하기 어렵다. - 난방은 아파트도 단층집과 똑같이 집집마다 골목이 구석에 다 붙어 있다. 아파트는 막탄을 사용하는 집도 있고, 군용탄을 태는 집도 있는데 각 집이 석탄기구를 가져다가 기계로 썰어서 쓴다. - 실내온도가 19도 미만이라 동복을 꺼입고 떨면서 지낸다. 가정집도 석탄공급이 안되 다섯 기구가 한집에 모여 산다. 공급이 중단되면 석탄을 갖고 한집에 모여 사는 그런 상황이다.
입사증 제도	입사증 발급제기는 직장관계로 공장에서 받았다/ 외화벌이 표창으로 받았다/ 긴정일이 선물로 하사하였다/ 부모집에서 세간나면서 받았다/ 결혼으로 받았다/ 인면관계로 뇌물을 주고받았다/ 옮길 때마다 시아버지 백으로 받았다/ 돈을 주고 샀다/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으면서 입사증을 받았다/ 본인의 힘으로 집을 짓고 받았다/ 집을 사고 난 후 배앗길까봐 입사증을 발급 받아 놓았다/ 등 매우 다양하다. 도시경영과 주택관리 직원이 배준 동거입사증을 가지고 살았다
주거의식 및 주거만족	북한에서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많았지만 적당하게 살았다. 각 기구가 똑같이 때문에 불편한 것을 잘 몰랐다. 주거불만족의 내용은 아파트 생활시 겨울에 난방이 보장되지 않아 추웠다/ 아침밥을 지을 때와 퇴근 후에 탄물이 죽어 너무 속상했다/ 수도가 없어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잦은 정전과 수도물 단수가 불편했다/ 방이 부족하여 부부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아파트 주변길이 비포장이어서 비만 오면 다니기가 어려웠다/ 아파트에 변소도 욕실도 없다/ 변소구기가 힘들었다/ 유리창이 깨져도 유리도 종이도 없다/ 석탄과 재, 오물처리 위해 아파트를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다/ 연립주택 뽕따기(골조)만 세워주고 온돌, 부엌까지 자체적으로 꾸려야 했으므로 힘들었다.
주거행동	주거불만에 대한 의식은 다른 대책은 없고 환경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능력이 없어서 할 일도 없다/ 공동생활이므로 대책이 없다/ 의견을 제기해도 안되어서 참고 견디었다/ 자기위사로 아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직장 이동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 배치해준 곳으로 간다/ 망수는 아파트도 다 2칸이다. 동거살이를 하면 1칸만 쓰게 되니까 좌우간 방 2칸만 있으면 어느 사람들이 만족한다. 주거행동의 예로는 겨울에는 집안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그 안에서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막아보려고 했다/ 자체로 마당에 하수도와 세면대를 만들었다/ 도둑놈 때문에 담장을 높였다/ 자체로 수도를 놓고 이중벽을 설치하고 개인변소를 만들었다/ 추방되어 받은 성냥과 집을 수리했다/ 집을 늘렸다. 보다 적극적인 행위로는 난방용 탱크를 구하려고 부정을 많이 했다/ 석유공급이 모자라 운전수 등과 디젤유를 비법적으로 구했다/ 시장에서 탄탄을 자체 해결했다/ 재외생활 2년만에 냉창고 2대를 주고 자기 집을 구했다/ 국가재산을 훔치거나 횡령하여 집을 교환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집을 이사했다. 주거이동에 대하여는 성분차별로 탄광으로 이사했다/ 같이 철거되어 이사했다/ 국가적 조치로 2번 이사했다/ 평양에 살다가 강제이주 당했다/ 직장이동으로 이사했다/ 살림집 부족으로 한 아파트에서 동거살이를 하다가 집 배정을 받고 이사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웃돈을 받고 집을 옮겼다. 일반사람들의 지내는 결혼하면 다른 사람들이 살던 집에 들어가는데 방 하나 부엌 하나인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 원래 그 집에 살던 사람은 급수가 올라가 작업반장 정도를 하면 다른 사람이 살던 조금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들 선에서는 집을 서로 교체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 즉 자발적 주거이동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건설현황에 대하여

The Current Situation of North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장인숙 / 전 평양도시계획설계사무소 설계원
by Jang In-Sook

21세기 우리 앞에 다가선 가장 절박한 과업은 조국통일이다. 조국통일을 눈앞에 둔 우리는 북한의 실정을 잘 알아야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제반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다.

모든 경제활동의 첫 공정은 건설이다. 공업이나 농업을 막론하고 건설은 인민경제의 척후병으로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렇게 될 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건설현황을 옳게 파악하는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북한 건설의 기본방향

현재 북한의 모든 경제구조는 철두철미하게 개인숭배에 기초한 김부자 우상화를 철저히 보장하는데 있다. 북한은 공업 총 생산액 중에서 건설에 투자하는 비중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김정일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시를 했다.

"우리 노동당시대에 짓는 모든 건축물들이나 구조물들은 예외 없이 우리 인민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

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 영도의 혁명성과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김일성 민족'의 긍지와 자랑을 대내외에 널리 소개 선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교시에 따라 건설의 첫 시작부터 김부자 우상화에 모든 것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시를 바탕으로 건설의 기본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김부자 우상화와 그들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것.

둘째, 나라의 대외적 위신을 높이는 일.

셋째, 나라의 군사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넷째, 특권층들의 부유한 생활과 사치를 보장하며, 인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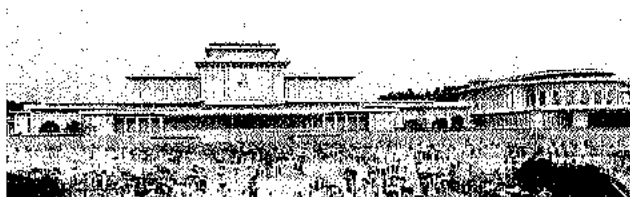
다섯째,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북한 통치자들은 이상과 같은 틀에 맞추어 건설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인민들이 피와 땀으로 창조된 수많은 자재와 자금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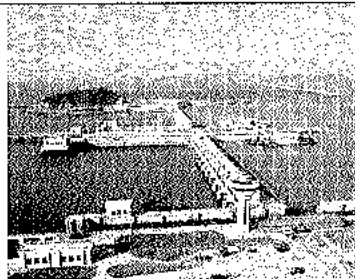
김부자 우상화를 위한 건설

현재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을 비롯한 수많은 사적물을 건설해 놓고 항상 경비인원과 잔여인원을 배치해 두고 있다. 그들은 또한 성분이 좋고 인물체격이 좋아야 선발되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고 있다.

김부자가 다녀간 곳에는 예외 없이 사적물을 세우는데 최근 3년 동안에만도 3,200점이나 되며 그 동안 모두 합하여 약 4만개나 된다. 김일성이 태어난 만경대와 더불어 백두산에 김정일이 고향집까지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충성의 맹세를 다지게 하고 있다.



금수산 기념궁전



사해각문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이 해놓은 제일 '큰 업적'은 금수산의사당을 주석궁으로 꾸민 것이다. 전국의 가장 우수한 당원들로 조직된 '당원들격대'와 '공병총국'이 맡아 약 2년 동안에 8억9천만불의 외화를 투자하여 건설하여 놓은 것이다. 하루 1만 톤이면 북한주민들에게 배급을 주는데 그 돈으로 옥수수 600만톤을 수입해 올 수 있으니 1년 반 동안 북한 주민이 먹을 식량을 김일성 시체를 보관하는데 소비하였다. 그것도 300만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또한 전국각지에 구호나무가 수풀처럼 일어나 아산을 화전으로 일군 주민들의 발을 '구호나무지'에 손상을 준다면 모조리 빼앗아 주변을 풀밭으로 만들었다. 명승지마다 기후 좋고 물 좋은 곳에는 예외 없이 '1호 별장'을 건설해 두었다. 김부자가 1년 중 한 번 율까말까한 곳마다 최상의 수준으로 별장을 건설해 놓고 수많은 무장 경비를 항상 주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함경남도 낙원군(이전의 퉁조군) 앞 바다에는 수중 50m 별장을 건설하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바다 물고기들이 움직임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중무장한 4척의 잠수함이 항상 호위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김부자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들의 부유한 생활을 뒷받침하는 건설사라는 수없이 많다.

그뿐 아니라 북한 행정구역의 고유한 명칭을 김부자 가계이름으로 고친 것도 많은데 실례로 양강도의 김형직군(전 함경남도 원창군), 김형권군(전 함경남도 풍산군), 김정숙군(전 함경남도 삼수군), 함경북도 김책시(전 함경북도 성진군)를 비롯하여 김일성의 할머니 리보익이 출생한 황해남도 구월산에까지 박물관을 건설하는 데 수많은 국가자재를 이러한 사적지와 사적을 건설에 쓰고 있다.

대외적 위신제고를 위한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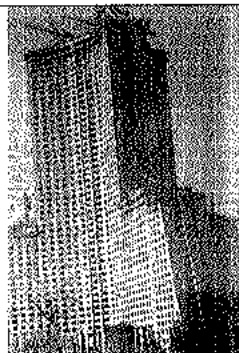
대외적인 위신을 살리기 위한 건설의 대표적인 실례로 남포 앞 바다에 건설된 남포갑문을 들 수 있다. 김일성은 남포갑문이 서해를 통째로 막은 갑문이기 때문에 '서해갑문'이라고 고쳐 부르게 했다. 8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군인 5만여 명을 이 공사에 투입하면서 갑문이 완성되면 평양시거주를 승인해준다고 감언이설로 공사현장으로 내몰았다.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적게 잡아도 40억불이라 하는데, 갑문 건설 후 얻은 소득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다. 우선 대동강이 담수로 변하고, 하수처리를 제대로 못하여 물고기 서식이 거의 불가능해 졌다.

열두 삼천리 뻗을 비롯하여 많은 뿔방지대가 약간의 흡수에도 침수되어 알곡생산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다. 김일성은 단지 사회주의 공업국가의 위상을 온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면서 갑문건설을 발기하고 완공 후에는 외국대표단들과 해외동포들의 지정관광코스도 이용하고 있다.

이 갑문공사는 날림식으로 하여 개사한 역량이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하고 있다. 이 건설에서는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게 되었는데 약 80여 명의 희생자들은 단지 공화국 영웅, 노력 영웅으로 추대되었을 뿐이다.

또한 105층 유경호텔 역시 동양에서 제일 높고 좋은 호텔로 건설하라고 지시하여 중앙당 직속 '105 돌격대'가 골조만 축조해 놓고 중단되고 말았다. 지층의 변화와 외화 부족으로 수많은 외화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현재 밀충만 완성해둔 상태이다. 이 유경호텔 건설 시에는 사회주의 강국의 위신을 높이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다고 선전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빈약한 경제형편과 독재자들의 독선에 실망과 원망을 안겨주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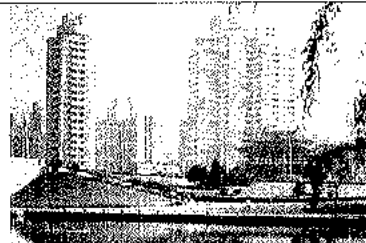
또한 순천 비날론공장이나 삼원 시멘트공장 등 생산공장들도 많은 자재와 자금을 들여 건설하다가 중단되었거나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것은 생산공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지시의 결과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탑, 당 창건기념탑, 전



공사중인 유경호텔



당창건 50주년 기념탑



창광거리 고층 아파트

승기념탑을 비롯한 수많은 탑들과 지방의 읍 소재지마다 건설해 놓은 추대탑 역시 대외 선전용으로 건설했을 뿐 인민을 위한 시설은 아니다.

주체사상탑과 평양개선문은 김일성 70회 생일 때에 전국에서 추천되어온 3만8천명의 당원들이 2년 동안 인해전술로 건설했다. 주체사상탑은 전체 높이 170m 인데, 그 중 기초단 높이 20m, 탑신 및 봉화높이가 150m 이다. 김일성 70회 생일에 즈음하여 건설했다하여 탑신에 쓰인 돌 개수는 25550개이다. 이 돌의 숫자는 70(회) × 365(일)로 계산된 숫자이다. 기가 막힌 계산이다.

현재 평양시 중심축은 인민대학습당 전면의 주석단(일명 김일성 광장)과 주체사상탑을 연결한 선인데 사회주의 도시 평양의 상징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축선이 되고 있다.

평양개선문은 높이 60m, 너비 52.5m, 길이 36.2m이다. 아치높이는 27m 너비는 18m인데 주체사상탑이나 평양개선문은 동양에서 제일 높은 탑과 문이라 한다. 건설과정에 수 차례 김정일이 시찰하였고 그의 취향에 맞추어 여러 곳을 고쳐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평양의 창광거리는 한국전쟁 직후 러시아에서 설계하여 건설된 거리이다. 2~3층 건물로 한 구획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 건설하였다. “통이 큰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인민들에게 더 좋은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한 개 거리를 통째로 허물어 버리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화주택을 건설하여 인민들한테 주었습니다.”라고 요란하게 선전했으나 이곳에는 일반 시민이 단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있다. 거리입구에는 무장보초까지 세우고 그 안에는 중앙당 가족들만이 살면서 온갖 선물과 상품을 공급받는다. 설사 시민에게 살 권리를 준다고 해도 월 사용료가 비싸 한 달 월급전액으로도 부족하다. 중앙당 가족들에게만 70%이상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 등 온갖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시키는 발원지로 되고 있다.

새로운 거리에 고급주택을 건설하면 간부들 순위로 입주하고 그들이 쓰던 집을(일명 ‘뒷구루’라고 함) 간부 급수별 순서에 따라 차례로 공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 일이다.

북한에서 있었던 토목건설의 몇 가지 사례로 북한의 건설현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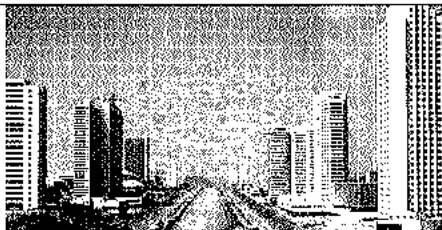
하나는 1989년에 완성된 광복거리이다. 이 거리는 평양 시내에서 김일성의 생가까지 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건설과 주택구획으로 인하여 만경대구역 철골농장이 완전히 없어졌다. 광복거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용으로 건설하였는데 도로 폭이 100m이다. 세계에서 제일 넓은 도로로 건설하라는 지시에 따라 자동차의 통행량과는 전혀 무관하게 건설되었다. 현재 북한에는 제일 혼잡한 도로라 해도 왕복 4차선이면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거리는 24차선이다.

또한 평양시 삼석구역에서 강동으로 나가는 고속도로는 전체 17km이다. 여기에는 김일성 별장이 있다. 현재 이 도로에는 철조망까지 치고 경비원이 있어 강아지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한다. 김정일은 특급 도로에는 터널이 있어야 된다는 허허벌판에 건설하는 도로에 인공터널까지 만들어놓고 가로등까지 전부 외국산을 사용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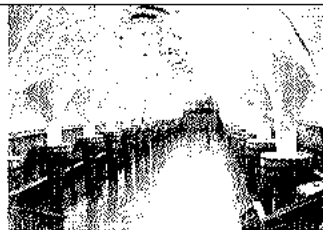
이외에도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과 일년 동안 거의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수많은 호텔 등 허다한 건설물들이 대외선전용으로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투자된 건설 자재비와 운영비는 모두 김부자의 전용인 ‘주석펀드’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군사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

북한에서는 공병총국을 사회안전성에 따로 분류시키고 정무원에 직속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산하



광복거리



평양 지하철역



신축아파트 시찰중인 김일성과 김정일

에 여단과 연대를 10여 개 이상 배속시켜 김부자용 지하터널 및 각종 터널과 군사용 도로건설에 동원시키고 있다.

또한 인민무력부 산하에는 공병국과 건설국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각종 지하구조물과 군사시설을 건설하는데 이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 군단, 사단, 여단에서 역량을 보충 받아 건설을 진행한다. 이러한 인력으로 금강산발전소와 군용도로, 고속도로 등 대형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성강(자강도 성강군)제강소와 덕천 자동차공장, 강계시의 9월방적공장 등 지하공장 건설도 전사용 물자공급지기로 쓰이게 된다. 또한 유사시에 고지에 포를 올려다 놓고 싸운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고지들에 터널을 뚫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인들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지하 150m아래에 건설된 평양지하철을 비롯하여 유사시에 적의 폭탄과 포격으로부터 각종 김부자 우상화 작품을 보존하기 위한 방공호 공사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들의 소속은 사회안전성 13국(민간방위)이며 노동자들은 일반사회 노동자들로 되어있다. 완공된 방공호에는 정상적인 관리와 경비를 세워놓고 있다.

기타 일반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땅굴공사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으며 이 공사에 동원되었던 군인들은 제대 후에 귀가시키지 않고 본부에 노동자로 배치하여 철저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한다.

특권층들을 위하고 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건설

평양시 창광거리나 안상택거리에는 일반인은 살지 못한다. 150~200㎡ 이상의 초호화 주택단지에도 일반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최근 김정일은 군사령관으로 위세도 세우고 부하들의 사기를 높혀주기 위해 인민군 사단장급 이상 장교들에게는 개인용 별장까지 지어 주었다고 한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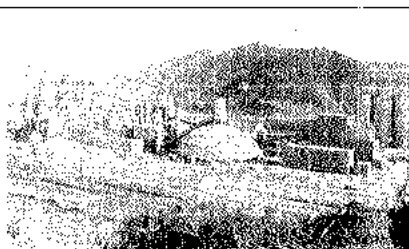
지방의 최고 관리로 배치 받으면 첫번째로 자신의 독립가옥을 요란하게 짓고 높은 울타리와 사냥개까지 기른다고 한다. 이들은 이 호화주택에서 금지된 전열기를 비롯하여 법에 저촉되는 많은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다. 안전부나 보위부 기관들은 울타리부터 높고 위엄 있게 하여 주민들이 그 앞을 지날 때에는 저절로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경지대의 경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마을마다 이동초소를 설치하고 500m 간격의 국경 경비 초소도 150m로 축소하고 지휘부도 요란한 장식을 갖추게 하여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일반건설용 자재와 자금은 항상 동결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건설대상은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있다.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

인민경제안전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건설계획이 작성되고 단계별 인민경제계획에 반영되고 있지만 김부자의 지시에 의하여 대부분 수정 보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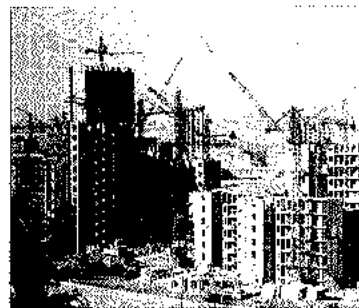
1962년 4기 15차 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한 손에는 총, 다른 한 손에는 망치와 낫을 들고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 나가자”라는 정신에 따라 경제건설에서도 많은 공장들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생산 위주가 아니라 김부자의 선심이나 편견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건설된 공장은 가동률이 극히 저조하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세계발전추세에 훨씬 떨어진 공장설비를 인수해 오는 대가로 유엔에서 지지표를 얻기로 되어 수입한 공장들은 본전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동강 텔레비전 공장, 밀가루 가공공장, 옥쌀공장(옥수수기루로 쌀을 만드는 정미공장), 상원 시멘트공장 등 수많은 공장에 건설자재와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온전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대동강 텔레비전 공장은 남한에서 자재를 들여와 주문자 상표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상원시멘트련합기업소



유경호텔 공사중인 노동자 (들거대)



평양 주택 건설 모습

또한 건설에 필요한 노력은 전문기술자나 기능공은 극히 적고 '돌격대'라는 명목으로 일반 기업소 공장에서 보충된 노력으로 건설하다보니 초보적인 시공규정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인민군, 대학생들까지 돌격대원으로 쓰고 있어 조국보위나 기사양성의 질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

또한 도시경영용 필요자재가 일반상점에서 전혀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이나 공공건설용 보수자재는 기본 건설용 자재를 사취하여 쓰다보니 자재부족으로 기본건설의 질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

군이나 리, 읍, 노동자구에 건설되는 거주용 주택자재는 석탄재에 시멘트를 섞어 만든 슬라그 블럭이나 진흙으로 만든 토피가 기본 축조용 자재로 쓰인다. 또한 지방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강도가 매우 낮아 이것으로 외벽미장을 하면 빗물에 씻기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온돌 바닥에도 쓰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리는 거의 보급되지 않아 평양 시내 아파트 유리창은 외겹창을 쓰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유리 대신 비닐을 사용하고 있다. 상수도용 관으로는 강관을 사용함으로써 부식으로 그 수명이 단축되어 수도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지방에는 하수체계가 없는 것들도 많으며 화장실도 재래식 '공동변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에는 화장실이 겸비되었으나 수압이 약해 물이 나오지 않아 사용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평양시에는 2개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수로 주택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석탄이 모자라 화력발전소에서 냉수를 그대로 공급할 때가 대부분이다. 자체 보일러 역시 마천가지이며 일체 기름보일러는 없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건설현황은 너무나 열악하다. 그러나 남한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은 우수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든 토지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건설계획을 세우더라도 지장을 받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주택지구나 도로 철도를 건설할 수 있다. 즉 토지보상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하겠다.

두 번째, 건설자재 원천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철광석,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유리생산용 모래 등 풍부한 산림자원을 잘 개발하면 필요한 건설자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성이 풍부

하다.

세 번째, 질 좋은 건설인력이 풍부한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거의 누구나 건설공사에 참여해 보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수많은 건설 노동인력을 쉽게 보충할 수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이악성(끝까지 일을 마칠 것이라는 끈기)과 강한 노동력은 참으로 풍부하고 놀라운 정도이다.

맺음말

남한의 사장되어 있는 건설기계 설비와 선진과학기술에 북한의 풍부한 건설자재 원료, 강하며 싼 노동력을 병합하면 조국통일 후 북한의 낙후된 경제발전과 국민생활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남북한이 서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 민족의 강한 정신과 의지로 능히 세계의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금강산에서의 건설경험 An Experience at the Kumkang Construction Site

김나영 / (주)현대아산 기술관리부
by Kim Na-Young

머리말

금강산 관광사업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1989년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과의 접촉을 시작한 지 10년만인 지난 1998년 6월, 소떼를 몰고 고향 길에 오르면서 구체화된 사업이다. 1998년 6월 22일 정주영 명예회장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용순 위원장 간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한 후 여러 차례의 실무면담을 거쳐 1998년 10월 13일에 자재를 실은 바지선과 인원수송선이 각각 울산항과 속초항을 출발했다. 현대인원의 장전항 도착과 함께 분단 50년사를 깨고 끔찍한 적막 속에 불이 밝혀졌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한 첫발을 뚫음으로써 현대인들의 생활단지가 들어서고, 관광선 접안을 위한 부두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하나씩 완공된 모습을 드러내게 될 서막이 열린 것이다.

금강산은 단순한 관광지로의 금강산이 아니라 50여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북녘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시작의 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금강산을 다녀온 일반인 관광객 수가 20만명에 이르렀고 금강산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그동안 현대가 이루어 놓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설물 공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현대측 인원 투입 초기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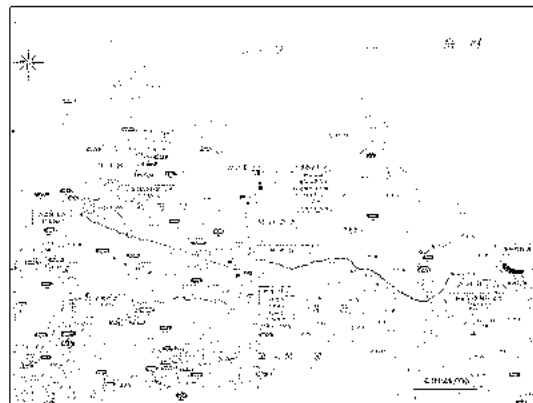
우리가 장전항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가지 못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해 왔던 북녘 땅에 들어 왔다는 생각에 내내 긴장을 풀지 못하였다. 장전항을 지나 북녘 땅 고성군 온정리 마을에 접어들고 나서는 북측의 어린이가 보내온 손인사에 긴장은 사라지고, 북녘땅을 밟을 수 있

다는 흥분에 뛰는 가슴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우리가 안내원을 동승하고 차로만 다니도록 허가 받은 길에는 나이 어린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양 옆으로는 철조망은 쳐져 있었지만 철조망 너머 북측 주민이 다니는 길이 주민들과 함께 한눈에 들어 왔다. 시멘트색 블록조의 조그만 집들이 이 삼십 채씩 모여 있는 풍경은 먼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를 보는 것 같았고, 옆 길에 자전거를 탄 행인과 보따리를 이고 가는 여인의 모습은 과거의 남측 시골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가 이동하는 장전항에서 온정리까지의 이길은 현대와 협력하여 일하기로 한 금강총회사라는 북측 건설회사가 새로 닦은 길이다. 철조망도 관광사업 때문에 북측에서 새로 설치한 것이다.

금강산의 자연이 남측의 산들처럼 인파에 찌들지 않음이 당연함에도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움은 신기하기 그지없었다. 소나무가 빼곡이 들어차 짙 짙 하늘을 향해 뻗어 자라고 바위틈새로 흐르는 작은 물줄기와 담을 만들어낸 진초록의 큰 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현대인원이 금강산에 처음 투입되었을 때 현대와 협력해야 할 북측의 금강총회사는 장전항에서 온정리까지의 관광도로와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거의 완공해 놓았다. 북측은 현대와 합의한 대로 현대가 투입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현대와의 약속을 지켜 주었던 것이다. 북측에는 지역별로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금강산 지역을 담당하는 건설회사가 금강총회사이다. 정확하게 북측의 기계화, 공업화 실태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한 바로는 거의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은 우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업을 수많은 인원을 동원한 밤샘작업으로 그것도 거의 맨손으로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



금강산 관광지도

산에 도착한 공사인원들은 천막을 치고 생활해야 했다. 콘테이너 가설 생활단지가 건설되기 전까지 식당도 없고 금강 내기 바람까지 휘몰아 칠 때, 식판엔 김치반찬 하나와 모래 섞인 밥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최고의 밥상으로 여기며 불평 한 마디 없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북측 땅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되는 건설 사업에 참여한다는 현대와 현대의 협력업체 개개인들이 지닌 가슴 벅찬 자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대인원이 장전에 도착하고 이들이 지나 드디어 공사자재와 장비, 운영 차량을 실은 바지선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였다. 비록 육로로 판문점을 지나 도착하는 못하였지만 분단 50년 동안 그어져 있던 붉은 선을 넘어 온 이 순간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당시에 현대인원들은 이 순간의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함성을 지르고야 말았다.

첫 관광일을 맞추기 위하여

금강산 지역 공사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해진 일정에 공기를 맞추는 일이었다. 1998년 9월 25일에 관광을 시작하겠다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발표가 있었지만 북측과의 협상과정으로 인해 정작 현대측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재, 인원이 북측을 향해 첫 출발한 10월 13일 이후부터였다. 관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광선 계류를 위한 부두, 출입국사무소, 관광로 보수 및 등산로 화장실, 건설인원용 숙소단지 시설은 필수적이었다. 또한 휴게소(지금의 온정각), 공연장(지금의 문화회관), 상점, 진료소 등의 시설을 단 하루라도 빨리 갖춰야만 했다. 이러한 긴박함에도 북측 현지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재는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못 하나까지도 현지 조달할 수 없어 모든 자재를 남측에서 준비하여 가져 가야만 했던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원, 자재를 확급하게 송출시키기 위하여 현대의 대북 사업 관련자들은 밤샘하는 일이 일과이다시피 하였고, 정부기관인 통일부 각 담당자들 또한 이에 맞춰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통일부 관계자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은 그지 없다.

북측 땅을 밟기 위한 필수적 건물인 출입국사무소 공사는 1998년 10월 22일까지 북측의 금강총회사가 부지정리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현대가 곧바로 이어 받아 10월 26일에 기초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었다. 관광선 시험운항이 11월 14일에야 이루어졌고 첫 관광일은 11월 18일에 시작되었으나, 처음 계획은 11월 7일 첫 관광을 시작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11월 7일 이전까지 완공해야 했다. 이 건물은 최대한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철골구조에 샌드위치 패널을 붙이는 건식 공법으로 설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공기가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해내야 된다는 굳은 의지와 계속되는 철야작업을 거쳐 11월 6일, 20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힘들게 공사를 끝마치게 되었다. 관광객들의 통행검사를 위한 검색대, X-RAY검사기까지 설치한 262평의 건물이 완성되어 관광객들이 북측 땅을 밟는데 손색이 없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임시로라도 관광선을 접안해야 되는 부두공사, 관광로 정비 공사, 관광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화장실, 현대 인원이 숙식할 숙소단지 등과 이 기간 내에 땀방울로 얼룩진 시설물들의 모든 열거는 이만 생략하고자 한다.

드디어 시험운항을 위하여 관광선이 금강산에 도착한 11월 15일에는 관광선을 타고 온 현대측 인원과 부두에 마중 나온 공사현장의 현대직원들 모두가 벅찬 감격을 억누르지 못해 끝내는 울음을 터트리고야 말았다. 마침내 적막 속에 켜진 장전항의 불빛과 함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금강산 관광은 시작 된 것이다.



온정각 전경



가까이서 본 온정각

금강산 지역의 특수성

1) 통행

금강산 지역에서의 공사추진시 어려웠던 문제 중의 하나가 자유 통행이었다. 체제를 달리한 북측의 입장으로는 당연한 절차였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북측 안내원과 동행해야 이동이 가능했고, 초소가 나타날 때마다 북측안내원이 차에서 내려 북측 군인에게 보고를 하고 나서야 지나갈 수가 있었다. 때로는 북측안내원들의 협조가 막혀 출근도 못하고 꼼짝없이 숙소에서 종일을 지냈던 날들이 여러 날이었다.(숙소는 장전리에 위치해 있고 사무실은 온정리에 위치해 있어 숙소에서 사무실까지 5.5km의 거리를 가려면 2곳의 초소를 지나야 함) 지금도 안내원 없이는 한 발짝도 났을 수 없는 딱한 사정이 능률과 속도를 필요로 하는 현대 공사 관련자들에게는 크나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2) 통신

현재 금강산에는 남측과 제한적으로 직통 전화가 개설되어 있으나 전력 사정 때문에 통화 도중에도 전화가 끊기고 며칠씩 통신이 두절되는 일이 다반사이다. 각재, 못 하나도 현지조달이 안되다 보니 소소한 자재들까지도 국내에서 준비하여 수송해야 하는 실정이고, 급박하게 추진해야 하는 공사 성격으로는 이것 또한 크나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3) 인원 및 자재 수송

공사를 위한 인원수송은 현재 관광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관광선이 출항하기 이전에는 오션플라워호라는 비정기 여객선으로 인원을 송출했다. 금강산 지역이 북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원송출에도 방북교육 및 통일부 승인과 북측의 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배를 타고 금강산으로 향할 수 있다. 관광객이 아닌 사업자 신분으로 방북

시 절차는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자재수송은 지금까지도 모든 자재를 수출 포장하여 바지선으로 울산 부두에서 해상으로 운송시키고 있다. 자재반출입 신고를 비롯하여 선적, 하역, 통관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울산항에서 장전항의 현대측 야적장으로 이동되고, 현지에서의 이동은 사전에 북측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 공사지역으로 자재를 이동시킨다.

4) 사전조사

금강산 지역의 공사 여건에 대해 1)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에서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금강산 지역에 공사협의를 위하여 수차례 사전 방문은 하였으나 기후자료, 측량, 지반 상태 등을 우리측이 원하는 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 초기 설계시에는 금강산 방문시 눈여겨 보아 둔 바를 기초로 설계를 할 수 밖에 없어 실제 공사시에는 건물 배치 등이 맞지 않아 애로를 겪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금강산 지역에는 때로 초속 40m 이상의 금강내기라는 바람이 불어 야적장에 2층으로 쌓아놓은 컨테이너가 넘어가면서 주변 자재를 파손시키기도 했고, 현대에서 어렵게 건설한 주유소의 천장재(AL. SPANDRAL)를 순식간에 날려버리기도 했는데, 이 또한 금강산의 특수 상황에 대한 현지의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5) 북측과의 하도급 시행

인건비 절감과 남·북 공동건설의 취지로 북측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북측은 남측의 근로자와 섞여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은 반대를 하였고 공사별로 때어서 일식으로 시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의 시공능력을 알 수 없어 비교적 일반적인 공법, 현장에서 조립함에 있어 어려움이 적은 건물을 택하여 인건비 부분만을 하도급



온정각 내부



온정장 전경



온정장 부분 상세

계약하여 시행하였다.

당시 북측인원들의 공사현장에는 우리의 접근이 거의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원된 인원이나 전공정의 시공 과정을 완전히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당시 기술지도를 했던 직원의 말을 빌리면 "한 번 알려 주면 그 자리에서 모른다고 절대 안 했다. 처음 보는 공법을 한 번에 알아들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추측하기로는 한번 듣고 나서 그들끼리 모여서 공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책임지만 다시 찾아와 상세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번씩 하곤 했다. 답을 해주기는 하였지만 다시 한 번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었다. 다음날 걱정스런 마음에 현장에 가보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진척이 되어 있었다. 야간작업을 했는지 안했는지의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많이 놀랐다. 역시 우리는 한민족이고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좋은 민족임을 느꼈다."고 경험담을 얘기해 주었다.

금강산 지역 주요 편의시설

금강산 지역에서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는 습식 공사를 되도록 배제하고 건식 공사 위주로 공법을 채택했으며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더불어 빼어난 절경의 금강산을 해치지 않는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편의시설에는 문화회관(741평), 온정각(800평), 온천장(1,932평), 등산로 편의시설(목도, 위생실,매점) 등이 있고, 그 외에 숙소단지(1,600평), 현대사무실(127평), 진료소(99평), 차량정비공장(146평), 주유소(151평) 등의 부대시설이 있다.

1) 문화회관

이 건물은 교예(서커스) 공연을 하는 장소로서 지붕은 돔형식으로 스페이스프레임과 특수막을 이용

하여 자연스러운 외관을 갖추었다. 이 건물은 공기가 약 3개월이 걸렸는데, 마지막 공정인 공연을 위한 시설물 설치 공사부분에서 공연 관련자가 현지 면담에 응하지 않아 마무리 작업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수차례의 현대측 요구 끝에 면담에 응한 북측 공연 관련자는 그들의 생각에 이 건물을 우리가 말했던 공기 안에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평양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며 공사진척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문화회관의 주요 시설은 북측 교예 전문가들과의 현지면담을 통하여 공연 관련 특수 설치물과 음향, 조명 설비를 갖추었다. 현재는 매일 1회의 공연이 진행되어 관광객에게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회관은 관광객마다 사진의 한 컷으로 담아 가는 명물이 되었고 차후에는 이곳에서 남북 예술인의 합동공연으로 남북 문화 교류의 장이 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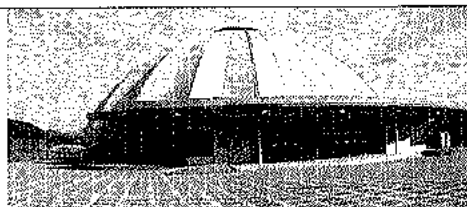
2) 온정각

이 건물은 관광객을 위한 휴게소 건물로 식당, 토산품 매점, 휴게실, 기타 부속실로 구성되었고, 1층 건물로 철골조+샌드위치패널에 외부에는 적산목으로 취부하고 지붕에는 금속기와의를 얹어 금강산이라는 자연 환경과 어울리도록 계획하는 동시에 조망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구조는 철골조지만 철골조라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미송목재로 마감을 하였는데 건물이 처음 완공되었을 당시 처음 들어와 본 북측 사람들은 이 건물이 철골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내부 인테리어 마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 같았다.

3) 온천장

온천장은 1999년 6월에 착공하여 당해 11월 19일부터 관광객이 이용하기 시작했다. 연면적 1,923평의 2층 건물은 소나무 숲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자선정 협의시부터 내부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방향과 모양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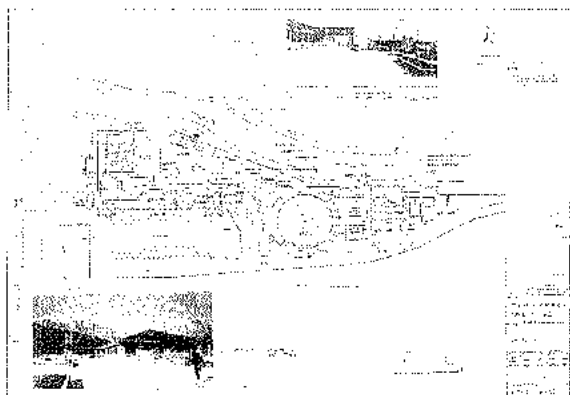
문화회관 전경



온정각 내부



온정각 목욕탕 모습



온정리 지구 시설 배치도

건물 외관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였다.

또한 풀 한 포기, 돌 한 덩이를 옮기더라도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북한에서의 조경공사는 쉽지 않았다. 조경수를 북한에서 공급받는 방식을 추진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외부에는 지금도 우리가 의도하는 조경수를 심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6개월 동안 깜깜한 온정리를 밤낮으로 밝히며 토공사, 건물공사, 주차장을 모두 완공하기까지 이 건물을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건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외장 석재 마감, 황토방, 여러 가지 테마탕들, 맥반석, 옥석, 게르마늄석 등을 사용한 온천장은 100% 온천수만을 사용하여 관광객들에게 피로회복과 건강을 위한 최상의 시설을 제공해 입장객으로부터 탕내에서의 조망, 시설, 온천수 등에 대하여 찬사를 받고 있다.

4) 현대사무실 및 진료소

온정각 옆으로는 금강산 사업을 위한 현대사무실이 있다. 편의시설 시공중 설치부분을 북측에 도급을 주어 북측 공사인원에 의해 진행한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건물이다. 북측 건설회사인 금강총회사로는 처음 접하는 공법(철골공사+샌드위치패널)이기 때문에 품질과 공기면에서 불안한 마음이 준공시까지 떠나지 않았으나 우리의 기술 협조를 받아 무사히 끝내고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다.

사무실 옆에는 녹색의 십자가 표시가 멀리서도 건물의 용도를 알게 해 주는 진료소가 위치하고 있다. 진료소는 관광객이 관광 중에 당하는 사고와 주재하는 현대 직원들의 진료가 목적이고, 우리와 협력관계에 있는 북측 안내원들도 처음에는 전혀 들리지 않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가끔씩 둘러 협조를 받기도 한다.

진료소 또한 금강총회사가 도급 받아 설치한 조립식 건물이고 8BED 규모의 진료소는 X-RAY시설 및 산행에서 발생한 응급처치를 위주로 간단한 소규모의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작은 병원이다.

5) 등산로 시설물 보완

등산로 시설물로는 편하게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목도와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난간이 있고 위생실(화장실), 매점이 있다. 등산로 편의시설들은 외국의 유명관광지는 물론 국내의 관광 명소를 대상으로 건축,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금강산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다.

6) 부두 시설

처음에는 관광선 접안을 위한 임시부두로 1999년 11월 18일 관광 시작일에 맞추어 완공되었으나, 현재는 2부두 4선좌의 규모로 안벽이 240M 이고, 방파제가 560M인 본부두가 완성되어 관광선 3척이 매일 접안을 하고 있다.

맺음말

현재, 금강산 사업을 위한 시설 공사를 시작한 지 어느덧 15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어떤 공사이든지 간에 쉽게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다. 금강산의 공사는 모든 것이 다 변수고 모든 것이 새로운 시도다. 우리 현대는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사업들을 계획해 나가고 있다. 이 계획들이 완공되기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의 발생이 예상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초석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관광객 편의 도모, 자연친화적 시설 추구 및 환경문제까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금강산 건설공사에서 쌓은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동 협력하여 세계건설 시장에 참여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금강산 사업은 결코 현대만의 염원 사업이 아니다. 전국민의 관심과 사랑, 기대와 신뢰를 모아 힘겹게 탄생한 금강산 관광사업이라는 옥동자를 잘 키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한의 건축과 도시, 통일을 위한 준비

The Architecture and City of North Korea :
In Preparation of Unification

일 시 / 2000년 4월 7일 14시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회의실

참석자 / 김병성((주)삼우설계 실장)

김봉건(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장)

김현수(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서우석(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선임연구원)

장인숙(전 평양도시계획설계사업소 설계원)

이왕기(목원대학교수, 편집디렉터)



좌담광경

북한건축 실상

이왕기 _____건축사지 기획연재 '지역건축탐방'의 마지막 탐방지역으로 '북한'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민족이 만들어 놓은 건축이지만 진정한 우리건축이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데올로기 전쟁이 종식되면서 다가오는 시대는 점차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의 대립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퇴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한반도에는 아직도 이데올로기 논쟁이 잔존해 있습니다. 지난 세기 이데올로기로 인해 일어났던 민족 분단이 해결되지 못한 채 새 천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가장 큰 희망이라면 무엇보다도 '통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이라고 하면 주로 정치, 경제, 사상과 관련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의 건축이나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해 오신 건축학계의 몇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북한의 건축실상', '우리 나라 건축·도시학 및 업계의 북한 연구현황', '북한의 개방 또는 통일에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북한건축에 대한 접근 방법'의 순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998년도에 북한을 방문하셨던 김봉건 실장님께 북한건축을 직접 보고오신 소감과 그쪽 건축의 실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건 _____저는 매우 운 좋게 98년도에 북한 건축을 두 번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가게 된 것은 북한의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경향신문사에서 '남북통합문화관'에서 남북한의 문화유산을 인터넷에 띄우는 사업의 일환으로 방북하게 되었습니다. 방북 목적이 정보화 사회의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리 계획된 상태에서 북한의 건축물을 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측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꼭 보여주려는 건축물 위주로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건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략 3가지 정도로 북한 건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강이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평양도 역시 대동강이 흐르고 있는데, 한강부근은 고수부지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두고 주변에는 아파트만 들어서 있어 한눈에도 매우 삭막한 그런 풍경이었습니다만 평양의 대동강 주변은 길게 강 양안이 전부 자연 녹지를 만들어 도시가 푸르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동강 북쪽 능라도에 5.1경기장이 눈에 띄었는데 제가 보기는 평양에서는 다른 어떤 건축물보다는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양은 상당히 오래된 고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 개발이 덜되어 대동강 양안의 녹지공간들이 잘 살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사회주의의 국시를 선전하기 위해서 각종 선전 조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대동강변에 있는 주체사상탑 같은 것은 약 170미터나 되는 거대한 구조물 위에 전망대를 올려놓았습니다. 설명이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전망대를 150미터 이상 높이 안전하게 올리는 새로운 공법을 고안한 것으로 동구권에서 저명한 기술상을 수상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대 언덕 위에 세운 김일성 동상이 라든지 도시 곳곳에 북한의 사회주의를 표현하는 랜드마크적인 각종조형물이 평양 도시 풍경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낀 인상은 전통양식을 도시의 거대한 건축물에 적용하여 도시적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도 1970년대 들어서면서 건축에 있어서 전통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등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평양에서도 역시 예외 없이 주체사상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인민대학습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류관이라든지 중구역에 있는 인민문화궁전과 같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광주박물관의 지붕, 난간 등 전통건축의 형태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도 재료는 현대식 재료인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지은 건물이 있듯이 평양에도 이런 유형의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조선식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주체사상을 건축으로 표현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일성광장 앞에 있는 인민대학습당은 복잡한 기능을 거대한 하나의 건물에 담으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전통적인 형태의 지붕을 현대식 재료로 처리하여 디자인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평양거리를 다니면서 주택의 몇 가지 타입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한 6층 내외의 아파트인데 상당히 낡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비해 공법도 떨어지고 외관도 많이 퇴락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1980년대 이후 대규모 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지은 고층아파트입니다. 특히 만경대구역의 광복거리는 도로폭이 100미터이고, 길 양쪽에 서구식 고층아파트를 건립을 했는데, 그 형태는 서울에서 보는 확실적인 판상형이 아니라 탑형, Y자형 등을 복합 배치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고층아파트를 상당히 자랑하는데 건물은 최근에 지었습니다만 제가 받은 느낌은 살아있는 거리라기 보다는 흰색의 단일층으로써 색조도 통일되어 있어서 어떤 획일화된 다양함, 활력,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왕기..... 이런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 북한의 건축 실상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평양에 살다 오신 장인숙 선생님께서 북한의 건축실상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장인숙..... 북한에서의 건축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는 교시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서울거리보다 평양 거리가 더 규모 있게 잘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총계획, 세부계획 등 철저히 맞추었기 때문에 구역 안에 모든 시설이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한 개 구역 안에

는 학교, 병원,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거리별로 건설했는데 1980년 이전의 건축물, 특히 1960년대 평양에서 7천 세대 분으로 2만세대를 지었습니다. 아파트 평면은 거의 단칸방입니다. 방이 하나니까 부재를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그때 지은 집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위생시설이나 수도물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불편하지요. 그 후 이런 아파트 사이에 고층건물을 세워 경관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지은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없어 나중에 형식적인 베란다는 붙이고 (밖에서 보면 베란다 같지만 실제 화분밖에 못 올려놓는다)

사이사이에 15층짜리 고층을 올렸지요. 버드나무 거리나 승리 거리에 이런 아파트가 많습디만 질은 아주 떨어집니다.

1970년대에는 평양에 수해가 많이 났습디다. 수해 복구를 하면서 천리마 거리에 집을 지었는데, 한 집에 한방짜리, 또는 두방짜리로 보통 평수가 9평, 11평, 13평, 15평정도입니다. 그것도 역시 질은 아주 열악합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평양은 나라의 얼굴이라고 해서 조금 나은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문수 거리에 그때 지은 집들은 2방세대, 3방세대로 하여 평수가 21평, 27~8평으로 커졌습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창광 거리를 개발했는데 창광 거리는 중앙당 직원만 사는 곳입니다. 창광 거리는 전쟁 직후 러시아식 설계 그대로 지어 구조도 엄청나고 집안에 페치카도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런 거리를 통채로 들어내고 다시 지었습니다. 그 후에 평양에 남아있던 마지막 조선식 거리인 안상택거리, 조총련 출신들이 사는 복새 거리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복거리와 통일 거리를 건설했습니다. 자재는 좋지 못해도 아파트 형식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에는 주체사상탑을 비롯해서 당창건 기념탑, 전승기념탑, 통일전승기념탑, 우의탑, 해방탑 등 굉장히 많은데 모두 김부자 위상과 위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이런 건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5.1경기장 같은 것은 세계수준입니다. 5.1경기장 뿐만 아니라 김일성경기장, 양강도 축구경기장 등 많은 경기장이 있지만 누가 씁니까? 이 모두 김부자 위상화를 위해 만든 것이지요. 평양은 나라의 수도이고 얼굴이기 때문에 평양에만 집중 건설하고 지방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서우석___두 분 선생님께서 북한의 외부적인 것, 계획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북한의 건축을 바라볼 때 우선 북한 주택정책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 지역별로 주거 격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즉 평양은 아파트 같은 영구주택이 많은데, 제가 파악한 바로도 평양의 경우 평양의 행정구역 면적이 서울의 3배 정도 되는데 대동강 주변으로 해서 광복거리까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옛날로 치면 하모니카 주택이라든지 땅집 등으로 가득차 있고, 또 북한의 공업지역같은 무산지역사진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도시지역 일부에 한해서 아파트가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다 허름한 주택이 많아서 지역별로 대도시 지역이나 평양을 제외하고는 주거수준이 너무 열악하고 입주자의 사회계층적

신분에 따라서 규모, 시설 등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동구권이나 중국은 북한만큼 사회계층적 차별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택 형태나 질적인 측면에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이 주거만족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거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선 통제사회다 보니 비교 대상도 없고 모두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거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북한에서는 거주동이 불가능하고 또 자재를 구입할만한 시장도 없다 보니 부정부패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통일 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도입되었을 때 북한지역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북한의 주택정책에 대한 특징은 중앙계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건설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구권국가들은 대부분 국영건설업체를 가지고 있고, 또 주택관리회사도 두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동구권 국가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와 국가가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소유권의 다양화가 일어납니다. 즉 소유지분을 개인과 국가가 반반씩 갖는 주택이라든가 조합주택 등이 나타나는데 북한에서는 국가가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들이 나오지 않고 국가통제로 주민들의 주거욕구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왕기___건축은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와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에도 북한 사회주의의 특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 도시계획의 특징은 무엇인지 김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___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북한도 역시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이념, 사회주의 중앙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계획경제체제가 작동하는 사회에서의 도시 형성, 토지이용의 원리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겠다고 판단에 의해서 입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종 압주자가 이곳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공사여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국가도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처럼 소비자의 선택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거의 이념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입지 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시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특정한 오피스나 상업시설들이 집중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심부의 상가, 오피스 같은 경우는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활동입니다. 북한의 경우 국가에 의해서 국가 공공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평양 중심부의 거대한 공공건물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토지시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부에 우리같이 오피스가 없고 대신에 거대한 기념비적 규모의 공공건물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거 입지에 있어서 우리는 서울 같은 경우 부도심이 발달하고 분화가 되고 있어서 거리에 따른 주택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북한은 토지 시장이나 소비자에 의한 주거선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경사가 평평하다는 것입니다. 도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평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도시간 격차해소, 도·농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평양시의 경우 행정구역이 2,200평방미터에 인구는 약 300만~350만명 정도입니다. 서울보다 면적은 4배, 인구는 1/3, 산술적으로 밀도가 1/24 정도입니다. 도시자체가 우리보다 굉장히 저밀도의 도농통합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한의 경우 어느 구역에 오피스가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고, 어디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혹은 어디는 유흥가가 형성되어 있어 어디가면 뭘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북한과 같이 소비자의 선택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는 토지이용의 분화, 토지이용의 집중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지요. 전반적으로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있고 밀도도 낮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2,200만 인구인데 평양을 제외하곤 100명이 넘는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도농통합, 격차해소 등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역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인구분산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기 —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의 모든 연

구도 그렇겠습니까만 사회주의 도시나 건축에 관한 연구도 접근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어느 분야든 연구실적이 풍부할 때 이를 바탕으로 그 곳으로의 접근이 쉬운 일이라 하겠지요. 솔직히 말해 그동안 건축이나 도시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학문내적인 문제보다 외적인 문제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김병성 — 주로 북한의 자료를 통해 북한건축을 접했는데 남한과 비교해 볼 때 북한 건축은 현대적인



건축이라기 보다는 근대적인 건축 같습니다. 남한에서는 재료의 다양한 배합으로 다양한 건축형식이 있는 것에 비해 북한의 건축은 철이나 유리로 된 건물은 거의 못 본 것 같아 재료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

회의 다양성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디자인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대청을 파괴하려는 디자인인데 비해 북한은 강한 대청성을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민대학습당이라든지 유경호텔, 평양산원, 묘향산의 향산호텔 같은 작품은 우리에게도 없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콘크리트라는 한정적인 재료로 만든 것이지만 디자인의 완성도 등은 북한이 비록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그렇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지닌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하 100미터에 건설한 지하철도 그렇고 철근콘크리트로 105층을 올렸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되고, 5.1경기장의 알미늄자봉 같은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건축의 전통양식 해석에 있어서는 어느 쪽의 우열을 떠나서 전통 건축양식을 차용해서 쓰는 우리하고 전통요소를 직설적으로 대입하는 북한이 다른 것 같습니다.

1992년부터 저희가 북한건축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난점이 자료를 얻는 것이었거든요. 통일원 등 몇몇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일부 얻을 수 있었습니다만,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건축관련 자료를 얻는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축·도시학계, 업계의 북한 연구현황

이왕기 _____ 남북이 북한의 건축이나 도시에 대한 실정, 그리고 연구의 어려운 실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올해로 남북이 분단된 지 55년이 되었는데 듣고 보니 너무나 크게 이질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문용어도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통일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독일의 전례에서 우리는 잘 목격하기도 했지요.

그럼 화제를 돌려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 건축·도시학계의 준비는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도 덜 민감한 부분이 건축문화재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이 분야가 건축교류의 물꼬를 터 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봉건 실장께서 건축문화재 분야의 교류 가능성과 준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건 _____ 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미 오래 전 통일을 대비해서 건축문화재를 포함해서 국가 문화재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어 8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료는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전보다 많은 자료들이 충실히 모아지는 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북한의 사찰건축」을 한 번 정리했습니다. 자료는 북한의 유물 유적도감자료를 위시해서 최근에는 북한에서 직접 찍은 슬라이드를 이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실정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앞으로 통일 후에 대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통문화재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되지 못한 북한의 기타 전통건축을 한 번 더 내면 아마 북한의 전통문화, 건축문화재는 일단 정리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북한과의 교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조사연구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교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때 타버린 금강산 장안사 건물의 복원이라든지, 또 최근 개성의 영통사 발굴이 완료돼서 복원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북한측이 좋다고 한다면 영통사 건물복원사업이라든지 나아가 공동조사, 공동세미나, 보고서 발간 등 북한이 개방해서 요청만 해 온다면 우리 쪽에서는 교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기 _____ 도시계획이나 국토개발 분야에서의 연구현황과 통일 준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현수 _____ 학교에서의 연구동향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준비해야 할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북한의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게 대개 90년 총리회담 이후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의 원로 중 북한에 고향을 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

들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중간이 잘린 왜곡된 국토구상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H자형이다, K자형이다 하는 그런 연구들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최근에는 보존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논의입니다. 그 이후에는 국토연구원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들어 통일 후 남북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동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모스크바, 바르샤바나 프랑크푸르트 등의 도시들에선 체제붕괴 때문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영상점들이 붕괴되면서 모든 것이 민간기업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국토가 사유화되고 토지가 사유화되면서 국영기업이 도산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공간구성원칙이 직장과 주거를 근접 배치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국영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이 단순한 생산 기업일 뿐만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서비스까지 공급하는, 냉난방, 연료는 물론이고 식량이고 의복이고 공산품까지 공급하는 서비스 공급의 주체인데 이것이 도산하고 나면 주거 체계가 와해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동구의 변화는 대단히 급진적인 변화에 해당되고, 중국의 경우는 토지개혁부터 시작하여 약 20년째 서서히 자본주의 경제시장을 받아들이면서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영화한 토지를 정부 스스로

가 국영기업, 사기업에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건데 북한이 서서히 연착륙을 시도하는 경우에 그와 비슷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영기업이 제공하던 기본서비스의 단절, 주택과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 '북한의 공간구조는 와해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시장이 없는 곳에 토지시장이 작동하면서 생긴 변화겠지요. 그래서 도시계획분야에서 준비하면 그런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통일 후에 어떻게 미래가 변화할 것이냐하는 것은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변화의 메커니즘이해하기'가 개인적인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성 — 건축분야에서 북한연구는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는 이왕기 교수님 외에는 없고, 건축사 사무소, 건축업계에서는 건교부의 특수자료를 접할 수 있는 곳이 국토개발연구원과 삼우설계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망명하신 김영성씨나 오늘 참석하신 장인숙씨와 같은 분들이 가끔 쓰는 원고, 이왕기 교수님과 김현수 교수님께서 가끔 발표하시는 원고,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우석 — 주택공사에서도 김일성과 남북정상회담 발표와 때를 같이하여 통일열기가 사회를 휩쓸 무렵 통일비용논쟁으로 설왕설래할 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북한이 당장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부에서 액션 프로그램을 짤 것을 요구했지만 최근 어렵다하더라도 북한체제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통일 후 북한의 주택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히 집을 몇 만호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구권의 사례, 독일의 사례, 중국의 사례, 그들의 주택정책에 대한 시행착오를 분석하면서 북한 상황에 맞는 주택정책을 연구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동독지역을 서독이 돈으로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서독 정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동구권의 경우는 체제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건축, 주택, 도시개발 등이 시장경제로 방치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지요.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

면서 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가 조금씩 개발에 투자하며 변화해 가는 그런 형태의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실업이 증대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도 당연이 올라가죠. 국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입니다. 독일도 2년, 동구권도 5년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 다. 그리고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나라도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체제를 변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해도 현 상황에서 북한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만한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북한이 시장경제를 이입하는 과정은 거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체제가 전환되면서 사회주의에 있던 사람들이 시장경제에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들은 돈이 생기게 되면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개념이 없고 대개 소비를 하게 됩니다. 통독과정에서 1:1로 화폐교환을 해주자 동독주민들의 돈이 일주일만에 다시 서독으로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독에 돈이 풀리니까 서독의 온갖 세일즈맨들이 이것저것 세일을 하는 바람에 그 돈이 전부 서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도시개발이 외곽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기존에 개발되었던 곳의 지가가 상승하고, 토지 및 주택의 사유화, 보상, 반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투자를 안하기 때문이죠. 동구권 도시 대부분 외곽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본이 있는 쪽부터 개발되기 마련인데 평양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개발과 환경보존의 논리가 상충,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통일 전이라도 미리 투자를 해서 자본의 거점을 만들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투기적 자본에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바탕을 깔아주고 인간의 투기적 자본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되는데 통일 후에 정부가 북한에 얼마나 많은 자본을 깔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독일과 같은 방식은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할 것이고 방치하자니 남북한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중국식의 점진적인 방식 그것 역시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그런 통일 후에 산업들이 경제논리보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식 선거를 하면서 공약으로 무리하게 주택사유화를 한다든가 임대료 상승을 동결하게 되면 주택시장이 마비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앞으로의 북한연구는 이런 정치경제적 문제와 국토개발이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개발 연구원같은 데서 블루프린트나 액션프로그램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개방 또는 통일에 대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왕기__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학계나 업계에서 그렇게 만족할 만큼 통일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배를린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의 중요 내용은

첫째,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회복 지원, 둘째,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셋째, 아산가족문제 해결, 넷째, 남북 당국간 대화추진이었습니다.

그동안 남북교류문제의 관련하여 정경분리 정책을 써왔는데 이것 또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전에는 당국간의 교류가 이데올로기로 인해 진전이 없자 민간교류를 통하여 어느 정도 관계개선을 한 다음 점차 정부차원의 교류로 전환하겠다는 의도였지요.

이제 민간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에서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 대통령은 한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 후에는 중등 특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북한특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건축업계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물론 이 문제는 상대의 변수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김병성__우리 사회에는 북한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



리 건축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건축가나 도시계획가, 그리고 관련 단체하고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합동작업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자료를 보면 옹어 자체가 다른 게 많은데 이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익숙한 우리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살아온 건축가들 사이에 건축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이를 좁히려는 서로 교류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디자인하고 건축하는지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청사진을 펼쳐는 그런 식의 전개는 안될 것 같거든요. 그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기존 건물들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리노베이션하고,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어야지 그들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국토개발 청사진을 강요한다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설계원이나 연변의 설계원, 연변대학을 통해 북한의 백두산건축설계원과 교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더니 북한의 경제시정이 좋지 않으니 남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협의 과정 중에 우리가 IMF를 맞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음악이나 다른 쪽에서는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계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시도조차 없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한국건축가협회나 건축학회, 건축사협회와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오늘과 같은 연구회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에서 북한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프로젝트 설계에 북한 건축가를 참여시키고, 공사에서도 북한의 시공회사와 합동작업을 한다면 상호 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이런 실험적인 프로그램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우석__최근 '북한특수' 바람이 있어서 통일부나 중소기업중앙회, 현대 등 아는 분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 특수를 가져올 만한 큰 구상이나 밑그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기업인들을 비롯

하여 다녀오신 분들 모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약속도 지키지 못할 말을 해서 북한으로부터 신뢰와 신임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가 해주공단 부지선정 문제로 북한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북한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자본의 거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요란스럽지 않게 착실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과 주택공사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주택사업을 하거나 건설사업을 하는 등 차근차근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봉건___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구체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방을 대비해서 대략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문화재가 가장 비정치적인 분야니까 인적 물적 교류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케도(KEDO)의 경수로 건설지역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해주공단, 지금 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금강산 지역 등을 남한에서는 대규모 개발을 하기 전에는 항상 지표조사를 먼저 하듯이 북한측하고 합의가 되면은 지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문제가 있고, 또 최근 고구려 벽화고분을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데 일본측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우리측에서 지정기탁금 형식으로 공동작업을 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북측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당장 실현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문화재 보존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일본사람들이 조사한 것과 우리들이 조사했던 최근 사진자료를 비교해 보면 한국전쟁 중에 훼손된 것이 최근 복원되면서 원형과는 상당히 변형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과거의 문화재 현황, 현재의 문화재 현황을 광범위하게 가능한 한 자료를 조사,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우리의 문화재 지정 근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잘못 훼손된 것들은 원형을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장

기적인 정책시나리오가 문화재분야 부분에선 특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문화재 연구소에서 북한문화재 연구위원회 같은 기관과 협력해서 장기적인 정책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왕기___김현수 교수님께서서는 북한 개방이나 통일 후에 대비한 국토개발, 도시 관련 연구과제가 있으십니까? 기관과 합작으로 진행하는 과제나 혹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___학회보고에서는 정치나 경제분야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서 「북한연구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서우석 박사님과 국제연구원 몇 분이 모여서 연구회를 만들어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최근 국토도시학회에서도 '북한국토도시연구위원회'라는 분과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실제로 나진, 선봉, 평양 등을 다녀오신 토지개발 연구처장으로 있던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국토도시학회서 다시 한 번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베트남 하노이를 다녀왔습니다. 도시계획학회와 하노이건축대학과 자매결연자 갔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사회주의 공화국이면서 중국하고 비슷한 체제전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답사 중 하노이 외곽에 대우가 진출을 해서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우 사정이 어려우니까 잘 못 보고 왔습니다만 굉장히 블루 프린트적 접근이었습니다. 소유권이라든가 임차권, 임대료 등 이런 것이 공무원조차도 인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시계획·건축연구라고 하면서 업계나 학계 모두 상당히 뜬구름 잡는 블루 프린트들이 많았습니다. 이전 이런 접근보다는 '북한 알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북한 이해하기' 작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후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결국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충돌입니다. 아무리 한쪽이 선도를 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요. 통일이라는 이벤트는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정치통합 또한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회문

학의 통합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의식이라는 것은 서서히 바뀌겠지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생활양식 그 다음에 그 생활양식을 담은 건축이나 도시계획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 연구하는 분들은 그 관심에 대한 이해와 함께 꾸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기___우리 업계는 그동안 해외건설, 국내건설에 치중해 오느라 사실 북한의 건축이나 건설에 관심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도로, 항만,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시설이 많이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북한과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남한이 이와 같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겠지요. 장인숙 선생님은 이를 대비하여 남한의 업계나 학계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인숙___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경제건설에는 제일 먼저 토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은 철도가 98%가 단선이거든요. 도로도 국도가 2차선이 가장 최신입니다. 국도가 1차선인 곳도 많습니다. 경제협력을 하려면 우선 철도와 항만, 그리고 도로부터 해야 하는데 북한에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만약 이런 경제협력을 시행하는 데 남한식으로 북한을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북한주민들 자신이 절대 접수하지 못합니다.

남한식으로 아파트를 사라고 하면 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커집니다. 지금도 주택은 공짜나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하면 무슨 돈으로 집을 사겠습니까? 지금 상태로 얼마 동안 지내면서 점차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높여줘서 입장이 집을 살 수 있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자는게 토목공사부터 선행시키고 건축을 하는데 물론 건설에 필요한 자재도 철근하고 시멘트 밖에는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사람들은 참 영리합니다. 5.1경기장 같은 것은 정말이지 좋은 건물입니다. “장여사가 정말로 구조설계 했습니까? 컴퓨터도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무시하는데 컴퓨터 없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참 영리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굶어죽고 빌어먹는다니까 사람들이 모자란 것처럼 생각하는데 북한에도 좋은 곳이 있고, 사람들도 영리하고, 강한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낙후되었다는 선입견을 가지면 북한에 가더라도 당장 쫓겨나오고 맙니다. 북한에도 각 국토마다 국토계획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남한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것을 바탕으로 보완하면서 진행해야지 여기서 아무리 계획을 잘 했다해도 그런 식으로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북한을 바로 알고 협동하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토목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 건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토계획, 총계획, 세부계획 그 다음에 경영단계까지 들어가면서 경영단계는 어떻게 경영하겠는가 어떻게 운영하겠는가를 다뤄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토지사유화, 아파트나 주택사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아직 먼 장래의 문제지 시장경제는 아무리해도 북한에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북한주민이라도 지금 집값을 내지 않는데 누가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북한 건축·도시에 대한 접근방법

이왕기___사실 그런 점이 참 어려운 점인데 우리 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먼저 북한을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였고, 사실 북한을 잘 알려면 정보를 입수를 해야하는데 그 정보입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북한에서도 정보를 잘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설령 그 자료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통제하고 있으니까 공개되지 않는 것이지요. 정보가 많아도 정확하게 분석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제한적으로 통제를 한다면 연구성고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건축·도시의 실상’, ‘우리 쪽에서의 북한연구 현황’, 그리고 개방과 통일에 대비한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의 건축, 도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좋은지 그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엉뚱하게도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중에 좋은 아이디어라면 정부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성___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어떻게 그 쪽에 갔다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접촉할 수 있는 루트를 대충 통일원하고 같이 모색을 해봤습니다. 북한과 교류

할 수 있는 방법은 에이전시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 에이전시가 우리와 북한을 연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하는 것이지요. 그 에이전시는 일단 북한에 많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중국인이거나 중국내 조선족 또는 관련 단체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의사타진을 하고 그 준비를 해주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그들이 베이징까지 나올 수 있는 항공료와 체제료 등을 우리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왕기 교류뿐만 아니라 북한의 건축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이고, 또 그 쪽의 어떤 일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접근이고, 또 교류를 위해서 접촉하는 것도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건 실장님은 실제로 북한을 다녀오셨으니까 그 곳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건설업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이 결국 건축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건 저희 건축문화재분야에서 볼 때 북한 접근에 대한 부담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시대편년을 제외하고는 고구려, 발해, 고려, 발해의 역사적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묘향산 보현사를 직접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절은 한국전쟁 때 거의 모든 건물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조선고적도보에 보현사 만세루가 분명히 조선 후기의 건물인데 복원한걸 보니까 고려 때 건물로 복원을 했더라고요. 문화재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측면에서도 확실히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포용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개방되기 전이라도 제3국에서 공동세미나라든지 국제학술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아마 경제사정이 어려운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한국사회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 시각차이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서우석 기존에도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새로운 방안을 찾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우선

여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협력할 때는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자라고 해서 약자를 무조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약자의 권익과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학계의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현대' 같은 업체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돈을 주고 그 일지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따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예전에 소형분양 주택의 무화 제도가 있듯이 기업들이 대북접촉을 할 때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북한과의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건축분야든, 문화분야든 관련 연구자를 끼워넣기 식으로라도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단체나 전문가들이 가서 접촉을 할 수 있는 '끼워넣기식 제도'라도 하나 만들어지면 어떨까 합니다.

현대 같은 업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만 통일이라는 민족적 차원에서라도 공적인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실은 자존심이 더 셉니다. 그래서 만약 교류한다고 할 때 먼저 북한에서 총계획, 세부계획, 국토계획한 것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진행해야지 그걸 무시한다면 절대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건축단체가 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은 국가건설위원장이 겸임하고 있지요.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교류를 하겠다면 북한에서 상대해 주겠는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접촉도 좋지만 이쪽에서도 북한과 똑같이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에서 나오는 자료는 모두 선전용이거나 실제로 행하지 않는 잘못된 자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늘과 같은 연구토론회를 하거나 책을 쓸 때 그쪽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참여해야 옳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왕기 교수님이 북한에 대한 책을 썼을 때 제가 몇 번 교정을 봐줬거든요. 그런식으로 하면 북한에서 거짓말하더라도 똑바로 고칠 수가 있지요. 김영성 선생이나 저나 북한 건축계에서 오랫동안 복무했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에 함께 참석한다면 북한 건축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지요. 건축문화에서도 서로 차이가 많은데 가령 남한에서 설계한 것으로 북한노동

자들에게 일을 시킬 때 서로 다른 언어도 있을 것이니까 우선 언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실지 북한주민들의 주거문제, 또 그 곳 실정에 맞는 디테일문제 등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5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 안에서 산 사람들이 어느날 여기 방식대로 한다면 먹혀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병성 북한에서 망명하신 분들의 지식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최고록을 쓴다든지 또는 관련 전문지식을 정리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두시간에 잠깐 들어보는 것보다도 사실 실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게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협회나 건축가협회, 건축학회 등에서 할 수 있을 거구요, 어떤 식으로라도 그런 정보를 파일 업 해놓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우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대에서 어떤 대북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연구단체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은 민족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건축가와 함께 자리를 같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축에 있어서도 이쪽의 방법론과 그쪽의 방법론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을텐데 통일 후에 사회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바로 그런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일도 정식으로 북한에 요청하여 같이 설계하고 같이 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왕기 장래 한반도의 국토계획, 그리고 유럽대륙과의 물류유통을 생각하면 북한과 필연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김현수 교수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90년부터 시작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다가 요즘 잠잠합니다. 그런 논의가 처음 시작 됐을 때에는 금방 어떤 큰 기회가 생길 것이라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지금 체제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착륙으로 가야 바람직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문제가 북한의 건축·도시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 그외 정부 관련부처 등과 연계되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기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은 들지만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가 단초가 되어 앞으로 이와 같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끼리라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가 북한 개방이나 통일을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연재목차

순번	지 역	계재월	순번	지 역	계재월
1	인천	9710	9	대전	9811
2	울산, 경주, 포항	9712	10	춘천, 강릉	9901, 9902
3	아산, 부여, 공주	9803	11	광주, 나주, 목포	9905
4	부산	9804	12	진주, 마산, 창원	9906
5	충주, 청주	9805	13	서울	9908, 9909
6	대구, 구미, 김천	9806, 9807	14	제주	9910, 9911
7	수원	9808	15	신도시	9912, 2000.02
8	전주, 익산, 군산	9809, 9810	16	북한	2000.03, 2000.04

협회소식 / 104

건축계소식 / 108

전시 / 116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0

회원현황 / 122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2000년도 3, 4회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000년도 이사회가 지난 2월 14일(제3회)과 3월 13일(제4회)에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회

〈부의안건〉

- 제1회의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 의결: 제34회 정기총회의 제4호의 안으로 상정키로 하고, 제안이유 및 업무 등에 대해서는 회장단에서 작성토록 위임함.

• 총회의제

- 제1회의안: 99년도 회계별 결산(안) 승인의 건
- 제2회의안: 2000년도 회계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3회의안: 2000년도 전국공통용 영화비 결정의 건
- 제4회의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 제5회의안: 임원개선

◇ 4회

〈부의안건〉

- 제1회의안: 2000년도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의결: 2000년도 위원회 조직의 통폐합·조정 및 위원선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제2회의안: 비상근 부회장 선임의 건
- 의결: 비상근 부회장으로 이건호이를사를 선임키로 함.

2000년도 본협회 신임임원



이건호(李建鎬): 비상근부회장
38년생
영남대 건축공학과 졸
(주)대도건축사사무소



서천식(徐千植): 이사
41년생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
건축사사무소 삼일·하나로 건축



김석철(金錫澈): 이사
43년생
서울대 건축학과 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웅



신문삼(申文燮): 이사
42년생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
(주)대명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영웅(金永雄): 이사
50년생
서울대 건축학과 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



이정근(李廷根): 이사
46년생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
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김인하(金仁河): 이사
47년생
고려대 건축공학과 졸
정우건축사사무소



이영기(李英基): 감사
42년생
영남대 건축공학과 졸
동아건축사사무소

“건축신고대상 범위” 현행대로 유지해야

이의구 회장, '건축법시행령개정안' '보수기준 폐지' 등 현안문제 관련해 건교부장관 편담
어려움에 처한 건축사업계 의견 정책반영 건의

우리협회 이의구 회장은 지난 4월 19일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과 긴급 면담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 중 '단독주택 신고범위확대' 개정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의구 회장은 IMF 이후 건축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건축사자격취득자 또한 매년 과다배출됨에 따라 건축설계업계 기반이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단독주택의 신고범위를 대폭 확대할 경우 대다수 지방 건축사사무소들의 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관련조항의 개정 철회를 요청했다.

이의구 회장은 단독주택의 신고범위 확대는 해당기관간 사전협의 및 현장조사 확인없이 신고필증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절차 간소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은 물론 공무원의 대민접촉 기회만 늘어나 오히려 부조리의 개인성이 커질 수 있다고 법제정의 문제점을 밝혔다. 또한 신고대상 확대는 공시감리가 없는 건축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무면허업자들의 불법을 부추겨 부실건축물을 양산할 것이라는 건축사업계의 반대 여론을 전했다.

또한 건축사과다배출과 보수기준 폐지에 따른 문제점 등 업계 현안 문제들에 있어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건축사의 질적 저하방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를 엄격하게 제한해 줄 것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축사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대가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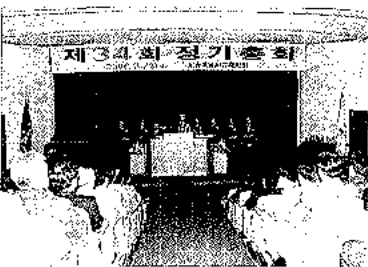
한편 김윤기 건교부장관은 건축사업계의 아같은 건의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도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2000년 사업계획과 예산 등 확정

우리 협회 각 시도건축사회의 2000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9일 광주건축사회를 시작으로 각 건축사회별로 열렸다.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이 주요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해 각 시도건축사회별 정기총회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건축사회



총회 광경

- 일시: 2000년 3월 24일(금) 14:00
- 장소: 본협회 대강당
- 참석인원: 2,925명 중 459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1999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전체규모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세입부분에서 감정운영회비 징수율을 10%로 조정하고, 본협회 임시총회 시 본협회 세입중 일부가 시도건축사회 지원금으로 조정될 경우 예산 증가분에 대한 세입·세출 항목 조정을 간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
 - 제3호의안: 대의원 개선 및 보선의 건
 - 70%는 구건축사회에서, 30%는 회장이 선출토록 승인
 - 제4호의안: 임원개선의 건
 - 감사: 최정일, 간사: 회장단에 위임

◆ 부산건축사회

- 일시: 2000년 3월 29일(수) 10:00
- 장소: 동래 허심정 2층 대연회장
- 참석인원: 700명 중 170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FY-1999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FY-2000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임원개선의 건
 - 간사6인: 집행부에 위임, 간사1인: 이영학
 - 제4호의안: 대의원 개선의 건
 - 집행부에 위임

◆ 대구건축사회

- 일시: 2000년 3월 30일(목) 14:00
- 장소: 대구파크호텔 1층 목련홀
- 참석인원: 545명 중 307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99회계년도 수지결산

(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연금규정 개정의 건

- 원안승인

· 제4호의안: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도무찬, 부회장, 간사 및 대의
원: 신임회장에 위임

신임회장



도무찬(都武燦)

47년생

영남대 건축공학과 졸
신도시건축사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일시: 2000년 2월 29일(화)
10:30

○장소: 광주건축사회관(5층회의실)

○참석인원: 251명 중 145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1999년도 수지결산
(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세출예산 중 회의비가 31,120,000
원→28,040,000원, 관리비는
34,683,800원→21,831,800원으로
감액, 예비비는 18,352,650원→
19,352,650원 증액하여 원안 일부
수정 승인

· 제3호의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승인

· 제4호의안: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간사: 김금진, 김주연, 김희현, 문출
성, 양동협/감사: 엄동학/대의원: 강
찬수, 김희현, 문성식, 송양석, 박임
전, 양관식

◆인천건축사회

○일시: 2000년 3월 15일(수)
10:00

○장소: 로얄호텔 2층(그랜드볼룸)

○참석인원: 80명중 67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1999년도 수지결산
(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2000년도 회비징수기
준 결정의 건

- 원안승인

· 제4호의안: 임원개선의 건

- 회장: 김영배, 감사: 윤희경, 간사(5
인): 신임회장에 위임

· 제5호의안: 대의원 개선의 건

- 대의원(6인): 신임회장에 위임

신임회장



김영배(金榮培)

43년생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
한승건축사사무소

◆대전건축사회

○일시: 2000년 3월 17일(금)
10:00

○장소: 신신예식원(2층)

○참석인원: 274명 중 118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1999년도 수지결산
(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임원개선의 건

- 간사: 송윤섭, 양재엽, 최재문(유임)
감사: 박현배(유임)

◆울산건축사회

○일시: 2000년 3월 30일(목) 14:00

○장소: 울산건축사회관(5층강당)

○참석인원: 153명 중 69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1999년도 예산결산
(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0년도 제1차 추가
경정예산편성(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대의원선출의 건

- 간사회의에서 위임 선출 후 통보키
로 결의

◆경기건축사회

○일시: 2000년 3월 10일(금) 10:00

○장소: 경기건축사회관(6층대회의
실)

○참석인원: 278명 중 154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1999년도 일반회계 수
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세입예산은 707,000,000원으로 원
안승인하고, 세출예산 중 사업비를
7,800,000원 증액하고, 기밀비는
7,800,000원 감액 항목내 조정

· 제3호의안: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간사: 김종권, 신형기, 정환철, 조성
원, 조은수, 하선호, 황의웅/감사: 김
태익/대의원: 이일윤외 23인

◆강원건축사회

○일시: 2000년 3월 23일(목) 14:00

○장소: 강원건축사회관(3층회의실)

○참석인원: 77명 중 39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1999년도 수지결산
(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세입, 세출 총액은 원안대로 승인하
되, 세출부분 사업비의 행사비 중 회
원친목단합대회비를 전년도와 동일

하게 존치키로 하여, 행사비 1,250,000원에서 4,000,000원이 증액된 5,250,000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4,000,000원 감액, 인건비에서 퇴직직원 2명에 대한 위로금 6개월분을 지급하되, 지급방법 등은 간사회의에 위임함.

· 제3호의안: 건축사회관 인수의 건
- 강원도건축사회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건축사회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는 것으로 하되, 잔존가액(264,401,265)을 기준으로 일액원을 지급하고, 일액원은 합병 후 동춘천신용협동조합의 전세금으로 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을 받아 지급키로 협의함.

· 제4호의안: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간사: 김영철, 김은태, 박병진, 박영봉, 이명섭, 이주환, 황환문/감사: 한광호(유임)/대의원: 김동식, 이병일, 이철규, 조정호, 홍영배

· 제5호의안: 대의원제도 폐지의 건
- 원안승인

◆충북건축사회

○일시: 2000년 3월 23일(목) 10:30

○장소: 명암파크호텔(2층)

○참석인원: 204명 중 71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1999년도 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1999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4호의안: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간사: 김원식, 변연수, 신동안/감사: 이재삼/대의원: 강계식, 김이구, 류익선, 박성인, 이원선, 이진희, 이종구, 표재범

◆충남건축사회

○일시: 2000년 3월 28일(화) 10:30

○장소: 홍성행복예식장

○참석인원: 182명 중 63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1999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0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임원 개선의 건

- 간사: 김동환, 김익범, 이광춘, 이문석, 전응구, 조형식(연임)/대의원: 권백순, 권윤근, 박정준, 백상기, 신우식, 육이창, 이견석, 이동교, 이천규, 장세춘

◆전북건축사회

○일시: 2000년 3월 16일(목) 10:30

○장소: 전남건축사회관(3층대회의실)

○참석인원: 210명 중 88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1999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임원 선출의 건

- 감사: 박일영, 김용기, 간사와 지역회장, 대의원은 회장에게 위임하여 선출하되, 자문위원과 지역회장 및 전·현임 감사와 협의하여 선출키로 함.

◆전남건축사회

○일시: 2000년 3월 21일(화) 11:00

○장소: 추선회관(5층회의실)

○참석인원: 116명 중 63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1999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임원개선의 건

- 간사: 국원식(유임), 차영식(유임)
감사: 김호신(유임)

· 제4호의안: 대의원 선출의 건

- 강인수(유임), 윤순하(유임), 이재필

◆경북건축사회

○일시: 2000년 3월 14일(화) 11:00

○장소: 경주현대호텔(컨벤션 A홀)

○참석인원: 262명 중 197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1999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0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임원개선의 건

- 부회장: 임병욱/간사: 고희림, 권정우, 도정기, 임송용, 장학선/간사: 김성태, 대의원: 김영길외 12인

◆경남건축사회

○일시: 2000년 3월 16일(금) 10:30

○장소: 창원호텔(3층목련홀)

○참석인원: 327명 중 190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1999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0년도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간사: 김만준, 박상윤, 윤상호/감사: 안경호 대의원: 손수일외 11인

◆제주건축사회

○일시: 2000년 3월 23일(목) 15:00

○장소: 하늬크라운호텔(2층)

○참석인원: 81명 중 50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1999년도 수지결산 (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규정(안) 제정의 건
- 간사회에 위임
- 제4호의안: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간사: 이동춘(중임), 임성추/감사: 김영식 대의원: 강행생, 김한진, 이세환, 조길웅

건축계소식 archi-net

대학 건축학과 교육기간 5년이상으로

2001년부터

교육부는 지난 4월 9일 '내년부터 건축학과 교육과정이 5년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등을 포함한 2001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건축가 교육기간은 최소 5년이어야 한다는 국제건축사연맹(UIA)의 권고에 따라 학부 5년제 건축대학과 2~3년제 건축전문대학원 등 대학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한건축학회는 학부 5년제(설계교육중심), 학부 4년제(기존의 종합건축교육) + 대학원 2년제(설계교육중심), 학부 4년제(건축학이 아닌 일반 학부) + 대학원 3년제(설계교육 중심) 등 3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서대, 2000봄학기 공개세미나

6월 13일까지

호서대학교 건축학부는 인문관 103호에서 2000 봄학기 공개세미나를 개최

한다. 지난 3월 28일 김승희(경영위치 건축사무소 소장)의 "그물을 뚫고 날아가는 화살"을 시작으로, 4월 25일 김종훈(한미건설 대표)의 "CM사례의 고찰-KLCC,삼암동월드컵주경기장", 5월 23일 김순환(범건축 부소장)의 "ASEM무역센터의 구조", 6월 13일 하학수(정주건축 소장)의 "교회건축의 이론과 작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세미나는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된다. 문의: 0418-540-5490

영남대, 건축공개강좌 및 전시회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는 매년 외부초청특강과 학과 교수특강의 건축공개강좌와 더불어 두 번에 걸쳐 영남대 건축작품전과 4학년 졸업작품전을 개최한다.

▶ 초청특강

- 4월 28일(금)오후4시
고주석(오이코스건축)/생태건축과 한국미학
- 5월 8일(월) 오후 3시
만선주(위가건축)/건축영역의 확장
- 5월 9일(화)오전 10시
승효상(이로재건축)/Urban Void
- 9월 25일(월)오후3시
곽재환(맥건축)/삶속의 5가지 집
- 9월 27일(수)오후3시
이종호(메타건축)/장소
- 10월 27일(금)오후3시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성리학과 서원건축

▶ 교수특강 및 전시

건축사시험

▷예비시험: 5월 14일

- 시험장소: 4월 27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 공고
- 합격예정자발표: 5월 26일

▷ 자격시험: 9월 3일

▷ 기타: <http://www.kira.or.kr>

- 4월 7일(금) 석호태교수
건축에서의 환경문제
- 5월 8일(일)~13일(토)
건축작품전시회
영남대학교 박물관 아트스페이스
- 5월 26일(금)김철규교수
테크놀러지의 건축적 속성
- 6월 2일(금)권종욱교수
안도다다오의 지역적 건축
- 9월 15일(금)박종석교수
건축의 새로운 흐름
- 9월 25일(월)~30일(토)
졸업작품 및 논문전시회
영남대학교 박물관 아트스페이스
- 10월 6일(금)구본덕교수
학생설계작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 11월 24일(금)박성무교수
Hybrid구조시스템의 발전과 전망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특강

공대 1409호에서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매 학기 전공분야는 물론 사회, 예술, 문화, 환경 등 관련분야의 새로운 개념이나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설계 교육의 보다 현실적이며,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계의 유명인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오후 6시 공대 1409호실에서 열린다. 2000학년도 1학기 특강일정은 다음과 같다.

- 4월 4일(화) 유원재(다건축)/건축가의 수평적 사고
- 4월 11일(화) 김억중(한남대교수)/르코르뷔제 건축 형태 구성의 논리
- 4월 18일(화) 정지영(영화감독)/영화

를 읽는 방법

- 4월 25일(화) 이일훈(후리건축)/건축가 이일훈의 작업세계
- 5월 2일(화) 이완규(안동공고교장)/병산서원의 건축과 풍수
- 5월 9일(화) 정구호(디자인구호)/디자인 Resource
- 5월 23일(화) 김도경(경희대교수)/건축과 조경의 발전적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 5월 30일(화) 송민아(큐레이터)/경험과 표현
- 6월 2일(금) 임권택(영화감독)/영화 이야기
- 6월 13일(화) 박인철(조각가)/폐허의 미학

제18회 서울시건축상

금상에 '종로타워' (박승, 김창수)

올해 서울시건축상이 발표됐다. 서울시에서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 이 상은 준공건축물 부문과 야간경관조명부문에 나누어 시상된다. 올 해 준공건축물 부문에는 42점, 야간경관조명 부문에는 12점이 응모한 결과, 준공건축물 부문 금상은 '종로타워(설계:삼우설계)'가 선정됐고, 야간경관조명 부문 금상은 '서울역사(설계:알토/이성재)' 선정됐다. 이밖에 준공건축물 부문에서 은상 2점, 동상 4점, 장려상 3점이 선정됐고, 야간경관조명 부문에서 은상 1점, 동상 2점, 장려상 2점이 선정됐다. 시상은 오는 5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시립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전시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시립박물관에서 한다.

▷ 준공건축물부문

(42건중 10건 입상)

- 금상
- 종로타워/삼우설계(박승, 김창수)
- 은상
- LG강남타워아트센터/창조건축(김홍철)
- 서울특별시어린이집/힘마건축(서혜림)
- 동상
- 한빛은행본점/선진엔지니어링(김병년)
- 고려대학교국제관/무영건축(안길원, 원성재)
- 동아일보미디어센터/희림건축(이영희)
- 한남동다가구주택/삼우설계(김창수, 박승)



금상/종로타워



은상/LG 강남타워



은상/서울특별시어린이집

- 장려상
 - 종합무역투자정보연구센터/무영건축(안길원)
 - 데이콤빌딩/한울건축(이성관)
 - 국민대학교국제교육관/일건씨앤씨건축(최관영, 정동명)
- ▷ 야간경관조명부문 (12건 중 6건 입상)
 - 금상
 - 서울역사/(주)알토(이성재)
 - 은상
 - 종로타워/(주)에너켄
 - 동상
 - 한국중공업/(주)주원(장재만)
 - 현대백화점본점/나남전기(주)(이종일)
 - 장려상
 - 동아미디어센터/(주)케이피조명(김상도)
 - 동심자각/(주)알토(이성재)

21세기 건설생존 대토론회

3월 28일 르네상스호텔에서



21세기 건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키 위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장영수)가 주최한 건설산업생존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3월 28일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에서 학계, 연구계, 업계 인사 등 7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건설산업은 왜 위기에 처해 있는가', '건설기술 경쟁정책이 존재하는가',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 4개 부문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경래 교수는 '건설산업은 제값을 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발주기관의 확실적인 발주방식, 무계획한 사업예산산정, 권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계약금액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정부가 정의하는 시장경쟁을 통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구축돼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이제 PQ적격심사의 낙찰률 85%가 제값이나, 88%가 제값이나 하는 소비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경쟁력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고 지나친 가격경쟁을 피하며 이들에게 제값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이재우 교수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도외시한 채 제제강도만 높여온 건설정책은 처벌지상주의를 야기했으며, 인프라의 실패를 보정하기에는 취약한 제도, 기존업자에 포획된 건설업법 체계 등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지명입찰, 기술입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간 M&A나 제휴, 공동도급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건설지원업의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음성직 중앙일보 수석전문위원이 '건설산업은 왜 위기에 처해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이규재 대림산업 전무는 '건설기술 경쟁정책이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제3회 건축백일장2000

5월 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에서 유일하게 시민이 참여하는 건축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건축백일장>이 오는 5월 7일(일) 오후 1시부터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극장에서 개최된다. <건축백일장 2000>은 인천광역시와 후원하고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및 월간 건축인 poar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가족단위로 참가하여 살고 싶은 집, 갖고 싶은 집을 상상하여 제안하는 '글쓰기+그리기+만들기'의 경연대회다. 참가를 원하는 인천시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의 누구라도 1팀당 2인 이상 5인 이하(가족단위 또는 친구들)로 팀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선착순 등록(100팀 한정)하면 되는데 참가비는 없다.

건축백일장 본 행사가 끝나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어지는 뒷풀이 공연은 휴일 온가족이 체험한 건축이벤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부상으로도 1등 장원팀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비롯, 총 30여팀에게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강석원, 김석철, 김종성 고려대 건축공학과 객원교수로

올해 신학기부터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는 서울건축의 김종성씨, 구룡가건축의 강석원씨, 아키텍처의 김석철씨를 객

원교수로 초빙, 2000학년도 신학기부터 강의를 하게 됐다.

제9기「목조건축 설계기술교실」수강생모집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목조건축디자인센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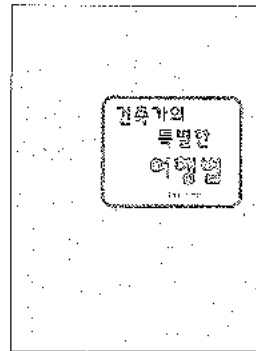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목조건축 디자인센터에서는 제9기「목조건축 설계 기술교실」수강생을 모집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국민대학교 강남 교육관에서 있을 이번 교실은 각 대학 건축과 교수 및 강사, 건축사, 주택시 공회사 대표, 주택관리업체 종사자, 주택재료 및 인테리어업체 종사자, 또는 자기 집을 짓기 위해 설계 및 기술이해 경험을 쌓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참여 할 수 있다. 개강일은 오는 5월 20일 이며,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후2시부터

5시30분까지 한다. 문의 : 02-2006-6212

신간안내

건축가의 특별한 여행법



인간이 숨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의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건축가의 편견은 무엇인지, 좀 더 인간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을 사회화시키는 방법과 문화로써 건축이 이해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시스템에 대한 견해들을 여러나라에서의 '건축여행' 체험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도시의 성격을 나타내고 이미 도시 자체를 상징하는 건축물, 도시와 문화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이야기가 있고, 걷고 싶은 거리와 머무르면 즐거운 공간, 삶과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얘기한다. 이 책은 건축을 중심으로 여행을 하면서 느낀 도시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서양의 도시와 건축을 여행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역사이기도 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도 숨어 있다. 도시나 건축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우리의 축적된 시간이나 환경을 더 파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 안타까움과 우리 도시에 대한 애정은 다른나라 사람들의 도시와 건축을 빚대어 이야기하고 있다.

홍성웅지음/324쪽/1만6천원/도서출판 발언 발행(02-929-3546)

한성엔지니어링, 회전문 윈스타

회전문 국산화 선도 기업인 (주)한성엔지니어링(대표 한현호)이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이 겸비된 회전문 Wingstar Revolving Door로 수입품이 대부분이던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십여 년 동안 최상의 전문인력으로 단일품목인 회전문만을 생산해 온 (주)한성엔지니어링은 수입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전문을 국산화 하는데 성공한 기업이다.

회전문은 대형건물에서 품격있는 주현관을 위해 그 기능성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감각을 함께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주)한성엔지니어링의 주력모델인 Wingstar Revolving Door는 완전 일체형으로서 회전문 캐노피(Canopy)

의 대형화 및 곡선미가 어우러져 볼륨감과 함께 미려한 디자인을 갖춘 주현관을 형성할 수 있다. 또 라운드에 의한 4면 S자형 타입의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순간적인 풍압에도 원활한 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별도의 기계적인 조작 없이도 손쉽게 도어를 겹친 후 중심축을 한쪽 끝으로 이동시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차량도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공간이 확대된다. 윈스타 자동회전문은 유사시 수동 전환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아무런 조작 없이 바로 수동으로 전환되어 출입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회전 속도조절도 가능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출입시

신자재

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주)한성엔지니어링의 대표 한현호는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많은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당당히 회전문의 수입대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주)한성엔지니어링은 회전문 업계 최초로 I.S.O.9002 품질 인증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주)한성엔지니어링의 윈스타 회전문은 인체공학적 설계와 고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엄격한 건축 조건을 만족시키는 섬세한 공법으로 제작되어 건축물 및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 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0341-986-7220)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대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세워질 ‘천년의 문’ 설계경기 결과가 발표되었고, 당선작에 대한 표절시비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시시비비에 대하여 주관처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며 포아비평가포럼(의장 이종건)은 ‘천년의 문’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문의: 포아비평가포럼(02-2637-3890)

문제제기

정부가 ‘새천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여령)를 앞세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년의 문’ 프로젝트가 국민적 관심을 기반으로 궤조의 출발을 하는 듯 보인다. 이미 그 첫 번째 문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어 지난 2월 19일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비용의 상당액을 추렴하겠다는 이 거대한 인공구조물이 정작 국민 대다수의 관심권 안에서 설득력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우리 포아비평가포럼(의장 이종건)은 ‘천년의 문’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기발한 착상의 배면에 도사리고 있는 침소봉대의 현실인식을 근간으로 이 프로젝트의 무모함을 우려하며 차체에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는 국민적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천년의 문’은 20세기말 문화관광부와 서울특별시의 급조된 기념조형물과 ‘평화의 탑’ 건립계획의 중복과 그로 인한 낭비요인을 국가 차원에서 흡수 통합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제안된 것으로 앞서의 두 경우 모두 그 발상의 당위를 논의하기 이전 단계에서 부랴부랴 이루어진 전형적인 관치주의적 프로젝트로 그것이 실로 21세기를 맞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것이었는가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따라야 한다.

2. ‘천년의 문’ 건립부지인 난지도는 새천년준비위원회가 인식하고 있듯이 ‘쓰레기 매립지로 지반이 약해, 탑처

럼 높은 건물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계속 지반을 다져가면서(20-30년간) 건립해야한다는 부지의 현실적 상황을 무시하고 ‘문’이란 명호가 무색할 정도의 거대한 구조물(당선작 구조물의 높이가 200미터 초과)을 그 자리에 건립하겠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의 성립이 전체주의와 물신주의에 몰두어 있는 우리 사회의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의 입계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무모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민의 성금을 근간으로 하는 ‘천년의 문’은 그것의 존재가 ‘세계의 중심’을 의미짓는 것이며, ‘세계로 평화를 보내는 정보의 발신처가 된다’는 문학적 수사와 환상으로 국민 다수를 더 이상 현혹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21세기의 세계지도는 특정한 오브제를 통하여 중심이동이 되는 단순 극의 세계가 아니라 이미 정보의 발신과 수신이 자유로운 다극으로 전환되어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오늘의 인식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발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더 이상 ‘국민적’ 운운 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거두어져야 한다.

4. 안타깝게도 힘들여 뿔아놓은 당선작이(우대성+이은석 외 공동작) 표절 시비에 휘말려 건축과 문화계에 비웃음을 사고 있는 오늘의 정황을 놓고 보면 대 이는 ‘천년의 문’이란 테마의 설정 자체가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창의 정신을 기반으로 출현했다기보다는

20세기말 새로운 세기와 새천년의 개막을 자국의 신자본증식적 문화공간으로 설정하여 조성하고 있는 타국의 선례를 무비판적으로 뒤쫓아가는 주체성 결여의 연장선상에서 구상될 때부터 이미 그 원초적 표절의 혐의를 배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에 우리는 당선작의 표절시비가 전문가 사회의 정확한 판단의 경로를 통해 사회 일반에 공개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시비의 결과가 당선작가 또는 심사위원회를 포함한 새천년 준비위원회의 과실로 판명된다면 이들의 책임있는 퇴진을 요구한다.

5. 우리 정부와 국민이 IMF의 사슬에서 여전히 자유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을 놓고보건대 국민성금을 포함한 300억원대의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구상은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우리의 주변에는 최저생계비조차 벌기가 막막한 빈민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구호비에 나랏돈이 쓰여지고 국민의 땀자돈이 모아져야 할 것이며, 또한 거대 구조물을 통한 ‘21세기형 다목적 복합조형물’이라고 하는 미래의 문화장치에 강제된 도시경험에 앞서 난지도라고 하는 재생의 땅이 진실로 재생의 경로를 찾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땅의 프로그램을 통한 생태계의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는 친환경 경험의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천년의 문’ 프로젝트는 전면 재고, 파기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평택 성결교회

The Holiness Church in Pyungtaek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평택교회는 교회 창립 80주년이 되는 2000년에 교회 역사중 제3성전에 해당하는 기념교회당을 신축하기 위한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설계지침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시킨 교회건물의 구현 및 제시에 있었다. 평택교회측은 절대자를 만나는 공간을 요구했다. 즉 대예배실과 기도실, 성가대실, 세미나실, 공부방뿐 아니라 체육 시설과 전원적인 조경, 그리고 선교의 의지를 담은 조형물을 포함시켜 친밀한 접근으로 섬티나 공원같은 휴식공간으로서의 열린 교회를 현상공모했다. 이번 설계경기의 심사는 민병호(아주대 건축공학과 학과장), 정무웅(단국대 건축공학과), 이차돈(중앙대 건축공학과 학과장), 민창기(평택대학교)와 서관석(성림건축) 씨가 맡았으며, 공모 결과 예조 종합건축사무소(주영정)안이 당선됐다.

▶ 당선작 / 예조종합건축(주영정)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비전2동 301-27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4,628.12㎡ (1,400.01평)
건축면적	923.91㎡(279.48평)
연면적	3,309.20㎡ (1,001.03평)
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 철골 트러스
주요외장	지상벽돌, 노출콘크리트, 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강현인, 이주현, 권성욱

〈평택성결교회 기념교회당〉 계획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엄숙함과 다가 올 21세기의 열린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회의 위치는 평택시 비전동 일대로 대지 남측으로는 아파트군이 형성되어 있다. 대지는 나대지 형태로 일정한 모양이 아닌 방사선 형태로 대지내 3.5~5m 정도의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어 자연지형을 고려한 배치축을 설정하고, 일반교회가 갖는 정방형의 매스를 피해 주변지역으로 개방된 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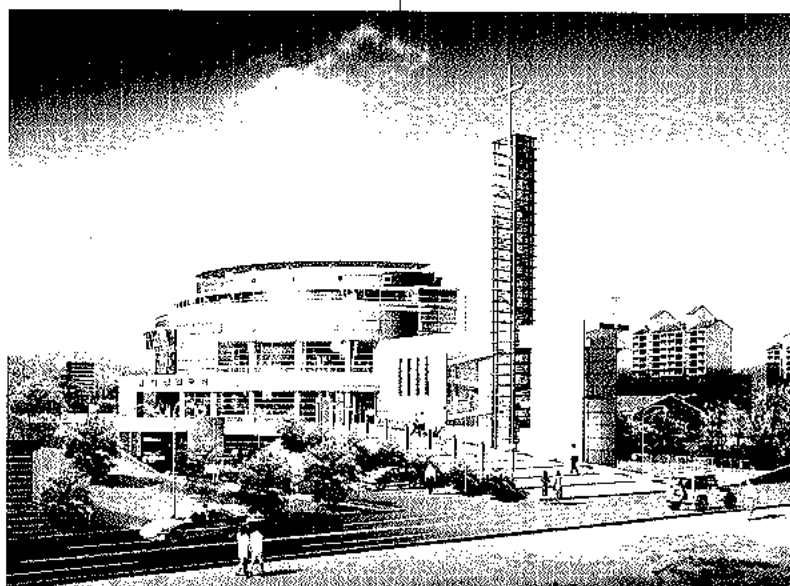
형 매스를 채택했다.

배치계획은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능의 명확한 분리와 종교시설로서의 영역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을 포함한 배치로 계획하고, 지형의 단면 차이를 극복하면서 이를 최대한 이용했다.

외부공간은 신도들의 영적인 교류 및 친교의 공간으로 중앙광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소망의 광장'과 진입광장으로서의 '믿음의 광장',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야외 예배당인 '사랑의 광장'을 중심으로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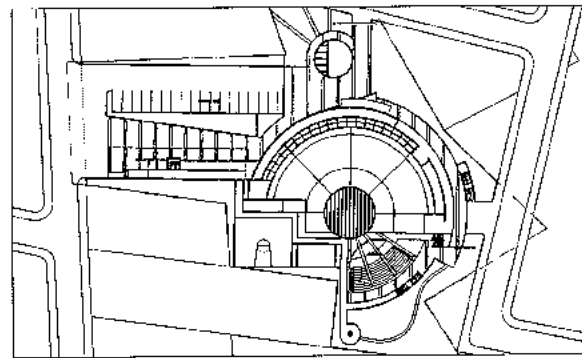
평면계획은 주변으로 개방된 형태인 원통형 매스를 내부로 끌어들여 이에 따른 각 평면의 기능을 설정하고, 지하 1층은 친교·기도의 공간으로, 지상 1층은 교육·봉사의 공간으로, 지상 2층은 예배의 공간으로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 동선의 중첩을 배제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각 실들을 배치하고 토공사량을 최소화했으며, 지하층의 실들은 실제로 외기에 면하여 개방감 및 일조, 환기에 유리하도록 계획했다.

입면계획은 교회로서의 인지가 가능한 입면 및 상징성을 내포하고 주변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장소성과 조형성을 고려해 원초적인 기하학적 도형을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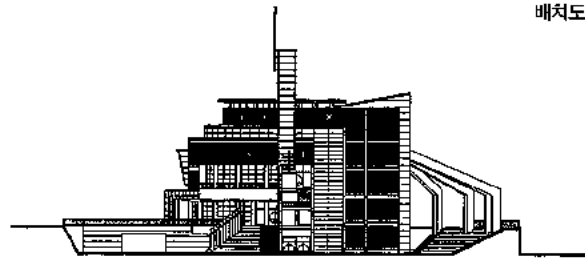


투시도

면구성요소로 삼아 조화와 균형 및 사대를 초월하는 입면으로 구성했다. 자칫 원통형 매스의 단조롭고 육중한 형태를 고려했다. 조적 및 석재의 친근한 재료와 노출콘크리트 및 컬러유리, 알루미늄시트를 사용해 매스와 재료의 대비를 통해 단순성과 변화를 주고, 수평루버를 이용해 수평적인 요소 및 안정감 있는 입면을 구성했다. 또한 주출입구 부분에 노출콘크리트 벽면을 구성해 진입 보행 동선에 따라 경건하고 장중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배치도



입면도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Rest Area of Meeting Plaza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현재 경부선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의 협소한 휴게여건을 개선하고 경부선의 상징이 되는 휴게소를 만들 목적으로 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2월 14일 9개 작품 중 가와건축(안)(최삼영)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우수작은 종합건축가람(전태식)의 안이 선정되었다. 이번 심사는 임채진(홍익대), 정광섭(서울산업대), 김용수(중앙대) 교수와 배성준, 조서연, 나경택, 백낙용(도로공사) 씨가 맡았다.

▶ 당선작 / 가와건축(최삼영)

■ 장소

타 휴게소보다 면적이 매우 협소한 경부고속도로의 첫 휴게소다. 오래되어 낡고 사용이 불편한 기존의 휴게소를 철거하고 기존휴게소 뒷편에 새로운 휴게소를 계획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먼길을 떠날 채비도 하고, 여럿이 만나 함께 출발하기도 하는 이곳은 타 고속도로 휴게소와는 의미가 조금 다른 상징적인 곳이다.

■ 기존

기존의 휴게소가 차량과 사람이 잠시 쉬어 가는 공간이라면, 본 계획에서는 만남의 광장이 고속도로 이용자 외에도 주변사람들의 만남을 위한 상징적 공간으로 질 높은 식사와 휴게,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길 의도한다. 휴게소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휴게소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건물

건물은 대지의 뒷쪽으로 밀어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며, 두 개의 매스로

나뉘어진 본동과 화장실동 사이로 낮은 산이 배경으로 들어와 좁은 대지를 시각적으로 확장시킨다. 주차공간과 휴게소 사이에 가벽을 세워 켜를 형성하여 깊이 있는 접근을 의도했다. 본동 매스와 화장실매스 사이에 대기와 휴식을 위한 OPEN SPACE를 두어 두 매스의 물리적 분리를 기능으로 연결시켰다.

■ 조형계획

주변이 도시란 점이 고려되어 단순한 매스의 도시적 감각의 조형을 의도하였다. 속도와 안전을 입면의 수평성으로 주장하며 뜬지붕은 경쾌한 날개가 되어 두 매스 간을 시각적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휴식공간의 지붕역할도 해 준다. 야간에는 뜬지붕과 기둥에 조명을 비추어 원거리 인지도를 향상시키며 뜬지붕의 유영(流泳)성이 한층 돋보여 신비로운 야간 조형을 연출한다. 휴게소 건물의 화장실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공간연출을 위해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며 창을 통해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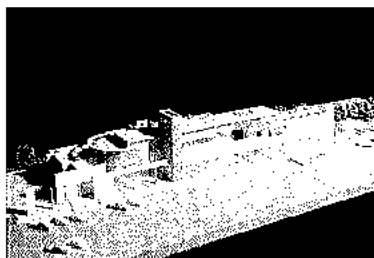
장식만을 위한 화단을 마련했다. 높은 층고와 넓은 창은 유쾌한 확장실 공간을 만든다.

■ 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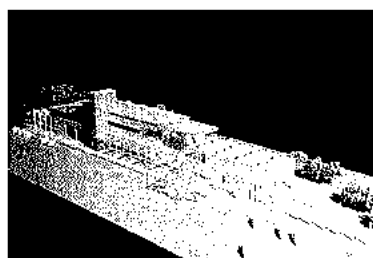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친숙한 환경을 제공한다. 분수(WATER SCREEN)를 통해 원경을 조망하며 인지도 높은 조경 계획으로 만남과 휴식의 LAND MARK가 되길 기대한다. 건물후면 도로와 휴게소 사이에 차폐 및 방음 식재를 계획한다.

■ 재료와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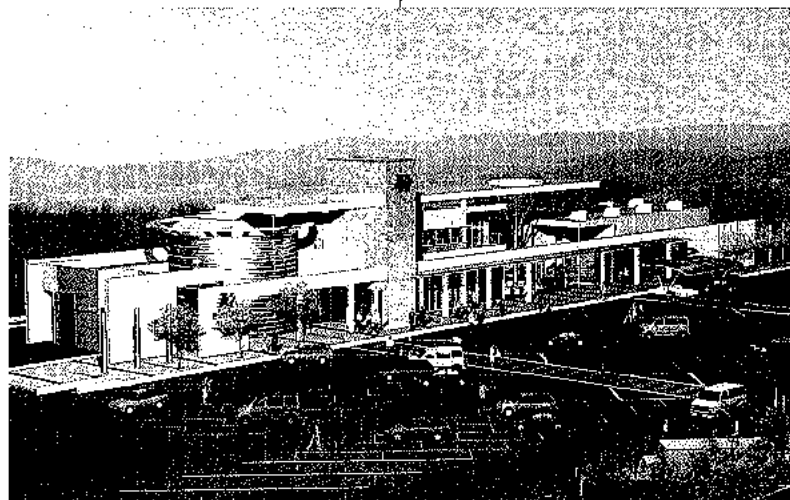
본건물 외부 이미지는 신뢰와 안전을 디자인 요소로 적용하여 금속성 신소재인 알루미늄 하니콕(OPEN JOINT)과 투명유리를 수평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건물일부와 가벽은 천절, 천밀, 자연스러움이 디자인 요소로 적용되어 목재 사이딩을 사용한다. 전체 이미지는 금속성 온빛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외부 가벽은 자연스럽고 친근한 목재의 컬러와 질감으로 감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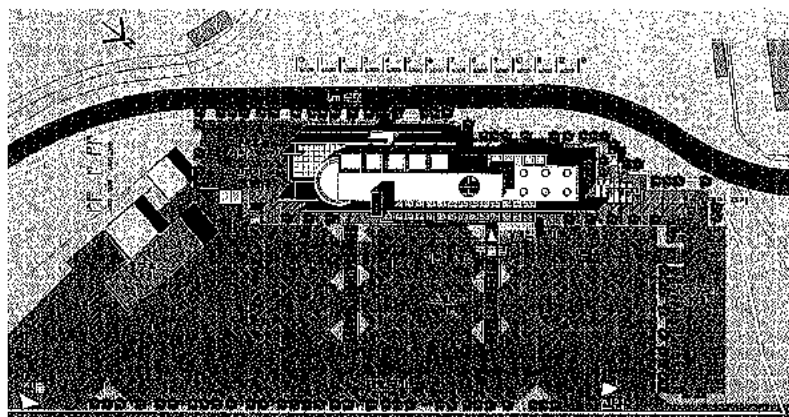
모형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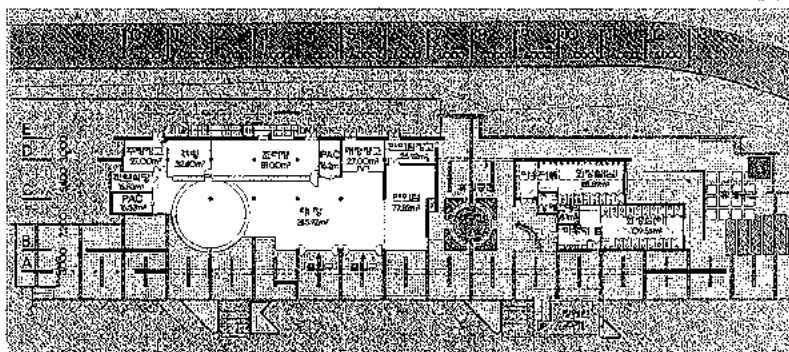
모형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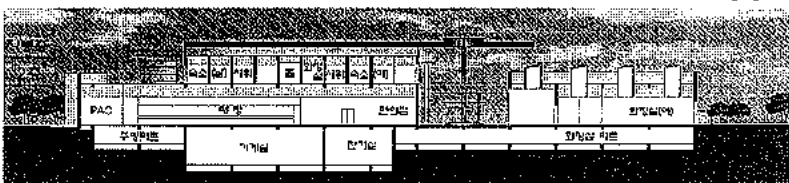
조감도



배치도



1층 평면도



형단면도



화장실 내부투시도
천창과 대형창호로 환기와 채광의 적극적인 연출
내부 프라이버시를 위한 장치인 유리블럭과
대형창 사이의 조경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실내
분위기 조성



중정과 뜰
매장과 화장실 사이의 쾌적한 옥외대기 및
휴식공간 제공
중정 - 전후면을 관통하여 대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시각적 확장유도
뜰 - 아간 / 하부에서 비추어 반사되는
조명으로 신비로운 조형 창출

김재경사진전 「mute」

일시 / 4월12일~22일

장소 / 인데코화랑(서울 인사동)

김재경

- 1958 충남 광천 출생
- 1981~89 현상소(수동기사)
- 1983 동국대 전산원 수학
- 1990~92 플러스 문화사(사진기자)
- 개인전
 - 1994 삼성 포토 갤러리 '건축사진'
 - 1998 인데코 화랑 '자연과 건축'
 - 2000 인데코 화랑 'mute'
- 그룹전
 - 1995 삼성 포토 갤러리 '건축사진'
 - 1998 동아 갤러리 '명, 집, 공간'
 - 1998 hereford art gallery 'nature and architecture', herefordshire photo festival 1998 England
 - 1999 중구문화원 '도시와 건축'
- 사진집
 - 1998 김재경 사진 '자연과 건축', 출판기획 그림
 - 2000 김재경 사진 'mute', 출판기획 그림
- 출판협력
 - 1996 '아남규 유리화집', 분도 출판사
 - 1999 '김영섭 건축작품집', 나남 출판사



김동동

나는 김재경의 사진을 잘 알지 못한다. 아니 그 보다 사진가 김재경을 잘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알맞을 것이다. 면식을 가진 지야 그리 짧지 않지만 작업을 같이 한 경우도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 더불어 함께 보낸 시간도 별로 기억에 남을 정도가 아니므로 실제로 그의 살아온 흔적이나 배경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적다는 표현이다. 실제 그랬다. 그와 만나 나는 이야기라고 해야 사진전에 참가한다거나 책을 만들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그가 몇 년 전 전시회를 열고 펴낸 '자연과 건축'이라는 아름다운 사진집에 수록된 사진에서 옛건축과 그것을 둘러싸거나 그것에 둘러싸인 외부공간의 느낌이 매우 시적이며 풍요롭다고 생각하였고, 그 책의 말미에 기재된 몇 줄의 개인적인 기록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런데 몇 달 전 그가 찾아와 한 묶음의 흑백 프린트를 내밀고 전시와 책을 출판할 것이라 했다. 이번에는 서울의 여러 달동네의 골목 풍경을 담은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진은 한남동과 옥수동, 삼선동과 하월곡동, 봉천동



하월곡동

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촬영된 것이었다. 개인적으로나 작업에서나 특별한 어려움이 없던 그의 마음과 생각을 몇 장의 사진으로 읽어보는 것도 오히려 선입관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가 왜 내게 굳이 책에 실을 글을 부탁했는지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가 건네준 사진을 처음 본 순간 에게해에 떠있는 산토리니 섬의 하얀 벽과 꾸불꾸불 꺾여서 가파른 산등성이로 오르는 길이 떠올랐다. 그 섬은 여름 한낮의 찌는 태양속에서 지중해의 푸른 물과 하늘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오래 전부터 나와 내 주변의 동료 건축가들을 매료시켰던 책이 있었다. 마이런 골드핑거가 지중해 주변의 마을과 섬들의 풍경을 담은 '빌리지 인 더 선 village in the sun'이라는 사진집이다. 더구나 건축가 루이스 칸이 의미 있는 서문을 썼다. 이책은 오랫동안 우리를 감동시켰고, 사랑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 책의 주인공들을 찾아 나서게 만들었다. 그래서 산토리니 섬으로 여행하였고 이번 여름에는 모로코의 흙 집 마을을 찾았다. 골드핑거의 눈으로 포착된 낮선 풍경은 현대 서구 건축의 원형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잊으려 했던 전통적인 공간에 더 가까웠다. 일찍이 그는 지중해 도시와 마을에서 '건축가 없이' 만들어 낸 인간의 지혜와 삶이 만들어 낸 순수한 공간을 발견해 낸 것이다. 건축가들



삼선동



하월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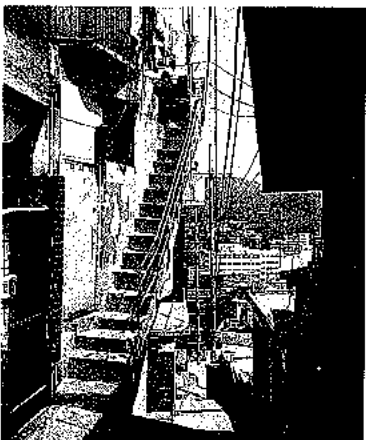
이 아직도 산동네, 달동네를 서성거리며 잊혀져 가는 공간의 본질을, 그보다도 사람이 모여 사는 장소의 자연스러움을 찾는 것도 그 때문이라. 김재경이 응시하는 골목에는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지형의 문제로 가파른 계단이 자리잡고 있다. 그 계단은 좁은 골목의 뚫려진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빛으로 미묘한 리듬을 이루고 위로 쏠아 지면서 사라져 간다. 투박한 돌이나 거칠게 비빈 시멘트와 물로 빛은 경사진 바닥에서 띠 모양의 빛의 변화가 드러난다. 달동네의 담은 따로 있는 경계가 아니라 집체의 벽이다. 지난달 찾아갔던 모로코의 페즈가 그랬다. 인구 20만이 모여 산다는 페즈 알 바리(올드 타운)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전혀 길이나 광장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져 있다. '세계 최대의 미로'라는 수식어는 전혀 과장이 아니다. 현지인조차도 자기동네 밖에서는 길을 잃는다는 페즈는 끝없이 이어지듯 하다가도 막혀버리고 좁은 길에 빛과 어둠이 교차한다. 비슷비슷한 표정의 벽은 경계가 없이 연속되고 때로는 골목을 건너 다른 집의 상부로 얹혀있다. 수평과 수직으로 페즈는 한 덩어리다. 페즈의 미로

는 죽음과 삶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간지스 강가의 바라나시와도 달랐다. 그에 비하면 서울의 달동네는 오히려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산 마을에 가깝다. 길은 좁고 지형을 따라 변화하지만 미로의 느낌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얹힌 길이요, 길 마당이다. 집으로 구획된 공간의 나머지가 아니라 안과 밖을 엮는 공간 장치요, 내부의 삶이 바깥으로 새어 나와 광명하는 장치다. 김재경이 포착한 빛이나 물체는 이 울림을 응시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의 사진 프레임 안의 공간은 비어있다. 너무 조용하다. 오직 계단이나 그저 무심한 담 속의 개구부, 빨래뿐이다. 그러나 수많은 이야기와 삶의 미묘한 흔적이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천만이 넘는 거대도시의 한 부분을 지키고 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을 간직하면서, 그래서 주재인 'mute'는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김재경이 '1999년의 서울'에서 응시한 것은 바로 이 소리 없는 움직임과 흔적이리라. 그래서 오늘도 그는 무거운 카메라를 메고 산 언덕길을 오르고 계단이 있는 좁은 골목을 서성대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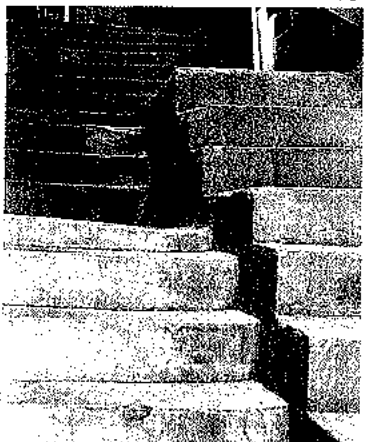
(조성룡/건축가)



하월곡동



한남동



목수동



하월곡동



봉천3동



목수동

설계도시신고현황

2000년도 2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2월분(99.2) 2백5십2만1천7백73㎡ 보다 54.2%(1백3십6만7천9백81㎡) 증가한 3백8십8만9천7백54㎡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2월 누계 4백3십9만7백85㎡ 보다 135.4%(5백9십4만3천3백17㎡) 증가한 1천3십3만4천1백2㎡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2월분(00.1) 6백4십4만4천3백48㎡ 보다 39.6%(2백5십5만4천5백94㎡) 감소한 3백8십8만9천7백54㎡의 실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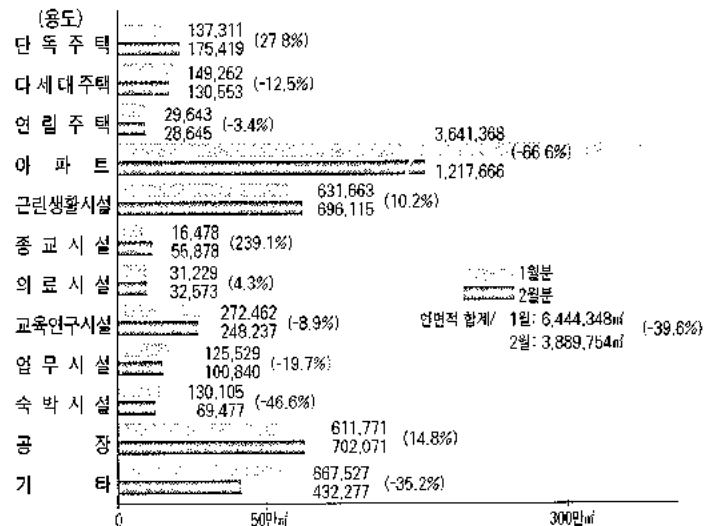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부 산	80,307	154,834	74,527	92.8
대 구	48,029	130,095	82,066	170.9
인 천	20,884	196,516	175,632	841.0
대 전	28,765	200,649	171,884	597.5
울 산	37,146	58,182	21,036	56.6
경 기	361,860	916,729	554,869	153.3
강 원	14,342	32,390	18,048	125.8
충 북	57,271	98,506	41,235	72.0
충 남	51,122	116,041	64,919	127.0
전 북	45,691	76,841	31,150	68.2
전 남	35,255	183,002	147,747	419.1
경 남	174,019	301,843	127,824	73.5
제 주	17,126	23,845	6,719	39.2
감소지역				
서 울	1,280,585	1,263,123	(17,462)	-1.4
광 주	55,539	52,591	(2,948)	-5.3
경 북	213,832	84,567	(129,265)	-60.5
합 계	2,521,773	3,889,754	1,367,981	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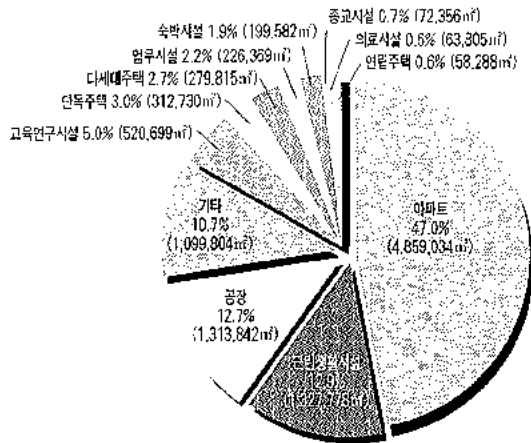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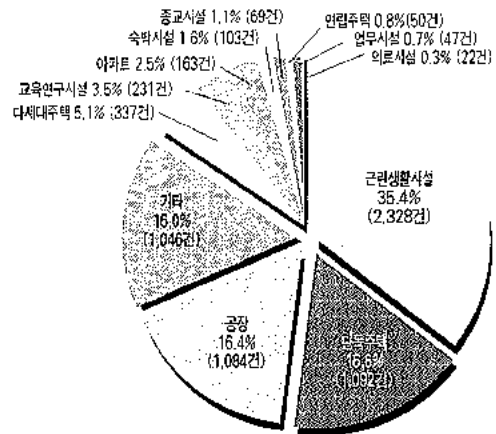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도 2월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273	301	61,830	600	626	175,419	327	325	113,589	183.7	
다세대주택	28	28	14,307	177	186	130,553	149	158	116,246	812.5	
연립주택	12	15	25,443	28	28	28,645	16	13	3,202	12.6	
아파트	24	46	1,134,227	63	131	1,217,666	39	85	83,439	7.4	
근린생활시설	821	858	310,516	1,239	1,272	696,115	418	414	385,599	124.2	
종교시설	48	55	42,827	37	42	55,878	(11)	(13)	13,251	31.1	
의료시설	10	13	22,984	10	10	32,576	0	(3)	9,592	41.7	
교육연구시설	58	71	136,509	95	100	248,237	37	29	111,728	81.8	
업무시설	20	20	27,207	22	27	100,840	2	7	73,633	270.6	
숙박시설	14	15	9,624	58	59	69,477	44	44	59,853	621.9	
공장	195	274	172,199	535	684	702,071	340	410	529,872	307.7	
기타	273	313	564,300	461	557	432,277	188	244	(132,023)	-23.4	
합 계	1,776	2,009	2,521,773	3,325	3,722	3,889,754	1,549	1,713	1,367,981	54.2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 (2000년 2월 누계분)



연면적 (총 10,334,102㎡)



건수 (총 6,572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 2월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67	167	1,280,585	323	323	1,263,123	156	156	(17,462)	-1.4	
부산	54	96	80,307	61	145	154,834	7	49	74,527	92.8	
대구	79	79	48,029	103	103	130,095	24	24	82,066	170.9	
인천	44	44	20,884	152	152	196,516	108	108	175,632	841.0	
광주	83	99	55,539	97	136	52,591	14	37	(2,948)	-5.3	
대전	44	44	28,765	163	163	200,649	119	119	171,884	597.5	
울산	49	52	37,146	51	50	58,182	2	(2)	21,036	56.6	
경기	360	435	361,860	1,061	1,205	916,729	701	770	554,869	153.3	
강원	61	64	14,342	91	100	32,390	30	36	18,048	125.8	
충북	127	150	57,271	179	201	98,506	52	51	41,235	72.0	
충남	113	113	51,122	214	214	116,041	101	101	64,919	127.0	
전북	128	128	45,691	101	101	76,841	(27)	(27)	31,150	68.2	
전남	95	97	35,255	185	189	183,002	90	92	147,747	419.1	
경북	133	170	213,832	159	187	84,567	26	17	(129,265)	-60.5	
경남	181	213	174,019	322	385	301,843	141	172	127,824	73.5	
제주	58	58	17,126	63	68	23,845	5	10	6,719	39.2	
합계	1,776	2,009	2,521,773	3,325	3,722	3,889,754	1,549	1,713	1,367,981	54.2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 (2000년 2월 누계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416	418	2,079,656	770	770	3,871,430	354	352	1,791,774	86.2	
부산	106	181	137,300	203	371	368,120	97	190	230,820	168.1	
대구	152	152	153,478	346	346	446,997	194	194	293,519	191.2	
인천	140	140	86,516	255	255	334,998	115	115	248,482	287.2	
광주	189	224	121,131	197	257	125,424	8	33	4,293	3.5	
대전	79	79	43,231	234	234	254,278	155	155	211,047	488.2	
울산	90	94	53,171	117	116	89,998	27	22	36,827	69.3	
경기	791	947	646,821	2,045	2,696	2,973,059	1,254	1,749	2,326,238	359.6	
강원	231	241	77,570	182	198	64,773	(49)	(43)	(12,797)	-16.5	
충북	237	271	98,484	291	384	442,225	54	113	343,741	349.0	
충남	207	207	90,183	307	307	172,887	100	100	82,704	91.7	
전북	173	173	104,930	185	185	155,588	12	12	50,658	48.3	
전남	262	266	126,095	339	344	258,497	77	78	132,402	105.0	
경북	284	346	314,093	338	410	182,624	54	64	(131,468)	-41.9	
경남	320	367	229,508	636	840	544,832	316	473	315,324	137.4	
제주	108	110	28,618	127	141	48,372	19	31	19,754	69.0	
합계	3,785	4,216	4,390,785	6,572	7,854	10,334,102	2,787	3,638	5,943,317	135.4	()=마이너스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2월)

(2000. 2. 29 현재)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월말 회원수	7,406	2,878	694	538	224	244	272	150	881	183	198	180	201	107	259	322	75
급 별	정회 2급 정회 2급 정회 2급 정회 2급 정회 2급 정회 2급 정회 2급 정회 2급 정회 2급 정회 2급 정회 2급 정회 2급																
회 원 수	7,300	2,834	693	538	224	244	271	150	878	183	197	176	200	106	259	322	75
회 원 변 동 사 항																	
인 회	9	0	28	1	3	4	7	1	1	15	1	5	4	1	5	3	4
재 입 회	8	0	4						2				1			1	
전 입	11	0	4	1			2		4								
점 출	-11	0	-3						-5		-1	-2					
폐 업	-23	0	-7	-1	-1		-1		-6			-1	-2		-1	-3	
사 망	-2	0		-1									-1				
등록취소	0	0															
금월말 회원수	7,409	2,900	693	540	228	251	273	151	888	184	201	177	209	111	261	324	78
계	7,485	2,904	694	540	228	251	274	151	891	184	202	181	210	112	261	324	78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건축사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축사	7,469	2,900	693	540	228	251	273	151	888	184	201	177	209	111	261	324	78
회 원																	
2급	16	4	1	0	0	0	1	0	3	0	1	4	1	1	0	0	0
계	7,485	2,904	694	540	228	251	274	151	891	184	202	181	210	112	261	324	78
비율(%)	100.0	38.8	9.3	7.2	3.0	3.4	3.7	2.0	11.9	2.5	2.7	2.4	2.8	1.5	3.5	4.3	1.0
준회원	24	14	7	0	0	0	0	0	0	0	1	0	0	0	2	0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형태별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공역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079	2,389	17	7,485	
비율	67.9%	31.9%	0.2%	100.0%	
사무소수	4,572	1,532	15	6,119	
비율	74.7%	25.0%	0.2%	100.0%	